현대불교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5월 23일(음력 4월 7일) 수요일 (주간)



오늘은
우리가 부처임을 깨치는 날입니다.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부처님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임을 깨쳐
덩실덩실 춤추는 날입니다.
고운 연등 밝히는 날입니다.
깨침과 나눔의 빛이 온 세상 장엄하는 날입니다.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이 세상 부처 아닌 것 아무것도 없는
오늘은 찬탄하는 날입니다.
온 중생이 부처로 다시 눈 뜨는 날입니다.
일체중생의 생일날 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당신의 길에도 함께 가는 동행이 있습니까?
파릇파릇 넘실대는 보리싹 남도길에서도
벚꽃잎 흐드러진 양수리 6번 국도에서도
당신의 안전을 위한 모비스의 법칙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현대모비스
HYUNDAI
MOBIS
Inside your car
www.mobis.co.kr

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5월 23일(음력 4월 7일) 수요일 (주간) 제 629 호 A3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 받들듯 하자

박성배 교수가 띄우는 '항상 밝은 삶'의 지혜… '나의 발견'이 부처님 오신 순간

내가 사는 뉴욕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다. 특히 맨하탄(Manhattan)은 어찌나 붐비는지 발 들여 놓을 틈도 없다. '맨하탄에 없으면 아무 데도 없다'는 이곳 속담처럼 '없는 것이 없는 곳'이 맨하탄이다. 많은 사람들이 맨하탄에서 일하고 맨하탄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 맨하탄에 한번 이변이 생겼다. 일대 정전(停電)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불야성을 자랑하던 맨하탄에 전기가 나가자, 천지는 일시에 암흑으로 변했고, 맨하탄은 무법천지가 되었다. 어두운 밤이면 날뛰는 도깨비귀신 같은 범죄자들이 각종의 범죄를 자행했다. 범죄자들은 남의 눈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경찰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다가 불이 들어왔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범죄자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지만….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하탄에 불나가듯 캄캄해질 때가 있다. 무엇을 두고 잘났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람들은 무법천지의 어둠속에서 홀로 신음할 때가 많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어둠의 근원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에 비유한다. 태양이 떠오르자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 해는 지고 어둠은 다시 찾아온다. 맨하탄에 전기불도 언제 또 나갈지 모른다. 태양은 천지와 더불어 영원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어둠은 또다시 찾아오니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맨하탄의 전기불이든 하늘의 태양이든 모두가 비유다. 우리는 그러한 비유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어야겠다. 전기불과 태양은 '있고, 없고'에 차이가 나지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있고, 없고'에 차별이 나지 않는다. 심지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안 오시고'에도 상관없이 항상 그렇게 밝아있다.

부처님의 밝음과 태양의 불빛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태양은 어둠을 영원히 쫓아내지 못 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밝음은 다르다. 부처님의 밝음에는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단절이 없다. 이 말은 밝음만 있고 어둠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밝든 어둡든 그런 것엔 관계없이 항상 밝다는 말이다.

부처님은 어디에 오셨는가?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다. 2500여년전 인도에서 어린 부처님이 탄생했다. 그 어린이가 산전수전 다 겪고 30이 넘어 크게 깨쳤다. 그러나 부처님의 탄생도 부처님의 깨침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떠나서 그 의미를 찾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 지금 당장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건강하든 병들어 신음하든, 일이 잘 풀리든 말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뚜렷이 밝아있는 부처님의 밝음을 바로 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떠들어도 '도로 아미타불'이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환호하고 찬탄하는 일이 '작심삼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왜 작심삼일 현상이 일어나는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앞과 뒤도 맞지 않게 되어있다. 앞뒤도 안 맞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환호하고 찬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부처님은 그런 사람의 환호와 찬탄을 반기실 리 없다.

문제는 어떻게 겉과 속이 일치하고 앞과 뒤가 일치하게 되느냐에 있다. 그래서 불제자들은 이 좋은 날에 참회를 하고 미래를 다짐하는 발원을 한다. 부처님의 오심은 내가 나를 발견함이다.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이다. 몸이 없으면 천하의 별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마음은 천하방정 가진 짓을 멋대로 다 하지만 몸은 항상 우주적 질서와 함께 있다. '몸의 발견'은 곧 '진정한 나의 발견'이며 또한 '부처님의 발견'이다.

마음의 병 고치지 않으면 죽음 뿐

우리 불교인들은 오랫동안 잘못된 마음 문화에 병들어왔다. 마음 심(心)자 밑에 임금 왕(王)자를 붙여 마음을 '심왕'(心王)이라 부르는 것이 탈선의 발단이다. '사람에게 마음보다 더 중요한 어디 있느냐'고 힐문하면 말문이 막힌다. 마음의 중요성은 누구나 날마다 통절히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 조상들은 '천지'(天地: 하늘과 땅)이라 부르기도 했고, '자연'이니 '우주'니 별별 이름을 다 붙여 그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이 알량하고도 잘난 마음이 자연과 우주와 천지의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탈선을 잘 하기 때문이었으리라. 심왕론(心王論: 마음은 임금이라는 주장)은 한때 설득력이 있었다. 군왕중심의 독제시대가 아닌 오늘날은 대통령 보다는 백성이 더 중요하다. 물론 오늘날도 대통령은 중요하다. 누가 그걸 모를까. 그러나 그의 할 일은 백성을 보살피는 일이다. 백성에게 군림하는 임금이 아니다. 백성의 종노릇을 해야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대통령 노릇을 하려 들면 몸이 망가진다. 몸이 몸 노릇을 제대로 하도록 돕는 일이 마음의 역할이며 밋션(mission)이다. 한 마디로 무심(無心)이어야 한다. 혜능(683-713)의 단경을 다시 읽어 보자. '무심'이 될 때 몸은 가장 편안하다 하지 않던가.

부처님 만나러 가세

부처님 오셨네. 부처님 만나러 가세.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함께 부처님 뵈러 가세. 그런데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내 눈엔 부처님이 보이지 않네. 큰절 법당에 금물칠한 불상을 보고 모두들 부처님이라고 야단이지만 내 눈엔 그가 부처님으로 보이지 않네.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다시 보아도 그건 금물 칠한 불상일 뿐, 내가 만나 뵙고 싶은 부처님은 아니네. 아, 부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도 답답해서 지나가는 어린 동자스님에게 물어 보았다. '부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동자스님 말씀은 '당신이 바로 부처님'이라며 씽긋 웃고 그냥 저리로 가버린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옳았다. 나는 그동안 부처님을 밖에서 찾고 있었다. '내가 바로 부처님이다.' 그리고 진정 내가 부처님이라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부처님이란 말이다. 해야 뜨든 말든, 전기야 나가든 말든 이 진리야 변할 수가 없다.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다. 그러니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모두 부처님으로 받들고 코가 땅에 닿게 큰절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 이 이상의 환희가 또 어디에 있으랴! 부처님, 감사합니다.



박성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부룩대학 불교학과 교수
동국대 철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동국대 불교대 교수로 재직하며 대학생 수도원 설립 지도 교수. 성철스님 문하에서 참선 수행.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공부 후 켈리포니아 주립대에서 박사학위.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교 교수 및 한국학연구소장.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봉축 특집 64면 지면 안내

A

불교, 통섭을 말하다 6-7면
종단 지도자 봉축 법어 14-15면
영화배우 김태연의 '인연 이야기' 13면
선지식을 찾아서 성수 스님 17-18면
월정사 수행학림 현장 18면
문태준 시인 칼럼 '어머니와 시골절' 25면
사하촌 기행 '강화 전등사' 29면

B

좌담, 봉축행사 틀을 바꾸자 2-3면
보원 스님의 출가와 불사 이야기 4면
김준성 이수그룹 회장의 불심과 경영철학 6면
세계 티베트 지원단체 국제회의 현장 7면
문형렬 동화 '1cm 큰스님' 13면
종립학교 이사장들의 청소년 포교 비전 14면
도반의 향기 '김영로씨 부부' 15면
초조대장경 전산화를 통해 보는 고려대장경 16-17면
용하 스님의 티베트 기행 26-27면

혜철 스님과 함께 가는 중국 성지 명승 순례

현대불교신문사와 격린여행사가 주관하는 중국 성지순례를 '선남선녀 인연맺기'를 이끌고 있는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의 안내로 떠납니다. 중국 최고의 명승지 장가계와 남보타사, 천년고찰 개원사, 범천사 등지로 떠나는 성지 명승 순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격린여행사
- **일시:** 6월 1일(금)~6월 6일(수)<5박6일>
- **일정:** 장가계, 원가계, 하문 남보타사, 개원사, 범천사
- **가격:** 84만9천원(비자 수수료 포함)
- **문의:** 격린여행사(02)778-9338/담당 임수연, 안경아

선무도
선체조/선요가/선호흡/선기공/선무술
선무도 전국지원
·경주 총본원 골굴사 및 협회 054)744-1689, 054)742-1605 www.sunmudo.com
·서울 : 종로 02)763-2980
서초 02)581-6521 방배 02)599-5554
송파 02)3431-4889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02)2260-3727
·인천 032)541-6301 일산 031)924-5655
·안산 031)475-2600 춘주 043)285-1732
·대구 053)625-0718 포항 054)275-6069
·울산 052)276-6271 양산 055)382-5074
·부산 :
보림 051)524-1600 정원 051)464-1380
금정 051)515-8323 서면 051)818-0166
국외지원
·U.S.A L.A 213-487-5377
·Canada Toronto 941-656-9642
·Austria Salzburg 06-215-5394
·France Toulouse 05-61-08-1010
(사)세계선무도협회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자비와 나눔'의 불 밝힌 축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한마당…제등행렬 등 봉축열기 가득

5월 20일 서울 조계사 앞거리와 종로 일대는 연화장(蓮華藏) 세계였다.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가 연인원 30여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의 낮과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계사 앞거리에서는 가족과 시민이 참여하는 전통문화의 장 '불교문화마당'이 열렸다. 100여개의 부스에서 외국인 등경연대회, 사찰음식 체험, 태국 · 대만 · 스리랑카 등 불교국가들의 전통공연과 전시, 전래놀이마당 등 다양한 체험과 화려한 볼거리가 선보였다.

오후 4시 30분부터 동대문야구장에서는 흥겨운 화합의 장 '어울림 마당'이 열렸다. 1부 어울림 마당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이제 우리 모두의 위대한 유산! 지혜의 연등을 높이 듭시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 한량이 없고, 너와 나를 가르는 어두운 장막마저 사라지면, 산하대지 삼라만상은 빛으로 가득하고, 우리 모두 화장장엄세계에서 수희 찬탄할 것"이라고 2부 연등법회의 개막을 알렸다.

조계종 총무부장 자승 스님의 〈붓다차리타〉 경전 봉독에 이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공동 발원문을 통해 "우리들은 불살행의 계율과 평화의 이념을 지켜 반전, 평화수호의 실천행을 떨쳐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 돼 우리의 말, 우리의 걸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진리의 향기를 머금게 하소서"라고 기원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또한 "대립과 투쟁에서 화합과 용서로 양극화의 반목에서 나눔과 보살핌으로 남과 북, 동과 서의 분단과 대립에서 통일과 협력으로 무한경쟁에서 무한향상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발원했다.

오후 7시부터는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제등행렬'이 동대문-종로-조계사로 이어졌다. 특히 '서산대사등' '법화경등' '세계일화등' 등 올해 새롭게 선보인 각종 장엄등과 직접 만든 갖가지 오색등이 어두운 세상을 화려하게 밝혔다.

연등축제의 대미는 오후 9시 30분부터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진 '대동한마당'이 장식했다. 마야, 클론, 김현성과 우리나라, 최진숙, 야단법석이 함께하는 연등음악회와 함께 강강술래와 꽃비가 어우러져 대중들이 얼싸안고 세계일화(世界一花)임을 실감했다.

한편 불기 2551년 등 경연대회 우수상에 한마음선원 · 도선사, 특선에 천태종 · 능인선원, 입상에 수국사 · 화계사가 각각 선정됐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봉원사 분쟁' 매듭 풀릴까

조·태 총무원장 참석 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신촌 봉원사 문제 해결을 위한 2007년 제1차 조계종 · 태고종 대책위원회 회의가 5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참석해 문제 해결을 위한 양 종단의 의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됐다. 특히 봉원사가 소위 분규사찰 해결의 첫 단추가 된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오른쪽)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회의에서 지관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봉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종단이 1982년 불교중흥추진위원회를 결성한지 25년이 넘었다"며 "이제는 서로 잘 합의해 대승적 입장에서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또 "지난 종회에서 새로 대책위원을 선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종단적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 대책위원들이 잘 의논해 원만하게 타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운산 스님도 "총무부장 시절부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했다"며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이뤄진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첫 만남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집약하고 봉원사 문제를 매듭짓는다면 이것이 단초가 돼 한국불교사에 역사적인 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조계종측 향적, 법안, 승원 스님과 태고종측 일운, 운봉, 법현 스님으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조계종측 향적(위원장, 중앙종회의원), 정휴(중앙종회의원), 현문(총무원 총무부장), 승원(총무원 기획실장), 정만(총무원 재무부장), 성직(중앙종회의원), 지준(중앙종회의원), 장적(중앙종회의원), 법안(조계종측 봉원사 주지) 스님 등 9명과 태고종측 인공(위원장, 중앙종회의장), 보경(총무원 부원장), 월해(종무조정실장), 환우(봉원사 주지), 묵원(총무원 총무부장), 운봉(총무원 사회부장), 현성(동방대 교수), 일운(옥천범음대 학장), 법현(총무원 교류협력실장) 스님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남동우 기자

TIP 봉원사 분쟁은?

조계종과 태고종은 1982년 불교중흥추진위원회(위원장 조계종측 천장, 태고종측 서봉)를 결성해, 경내재산(울타리 내)은 태고종으로 무상 양도하되, 경외 재산은 조계종이 임의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양 종단간 사정으로 세월이 흐른 뒤 1989년 12월 10일 분규중인 사찰에 대한 기본재산을 재단에 편입시켜 불교중흥에 따른 목적 사업에 활용한다는 원칙하에 건물을 제외한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해 법인을 설립하자는 조계종안과, 가용 토지 3만평을 조건 없이 조계종에서 재단에 편입시켜 중흥불사에 사용하고 나머지 7만평과 법당 요사채 등은 태고종 봉원사로 귀속하자는 태고종안이 대립돼 해결되지 못했다.

1990년 양 종단은 봉원사 재산을 50:50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했으나 양 종단 사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양 종단은 2005년 3월 8일 봉원사 대책위원회를 다시 결성해 수차례 실무위원회 및 대책위원회를 진행했지만 결과물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불기 2551년 불자대상에

용태영·강부자·김병관씨


용태영씨

강부자씨

김병관씨

불기 2551년 불자대상에 용태영 변호사, 탤런트 강부자씨, 김병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지관 · 총무원장)는 "용태영 불자는 변호사로서 서울고법에 석가탄신일 공휴권 청구(73년)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국가 공휴일로 제정(75년)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재가불자로서 불교사회활동 및 세계불교교류 활동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또 "강부자 불자는 연극배우로서 방송과 연극무대에서 불법홍포에 앞장섰으며 한국불자 예술인연합회 고문을 맡으며 깊은 신행활동으로 후배 연예인들의 귀감이 됐고, 김병관 불자는 오랫동안 군포교에 남다른 모범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으로서 군포교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군불자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시상식은 5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열린다.

남동우 기자
사진제공=조계종 총무원

TIP '불자대상'은?

'불자대상'은 불법홍포에 공로가 큰 불자와 한국불교 위상 제고에 공로가 큰 불자, 불자의 자긍심 고취에 공로가 큰 불자, 종단 발전과 홍보에 공로가 큰 불자, 국가 및 사회발전에 공로가 큰 불자로 선정 대상을 삼고 있으며,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했다.

지난 2004년에 처음 시행된 불자대상에는 과학자 황우석, 골프선수 박세리씨가 수상했으며, 2005년에는 前 현대아산 부회장 김윤규, 축구선수 박지성, 산악인 박영석, 2006년에는 탤런트 김용림, 육군대장 권영기씨가 수상했다.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길 '활짝'

천태종-조선불교도연맹 2천명 방북 합의

분단후 처음으로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길이 열렸다. 이는 개성관광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이룬 성과여서 의미가 크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리규용 부장은 5월 16일 개성 봉동관에서 영통사 성지순례에 합의했다.

천태종과 조불련 관계자, 남측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북측 민화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채택한 합의서에는 "5월 29일 선발대 답사를 거쳐 6월 8일 500명, 18일 500명, 23일 1,000명 등 3차례 2,000명이 시범 순례에 나선다"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성지순례단은 오전 8시 파주 도라산 남측 CIQ(출입관리사무소)를 출발, 북측 CIQ와 개성시내를 거쳐 오전 10시 30분 영통사에 도착한 뒤 영통사 보광원에서 남북통일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이어 영통사 주변경관을 돌아보고 인근의 송도호수와 개성시내의 선죽교, 성균관 등 문화유적지를 탐방한다. 참가자들은 오후 5시께 북측 CIQ를 통과해 남측으로 귀환한다.

이번 시범 성지순례는 당일 행사로 치러지며 참가비용은 1인당 17만원으로 확정됐다. 접수는 5월 28일까지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02)730-2401

김원우 기자

'조계종 종단사태' 징계 성문 스님 등 사면·복권

조계종 98년 종단사태 징계자인 성문 · 현소 · 원학 · 정우 · 월탄 · 남현 스님이 5월 24일자로 사면 · 복권된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부장 심우)는 기관지인 '불교신문'을 통해 "종정예하께서는 종헌 제23조와 제54조 9항, 제128조에 의거해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면 · 복권을 재가했다"며 "금번 사면 · 복권된 승려들은 그 동안의 참회를 바탕으로 종도들과 더불어 다시 한번 종단 화합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정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제173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스님이 발의한 사면 · 복권안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남동우 기자

"내 이웃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야…"

조계종, 장애우 수계법회 봉행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 장애우라는 인식 하에, 같이 어울려 생활하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 스스로가 주변의 장애를 내 일처럼 느낀다면, 일상생활이나 신행생활을 하는데 장애우들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가까이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

조계종 종단 최초로 장애우 수계법회가 5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장애우 300여명과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종단적으로 치룬 장애인 수계법회는 이번이 최초이지만, 역으로 이야기 하자면 그간 불교계, 특히 사찰에서 장애우 불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그만큼 많이 갖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 같아 한편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기도 하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거향찬(擧香讚, 향을 사루어 삼보를 찬탄함), 청성(請聖, 삼보를 청함), 청사(請師, 전계사를 청함), 개도(開導, 계의 의의와 가르침) 등으로 진행됐다. 계사를 자청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에 등을 많이 켜는 것도 좋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편한 장애우들을 자신의 마음에 넣어서 생각하는 것이 참다운 봉축의 의미"라고 말했다.

수계법회가 끝난 뒤 장애우들은 서원의 등달기와 어울 한마당으로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남동우 기자

안국선원, 후원금 5억원 기탁

포교원 어린이 포교 기금으로

안국선원(선원장 수불)이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에 어린이 · 청소년포교 활성화를 위한 후원기금 5억원을 약정했다.

후원금은 올해 5월 1억원 기탁을 시작으로 2011년 5월까지 총5회에 걸쳐 1억원씩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석가탑 사리장엄구'

5월 24일까지 특별전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포함한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내 출토유물(국보 제126호)'이 부처님오신날인 5월 24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 특별 전시된다.

조계종은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 특별전'을 개최하고,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금동제사리외함, 금동방향사리함 등의 사리장엄구 일괄유물 27건 29종을 전시한다.

지난 3월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에 맞춰 전시될 예정이던 석가탑 출토유물은 조계종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이관에 대한 의견차를 보임에 따라 전시가 이뤄지지 못했었다. 전시가 끝나면 유물은 보존처리를 위해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다.

지관 스님은 18일 열린 개막식에서 "종단은 유물의 보존처리를 위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충분한 시설이 갖춰지면 반드시 다시 모셔오겠다"고 밝혔다. (02)2011-1960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I love Buddha / 마음 바꾸기

용정운(www.zentoon.com)



특별기고

부처님 오신날과 Buddha's Birthday

묘봉스님 (서울 화계사 문화원장)

한 불자가 불평을 한다. "왜 불교에서는 나라마다 부처님 생신날이 다릅니까?" 나도 몰랐다.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내가 아는 것은 오직 그 어느 부처도 태어난 적이 없고, 따라서 살아가는 세계도 없고, 마땅히 죽음도 없다는 경전 말씀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생일(birthday)이라니, 이 무슨 사건인가? 불교의 눈으로 본 Buddha's Birthday는 망어(妄語)다. 탄생은 이미 절대적 오류다. 이미 있는 것은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란 무엇인가?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석가모니라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샤카(Sakya)무리의 무니(muni)를 석가모니라 부르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음역(音譯)일 뿐이다. 능인(能仁) 적묵(寂默)이라 하면 뜻이 분명해진다. 적묵한 자리에 무슨 오고 감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기 무슨 따질 생일이 있을 것인가? 어느 날에 부처를 얽어매지 말자. 그러면 진정 부처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육체와 영혼이라는 대립을 궁리한 최초의 생명체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부처의 존재를 색신(色身)에 국한시키지 말자.

물론 안다. 성인의 탄생을 기리는 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마치 크리스마스와 경쟁이라도 하듯이 '축제'에 집착하는 것은 부처의 뜻이 아니다.

산스크리트어 타타가타(tathagata)를 한자로 여래(如來)라 한다. 스스로 현현(顯現)하시는 분, 온 곳이 없는 분이라는 얘기다. 이런 분의 출세(出世)를 어찌 Birthday라 할 것인가.

크리스마스도 사실은 예수의 탄생일이 아니다. 태양 신행의 날을 예수 탄생일로 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희랍 정교에서는 1월 6일을 예수 탄생일로 여기는데 이를 에피파니(epiphany)라 한다. 에피파니는 '나타나다'는 뜻의 희랍어에서 유래했다. '성(聖)스러운 자의 현현(顯現)'이라는 뜻이다. 카톨릭에서는 한자로 '예수 공현 축일'이라 부른다. 이와 비교해도 Buddha's Birthday는 옹색하다.

부처님 오신 날을 영어로 the day of Buddha's coming 또는 Buddha's coming day라고 표현하자는 주장도 있다.

의미로 본다면 Buddha's Birthday보다는 본의에 가까이 다가간 듯한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어느 하루에 부처의 출세를 묶지 않는 것이다. 연등불(燃燈佛)은 지금도 여기저기서 출현하고 있는 중이다.

문화재 미지정 사찰 건축 · 실내 장식물

방염처리 의무대상 제외

조계종, 소방방재청과 협의 거쳐 확정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찰 건축물과 실내장식물은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조계종은 문화재청 및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거쳐 사찰방염처리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5월 16일 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사찰 목조건축 △불단, 닫집, 불상, 불화 등 실내장식물은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커튼이나 카펫, 합성수지벽지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단, 종이벽지의 경우 두께 2mm 이하일 경우 방염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찰 방염처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5.29)'에 따라 실시되어 왔으나,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두고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빚어왔다.

조계종 문화부는 "그동안 일선 소방서의 잘못된 업무처리와 방염처리업자의 상술로 인해 마치 모든 건물과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가 필요한 것처럼 잘못 알려져 왔다"며 "각 사찰에서는 방염처리 의무대상 목록을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은 '중요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의 대상건축물 대부분이 백화와 얼룩, 과다습윤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찰 도난사고 조심하세요"

광명 청룡사 법당에 도둑…부처님 오신날 전후 요주의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찰의 도난 방지가 요구되고 있다. 절도범들이 불자들의 출입이 많고 스님과 종무원등이 바쁜 사찰을 노리기 때문이다.

광명 청룡사(주지 법운)는 5월 16일 자정 이후 대웅전 본존불로 모신 석가모니 부처님상의 복장물을 도난당했다. 법당에 침입한 절도범은 방석외피로 CCTV 렌즈를 가리고 법당 마루에 방석을 깔고 밟고 다니는 치밀한 수법으로 복장물을 털었다.

30년 전 창건된 청룡사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상 이외에도 4좌의 불상이 모셔져 있었으나 본존상 복장만 도난을 당했다.

청룡사 주지 법운 스님은 "17일 새벽 도난 사실을 알고 CCTV 녹화 화면을 확인해 보니 범인들이 방석 외피로 렌즈를 가렸지만 강한 불빛이 녹화되어 있었다"며 "이 불빛은 범인들의 후레쉬 빛이 아니라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방광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0시 24분부터 5분간 녹화 화면에 담긴 불빛은 푸른빛을 띄며 본존불의 복부에서 나온 것으로 판명된다는 것이다.

법운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른 불상들의 파손을 막기위해 범인들에게 위신력을 보여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일반 절도범이 아닌 특수절도자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양주경찰서 경승실 봉축법요식

용하 스님, 모범경찰관 자녀에 장학금 전달도



양주경찰서 경승실장 용하 스님이 모범경찰관들에게 자녀들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양주경찰서 경승실(실장 용하)은 5월 15일 양주경찰서 대강당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양주 지장사 주지 대운, 경승실장 용하, 경승실 총무 석정 스님, 김사웅 양주경찰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법요식에서 대운 스님은 "불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며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항상 수행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전했다.

법요식에서 경승실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운 스님과 동두천 보문사 주지 정오 스님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또한 용하 스님은 모범경찰관 자녀 6명에게 총 2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부처님의 장군죽비 거듭 나겠다"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 새 보금자리… '간화선을 말한다' 초청강연

현대불교신문사 부산지사가 이전 개원을 기념해 5월 11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간화선을 말한다'를 주제로 월암 스님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으로 취임한 오세룡 지사장은 "그동안 부처님의 불법홍포에 앞장서고 바른 언론인의 모습으로 노력한 현대불교신문의 한 부분이 되어 새 보금자리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한국불국토의 심장인 부산지역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 현대불교신문의 기둥이 될 뿐 아니라 부처님의 장군죽비로 거듭 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향과 스님(양산 통도사 선덕)은 격려사를 통해 "현대불교 신문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안타까웠다"며 "앞으로 더욱 불법 홍포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화선을 말한다'란 주제로 초청강연에서<간화정로(看話正路)>의 저자 월암 스님은 "번뇌망념에서 벗어나 올바른 정진을 위해 일념해탈, 일념성불을 하라"며 "꿈을 깨고 해탈의 진실한 세계에서 살아가라"라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사 부산지사 현판식에는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했다.

현판식 및 기념법회에는 목종(부산 반야원 주지), 하립 스님(부산 미타선원 선원장), 서병흔(부산불교신도회 감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여여선원장 정여, 안국선원장 수불, 천룡사 주지 효종, 공덕원 주지 효선 스님 등 부산 불교계 대표들의 화환과 축전도 이어졌다.

현대불교신문사 부산지사는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1가 7번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051)632-0064

하성미 기자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설명회

조계종, 이달 29일 개최

조계종은 '전통사찰보존구역'과 '역사문화보존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회를 5월 2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과 '역사문화보존지구' 획정 기한과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조계종 교구본사 및 국립공원 내 문화재사찰 담당자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조계종 문화부는 "현재 보존구역 지정이 법적 기한을 넘기고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일선 행정이 혼란스럽다"며 "해당 사찰이 제작해 제출해야 하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작성법과 신고 방법 등을 설명함으로써 해당 사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통사찰보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 · 고시하게 되어 있었지만, 아직 이를 심의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 500m 이내로 지정할 수 있는 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는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데, 지정 권한이 해당 사찰의 주지에게 있어 획정 시 지역민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여수령 기자

부산불교신협 108배 철야 정진기도

'자산 1000억원 달성' 발원

"지심귀명례 시방 진허공계 일체제불."
"지심귀명례 시방 진허공계 일체존법."
"지심귀명례 시방 진허공계 일체현성승."

108참회문을 외는 소리만 성성적적하게 들렸다. 몇 번이나 절을 했을까? 감물 가득 배여 있는 방석 위에 떨어진 짙은 땀방울만이 부처님께 가는 길인 것처럼 보였다.

5월 16일 부산 미타선원 극락전에서는 특별한 정진기도가 시작됐다. 삼보에 의지하고 5년 동안 매일 108배를 해왔다는 부산불교신협(이사장 유석영) 직원들 12명이 자산 1000억원을 조성하고 불법홍포와 불사에 동참하고자 발원하며 모인 것.

정내칠 전무는 "한 달에 한번 직원들과 함께 사찰을 방문하고 3개월 동안 3000배를 부처님께 올리고 회향할 예정"이라며 "부산불교신협의 수익금 중 일부는 불교수호와 발전을 위해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기 대리는 "부산에 하나 밖에 없는 불교신협으로써 성장해 기쁘다"고 말했다.(051)633-9120

하성미 기자

수형자 孝 수필 공모전 개최

옥천 대성사, 7월 20일까지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는 5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제2회 수용자 효(孝) 수필, 신행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수형자들의 효 사상을 고취하고 가족의 중요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열리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1명에는 상금 30만원과 부상이,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20만원과 부상이 주어진다. 당선작은 8월 1일 발표한다.

한편 대성사는 5월 30일 저녁 7시 청주 용암동 매직프라자에서 제1회 대성사 효 편지 응모작을 묶은 책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043)732-5560

여수령 기자

해운대 수륙고혼천도 방생법회

백용성조사유훈실천회는 5월 13일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는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수륙고혼천도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불심도문 스님은 무상게와 고려대장경 6부 핵심 사구게를 설해 수륙고혼들을 천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기도를 당부했다.

수륙고혼천도법회는 1911년 백용성 조사가 한강에서부터 처음 시작해 한탄강, 임진강, 금강, 선진강, 낙동강, 부산 송도, 부산 광안리를 거쳐 해운대 앞바다까지 97년간을 봉행해온 유서 깊은 법회다. 김원우 기자

경기북부사암음악예술제 성료

제3회 경기북부사암음악예술제가 5월 11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과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진행된 음악예술제 1부에는 파주 · 고양시 불교연합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선보였다.

2부에는 동두천 · 의정부시 불교연합합창단과 회룡사 룸비니 어린이 합창단, 양주시 불교연합합창단이, 3부에는 남양주 · 구리시 불교연합합창단, 경기북부 불교연합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음악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알렸다. 고영배 기자

광동中·高 합동수계식 봉행

조계종 종립학교인 광동중 · 고등학교 합동수계식이 5월 11일 광동중 · 고등학교 운악관에서 거행됐다. 이날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을 계사로 중학생 650명, 고등학생 750명, 교직원 38명 등 총 1438명이 계를 받았다.

합동수계식에서 일면 스님은 "불덩이를 알고 잡으면 손이 덜 데는 것과 같이 잘못을 알고 범하면 스스로 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생겨 점차 허물을 멀리하고 점차 밝을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오계의 의미를 설명했다. 고영배 기자

영남자비봉사단 18개 병원 순회

대구 한국(영남)불교대학 영남자비봉사단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구 지역 18개 병원을 순회하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5월 11일 컵등 500개와 떡 과일 음료수 등을 마련해 시립의료원 보훈병원 등을 차례로 돌며 부처님오신날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영담 스님 공개참회하라"

불기협 '걸레발언' 관련 성명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이성수)는 불교계 언론을 '걸레'로 표현한 영담 스님(부천 석왕사 주지)의 발언에 대해 영담 스님의 공개 참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5월 16일 발표했다.

영담 스님은 5월 2일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가 주최한 '가칭 건축불사관리법 제정 토론회'에서 "이런 걸레 같은 신문 누가 보겠느냐" "불교신문이 이따윈데 다른 신문들은 오죽하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기자협회는 성명서에서 "영담 스님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5월 24일까지 공개 참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이어 "현재 불교방송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영담 스님의 이번 발언은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이자 나아가 교계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격모독과 함께 수많은 독자들을 걸레 취급한 것과 다름없다"고 규정하고 "공개 참회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불교기자협회는 당사자가 발언에 책임을 지도록 전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기자협회는 "교계 언론에 대한 무책임한 비난이 아닌 건전한 비판과 지적에 대해 언제든지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진리는 非一非異…모든 학문은 하나로 통한다"

특별기고
동국대 사학과 김상현 교수



부다, 그 분이 깨달은 것은 '연기(緣起)의 도리'였다. 신라의 의상도 말했다. "연기라는 한 마디 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이 손바닥을 보듯 분명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諸法]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거대한 은하계거나 혹은 미세한 먼지일지라도. 이를 화엄에서는 중중무진(重重無盡)의 법계연기(法界緣起)라고 한다. 우주는 서로 의존하고 있는 총체적 세계, 거대한 그물처럼 얽혀서 서로 영향을 준다. 샹들리에 구슬들이 서로 비추듯이.



원효의 화쟁사상과 통섭(統攝)

우주의 삼라만상은 무수히 분리된 개체로 구성된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조화를 이루는, 그러기에 나눌 수 없는 전체로 역동적인 관계의 거물이다. 그래서 의상은 "전체라는 하나 속에 일체의 다양한 것들이 있고, 많은 개별 중에 전체라는 하나가 있다.[一中一切多中一] 하나의 극히 작은 먼지 속에 거대한 시방세계 우주가 포함되어 있다[一微塵中含十方]고 했다. 이상에 의하면, 전체와 부분은 즉(卽)과 중(中)의 관계로 설명된다. 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이다. 하나 속에 전체가, 그리고 전체 중에 하나가 있다.

물리학자 프리조프 카프라는 전체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다. "모든 개체는 통합된 시스템이라는 뜻에서는 전체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복잡성이 더 높은 수준의 전체에 대해서는 부분이 된다. 사실, 절대적 의미에서는 부분과 전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전체이면서 부분인 아(兒)조직체를 '홀론(holon)'이라고 부른다."

'하나'라는 우리말은 마치 '홀론'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전체의 의미로 쓰일 경우도 있고, 부분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 속에 일체가 있다[一中一切]'고 할 때의 하나는 전체를 의미하지만, '백 명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 경우의 하나는 부분을 의미하듯이. 전체와 그것을 이룩하는 부분은 다 같이

총체·개별적 논의 자유롭게 구사
원효 개합논리 통섭 개념과 흡사

독립된 개체가 아니다.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이다. 물질세계 전체를 상호 연결된 관계의 역동적 거물로 보는 현대 물리학의 이론은 불교의 연기론과 다르지 않다.

최근 우리 학계에 대두한 '통섭(統攝)'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인 양 화두가 되고 있다. 조금은 낯설기도 한 통섭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 'consilience'의 번역어다. 최재천 교수가 미국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1929~)의 저서 <CONSILIENCE>(1998)를 번역하여 <통섭>(2005)이라는 제목으로 간행하면서부터 통섭은 '지식의 대통합'으로 풀이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지식의 통일'은 '서로 다른 학문 분과들을 넘나들며 아우르는 것'이라고 한다. 이 책을 번역한 최 교수는, 21세기에 들어서며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통합의 바람이 불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한 이가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말한다.

세계를 개별적인 부분들로 분리해서 보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현대 서구문명의 기저(基底)를 이루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지식의 대통합'을 선창(先唱)하고 있는 그의 노력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근대화 이후 서양의 학문 방법에 크게 영향 받고 있는 우리의 학계 또한 세분화됨으로써 전체를 아우르는 큰 안목을 잃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일관된 이론의 실로 모두를 꿰는 범학문적 접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외치는 최 교수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제가끔 자기 영역의 목소리만 전체에 보태는 다학문적(多學文的) 유희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학제적 연구의 벽을 넘어 '모든 학문을 꿸 수 있는 이론의 실'이 있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윌슨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세상에는 다수의 진리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단 하나의 기본 진리만이 존재하는가?" 최 교수 또한 "통섭의 노력은 모든 것을 꿰뚫는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노력"이라고 한다. 이들의 표현에는 희미하지만 어떤 '유일한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혹은 그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은 필자의 오독 탓일까?

세상의 이치는 하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서로 다르기만 한 것도 아니다. 곧 '비일비이(非一非異)'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진리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문은 많고, 그 문으로 향한 길도 많다. 그래서 원효(617~686)는 <기신론소>에서 "법문(法門)은 한량없어서 오직 한 길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곳을 따라 시설해서 모두 도리가 있다"고 했다. 세상의 이치는 하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서로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기에 원효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능히 모든 방면이 다 합당하고, 다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방면이 한 맛으로 통한다(由非一故 能當諸門 非異故 由諸門一味)"고 했던 것이다. 다양성의 인정, 그것은 본래 불교의 기본 입장인 동시에 원효 화쟁논리의 한 전제이기도 하다. 통섭의 전도사격인 최 교수에 의하면, 화엄사상에 대한 원효의 해설에 통섭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고 한다. 필자는 아직 원효의 저서에서 통섭이란 단어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최 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통섭이 원효의 사상과 통하는 바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원효는 통합과 더불어 전개를 동시에 강조했다. 그의 화쟁 방법에는 전개와 통합이 자유로워, 총체적으로 말하거나 개별적으로 논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구사하곤 했다. 원효가 즐겨했던 통합과 전개의 방법에 주목하여, "원효의 진리 탐구 방법은 개합(開合)의 논리로서 철두철미 일관되어 있다"고 지적한 이도 있다. 이 때문에 '통섭은 분석과 종합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는 최 교수의 설명은 원효의 개합논리와 매우 닮아 있다.

원효는 어떤 경우에도 '산을 보지 못한 채 골짜기에서 헤매거나 나무를 버리고 숲 속으로 달려가는 격'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 원효는 <금강삼매경>의 종요(宗要)를 "통합해서 논하면 일관(一觀)이요, 열어서 말한다면 열개의 문이다(合論一觀 開說十門)"라고 했다. 숲을 보는 통합적인 안목도 필요하고 나무를 보는 분석적인 논의 또한 중요한 것임을 원효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원효는 통합이나 전개,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자유로웠다.

그는 말했다. "전개한다고 번거로워지는 것도 아니요, 합친다고 좁아지는 것도 아니다.(開而不繁 合而不狹) 또한 전개한다고 하나를 더 보태는 것도 아니고, 합친다고 해서 열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開不增一 合不減十) 이것이 통합과 전개의 묘술(妙術)이다."

각각의 홀론은 더 큰 전체의 부분으로서 통합하려는 경향과 개성을 유지하려는 자기 주장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점에 주목했던 카프라는 "하나의 유기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개체의 가치를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더 큰 시스템 속으로 그 자신을 조화 있게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원효 스님.

개체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체의 한 부분으로 조화롭게 통합시킬 수 있다면, 이 또한 묘술이다. 분석과 통합을 동시에 포괄하는 것이 통섭이라면, 이것 역시 묘술이다. 최 교수에 의하면, 뿌리와 가지를 연결하는 줄기가 통섭의 현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통섭은 줄기뿐만 아니라, 가지나 뿌리에서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학문의 경계를 엄격하게 지킬 필요야 없겠지만, 여전히 전공은 필요한 것이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은 가져야 하겠지만, 정밀한 분석적 사고 또한 필요한 것이다. 지식의 통합이나 학문의 울타리를 허무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들 일상적인 사고나 삶의 현장에서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용어는 없을까?

문(門)에는 개폐(開閉)와 출입(出入)의 의미가 있다는 원효의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을 여닫으며 자유롭게 드나들듯 학문도 지식도, 일상의 상식도 막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불교 규제 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현재 개발 제한 구역 및 도시 자연 공원 내에 위치한 사찰들이 국가법에 의한 중첩적인 행위 규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중앙종회와 국회 정각회가 **"불교 규제 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공청회 명 :** 불교 규제 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2. **일 시 :** 불기2551(2007)년 6월 11일(월) 오후 2시
3.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4.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중앙종회 · 국회 정각회
5. **후 원 :** 갓바위 · 도선사 · 불교신문사 · 봉은사 · 조계사 · 전국교구본사주지 · 직할교구말사주지(가나다 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불교 규제 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추진위원회

학제간 장벽 넘어 연구 활발…인프라 구축은 미흡

"불교는 통섭 아닌 것이 없고 통섭인 것도 없다."

학문간연구, 지식의 통합 등으로 풀이되는 '통섭'이 최근 우리 사회와 학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통섭이라는 용어의 출처와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아직 불교계 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섭을 단순히 '학문의 비빔밥'이나 '학문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진리'는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 '학문 간의 통합과 전개'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그 개념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불교 핵심 사상인 '연기(緣起)'가 통섭의 기본 정신이라고 한다면 모든 불교가 통섭이고, 그 어떤 불교학 연구 분야도 통섭으로 정의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는 통섭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불교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접목을 시도하는 '응용불교'를 통섭의 한 예로 볼 수도 있다. 응용불교학이란 불교의 교리와 관점을 다른 학문과 연계해 새로운 학문적 성과를 생산해내는 연구방법론을 말한다. 여기서는 '통섭'의 개념을 학제간 연구 혹은 학문의 경계를 지운다는 의미로 보고, 불교가 여러 학문들과 어떻게 공통점을 찾고 '상생(相生)'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불교계 '통섭(統攝)' 어디까지 왔나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이 지난 2월 봉은사에서 개최한 '제3차 불교와 상담 워크숍' 현장. 이 자리에는 불교학자와 심리학자, 정신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불교와 상담심리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TIP! '통섭'이란?

통섭(統攝)이란 용어는 지난 2005년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교수(하버드대 석좌교수)의 저서 <컨실리언스(consilience)>을 최재천 교수(이화여대)가 '통섭'으로 번역하며 우리사회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은 단어다. '큰 줄기'라는 뜻의 '통(統)'과 '잡다'는 뜻의 '섭(攝)'이 만나 이뤄진 이 단어를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전체를 도맡아 다스림'이라고 풀이한다.

지난해 이화여대는 '통섭원'이란 연구소를, 서울대는 '범학문통합연구소'를 각각 개원하는 등 최근 학계에서는 통섭을 학제 간 연구, 학문간 연구, 지식의 통합 등 다양한 뜻으로 활용하고 있다. 학자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다산 정약용 등을 대표적인 '통섭형 학자'로 꼽는다.

환경·생태학 분야 관심 높아

불교와 과학

불교의 학제 간 연구 중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바로 불교생태학이다. 환경이 전 지구적인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불교와 환경, 불교와 생태학 관련 연구가 활발해진 것이다. 오늘날 지구 환경과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에서 찾고자 하는 불교생태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 연구 논문도 적지 않고, 관련 단체도 운영되고 있다.

불교생태학 연구는 동국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국대 BK21 불교연구단은 2년째 이 분야 연구를 핵심 연구과제로 선정, 집중 연구를 펼치고 있다.

2004년 창립한 동국대학교 에코포럼은 생태환경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여러 학문분야의 학제적 토론의 장을 추구한다. 에코포럼은 불교적 가치관과 삶의 양식으로 지구의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년간 학술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고, 미국 하버드대와 영국의 런던대 등과 공동학술대회를 열며 불교생태학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불교와 생태학에 관련한 저서로는 동국대학교출판부에서 펴낸 <불교와 생태학> <현대사회비판과 불교생태학>, 서재영 조계종 불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선의 생태철학> 등이 있다.

'과학과 불교' 역시 꾸준한 연구가 이뤄지는 분야다. 서양에서는 명상이나 선 수행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물인 <달라이 라마, 과학과 만나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현대 신경과학과 동양 불교사상의 만남> 등은 뇌 과학을 불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불교와 과학의 접점을 찾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시우 박사는 천체물리학과 불교의 관계를 살핀 <천문학자와 붓다의 대화>를, 우희종 교수(서울대)는 생명과학과 선(禪) 사상의 공통점을 살핀 <생명과학과 선>을 각각 펴냈다. 카오스 이론과 불교 사상을 연구해 온 김용운 교수는 <카오스와 불교: 불교에서 바라본 과학의 본질과 미래>를 통해 카오스 이론의 특징 중 하나인 프랙털이 불교에서 말하는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사상과 일치한다고 주장해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불교 수행-심리치료법 접목

불교와 상담·심리학

"부처님은 위대한 상담가이자 의왕(醫王)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현대인들의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그동안 꾸준히 시도돼 왔다.

조계종은 2000년 종단 내에 '불교상담개발원'을 설치하고, 불교에 맞는 상담활동과 이론, 기법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창립과 함께 매년 현장에서의 상담 경험과 상담 이론 연구 성과를 나누는 '불교와 상담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불교와 상담·심리학 연구를 위한 학회도 잇달아 창립했다. 불교의 수행법과 서양의학인 심리치료를 접목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월 발족한 한국명상치료학회(회장 인경)와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공동대표 미산)는 불교학자와 정신의학 및 심리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두 단체 모두 정기학술대회와 월례발표회, 논문집 발간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쌓아갈 예정이다.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원장(전현수신경정신과)은 "21세기는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과학이 만나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통합의 시대"라며 "동양 정신문화의 정수인 불교와 서양 의학인 심리치료의 접목과 통합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기독교와 '대화의 장' 마련

비교종교학

여러 종교의 특성 의의 등을 학문적으로 접근해 비교 연구하는 비교종교학은 기독교 등 서구 종교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간 대화' 역시 넓은 의미의 통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와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회장 이종오)가 지난해부터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해, 불교와 기독교의 '학문적 대화'의 장을 열고 있다. 첫 학술회의에서 '부처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짚어본 두 단체는 올해 '해탈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각 종교의 지향점에 대해 학문적 이해를 시도했다.

김용표 교수는 "종교간 대화는 외면적인 협력을 위한 대화와 비교종교학적 이론적 대화, 심층적 영적 대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며 "교수협의회가 학술회의를 개최한 것은 비교종교학적 대화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종교 간의 지적(知的) 이해와 본질 탐색을 추구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종오 교수는 "종교간의 학문적 대화는 단순하게 자신의 종교를 상대에게 이해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각 종교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자기 종교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공동연구 시스템 구축 시급

불교적 '통섭'을 위해서는

1980년대 말 학제 간 연구가 학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도 불교계에서도 불교생태학, 불교윤리학, 불교여성학 등이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 성과와 연구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학제 간 연구를 위한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혜주 스님(동국대 불교학과)은 "불교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접목을 시도하는 응용불교학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지만 아직 학자 개인의 관심사에서 출발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불교와 다른 학문과의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단체나 연구팀 등을 통한 공동연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02년부터 격년으로 열리고 있는 한국불교학결집대회를 불교학의 연구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은 물론 불교와 다른 학제 간의 공동연구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08년 열리는 제4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의 대회장을 맡은 이평래 교수(충남대)는 "결집대회를 통해 불교의 학제 간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부처님 오신 날, 당신의 생일 날

부처님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며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인류사에서 가장 빛나는 인간 존엄의 선언입니다. 부처님은 일생동안 누구에게나 부처의 성품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은 바로 당신의 생일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 '부처의 마음'을 꺼내 쓰는 날입니다.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 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부조실 : 경하 현성 회 주 : 진불장 혜성
주 지 : 선묵 혜자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 : 동광
도선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관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 / 전화 : (02)993-3161~3

깨어있는 삶, 나누는 기쁨



봉은사 사부대중은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오며
모든 불자님들의 서원과 공덕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발원합니다.

奉恩寺 선종수사찰 대한불교조계종 **봉 은 사**
주지 명진스님

전화 : 02) 511-6070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홈페이지 : http://www.bongeunsa.org

■ 부처님오신날(5월24일) 주요행사
· 법요식 : 오전 10:00 · 문화공연 : 오후 4:00
· 점등식 : 오후 19:00

인연 있는 분 들께
화계골이 녹색道場 이네요
華溪寺에 어서 오세요
고타마붓다 그분을 뵈옵게
하는 날
풋~한 산채 비빔밥 한그릇
함께 나누시지요
진정 뵈시고 싶읍니다
三角山 華溪골에서
恭奉 올림.

수유1동 487번지
☎02-902-2663

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주 지 **김영제**

총 무 엄행주 부 전 윤덕준
교 무 김도진 신도회장 김석조
재 무 김효성

사부대중일동합장

■ 삼광사 **'부처님 오신 날 전야 대법회 및 기념 법요식'**
봉축 전야 대법회 – 5월 23일 오후 6시 30분
봉축 기념 대법회 – 5월 24일 오전 11시

◆ 삼광사 정기법회
일시 : 매월(양력)1, 2일
시간 : 오전 10시
장소 : 삼광사 지관전

※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등을 달고 불을 밝힘은 물론, 봉축을 기념하는 여러 법연의 자리에 동참하여 무량한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大韓佛教 天台宗 釜山 三光寺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TEL 051)808-7111~5 / FAX 051)803-1332 /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홍련암



천년고찰 낙산사 복원불사에 도움을 주신 종단의
원로대덕스님과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낙산사 사부대중 합장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전화 033)672-2447. 2448
www.naksansa.●r.kr

봉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축

태고총림 조계산

선 암 사

사부대중일동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번지
전화 061)754-5247



무명은 도 이루는 바탕 번뇌는 깨달음 여는 근본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부처는 본래 나지 않아 오고 감이 없고
법(法)은 본래 없어지지 않아 온 누리에 가득합니다.
그 모습은 텅 비어 보이지 않지만
묘용(妙用)이 자재(自在)하여
찾고 부르는 곳에 현신(顯身)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무명(無明) 속에 걸림 없는 지혜를 빚어낸 이는
곳곳에서 부처를 이루어 낼 것이요
나고 죽음 속에서 무생(無生)의 눈을 뜬 이는
생멸(生滅)없는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대립과 투쟁 속에 무쟁삼매(無諍三昧)를 이룬 이는
화해(和解)를 빚어내어 상생(相生)의 길을 열 것이며
탐욕 속에 들어 있는 이타(利他)의 덕성(德性)을 깨달은 이는
평화와 안락(安樂)을 베풀어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이며
어리석어 죄업(罪業)을 지은 사람은 뉘우침을 통해
회심(回心)의 눈을 열어 성위(聖位)에 오르게 하였으니

무명(無明)은 도(道)를 이루는 바탕이요,
삼독번뇌(三毒煩惱)는 깨달음을 여는 근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법신(法身)의 묘용(妙用)이요
나고 죽음이 없는 진리의 광명입니다.

심외무법(心外無法)이요
만목청산(滿目靑山)이니라
마음 밖에 따로 법이 없으니
눈 앞에는 청산이 가득하구나.

부처님 나투시어 광명 영원하다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부처님의 본래 서원 중생들을 교화하여
똑같은 깨달음에 들게 하려 하심이라.
부처님께 일체를 바치고, 온전히 공양 올리니
법신 생명 환희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네.
거룩한 이 오신 찬란한 오월이여,
합장하는 손끝마다 하얀 연꽃 피어나니
아, 당신은 이미 대자유인
더 찾아야 할 자유는 없어라.

춘풍화수지(春風花繡地)
운권월만천(雲捲月滿天)
응화삼천년(應化三千年)
묘광상불매(妙光常不昧)

봄바람 불어와 꽃이 온 땅을 수놓고
구름 걷히니 달빛이 하늘에 가득하구나.
부처님 나투시어 삼천 년에
묘법의 광명은 영원하도다.

오늘 하루라도 광명을 내 보자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부처님은 빛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光明)은 어두운 이에게 필요하고 생명은 존중받을 때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물질, 사상, 종교, 문화 등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입니다.
결국 인간의 참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인간이 불행해지고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상실된다면 이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생명의 근원인 소중한 인류의 자산을 마구 파헤쳐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멸망(滅亡)의 길로 재촉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유한하여 아무리 채워도 만족해질 수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평온과 안정만이 영원한 평화와 걸림 없는 대자유(大自由)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복잡하고 좁은 것은 내가 타고 있기 때문이며 길거리에서 나아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는 것 또한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결과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만사는 각자 스스로의 행위 영역(行爲領域)안에 귀속(歸屬)되는 것일 뿐 결코 남의 탓이 아닙니다.
식(識)이 맑으면 불성(佛性)이 깃들고 영혼이 깨끗하면 신성(神性)이 밝아집니다.
지나친 욕망으로 번뇌(煩惱)가 혼만(混滿)하면 불성과 신성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마성(魔性)과 사악(邪惡)이 치성(熾盛)하여 갈등을 유발하고 불화와 고통을 초래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처의 흉을 내고 부처에게 복을 빌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처가 되어 광명을 창조해 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우고(空) 버리면(捨) 심성(心性)이 고요하고 지혜가 열려 그곳에는 삼라만상(森羅萬象)이 광명의 빛으로 훤하게 밝아져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세상의 주인(主人)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광명과 혜안의 등불 밝히자

도흔 진각종 총인



오늘은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는 법신 비로자나부처님께서 일체중생들의 고통을 애민하게 생각하시고 중생들의 마음속에 자등명과 법등명을 밝혀 주시기 위하여 석가 화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진언행자와 불자로서는 다함께 봉축하게 됨을 무한한 광영으로 생각합니다.
자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 각자 자기의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으로 어두워진 미혹을 제거하고, 지비용의 광명을 밝혀서 불생불멸의 진리를 체득하며, 선악 인과응보의 이치를 깨달아서 능히 사악취선 함으로써 고를 여의고 낙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광명의 등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과 삼계육도 사생들이 다 같이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닫고 선악 인과응보의 이치를 깨달아서 능히 불작불행할 수 있는 혜안의 등불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진언행자와 불자로서는 항상 광명의 등불과 혜안의 등불을 밝혀서 물심양면으로 되어있는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여 이 땅을 불국정토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진실한 부처님의 법이며 진각성존의 무진서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과학 기술문명이 크게 발달되어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심양면으로 되어 있는 부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물질 과학문명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이 지구상에서 너무나 큰 위험이 초래된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이 시급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중략)
모든 진언행자와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되새겨서 자신이 먼저 참회하고 실천하여 자성에 법신을 확립하고 인과를 내증하여 이 중생사회를 밝혀 가는 하나의 등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탐진치에 물든 거짓 나를 참회로 씻어 버리고 참된 자기를 바로 보아야하겠습니다. 나의 자성에 본래의 청정성을 찾아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고 가정과 사회가 화목하며 모든 중생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육대 법신과 일체 유정들이 모두 나의 생명체와 일치함을 자각하여 공존과 공영의 삶이 이룩되도록 바로 보고, 바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빛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참회와 나눔의 등불, 용서의 등불, 상호 이해증진과 평화의 등불, 지혜의 등불, 대서원의 등불을 밝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참되게 봉축하는 불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좋은세상 눈앞에 오리로다

죽산 스님 대한불교 관음종 종정



불탄보은인천찬(佛誕報恩人天讚)
건곤암색일시고(乾坤暗色一時燒)
인인각지진등화(人人各持眞燈火)
만상무비미묘불(萬象無非微妙佛)
여래기심청정현(如來旣心淸淨現)
막교심타난여마(莫敎心他亂如麻)
청설의차여수행(聽說依此如修行)
천당지재여일전(天堂只在余日前)

부처님이 오시니 하늘과 사람이 찬양하고,
온 누리에 어둠이 일시에 밝아지네
사람들 각각 스스로 등을 밝히니
삼라만상 모두가 미묘법이로다

마음이 밝고 깨끗하면,
여래가 절로 오시거늘

마음을 삼가닥처럼 어지럽게 하지 말라
이말 듣고 이대로만 수행해 나갈지면
좋은 세상 눈앞에 오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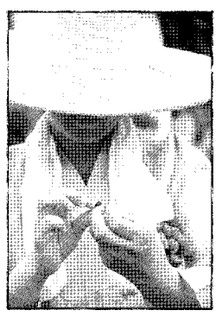
뿌리가 하나이니 서로 사랑하라

효강 총지종 종령



(전략)
이 성스럽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화신으로 오신 것은 모든 중생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기원하는 무차대비의 원력이었습니다.
나와 남이 따로 없고, 천지와 더불어 우리 모두 하나의 생명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탐욕과 분노가 얼마나 부질없는 망상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연기(緣起)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자비심과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길은 오직 남을 돕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미물이라도 자비한 마음으로 도와주면 언젠가는 은혜를 갚기 마련입니다.
동생동사(同生同死), 동고동락(同苦同樂)의 대진리를 하루 빨리 깨달아서 모두가 시기와 질투, 아집과 집착의 굴레를 버리고, 손을 맞잡고 서로 도우며 힘차게 정진합시다.

법어전문은 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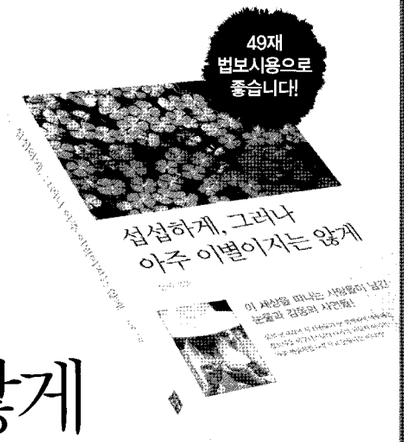
천여 명의 죽음을 배웅하며 쓴 마지막 순간들의 기록!

결혼을 두 달 앞두고 급성 위암 판정을 받아 약혼자와 함께 정토마을로 온 스물여섯 살 아가씨의 눈물겹고도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 군인의 아내로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모두 박사로 키웠지만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식들을 남겨둔 채 외롭게 이 세상을 떠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 묻힐 곳이 없어 기구하게도 기독교 묘지에 묻혀야 하는 한 스님의 이야기, 모든 것을 용서하고 비로소 평화롭게 떠나는 한 여인의 애절한 이야기 등 그들에게는 한순간이라도 아쉽고 안타까웠을 순간순간들이 책의 페이지 페이지마다 그려지고 있다. **이 책은 실제 에피소드로 그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며 생의 마지막 순간의 기록이자 우리들이 맞이할 미래의 시추에이션이다.**

이승과 저승의 간이역 정토마을 비구니 능행스님의 이별과 만남 이야기!

능행스님이 몸이 아파 병석에 누웠던 2년 전 하나 둘 메모해둔 원고가 이 책의 바탕이 됐다. 그간의 활동을 일기체 형식으로 적어 얘기가 생생하고, 그런 만큼 설득력도 크다. **– 중앙일보**
능행스님은 잘 살다가도 어느 날 죽음이 닥쳐 질질 끌려가기보다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미소로 답하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죽음일까 하고 묻는다. **– 동아일보**

49재 법보시용으로 좋습니다!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능행 지음 | 신국판 | 올컬러 | 276쪽 | 값 9,500원

www.dosolbooks.com
Tel. 02.335.5755



불편해도 좀 참아 보라
갖고 싶어도 좀 기다려 보라
그 속에 존재의 깊은 풍요가 있다

부자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

부자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

법상 지음 | 신국판 | 올컬러 | 280쪽 | 값 9,500원

부자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사는 것이 부자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富)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살고자 하는 것이 그 근본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은 단순히 소유가 많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만족이 많은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준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풍요로운 부자, 이웃과 직원들에게 나눔 줄 아는 부자, 돈과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부자, 기도와 명상으로 깨어 있는 부자, 오직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부자, 그런 부자로 이 순간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www.dosolbooks.com
Tel. 02.335.5755

한 뜻 되어 굳게 뭉쳐나가야

일공 스님



원융종 종정

이 우주의 주인이요 삼계의 스승이며 사상의 아버지이신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무리를 이끄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온 국민과 더불어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와 광명이 온 누리에 가즉하여 모든 인류에게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나라의 안정에 힘쓰고 안정을 바탕으로 번영을 꾀하여야 하고 민족의 번영만이 오직 평화통일의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역사와 민족을 우롱하는 어두운 땅 북녘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고루내리시어 그들에게 자유와 희망과 생의 용기를 주시옵기를 기원합시다. 이제 조국은 민족번영의 길 뒤에 서있습니다.

너와 내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굳게 뭉쳐나가야 함은 오늘의 세계 역사적 현실에 있어서 원융회통되어야 합니다. (하략)

육근의 몸 떠나 허공의 몸 깨치라

면철 스님



불입종 종정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이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약을 나누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산과 들에 지천으로 핀 꽃들도 손을 흔들며 죽어도 죽지않는 도리를 안다고 말합니다. 나뭇가지에 갸벼운 몸을 맡긴 산새들도 죽지않는 이치를 저도 안다고 노래합니다. 바로 그 노래소리가 이치 그 자체입니다.

실로 죽어도 죽지않는 도리를 깨우쳐 주시고자 부처님은 오셨습니다. 육근의 몸을 떠나 허공의 몸을 깨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윤회의 파도에 떠 잠기지 말고 오늘의 삶을 원만히 가꾸어 성불의 길에 발판을 놓는 거룩한 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산하대지 일체 만물이 한 몸

혜안 스님



무량종 종정대행

사생의 자부(慈父)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육도중생을 구제코자 먹구름 헤치고 맑은 햇빛 쏟아지듯 미혹한 사바세계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네.

날가고 달가고 세월은 무상(無常)하여 만사가 찰라로 영겁으로 돌고 도는데.

오욕(五慾)의 집착으로 고통에서 신음하는 일체 중생을 무명(無明)을 걷어내고 참된 본래면목을 타아 영원한 안락국토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인도하려 오셨네.

한줄기 빗물이 독초 약초 가리지 않고 백가지 꽃 피우고. 삼라만상 두두물물(頭頭物物) 정연한 질서 산하대지 일체 만물이 한 몸이요 분신이니 제반사가 인연소치 내 탓인줄 알아차리고 투쟁과 미움과 탐욕을 버리고 우리 서로 다함께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내안의 부처님 끌어냅시다

붕해 스님



(재)일붕선교종 종정

내안의 부처님을 끌어냅시다.

나무아미타불은 우리 밖의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나의 참 생명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남들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내가 바꿔야 될 남은 없습니다.

바로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뀔 때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뀔 때 나라도 바뀌고,
내가 바뀔 때 세계가 바뀝니다.

자성삼매 등불 밝히자

봉암 스님



일붕선교종 종정

하늘에 달이 지면 달이 사라졌다 말하고 달이 뜨면 달이 나타났다고 말하지만 달은 항상 밝은 그대로 이듯이 부처님도 이와 같아 오고 감이 따로 없고 항상 중생들을 향해 자성삼매의 등불을 밝히도록 섭수하시는 것입니다. 자성삼매를 따라 고요한 마음을 이루면 이를 정(定)이라 하고, 고요한 마음을 통해 밝은 공덕을 이루면 이를 혜(慧)라고 하는 것이니 고요한 마음은 곧 밝은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등불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처럼 등불은 빛의 몸이 되고 빛은 등불의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요한 마음과 밝은 지혜는 우리들의 마음인 자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니 등불과 빛은 그 근본이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부처님의 가호와 자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자성삼매의 등불을 밝혀 밝은 지혜의 공덕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 갑시다.

생사를 벗어나라

운허 스님



미륵종 종정

무거무래(無去無來)
하처거향(何處去向)
유유일도(唯有一道)
심지작법(心地作法)
오도무애(悟道無碍)

가고옴이 본래 없는데
어느 곳을 향하여 가오리까
오직 한길이 있을 뿐이로다
심지법을 잘 다스리면
도를 깨쳐 걸림이 없느니라

마음 있는 곳에 불교있다

죽산 스님



임제선학원 종장

기료여래진실의(已了如來眞實意)는 사대본공(四大本空)이며 오온비유(五蘊非有)요.

제악막작(諸惡莫作)하고 중선봉행(衆善奉行)함이 시위파라밀(是爲波羅密)이로다.

일체 중생들이 옷깃 여미어 부처님의 사파강림(娑婆降臨)을

봉축(奉祝)하고 동체대비(同體大悲)의 향기(香氣)로 청정력(淸淨力)을 증장(增長)하니

마음 있는 곳에 불교 있음일지니, 어찌 불교가 어렵다 하리요.

이웃 돕고 남 따뜻하게 배려

덕암 스님



법성종 종정

범사(凡事)에 유인정(留人情)이면 후래(後來)에 호상견(好相見)이니라. 인간은 언제나 남을 돕고 이웃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

이웃을 돕고 남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일이야말로 자비의 원리이며 최고의 미덕(美德)일 것입니다. 남을 돕고 이웃에게 따뜻하게 인정(人情)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그 인정(人情)에 감복(感服)하여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고 사랑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이며 나눔의 정신이며 부처님 마음입니다.

삼처전심의 소식 들어라

신풍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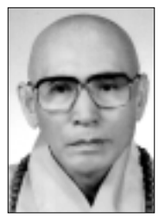
대원종 종정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 2551년이 되었네. 오랜동안 변하지 않는 광장 설을 설하셨고, 끝없는 세월 빨리 가니 바르게 정진하여서 삼처전심의 소식을 더욱 생각나게 하네.

부처님 오신 참뜻을 열심히 공부수행 정진하여 전쟁이 없는 세계평화와 조국통일 국민 대통합 경제발전과 서로 다투지 날고 화합하는 일등국민이 되어 불국토를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육근의 문에서 금빛광명 나오네

법수 스님



삼계종 종정

버릇없는 국화는 흰머리를 비웃는 데
남은 날 난간에 의지하여 주심이나 이겨볼까
친구는 산중에서 보낸 술이 늦었는데
찬 기러기 메뚜기는 강 위에서 날고

아미타불 부처님은 어느 곳에 계실까
언제나 마음 간직하여 잊지 말 것이니
생각 생각 이어가다 생각조차 끊긴 곳에 이르면
육근의 문에서 성스러운 금빛광명 찬란하게 나오네.

극락정토 인연되어 성불을

회암 스님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삼라만상의 그림자 그 가운데 나타나고 한덩이 뚜렷한 밝음은 안팎이 따로 없네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연등불을 친견하고 다겁토록 인욕선인 되셨다네

오늘의 석가탄신 봉축으로 업겁을 녹이고 극락정토 인연되어 성불하소서

보지 아니함이 봄이거늘

각암 스님



전통조계종 종정

불무근경상(佛無根境相)
불견명견불(不見名見佛)
운하어모니(云何於牟尼)
이능유찬야(而能有讚也)

부처님께선 근(根) 경(境)에 상(相)이 없으시어
보지 아니함이 봄이거늘
어찌 서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사바세계가 불국정토다

혜공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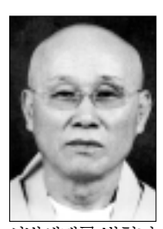


삼론종 종정

동산에 해 오르고 서산에 달 기우니
세월이 오고 감을 뉘라서 모르냐
오고 감이 멈춘 곳에 우리 세존오시니
만 생령의 축복이라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이 화해하며
기쁨과 슬픔을 서로 아우르니
사바세계가 불국정토 화하도다.

세상시비에 얽매이지 말라

혜봉 스님



해동종 종정

모두가 축복하고 받는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밝힌 하나의 등불은 천등 만등이 되어 시방세계를 밝힙니다.

세상시비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화합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아기부처님의 일곱걸음이 온 누리에 이르는 구나.

나무석가모니불.

눈먼 말이 요령소리만 따름이라

승훈 스님



三寶조계종 종정대행

수기인신이신(隨其人信而信)
수기인주이주(隨其人做而做)
시맹마수령여(是盲馬隨鈴如)
종부지향처야(終不知向處也)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믿고
그 사람의 지음에 따라서 지으면
이는 눈먼 말이 요령소리만 따름이라
마침내는 향하는 곳 알지 못하리라!

부처님 품안 자유자재한 삶

일송 스님



근본불교조계종 종정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냐에 따라 내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 냈느냐 보다 내가 얼마만큼 진실하게 사느냐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불공을 올리는 가장 큰 뜻은 나의 지난 인생이 어떠했는가 돌아보고, 나의 지금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점검해 보고, 나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질것인가 다짐하는데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한 우리의 인생을 구고구난하시는 보살님들의 위신력으로 극복하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품안에서 자유자재한 삶으로 승화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지암 스님



해동불교 임제종 종정대행

생이라 죽음이라 하니 어디로 가는가?

부처님의 생애를 회상하면 바로 위대한 사상의 가르침. 그 공덕을 찬탄하고 공경하고 일찍이 전하는 마음이로세.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바로 자성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속에 갈길을 잃어버리고 헤메일 수 밖에 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밝음을 맞아, 우리의 정체성을 되돌아 보고 진정한 대자유의 길을 걸어 갑시다.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법어전문은 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법광 스님



세계불교 임제종 종정대행

진리의 광명이 가득히 빛나는 부처님 오신날!

마음속의 탐심과 어리석음을 지우고

대승의 도를 원만히 깨달아 세상시비에 얽매이지 않고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기원합니다.

만가지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 온 누리를 장엄하는 도다.

나무석가모니불.

청정성을 되찾아 믿음과 신뢰를

정관 스님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사바세계가 삼독 암흑인데 오색광명 비추며 나투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오늘에 되새겨 자신을 반성하고 이 중생사회를 밝혀 가는 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탐진치에 물들어 거짓에 가득차고 미혹으로 가득한 자기를 참회로 놓아버리고 참된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내 안의 본래 청정성을 되찾아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여 가정과 사회가 화목하고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모든 생명체와 산하 대지가 공존공생의 삶이 되도록 바로 보고 바로 행하도록 합시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하니 사바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부처님오심을 찬미합니다.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자

혜인 스님



조계종삼화불교 총무원장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자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증오속에서도 증오없이 미워해야 할 사람속에서도
미움을 버리고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자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질병속에서고 질병 앓지 않고
병자들 속에서도 병듦없이
우리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자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 가자
쾌락된 환경에 물들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쾌락을 따르지 않으며
우리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자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부처님은 어디에 와 계시나요?

오늘, 부처님은 어디에 와 계실까요? 절 마당에 걸린 연등에 와 계십니다. 절에 오는 길가에 핀 들꽃들이 부처님입니다. 법당에서 법문하시는 스님이 부처님이고 법문을 듣는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입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 일터에서 땀 흘리는 사람,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사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 그들 모두가 부처입니다. 오늘 부처님이 오신 곳은 바로 우리들의 눈앞입니다.

황 령 선 원
홍 제 사

선원장 혜 국
사부대중일동

• 매월(음) 초하루법회, 화엄경강의, 초사흘 신중기도
• 매월(음) 보름 - 24일 자비도량참법기도(10일간)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3동 산 51-2
전화 051)802-0130

대한불교조계종
영 주 암

[부설] 양정청소년수련관,
영주암유치원, 영주암어린이집

회 주 불국정관
주 지 범 산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950
종무소 051)754-2210 유치원 051)754-6120
어린이 집 051)755-2888 수련관 051)868-0750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 흥
주 지 지 원
신도회장 김철윤 김진실행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51-8
전화 051) 624-3754, 623-3648

대한불교조계종
(마애뜨리아불교대학)
청 량 사

주 지 운암(석현엽)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445
전화 051)271-2774

대한불교조계종
마산중앙포교당 정 법 사

주 지 호암 지태
신도회일동

〈부설〉 대자유치원,도솔유치원,영축불교대학

경남 마산시 추산동 65-2
전화 055)245-6544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월 봉 사

주 지 오 심
룸비니 유치원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산60
전화 052)251-4602 / 팩스 052)235-4602
홈페이지 www.wolbongsa.org
울산광역시 시립 요양원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성산2지구 37B 3N
전화 052)246-8061 / 팩스 052)246-8063

재 단 법 인
보 현 장 학 회

이 사 장 정 여
상임이사 각 우
이 사 여현 정만 정현 심금윤월 백대일심
감 사 상현 오미희
사무국장 이욱태

후원하여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 57
전화 051)403-7096 / 팩스 051)403-9810

부산교사불자연합회

회 장 강석표
임원진 부회장-이학우 송미영 현익채 김순덕
사무국장-백철순
간 사 장-박민수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동 613번지
전화 051)204-4442

학교법인 금정학원
금 정 중 학 교

이사장 대 성
학교장 현익채
교법사 이석언
행정실장 문춘식
교직원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85번지
전화 051)517-3984~5 / 팩스 051)517-3982

부산 불교 신협

비과세 혜택에
전자금융의 편리함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47-18번지 건설회관 1층
전화 051)633-9120~3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경국사



사부대중일동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75-3
전화 02)914-5447, 2828
팩스 02)914-4326

대한불교조계종
내 원 정 사

주 지 정련

• 석암장학회 051)243-0692
• 내원정사 유치원 051)244-0691
• 사회복지법인 내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051)264-9033
내원어린이집 051)264-9031
하단어린이집 051)206-3722
부산서구시니어클럽 051)244-67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반야원 055)632-1854
마하병원 055)633-3000
부산사하자활후원기관 051)263-6697
•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함지골 청소년 수련관 051)405-5223
합천군 청소년 수련관 055)932-5662
중구청소년 문화의집 051)247-8425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산3-2번지
전화 051)242-0691
팩스 051)248-0691

삼천불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감로불교대학
- 기초 / 경전 과정 -

조실 지관 회주 법희
주지 혜총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진구 전포2동 33번지
TEL (051)809-0926
FAX (051)803-0188

불교 자비사상 실천현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부설 : ▪ 용호재가복지봉사센터 ▪ 용호치매노인주간주말보호센터 ▪ 용호가정봉사원파견센터 ▪ 용호어린이집 ▪ 용당어린이집 ▪ 양정노인주간보호센터 ▪ 부산시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전화 051)628-6737 / 팩스 051)628-6562

대한불교조계종
해 운 정 사

조실 진 제
주지 지 청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410번지
전화 051)746-2256, 4812
www.seon.or.kr

대한불교조계종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한나래문화재단

주 지 深 山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220-1
전화 051)508-0345
팩스 051)508-6561
HOMEPAGE :
www.busanbuddhism.com
E-mail: 5080345@hanmail.net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 덕 원

http ://www.gongdukwon.net

주 지 혜월(효선)

신도회, 지장회, 대원회,
연화합창단,
솔바람산악회, 열린마음봉사회,
대원청년회, 어린이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전화 051)625-2253
팩스 051)625-3886

부산불교교육대학

학 장 강선태

임직원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동 426-7 신동아 O/T 5층
전화 051)711-0700
팩스 051)711-0703
http://www.psbuddhism.org

총동창회장 정문현

집행부 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동 426-7 신동아 605호
전화 051)711-0705
팩스 051)711-0704

"수행과 참여"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회 장 공병수
직전회장 류진수
수석부회장 김성림
부 회 장 황진옥 배태순 이상률 권승렬 김영기 박정현 황국근
감 사 서병흔 김창석 이대원성
상임부회장 이욱태
사무총장 홍정표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7-1
불교회관 5층
전화 051)853-2021 팩스 051)853-2036

釜山佛教實業人會
妙 光 禪 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박수복 이상태 하문원
부 회 장 김종태 이근철 이달수 임정웅 지호경 한기승 황인관 조재원 배상진
감 사 안인성 이수환
총무이사 신병호
재정이사 이학성
사업이사 이환길
부총무이사 이규인
재정자문 김정웅

회원 및 마야부인회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1-9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전화 051)818-9914 팩스 051)818-9916

부산불교사회복지·청소년기관협의회

후원 및 자원봉사는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본 불교협의회 복지기관을 통해 해주십시오

회 장 혜총 스님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용하 / 부장 채종현
■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명현스님 / 부장 박신자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여스님 / 부관장 정순희 / 부장 조수경
■ 금정청소년수련관 관장 정만스님/ 부장 강규성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지현스님 / 부관장 김맹자
■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이사장 정련스님 / 관장 서봉스님 / 부장 김민아
■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 이사장 범산스님 / 소장 김금순
■ 부산광역시청소년쉼터 소장 박용하 / 국장 정현숙
■ 부산시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이사장 혜총스님 / 소장 김영곤
■ 부산사노인복지시설인력지원센터 이사장 혜총스님 / 소장 윤기혁
■ 사단법인 선양복지원 이사장 김수현 / 사무국장 서윤희
■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이사장 정여스님 / 사무국장 정득보
■ 사회복지법인 혜 원 이사장 원허스님 / 사무국장 이명숙
■ 사회복귀시설 캠핏하우스 이사장 혜총스님 / 원장 채인숙
■ 선 재 어 린 이 집 이사장 원허스님 / 원장 임수영
■ 실비요양원 상락정 실버빌 원장 혜문스님 / 사무국장 최종필
■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이사장 혜총스님 / 소장 김영곤
■ 양정청소년수련관 관장 범산스님 / 국장 장문숙
■ 영도구노인복지관 이사장 원허스님 / 관장 선공스님 / 과장 박경란
■ 영주암어린이집 원장 양금선
■ 용당어린이집 이사장 혜총스님 / 원장 배지미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사장 혜총스님 / 관장 이춘성 / 부장 서은해
■ 조계종복지재단 부산보현의집 원장 이기표 / 총무 이영숙
■ 하단어린이집 이사장 정련스님 / 원장 김명숙
■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유정스님 / 부관장 장병주

사무국장 이 춘 성
간 사 김 영 곤, 서 은 해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밝게 세상을 향기롭게

부르지 않아도 꽃은 오듯이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어김없이 꽃이 핍니다. 그 앙상하던 가지에 물이 돌고 따스한 기운이 감돌면 망울이 터집니다. 그 꽃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뿌리에 숨어있었을까요? 가지 끝에 매달려 있었을까요? 겨울 내내 꽃이 필 것 같지 않던 가지에 꽃이 환하게 피는 것을 보는 즐거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깃든 부처님 마음을 꺼내 꽃피우는 기쁨과 같은 것이겠지요. 우리는 이미 꽃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희양산 자락 봉 암 사

주지 **함 현**

사부대중 일동

조계종 스님들의 선수련장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특별히 매년 부처님오신날만 개방합니다.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번지
전화 054)571-9088

대한불교 조계종

개 운 사

사부대중 일동

부설 룸비니 유치원

공양주 구함 (능력대로 보수결정)

경북 문경시 산양면 연소리 483-2번지
전화 054)552-4300
유치원 054)554-0764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말사

소백산 지장보궁 내 원 암

주지 **오 성 면**

신도회장 **김 갑 순**

신도 일동

산수좋고 조용한 고찰로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한 도량이니 누구나 머물다
쉬고 갈 수 있는 도량입니다.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500번지
전 화 054)653-1180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말사

한 천 사

사부대중 일동

경북 예천군 감천면 증거리
전화 054)652-6911

대한불교 본원종 경북지구 종무원장 주석사찰

고 경 사

주지 **자 광**

사부대중 일동

- 용암산자락에 위치한 고경사에 부처님자비광명이 비추는 납골당이 마련되어 있으니 누구나 조상님을 명당터에 모시면 관운과 재물이 발복하는 고경사로 연락바랍니다.
- 납골탑관리비
  1년에 2만원/영구봉안부부:3백만원
- 오시는길
  영주IC-15분거리. 서안동IC-20분거리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7
팩스 054)638-8882

대한불교 조계종 16교구 말사

영 전 사

주지 **해 득**

사부대중 일동

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풍기연화 어린이집 운영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6리 401번지
전화 054)636-2328
e-mail : phn6266@hanmail.net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말사

문수산 축서사

주지 **무 여**

사부대중 일동

축서사 불교교양대학 운영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전화 054)672-7579
홈페이지 www.chooksersa.org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말사

홍법사(영주포교당)
영주불교 문화대학
영주불교노인대학

학 장 **주지 석법라(석후)**

사부대중 일동

경북 영주시 영주2동 411-2
전화 054)632-3767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농법인 풍기정품 인삼제조장

진실한 마음으로
정품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 **품 목**
- 풍기정품홍삼액(골드)
  100g 60포, 30포
- 홍삼음료(액기스)
- 홍삼원액
- 홍삼
- 인삼
- 절편삼
- 인삼사탕, 인삼제리
- 홍삼 청국장(환,분말)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421번지
TEL 054)636-2174
※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insammaket.com 이나
네이버에서 인삼마켓을 쳐보세요.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말사

화엄도량 부 석 사

주지 **근 일**

사부대중 일동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전화 054)633-3464
홈페이지 www.buseoksa.org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말사

소백산 자락 비 로 사

주지 **성 공**

사부대중 일동

- 저서 : 인도와 네팔의 불교성지를 돌아보다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전화054)638-5033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말사

대승사 대승선원

주지 **탄 공**

사부대중 일동

경북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8번지
전화 054)552-7105
홈페이지 tour.mg21.go.kr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말사

명 봉 사

사부대중 일동

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501
전화 054)653-1365

대한불교 조계종

흑응산 연 방 사

주지 **일 봉**

사부대중 일동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208번지
전화 054)655-1357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말사

운달산 김 룡 사

주 지 **혜 창**
부주지 **정 업**

사부대중 일동

– 마음을 밝게 세상을 향기롭게 –

경북 문경시 산북면 김룡리 410
전화 054)552-7006 팩스 054)553-5352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기도도량 성 불 사

주지 **혜각 지성**

사부대중 일동

경북 영주시 상망동 산 37-33
전화 054)634-7918. 9

정토선원

소백산 장 안 사

회주 **운 성**
주지 **홍 전**

신도 일동

경북 영주시 단산면 단곡3리 740번지
전화 054)631-2345. 4242

지장기도 도량

수양산 벽 종 사

신도 일동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3리 449번지
전화 054)281-1517.1527

대한불교 조계종

학가산 광 흥 사

주지 **혜 봉**

사부대중 일동

경북 안동시 서후면 자품리 813번지
전화 054)843-2171

대한불교 관음종 경북종무원장

소백산 안정포교원

주지 **서 포 백 재**

안동교도소 교화

사부대중 일동

영주시 순흥면 청구2리 487-1에 화엄정사
사찰건립불사 모연문을 받고있으니
전국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복밭을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관 음 사

주지 **도 기**

사부대중 일동

관음유치원운영, 군포교·재소자포교활동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739번지
전화 054)633-1138

우연같은 인연이 새 길되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할 때 행복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셀마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시력을 잃어갔지요. 그녀의 아들도 점점 아파갑니다. 그들의 인생은 정말 팍팍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정작 셀마는 음악을 들으며 이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뮤지컬배우가 되는 꿈을 꾸면서 말입니다.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떻게 마음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영화 '어둠속의 댄스' 중에 나오는 이야깁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 영화에 나온 뉴월드(New world)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음악실 김태연입니다."

매일 밤 11시 불교방송을 틀면 차분한 음성 하나가 주파수를 고정시킨다. 지난 4월 2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한 영화배우 김태연(32)이다. 스크린에서 파격적인 이미지와 개성 있는 캐릭터 및 깊이 있는 연기로 주목받았던 김태연이 또 한 번 엔터테이너로서의 변신을 꾀했다. 2006년 9월 KBS 2TV 시트콤 '사랑도 리필이 되나요' 출현 이후 6개월 만에 영화음악실 DJ로 활동에 재시동을 당긴 것이다.

"라디오 방송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반응이 순간순간 오기 때문에 바싹바싹 긴장해야 되지요. 하지만 방송하는 이 순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 신선하고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시작한지 1개월이 조금 넘었지만 김태연씨의 '영화음악실'은 항상 문자메시지가 넘쳐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김씨의 인간적인(?) 진행 때문이다. 김씨의 방송은 틀에 박힌 깔끔한 어투보다는 오히려 이웃집 언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겹고 소박하다. 애교스런 실수도 가끔 있다.

"방송 시작한지 얼마 안 돼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멘트를 잘못한 뒤 "에이~씨"하며 안타까워 내지른 소리가 그대로 방송에 나간 거에요. 집에서 모니터를 하는데 어찌나 낯이 뜨거워지든지 창피해서 혼났어요."

쌀쌀맞고 차가운 인상이라 인터뷰하기가 녹록지 않을 거란 예상은 김씨와 얘기를 나눈지 채 10분도 안 돼 기우였음을 알았다.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 때문에 차갑게 느꼈을 거에요. 하지만 순정만화 여주인공처럼 심심한 역할은 딱 질색이에요. 개성 있는 역들이 맞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 같아 좋아요."

불교방송 영화음악실 '인기몰이'
순간순간 반응 올 땐 바싹바싹 긴장
봉은사 찾아 참선 · 절하면 마음 편해

그동안 출연한 영화 '거짓말'과 드라마 '올인', 또 현재 출연중인 MBC 새 드라마 '신 현모양처'에서의 시나리오 작가 임태란 역 등에서 다양한 끼를 발산한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았다. 스크린이나 TV에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비쳐지지만 김씨는 사실 알고 보면 내성적인 성격이 많은 편이다. 취미도 독서와 음악듣기, 사색이다. 매일 2시간 동안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는 것 빼면 동적인 취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불교와도 잘 맞는 것 같다.

"원래 불교집안이지만 저는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절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갑자기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것이 계기였어요. 무엇엔가 기대고 싶을 때 가장 사람들이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종교잖아요. 가끔 강남 봉은사에 가서 참선도 하고 절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서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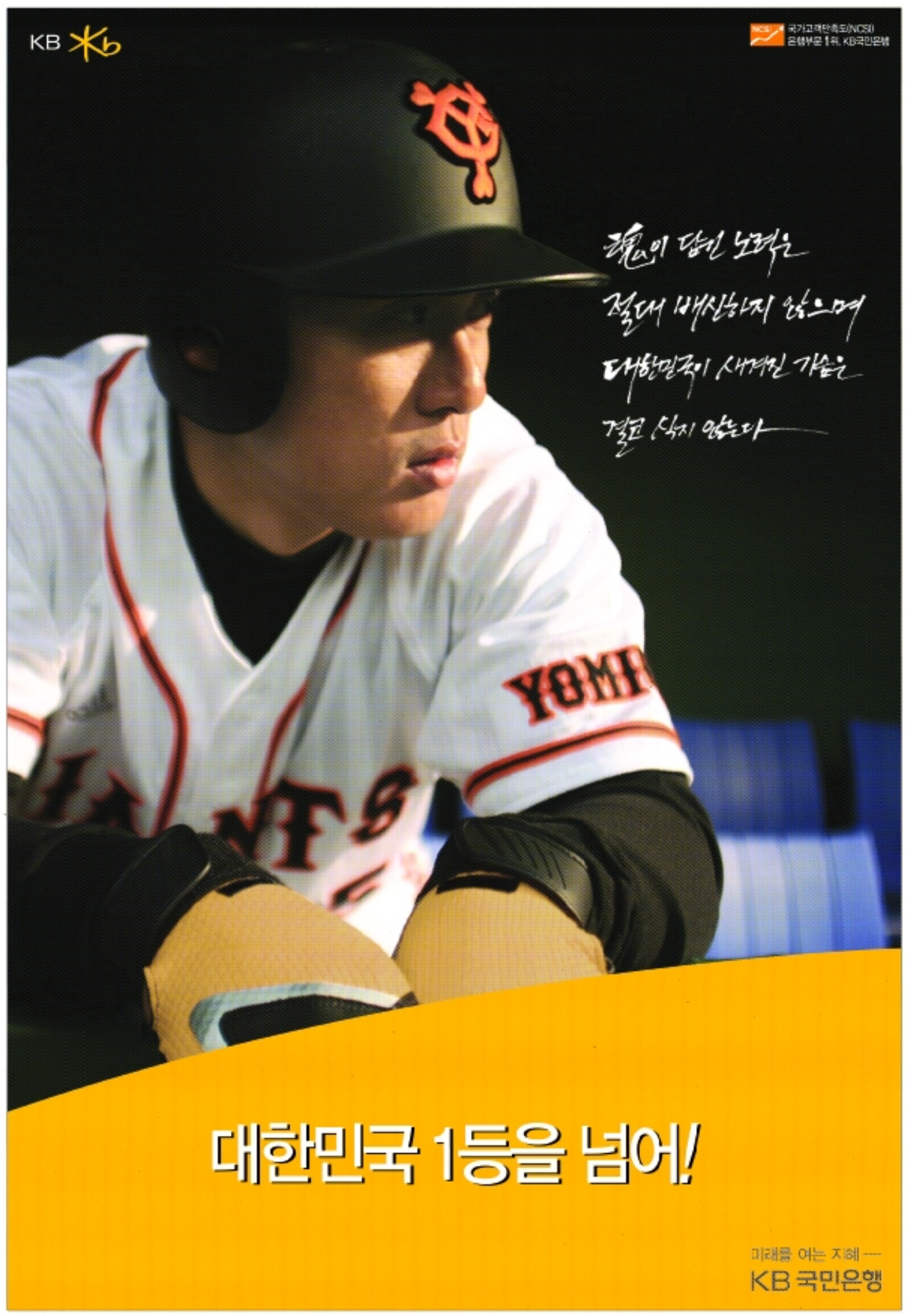
김태연씨는 모든게 우연한 인연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처음에 영화배우로 데뷔한 것도 또 모델로 현재 DJ도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주변의 소개로 배우로 데뷔했고 잠깐 불교방송에 출연했다가 방송 진행을 맡게 됐다. 하지만 늘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삶의 태도가 현재의 인기배우 김태연을 있게 했다. 우연 같은 인연이 새 길을 열어주면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김태연씨의 '인연 이야기'다.

"많은 작품에 출연하는데 의미를 두기 보다는 내게 맞는 작품을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 새 영화 출연작 한 편을 고르고 있는데 배역이 주어지면 실망시키지 않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며 자신이 하는 '영화음악실'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전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김씨는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배우와 DJ로 남고 싶다고 피력했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이 합창과 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맑은 목소리로 부처님 생신 잔치했어요

'전국 어린이 연꽃노래잔치' 현장

초등학생 시절, "노래 좀 한다"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한번쯤 꿈꿔왔던 무대가 있다. 바로 어린이 동요대회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두 손을 곱게 모으고 온몸을 좌우로 흔들며 리듬을 타는 모습이 조금 우습기도 하다. 하지만 순수한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노래 부르는 모습, 그 순간이 참 아름다웠다.

부처님께서 오신지 2551년이 된 올해, 부처님 생신을 맞이해서 불교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축제가 5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전국 어린이 연꽃노래잔치'라는 이름처럼 1년에 딱 1번 열리는 어린이들의 노래 솜씨 경연장이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같은 것은 없었다. 그 동안 어린이들이 절에 다니며 배운 찬불동요를 여러 사람 앞에서 부르는 것, 그것이 목적인 무대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이미 예선을 거쳤다. 역시 본선 참가자들이어서일까. '삼귀의'를 부르는 목소리부터 남다르다. 그 어느 법당에서 들었던 삼귀의가 이렇게 맑았을까.

노래잔치는 송묵 스님과 어린이들이 함께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외치며 시작됐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어린이들은 유치부. 깜찍한 꼬까옷을 입은 유치부 어린이들의 귀여운 노랫소리에 객석은 그야말로 함박웃음이다. 그 중에서도 돋보인 친구는 혜림이(7). 그 나이 또래면 으레 음정도 불안하기 마련인데 혜림이는 정확한 음정 박자로 큰 박수를 받았다. 또 한 명의 유치부 스타는 윤성(5)이다. 가장 막내라서도 그렇지만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보는 이에게 흐뭇한 광경이다.

이어 저학년 친구들의 노래 자랑 시간. 유치부가 깜찍했다면 이제 점점 화려한 의상을 입은 공주님들이 무대 위로 나설 차례다. 하늘색 드레스, 땡땡이 치마, 깔끔한 올림머리는 공주님들의 특권. 공주님들 틈새에 왕자님 우중이(10)가 끼었다. 남자 아이지만 깨끗한 목소리로 여자 아이들과 충분히 솜씨를 겨룰만하다.

얼핏 아이들이 너무 치열하면 어쩌나 걱정스러웠는데 쉬는 시간, 서로 손을 붙잡고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면 그런 근심은 멀리 사라졌다.

본선 참가자들 '삼귀의' 목소리도 달라
유치부의 깜찍한 노래에 객석 함박웃음
저학년들 땡땡이 치마에 춤 솜씨도 '짱'



이윽고 시작된 단체합창과 고학년 무대. 단체는 능인선원이 역시 눈길을 끈다. 지휘자도 있는데다 25명이라는 숫자, 그리고 꾸준한 연습을 통한 실력 때문이다.

고학년 무대는 정연이, 지은이, 혜정이, 태연이, 소희 등이 다들 각자의 음역에 맞게 곡을 잘 살려냈다. 그나저나 큰일이다! 심사위원들이 너무 힘들게 생겼다. 보는 사람들까지 누구에게 더 큰 상을 줘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실력이 다들 뛰어나기 때문이다. 심사위원 황학현 선생님(찬불가 작곡가)이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심사평을 남긴다.

"정말 잘 불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즐겁게, 웃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음색에 맞는 곡이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 그게 참 아쉬워요."

심사위원 선생님 말대로 이날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부처님을 사랑해', '하얀 연꽃', '웃으면서 살아갈래요' 등 비교적 유명한 찬불동요에 집중되는 모습이 보였다. 심사위원들도 느꼈지만 객석에서도 학부형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심사위원들이 누구에게 무슨 상을 줄지 열심히 고민하는 동안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의 멋진 공연, 사회자 이진 선생님(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의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다가왔다. 드디어 수상자를 발표하는 시간. 모두 나와 상장을 받고 만족하는 모습이다. 그저 노래가 좋아서 무대에 섰기에 후회는 없다. 하지만 대상만큼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궁금해진다.

두근두근한 순간, 고학년 부문 문소희(12) 어린이가 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청안사에서 노래실력을 갈고 닦은 소희는 목소리만큼 수상소감도 또록또록 남긴다.

"평소에 음악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번엔 주지 스님께서 좋은 대회를 알려주셔서 큰 상을 타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 상을 탔지만 다음에 또 대회가 있다면 친구들과 다시 한 번 노래를 불러보고 싶어요."



대상 수상한 문소희 학생(가운데 사진).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위 사진).

소희를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송묵 스님은 "소희처럼 재능 있는 어린 불자들을 찾아 각 신행단체와 사찰에서 키워주는 것이 어린이 포교의 과제"라며 한 가지 제안한다.

"요즘은 '놀토'가 있잖아요. 각 사찰을 이용해 예체능분야를 지원,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입니다. 많이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글 · 사진=김강진 객원기자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부산 선찰대본산 범어사에서는
매월 2 · 4주 토요일 10~12시 '어린이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신기의 무술 태극권, 전통다도, 한지공예, 천연염색등이 마련된다. (051)508-3122

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에서는
매월 2 · 4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미타선원 교육원에서 '희상 스님의 미술과 함께하는 마음공부'를 개최한다. 준비물은 미술도구이다. (051)253-8687

안성 남사당 전수관에서는
남사당 풍물놀이를 악기 없이 배우는 어린이 전통문화체험과 남사당 인형을 소재로 개발한 어린이 전통문화체험을 준비했다. 풍물의 장단과 신명을 풍물진법에 따라 움직여보고 춤추고 놀면서 배운다. 또한 남사당 인형극에 나오는 박첨지 인형을 만들고 옷을 입혀 완성해 보고 인형극의 한 장면을 연출해 볼 수도 있다.(02)6012-9630, (031)678-2931

서울 대학로 상상나눔씨어터에서는
5월 31일까지 국내 최초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뮤지컬 '노노이야기'가 공연된다. 이 공연은 선진교통문화대상에서 수여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뮤지컬 형식을 통해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알리고, 이러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02)741-2002

서울 성북동 최순우 옛집에서는
5월 24일~27일까지 최순우 선생의 책 제목에서 따온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우리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강연, 낭독음악회, 답사, 체험놀이 등의 유익한 행사가 펼쳐진다. 행사 중에는 최순우의 옛집 안내와 그림마당,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등도 즐길 수 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홈페이지(www.nt-heritage.org) 참조. (02)3675-3401~2

청원 미동산수목원에서는
수목원 내 산림과학박물관에서 6월 10일까지 우리 풀꽃과 자연을 소재로 만든 <자연이야기> 특별전을 개최한다. 아이들이 산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나뭇가지 등이 어떻게 공예품으로 다시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043)220-5501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작고 30주기를 맞아 박길웅 회고전을 연다. 박길웅은 천부적인 재능과 독특한 기질, 진보적 예술관을 지닌 예술가로 우리 화단에 추상미술이 도입된 이후 한국 현대추상화부문의 대표적 작가 중의 한사람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80여 점의 평면, 입체 양식의 작품들과 작가 관련 자료들이 전시된다.(02)2188-6000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말을 하다보면 '이런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이게 된 것일까?' 궁금해질 때가 있지요. 그 뜻이나 사정을 알게 되면 그 말의 쓰임을 더욱 분명하게 알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당분간 단어의 의미와 쓰임새를 중심으로 공부해 볼까요?

어처구니 : (주로 '없다'의 앞에 쓰여) 상상 밖의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을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어이없다와 비슷한 말이죠. 또한 흔히 가정에서 쓰는 분쇄기가 없던 시절, 곡식을 갈 때 쓰는 맷돌이 있습니다. 그 맷돌을 손으로 돌릴 때 쓰는 나무 손잡이의 명칭이 바로 어처구니입니다. 맷돌을 돌릴 때 손잡이가 없다면 맷돌을 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어처구니없는 맷돌이 되는 것이죠.

개밥에 도토리 : 개들은 밥그릇에 떨어진 도토리를 먹지 않습니다. 밥만 먹기 때문에 결국 밥그릇에는 도토리만 남게 되는데, 그 모양이 마치 도토리가 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축에 끼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개밥에 도토리'라고 한답니다. 혹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개밥에 도토리야"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활개치다 : 거리낌 없이 마음껏 활동하다. 새의 두 날개나 사람의 두 팔을 가리켜 '활개'라고 합니다. '활개치다'는 새나 사람이 활개를 치듯이 의기양양하게 노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반에서 누가 가장 활개치고 다니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조건없는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야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톨스토이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삶의 궁극적 가치 새기며
쉽게 읽을 수 있는 민담집
인간의 존재 이유 묻게 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오랜 세월에 걸쳐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던 러시아의 옛날이야기들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엮은 민담집이죠. 이 작품은 톨스토이 스스로가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등의 대작 이상으로 각별히 아꼈다고 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1881년 작품으로 기독교적 인간애와 도덕적 자기완성이라는 '톨스토이주의' 견해가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지요.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 미하일은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깨달은 후에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말만을 들은 채, 추운 겨울 벌거벗은 채로 지상에 떨어지게 된다.

절망하여 쓰러져 있던 미하일 앞에 낡은 외투를 입고 나타난 세몬은 자신의 옷을 벗어 미하일에게 입혀주고, 자신의 구두를 벗어 신겨준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미하일을 데려오게 되고, 당장 내일 아침 자신들의 먹을거리도 없으면서 자신을 보살펴주는 마뜨료나의 얼굴에서 미하일은 하느님의 첫 번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마뜨료나의 얼굴에서 '사랑'을 보게 된 것이다.

세몬과 함께 구두 만드는 일을 하게 된 미하일은 1년이 지나도 해지지 않는 구두를 주문하는 한 건장한 남자의 뒤에서 그를 데려가기 위해 서 있는 천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순간 하느님의 두 번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다. 튼튼한 구두를 주문했으나 정작 그 남자는 그 구두가 필요가 없다. 그는 관속에서 신을 슬리퍼 한 짝이 필요한 것이다. 하느님의 두 번째 말씀의 의미…그것은 바로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다.

세몬의 집에 한 부인이 쌍둥이를 데리고 신발을 맞추러 오면서 미하일은 하느님의 세 번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 쌍둥이들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낳자마자 죽게되었는데, 그 어머니의 영혼을 미하일이 거두어오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이 죽어 남겨지게 되는 쌍둥이들의 걱정 때문에 미하일은 하느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쌍둥이는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렸던 이웃집의 착한 여인에 의해 보살펴지고 있었다. 하느님의 마지막 말씀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다. 미하일은 3가지 질문의 답을 찾게 되고 자신이 천사임을 세몬의 가족에게 말하곤 옅은 미소를 띠며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람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의 마음으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잘나도 혼자서는 살 수 없지요. 더불어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각자 자신을 걱정함으로서 살아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착각일 뿐 진실로 인간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중생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그토록 친절한 가르침을 베푸셨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스스로에게 갖춰진 자비와 지혜의 보물을 꺼내 이웃과 나눠 쓰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지금 여기에 왜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 자신에게는 중요한 '그 무엇'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부모 이혼, 아이들이 알면 어쩌죠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혼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늘 부모님들이 이혼한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걱정이에요. (ID:000900)

인정하고 밝고 당당하게 생활하세요

친구가 많이 힘들군요. 부모님들의 이혼이 친구 잘못도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의 이혼을 알게 될까봐 불안하고 걱정되지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적절한 방법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으며 이 모두를 통합적으로 지각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나 열등감을 피하거나 거부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극복해 나갈 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게 되지요.
부모님의 이혼이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더 좋지 못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알릴 필요는 없지만 숨기려고 안절부절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알아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보세요.
부모님의 이혼을 언제까지 열등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하고 밝고 당당하게 생활하려고 애쓰세요.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을 해 나간다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친구를 비난하거나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대견하게 보겠지요. 힘내세요!! (한마음 상담연구센터)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부산 안국선원 전경

"좋은 인연입니다"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선원장 수 불

사부대중일동

■ 부산 : 051)583-0993~4 / 서울 : 02)732-0772, (744)0722 / 홈페이지 www.ahnkookzen.org



"하루라도 '부처 짓' 해야 불자"

성수 스님 (황대선원 조실)

용추계곡으로 유명한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해발 1천1백93미터의 황석산 자락 황대마을에 터를 잡은 황대선원은 문턱이 낮은, 아니 문턱이 아예 없는 절이다. 일주문이 따로 없고 법당과 선방, 요사채 등 9개의 건물이 동네 집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절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 세간과 출세간이란 이분법이 이 도량에서는 무의미 하다는 의미다. 30세 이후, 늘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새 땅에서 새로운 인재를 키우겠다고 발원한 성수 스님(조계종 전계대화상, 명예원로의원)의 원력이 깃든 수행처라 그러한지도 모른다.

선원 후원으로 난 길을 따라 작은 개울의 돌다리를 건너 자리 잡은 성수 스님의 토굴과 조실채는 지난 해 새로 지은 건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마침 텃밭에서 울력하는 신도들에게 이런 저런 지시를 하고 있던 스님께 인사를 드리자, 반갑게 조실채로 안내하신다.

서울 법수선원 등에서 뵌 후, 석 달 만에 찾아뵙는 스님의 건강은 85세의 고령임에도 여전이 정정하다. 인터뷰 내내 수십 년 전의 일을 숫자까지 세세히 기억하며 말씀하시는 모습에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애독자들에게 전할 법문을 청하자, 곧 작지만 큰 법석이 펼쳐진다.

"부처님오신날만이라도 '부처 아들'인 불자(佛子)로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서 부처가 됐는지를 잊지 말고 생각해 봐야 해. 부처님은 500생 동안 몸을 받아 살면서 헛말, 헛짓, 헛걸음 안한 공덕으로 부처가 되었어. (복덕이 아닌) 공덕이 쌓여서 마지막으로 부처가 된 거지. 그런데 부처님 행동은 흉내를 내지 않고 입으로만 부처요, 마음으로만 부처라고 하면 불자는커녕 사람도 안 돼. 사람 되고 부처가 되는 거잖아. 이 날 만이라도 부처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애비와 같은 짓을 해야 해. 하루라도 '부처 짓(佛行)'을 해야 불자 아니겠어."

성수 스님은 40년 전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문을 할 때, 파격적인 설법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싯다르타 태자는 네 가지 큰 죄를 지은 놈이니라. 하지만 그는 3000년 동안이나 존경받고 있다. 자기 밥 먹고도 욕먹는 자식 되지 말고, 싯다르타 태자의 재주가 뭔지 물어보고 배워서 알고 믿어라."



이 법문에 스님과 신도들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깊은 뜻을 알아듣고는 모두 기뻐했다고 한다.

스님은 싯다르타 태자에게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네 가지 큰 죄가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국사를 돌보지 않고 출가했으니 부왕의 대를 잇지 않은 죄요, 둘째는 부모의 뜻을 거역했으니 천추만대(千秋萬代)의 불효죄요, 셋째는 젊은 부인을 버린 배신죄(背信罪)요, 넷째는 라훌라를 낳고도 기르지 않고 자식을 버린 죄라는 것이다. 이런 중죄인이 3000년 동안이나 세상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까닭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싯다르타 태자는 사문유관(四門遊觀)을 계기로 '사람은 왜 저렇게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어야 하나?' 하고 깊이 느끼고, 안 죽는 법을 알기 위해서 6년이나 찾아 다녔다. 몸은 껍질하고 뼈만 남아서 옆에 있는 밥도 먹을 사이 없이 구상하고 연구했으나 세월은 다 가버리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우루벨라 촌장 딸 '수자타'가 유미죽(乳味粥: 우유로 만든 죽)을 한 그릇 갖다 줘서 먹고 나니까, 피와 살이 되어서 정신이 드는 것이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니까 죄를 짓고 나와서 인도 땅 밟을 자격도 없고 인도 땅의 물을 먹을 수도 없고 산천초목까지도 '네 가지 죄 지은 싯다르타 태자 놈아!' 하고 전부 욕을 하는데,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은산철벽(銀山鐵壁)에 부딪쳐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통곡하다가 깨달은 때가 납월 팔일이다. 확실히 모르고, 분명히 모르고, 크게 몰랐기 때문에 크게, 아주 크게 깨달았음을 알아야 해."

> "'유아독존' 위대한 인간 선언 이해 못하면 '봉축 행사꾼' 부처님 오신뜻 잘 모르고 헛절만 하는 사람 되지마라"

스님이 보기에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을 모르고 불상에 절하는 것은 전부 '헛절'이다. 때문에 "헛절 많이 하지 말고 절 한자리를 해도 부처님의 본뜻을 알고 해라. '정말 네 가지 죄를 지었는데도 3천년을 존경받는 그 이유를 내게 눈꼽만치라도 가르쳐 주면 내가 고마워서 절해 주겠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해 보라"는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에서 봉축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싯다르타 태자가 '주행칠보(走行七步: 일곱 걸음을 걷고)에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하늘 위와 아래에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이라고 말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봉축 행사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는 그 정신은 아만도 아니요, 도도한 아상(我相)도 아니요, 오직 이 밝은 빛이며, 참 자아의 발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밝은 빛은 성인의 것도 아니요, 중생의 것도 아니요, 우주 법계에 항상 존재하고 있으나, 그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싯다르타 태자만이 먼저 발견한 것이야."

부처님께서는 저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부처요, 조사임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는 뜻이다. 각자가 '본래부처'임을 자각하고 부처행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격식 밖(格外)'의 도리를 담고 있는 법문이다. '유아독존'의 깊은 도리를 체득해 그 자유자재한 뜻을 맛보게 되면 비로소 '산 불자'가 된다는 가르침이다.

부처님 오신 참뜻을 이렇게 설파하는 성수 스님은 누구보다도 부처님오신날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초파일, 석탄절, 불탄절 등으로 불리던 부처님 탄신일을 순 우리말인 '부처님오신날'로 통일해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스님은 무려 40년 전의 일을 오늘의 일처럼 눈앞에서 보듯 생생하게 말씀하신다.

1967년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과 조계사 주지 소임을 볼 때의 이야기다. 당시만 해도 젊었던 성수 스님은 평소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뛰어넘어 활달한 포교사업을 펼쳐 불교계를 놀라게 했다. 아직 가난한 시절, 스님은 조계사 주지에 취임한 지 3일 만에 서울 시장을 만나겠다며 면담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장이 바쁘다보니, 그날 저녁 7시에야 만나게 됐다.

9살 연상이었던 김현욱 시장은 초면에 스님에게 거침없이 말했다.

"왜 찾아오셨소?"

"조계사 신도회장 좀 맡아주시오."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경상도 무지렁이가 서울 와서 일 좀 하게 해주시오."

"그럼 뭘 도와드려야 합니까?" "구청장 17명이 신도회 부회장으로 들어와야 일 좀 할 것 아니오."

"그건 맞소."

이튿날 서울 시장과 구청장들이 조계사에서 예불을 했으며, 시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당시 논 100마지기에 달하는 거금인 20만원을 선뜻 내놨다.

이렇게 해서 그 해 부처님오신날에는 그야말로 풍성한 생일잔치가 벌어졌다. 스님은 삼립식품 공장에 고급 빵 3만 개를 주문했다. 이 빵으로 스님은 서울시내 111개의 양로원에 수용돼 있는 8751명의 노인과 종사자에게 1만 개를 나눠주고, 1만 개는 조계사를 찾는 신도들에게, 나머지 1만 개는 서울역 행인들에게 나눠주었다. 봉축의 기쁨을 서울 시민과 함께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쯤에서 스님의 법문이 다시 이어진다.

"불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보시의 의미를 알아야 해. 부처님은 등 팔아먹으라고 오신 게 아니야. 부처님께 올린 떡이나 과일,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주는 게 참된 생일잔치다. 양로원에 빵이라도 보시하고, 학비 없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미꾸라지 한 그릇이라도 방생하며 보시하는 날로 기억해야 해. 도(道) 닦는 것도 나눠줄 줄 알아야 진짜 도 아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생활 활용 CD

전문가용 하락리수 CD

생년월일시를 입력 하자마자
사주 간지와 선천운 후천운을 즉시 확인함은 물론
12조건에 따른 길흉을 클릭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평생운에 이어 대상운 년운 월운
일운까지도 세세히 볼 수 있고,
참평결과 주역점, 궁합점수 등이 추가된
종합 주역운세풀이입니다.
아울러 토정선생의 토정수를 활용한
토정괘(384효 또는 144효)를 얻어서
실제 년운에 대입해 봄으로써,
하락이수 년운과 비교해 운명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 윤상철,
2006년 9월 증보.
※ 구성 : CD 1매, usb락, 프로그램 매뉴얼.
오운육기,궁합, 육효, 인쇄 가능

전문가용 자미두수 CD

삭망일 균시차 인명저장 등
각 학설에 따른 옵션기능과,
자미두수 성요에 대한 각 서적의 내용
망라한 설명기능,
대한 소한 태세 월건까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미두수의 특성상 종합적인 운세풀이
설명은 없습니다.
기문과 육효의 포국보조프로그램
등으로 더욱 자세해졌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 김재윤,
2006년 3월 증보.
※ 구성 : CD 1매, usb락, 프로그램 매뉴얼.
명리, 기문, 육효, 육임의 명반, 인쇄 가능

전문가용 육임 CD

삼전조식된 육임식반과 더불어
9종 10과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
육임공부를 할 수 있고,
720과에 대해 총운 공명 가정 행인 투자 등
각 25개 항목으로 나누어
육임점의 가부길흉이 단답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임입문 123의 번들 CD를 보완하였습니다.

※ 가격 100,000원 총괄 : 윤상철,
2006년 6월 증보.
※ 구성 : CD 1매, usb락, 프로그램 매뉴얼.
기문 명반

하락리수와 자미두수를 함께 구입하시면 전문가용 육임 cd를 드립니다.

문의 : (02) 2249-5630 / 563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국민 807-21-0290-497(윤상철)
www.daeyou.net

"확실히 몰라야 크게 깨닫게 돼"

니겠어."

1975년, 부처님오신날의 공휴일 지정에도 성수 스님은 큰 역할을 했다. 김현욱씨와 불자국회의원 등을 통해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지정을 박 대통령에 수차례 건의했으며, 학자 10명과 스님 10명이 참석한 세미나도 열고, 시민들의 도장을 받은 서명 용지를 트럭 세 대 분이나 청와대에 싣고 가기도 했다. 결국 국민들의 5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지정이 성취된 것이다.

이처럼 정치인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스님의 법력은 두둑한 배짱이 없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스님 표현으로는 "6개 본사급 주지소임을 볼 때마다 지역 어른들을 부려먹는(?) 재주가 비상했다"는 것이다.

한 예로 범어사 주지소임을 맡았을 때의 일화다. 스님은 처음 부산시장을 두 번이나 찾아가도 만나지 못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스님을 무시한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초도순시 차 부산에 들렀을 때였다. 부산시장과 지역 유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수 스님은 유일하게 스님으로서 현장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바쁜 일정상 다른 사람들과는 악수만 했는데, 스님과는 악수를 한 후 대화가 이어졌다.

"범어사 주지입니다."

"범어사가 전쟁 통에 많이 황폐화되었는데, 복원은 좀 하오?" "부산시장이 음으로 양으로 거들어줘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부산시장의 등을 툭툭 치면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닌가.

당시만 해도 대통령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던 때라, 그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출세 길이 보장되던 시절이었다.

그 다음 날, 새벽에 부산시장이 부랴부랴 범어사를 찾아와서 주지실 앞마당에서 절을 했다. 절에 1원도 시주하지 않고서 대통령에게 칭찬을 들었으니, 스님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황송해 했다.

스님이 차 한 잔을 건네자, 부산시장이 말했다.

"뭘 도와드릴까요? 스님."

"물질 말고 행정적, 사무적으로만 도와주시오."

"그래도 뭐 좀 화주(化主)를 하고 싶으니 화주 책을 주십시오."

"화주 책은 따로 없습니다."

그 후 시장이 종무소에서 화주 책을 만들어 가서 시장실에서 시주를 받아 왔다. 시장실에 드나들던 지역 유지들이 적지 않은 돈을 시주해서 그것을 모아 절에 보시한 것이다. 이때부터 범어사에는 하루에 고급 승용차 50대씩이 드나들 정도로 사격(寺格)이 높아졌다. 덕분에 범어사는 30동의 건물을 새로 짓고도 돈이 남을 정도로 불사금이 풍부해졌다. 비구 스님 100명이 어렵게 공부하던 범어사가 재정이 넉넉해져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그야말로 대통령 앞에서 말 한 마디 잘 한 공덕으로 '범어사의 중창주'라고 불릴 정도로 성수 스님이 큰 불사를 한 것이다.

"돈은 잘 지키고, 잘 써야 해."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중생제도를 위해 알뜰하게 모으고 좋은 곳에 써야 한다는 게 스님의 지론이다.

삼성그룹 창립자인 고(故) 이병철씨와 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인 고(故) 장경호 거사 등 큰 부자들, 그리고 거물급 정치인들과의 인연담을 듣다 보면 스님의 법력과 불교의 보이지 않는 힘을 실감하곤 한다. 그러나 요즘은 불교세가 약해져서인지, 천주교 신부님들이 정치인, 경제인들과 유대관계도 깊고 영향력도 큰 세상이 되었다. 권력과 돈에 비굴하게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과 경제인들을 정신적으로 지도해서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부처님 법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닌 불이법(不二法)을 제대로 실현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연장선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경제인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사고 청했다. 그러자 스님은 "정치인들이 무릎 꿇고 물을 때, 한 마디 청 하는 거야." 라며, 들을 자세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고 하신다.

그 대신 스님은 해방 후 범어사 위령재에 이기붕씨가 참석했을 때의 일화를 들려주신다.

당시 스님은 약관 27세에 불과했는데, 어느 큰 행사에서 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시 권력자인 이기붕씨에게 "질문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는 당당히 말했다.

"불교 재산을 빼앗아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좋은데, 국보 등의 문화재를 관리할 예산은 세워놓았습니까?"

이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한 이기붕씨는 "10리 안에 있는 사찰 재산의 절반은 돌려주라"는 행정지시를 내려서 통도사는 150마지기의 땅을, 해인사는 300마지기의 땅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특히

> "진정한 봉축은나눔의 실천
> 도 닦는 것도 나눠줄 줄 알아야
> 정신 1초만 나가도 송장 돼
> 삶 소중한 줄 알고 사세요"

해인사는 10리 안에 논이 거의 없어서, 100리 안까지 절 땅을 돌려주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받았다고 한다.

2시간여의 즉석 법문에 피곤하신지, 스님은 불자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으로 특집 인터뷰를 정리하신다.

"정신이 1초만 나가도 송장이 되는 것이니, 삶이 소중한 줄 알고 살아야 해. 지구가 돌고 돌지만 태양은 움직이지 않잖아. 밝은 정신은 가만히 있는데, 물질은 빙빙 도는 것과 같아. 숨 들이 쉬고 내쉬지 못하면 죽잖아. 자기한테 속고 살면 얼마나 억울하겠나. 꿈속에 살면서 남의 다리 긁지 말고 불알 값 하는 사내가 돼야 해. 나는 사내 같은 사내냐? 뭐하고 사느냐? 하고 따져 보고 꿈을 깨어야 해. 나이 80이 돼도 배울 건 배워야 해. 스스로 부족한 것을 알고 확실히, 분명히 몰라야만 크게 깨닫게 돼."

조실채 바깥까지 나와서 배웅해 주시는 스님께 인사를 올리고 돌다리를 건너면서 한 생각이 일어났다. '올 부처님오신날은 애독자들의 가슴에 어느 해보다 밝은 등이 켜지지 않을까?' 라고.

글 · 사진=김성우 객원기자



세상 모든 일은 행복을 위한 공부거리입니다
밝고 편안한 인생을 사는 마음공부의 핵심
신간
행복한 공부
김정섭 지음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스테디셀러 《행복한 마음》 저자의 두번째 이야기!
복잡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소중한 마음공부법을 일러주는 수행입문서! 마음공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려운 이론이 아니다. 인생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공식이 바로 공부이고 수행이다. 수행의 금이굴에서 만나는 24가지 의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일러준다. 마음공부의 초심자와 이미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실천 가능한 공부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는 책!
180쪽 | 값 8,000원 | 양장
대한출판문화협회 이달의 청소년도서 선정
중앙 독서감상문 추천도서
세월이 흐를수록 감동의 깊이가 큰 울림으로 되살아납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지혜를 얻게 해주는 172가지 뜻깊고 재미있는 이야기! 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삶의 여정에서 막히고 맺혔던 갖가지 문제들의 해답을 스스로 얻고 행복이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현대인의 고단한 영혼 위에 드리운 커다란 나무 그늘 같은 책
55쇄
행복한 마음
김정섭 지음
530쪽 | 값 9,900원 | 양장
책은 서점에서 만납니다 Tel 031)955-3104 www.gimmyoung.com
김영사



걸림없는 가풍으로 '일발선풍' 확립

월정사 · 본지 공동 주최 … '한암사상연구' 학술세미나 성료

제3회 한암대종사 수행학림이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에서 개최됐다. 월정사와 현대불교신문사(대표이사 혜월)가 공동주최한 행사에서 한암사상연구 학술연구세미나도 13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과)가 '선종사 지평에서 본 방한암 선사'를,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가 '한암의 일발선 : 장종과 교어의 마찰과 윤활'을, 김종진 교수(동국대 국문과)가 '한암 선사 참선곡의 문학적 특성과 문화사적 의의'를, 윤창화 민족사 대표가 '한암의 서간문 고찰'을 각각 발표했다.

글 · 사진=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간화'와 '반조' 우열 없이 활용

신규탁 교수 (연세대 철학과) –선종사 지평에서 본 방한암 선사



한암 선사는 '간화(看話)'를 하거나 '반조(返照)'를 하거나 어느 수행을 하거나를 막론하고 여실하게 참구해 지해(知解)를 쓸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간화'와 '반조' 사이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체의 사량분별 즉 지해(知解)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화두'를 간(看)하는 선을 수행하게 하다가 그게 완전하지 못한 수행자에게는 '반조'하는 선 수행을 하게 한 것이고, 반대로 '반조'하는 선 수행을 하다가 그게 제대로 되지 못한 자를 위해 '화두'를 간하는 수행을 하게 한 것이다.

한암 선사는 '반조'와 '간화' 모두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무자(無字) 화두'만 들라고 강조하지도 않는다.

당대(唐代)와 다른 송대(宋代) 선(禪)의 특징은 '지해'를 떨쳐버리는 수행법을 개발한 것이다. 그것이 '간화'이다. 그렇다면 아무 화두나 간하면 됐지, 하필이면 '무자 화두'인가? 이 점에 대해 한암 선사와 그의 스승 경허 선사께서 명쾌하게 답을 내놓는다. 어떤 화두를 간하든지, 화두를 간하다가, 화두가 사라지는 순간이 오면 그 순간에 당장 '무자 화두'를 들라는 것이다.

'참여와 침묵·흉금과 파예' 응축

고영섭 교수 (동국대 불교학과)–한암의 일발선 : 장종과 교어의 마찰과 윤활



한암의 일발 가풍은 바로 이 자기의 가슴속에 우러나오는 언어(胸襟)와 고삐를 정확히 잡아당기는 언어(把捜)의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으로 그는 천고 속으로 '물러나며'(藏蹤) 참여할 수 있었고, 삼춘으로 '나아가며'(巧語) 침묵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침묵과 참여를 아우른 살림살이를 한암의 일발선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종'과 '교어'가 마찰을 넘어 일발(一鉢)로 윤활되고, '흉금(胸襟)'과 '파예(把捜)'가 응축을 넘어 일발로 확산되는 역동적 지점 위에서 한암의 일발선풍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암은 '법'을 '묘법'으로 열어감으로써 법화와 행리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고 그 스스로 그러한 모습대로 살았다. 그의 살림살이는 흉금과 파예의 선풍을 넘어 활발발한 일발의 선풍으로 응축되고 확산됐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흉금의 언어와 고삐를 당길 때를 정확히 아는 파예의 언어를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와 침묵, 흉금과 파예의 두 축이 응축되는 한암의 살림살이는 다시 무소유와 무집착과 무분별에 입각한 일발선풍으로 확산됐다. 그리고 법화와 행리의 수렴은 다시 장종과 교어의 윤활을 통해 일발 선풍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암의 스님 일대기 그린 판소리 '한암가'

신명나는 장단에 어깨춤 절로

"오대산아 어쩌란 말이냐 오대천아 어이 할꼬 한 마리 학이되어 창공에 노니시며 무상한 몸 소진하여 원하옵고 원하니다 조계일적 사자후가 만만대에 전해지고 대용현전 부존궤측 항하사겁 전해지소서."

걸죽한 남도소리가 월정사 대법륜전을 휘감아 돈다. 조영재(판소리 5호 이수자) 명창의 소리에 "얼씨구" "잘하다"는 추임새가 절로 나온다. 이규호(중앙대 판소리과 교수) 고수의 장단에도 신명이 묻어난다. 그는 영화 '천년학'에서 송화의 고수 역할을 맡기도 했다.

한암 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판소리 '한암가' 완창이 처음 선보였다. 스님의 일대기를 판소리로 만든 것은 이례적이다. '한암가'를 만든 이는 장용철 화백. 그는 '참선곡'을 보고 판소리 장단에 맞겠다 싶어 2005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장용철 화백은 "40분 분량으로 한암 스님의 선사상을 보이기에는 무리"라며 "일종의 맛만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판소리의 은유와 해학은 일종의 방편설"이라는 그는 "역대 조사스님들의 일대기도 판소리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암사상연구 학술세미나 개최에 앞서 이규호 명창이 '한암가' 완창을 선보이고 있다.

"불교가사 제작 전통적 방법 고수"



한암 〈참선곡〉의 자리는 불교가사의 작시원리를 충실히 따름으로써 대중의 수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 있다. 동안거에 참여한 대중을 넘어서 일반 대중들에게 참선의 진리가 전달되도록 기존의 염불권장의 가사에 익숙한 시문법을 활용해 화자와 청자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한암은 수행에서 보여주는 선사로서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불교가요 제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참선수행의 노래를 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사라는 형식적 면모와 참선의 소의경전에 충실하고 있다는 내용적 측면에서 모두 그러하다.

근대불교지성인으로서의 한암의 실천적 면모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전통적인 방법을 택하고 이를 고집스럽게 지킴으로써 외풍에 대응했다는 점이다. 그의 문학 역시 문학사에서 걸출한 작품이라거나 시대를 앞서간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심결〉의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한 선수행의 요체를 전달하되, 대중에게 널리 전승되었던 불교가사의 여러 관습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에 충실한 마지막 불교가사를 제작하고 있다는 것이 실상에 가까운 평가일 것이다.

"깨달음 후 수행 더욱 중요" 강조



한암은 경봉에게 보낸 두 세 편의 서간에서 깨달은 뒤의 수행 즉 오후보임(悟後保任), 오후생애(悟後生涯)가 깨닫기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깨달은 뒤에도 그 마음을 잘 간직하는 수행=보임을 하지 않고 방종한다면, 결국 깨닫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 그 결과는 오히려 깨닫기 이전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후수행의 방법으로써 한암은 목우행(牧牛行)을 제시하고 있다. 소가 풀밭으로 들어가면 고삐를 당기는 것처럼 망념이 일어나거나 또는 마음이 객관적 대상을 만나서 끌려갈 때엔 즉시 그 사실을 간파하고 잡아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눈병에 걸리거나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하늘에서 공화(空花)가 떨어지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번뇌망념이 남아 있으면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암은 여기서 더 나아가 '오후수행(悟後修行)' '오후보임' '오후생애'에 대해 그 방법을 확실히 안 뒤에는 알았다는 생각마저 떨쳐버려야만 진정한 '오후수행' '오후보임'이 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알았다는 생각=집착이 남아 있는 한 그것은 아직 완숙한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도산 자수정 108 염주

평생 행운과 소원을 성취시키는 불멸의 염주

승리와 행운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쉰다는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염주가 시판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수정은 몸에 지니고 있으면 화를 쫓고 행운과 소망하는것이 이루워지고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어 모자를 쓴 고대 인도 상인과 아라비아 상인들 이마에는 자수정을 꼭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자주본다. 인도산 자수정의 특징은 어떠한 세공을 해도 오염되지 않는 정화수를 주기적으로 주면 자란다는 보석으로 인도인들은 영원불멸의 보석이라고 하여 부처님 보석이라고도 한다.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주 염주는 인도에서 가공해 국내에서 조립한것으로 색상도 일정해 품위가 있다. 불멸의 보석으로 일컷는 자수정 염주는 지니고 있는 것 만으로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오묘한 뜻이 있어 출시되자 선물로도 인기며 평생 사용할 예불법구로 불자는 물론 스님들까지도 신청하고 있다. 신광사에서는 불사기금 조성으로 구입 고객님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소원성취와 사업번창을 위한 100일 특별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2007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재화막는 삼고금강저!



닥쳐올 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삼재란 음양오행에 의해 세상사는 동안 일정한 기간에 액란과 환란이 오는 시기를 말한다. 삼재에는 드는삼재, 묵는삼재, 나는삼재 각 1년씩 3년동안 수.화.풍으로 큰화를 당할수 있다는 뜻으로 불가에서는 삼재를 소멸하는 의식으로 매년 입춘날 대부분 사찰에서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드린다. 삼재에는 나이에 따라 일반삼재가 있고 악삼재가 있다. 삼재가 든 사람들 중에는 하는일 마다 일이 안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며, 제물손실이 계속되고 뜻하지 않는 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등 어려운 고통이 오지만 삼재라 하여 삼재가 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 중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다. 삼재를 완벽하게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환란을 모면하게 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닥쳐올 화를 미리 막아주며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가로 5cm 폭 2cm로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된다.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35,000원
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 사고 예방과 닥쳐올 화를 쫓는 영험!!

자동차용 금강저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 중에는 중생들이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가격 38,000원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달수 있다.
전화(02)741-4477

화제의 지갑

옴마니반메훔 福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정해년 새지갑으로 사업성공! 평생부자!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향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 이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 소가죽에 金 · 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문의 : TEL 02)2004-8214~6, 02) 732-1522 , FAX 02)737-0696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금강경, 원각경, 참선지도
승속관계없이 견성의 실체
매주 토요일 2시 법문
지도법사 : 적파명등 합장
행자 및 동자 모집
문의 : 055)972-3843
011-9393-4965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지리산 삼화선원

秘法전수
뭇 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이 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 겁니다
1. 상흔칠백의 작용법(천도)
2. 달마 사연 장중 도법(윤회)
3. 도인 침술법(귀신병)
4. 빙의 제령법(정신병, 체면학)
5. 기공법(레이키, 약손)
*초종파, 스님 누구나 배워 보세요(보시료 약간)
055)573-7832
010-3189-3525
경남 의령 해용사 -법경-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청정다도해 나로도
자연산(100%)수산물판매
꽃게 새우 대하 농어 민어
생선회 장어 오징어 멸치 양태
서대 문어 제수용 등
등대지기
(www.enarodo.com)
061)835-7735

육임 수강생 모집
사주를 보지 않아도 찾아온 목적을 알 수 있는
육임에 비술인 초급반과 백법반을 수시모집합니다.
육임에는 백법이라는 100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가능 ●사무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문의: 02)793-7333 www.saju79.com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 49재 · 점안식
범음범패 바라 작법무 태평소
살풀이 지전무 극락무 회심곡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010-4870-8359
범음범패 무형문화재 9호 전수자

역학 속성지도
매화역수 주역 명리학 성명학
실제감정위주로 가르쳐 드리고
문서 기증함
(출장개인지도가능)
도성암 점법스님
010-7443-3060

역학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제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지방인 숙식제공)
051)818-2358
010-5345-2358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 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퇴마 영혼을 치유합니다
빙의 · 신끼 · 무병 · 정신질환 ·
우울증 · 두통 · 알콜중독 · 만성질환
조상이나 타인 영가를 특별한 기(氣)
천도재로 병명없이 몸이 아프고,
가정불화, 우환 등 병고치유함
055)261-1230
011-586-6091
※청정 비구승입니다. 수행도량 불사나 보시하실 분

육효 기문 사주

사주(일진법)	5월29일(화) 낮2~5시 첫강의
사주(용신)	5월30일(수) 낮2~5시 첫강의
육 효	5월31일(목) 낮2~5시 첫강의
기문둔갑	6월 1일(금) 낮2~5시 첫강의

* 첫 강의에 한해서 무료공개 강의합니다
* 각 과목 3개월에 확실히 책임완성 지도합니다
www.beumchun.com
02)389-6597(연신내)

청암 달마원
달마도 정진 20년 청암법사
친필 달마도를 불사에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51)202-8770
www.달마.kr

생 솔나무 36그루를
판매합니다
▷ 수령: 2~3백년
▷ 둘레: 한아름이상이며
낙락장송 무성
053)746-1809
010-6456-1599

●조용한 암자에서 기도하면서
평생 절에서 사실 50~60세
후반 처사님 그리고 출가를
하고 싶은신 분을 모십니다
●평생 포교당이나 절을 운영
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011-337-3991

총무보살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493-112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성남
011-9854-981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
010-9357-6966

조용한 산사에서
평생을 가족같이 지낼
공양주보살님을
모십니다
▷ 충북 청원군 미원면
043)297-8728
016-428-8728

참신한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포항부근 (온천단지 내)
조그마한 포교당에 스님
시봉할 공양주를 찾습니다
011-488-093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9-7766
02)353-3004

행자스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에서는
전통종단의 맥을 이어갈 예비스님 및
사미승을 모집합니다
※가족적인 분위기, 자율적인 교육, 1인1실
055)381-1199
011-590-1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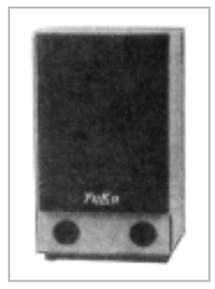
작은토굴에서
정진중인 비구승입니다
무주상으로 원융살림
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55)633-6108

경기 · 강원 지역에
상주하면서
수행하기를 원함
부전 및 사찰소임 가능
40대 후반 비구승
(초파일 이후 이동가능)
010-4561-5675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엄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 못 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 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02)826-5067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경우는 상담 중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유명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행자(예비스님)모집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 신입생 주 · 야간반 모집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제한 없음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직강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 · 한문지도자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속독·한자·독서(논술)
강사과정모집
창업, 취업, 보람찬 교육자의 길
교육도 품격이 있습니다
◈ 속독 · 한자 · 독서(논술) 교육을 한꺼번에 습득
◈ 효과가 검정된 발명특허원 획기적인 영재교육
◈ 전문교수법 완료, 초보자도 능력있는 강사 될 수 있음
◈ 각 학교 특기적성교육, 공부방, 교습소, 학원 등 강사 절대 부족
◈ **등록기간** : 2007년 5월 23일부터 선착순 50명
◈ **교육기간** : **일요일반** - 6월 24일~ 9월 2일 오후 4시~7시(주1회, 11주)
월요일반 - 6월 25일~ 9월 3일(주1회, 11주) 아침반-10시~12시, 저녁반-7시~9시
◈ **수 강 료** : 60만원 ◈ **지원자격** : 본 교육에 관심 있는 분
◈ **입금안내** : 신한은행 308-01-179614 (경기대 사회교육원)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 (02)390-5260~2
문의 : 담당교수 016-595-1137
부산 · 영남지역 교육
동아대 사회교육원 ☎(051)240-8452~6
문의 : 담당교수연구실(051)243-1137, 016-595-1137
(교육일 : 금요일반, 토요일반)

불교성지순례 안내
1. 불교 4대명산 오대산/대동/북경6일
◆일정 : 인천-북경-오대산(1)-대동(1)-북경(2)-인천
◆출발 : 매주 목요일
◆경비 : 899,000원
2. 하늘로 떠나는 티벳 열차순례 9일(칭짱열차)
◆일정 : 부산-성도(1)-라싸(2)-장체-시가체(1)-라사(2)-성도(2)-부산
◆출발 : 매주 월,목요일
◆경비 : 1,890,000원
3. 영혼의 도시 티벳 일주 9일
◆일정 : 인천-성도(1)-라싸(2)-장체-시가체(1)-라사(2)-성도(1)-인천
◆출발 : 매주 수요일
◆경비 : 1,650,000 ~ 1,890,000원
4. 불교 4대명산 상해/구화산/보타산/황산/항주 8일
◆일정 : 인천-상해-수주-항주(1)-구화산(1)-황산(2)-항주(1)-보타산(1)-상해(1)-인천
◆출발 : 매주 목요일
◆경비 : 1,190,000원
5. "산과 바다의 어울림" 상해/보타산/낙가산 4일
◆일정 : 인천-상해(1)-보타산(1)-상해(1)-인천
◆출발 : 매주 월, 수, 토요일
◆경비 : 649,000원
♣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하나투어 HANATOUR 불교성지순례전문여행사
전문판매대리점
(주)VIP여행사 진주시 신안동 8-10번지
신안동 : ☎055)743-5001, 팩스 743-5003
E-마트 : ☎055)741-9999, 팩스 742-4444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뼈교정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7. 6. 4 (월 · 화반) / 6. 9 (토 · 일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합시다!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녹음-테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 특강 안내
易學은 본래 어려운 학문이 아닌데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古典 命理學者들이 주장하는 格局과 用神 때문이다. 四柱는 단지 陰陽五行의 변화법칙일뿐 格局과 用神을 몰라도 정확하게 운명을 감정할 수 있다. 著者 역시 30여년간 命理學을 연구하였으나 해답을 얻지 못했다. 太極四柱는 命理學을 보완한 것이다. 古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렵고 오판과 실수가 많지만, 太極四柱는 감정이 정확하고 논리가 정연하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난다.
<u>녹음-테이프로 하루 한 시간씩 독학(獨學)으로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u>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 감정하므로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命理學과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스스로 인정할 것이다. 이번에 발간한 增補 太極四柱는 前日에 著者가 출간한 太極四柱를 획기적으로 수정, 보완(修正, 補完)한 것이다. (안내서 무료배부)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강 사 : 孫中山 會長 (74세) 太極四柱 著者
◆테이프 16개와 敎材代 포함 : 20만원(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예금주 :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524-2468 / 053)326-4585
(080-322-4684)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4~6 / 02)732-1522 (直) ·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수요일 · e-mail: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지역
● 법당 : 30평
● 명부전 및 요사 : 300평
● 부지 : 1200평 외 1500평
● 가액 : 18억(급매가격임)으로 꼭 필요한분 직접상담요

● 위치 : 논산
● 법당 : 20평
● 요사 : 50평
● 임대 : 3000/25

● 위치 : 경남
● 법당 : 24평
● 요사 : 169평
● 부지 : 5600평
● 가액 : 19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외동
● 평수 47평
● 기타시설 완비
● 가액:전세 2,000만원 월 65만원.시설비 25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55)324-1865
011-582-186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 평수 : 28평
● 대지 : 1,100평
● 교통편리, 최고의 명당
● 가액 : 8억 7천만원
010-7795-88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접면
● 대지600평, 법당25평(단청), 요사채30평, 20평
● 상담 후 가격절충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바람
010-4583-2035

포교당안내
● 위치: 원주 문막읍 시내버스 정류장 앞
● 법당 : 25평(2층) 방2, 주방, 샤워장. 시설비 500만원
● 보증금300만원,월25만원
● 특징:사람 내왕이 많은 중심지 역학하시는분에게 최적지
033)731-9277
011-9483-9221

사 찰 안 내
서울 포교당
● 면적 : 43평
● 시설비 없음
● 전세: 1억1천

● 위치 : 서울산속
● 부지 : 1300평
● 건물 : 30평
● 가액 : 13억5천만원

전국 사찰 · 포교당 · 부전스님 · 공양주 소개합니다
사무실이 독립문역 1번출구 150m로 이전하였습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지하철 4호선 상계역부근
● 건물 : 2층 법당, 접견실 34평 3층 방3, 주방, 세면장
● 보증금 11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1-888-0130

포 교 당 안 내
● 위치: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 중 2층 45평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031)405-4181
010-6321-1639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밀양 IC에서 10분 거리)
● 대지 235평,목조 기와지붕, 단층 법당(35.10평방미터)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요사채 (67.145평방미터)
● 산신각 용왕당 사찰내부에 있음. 도로 시멘트 포장.
● 사찰 내부 주차 10여대 가능
● 가액 : 2억3천만원(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요망)
010-6782-2916
054)373-2916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
● 건물 : 신축, 황토기와집
● 특징 : 마을과 떨어져 있으며 앞에 조그만한 개울
● 부지 : 대지포함 약 670평
● 가액 : 1억7천만원
010-9304-2322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부산근처 양산
● 대지 : 700평
● 법당 : 35평, 지하법당 40평 납골당 1500기 요사, 방사 10호실
● 산자락속의 마을 도량 정리 완벽
● 가액 : 7억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소액 5천만원 ~ 20억 다량확보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6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 부지: 20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 요사 : 30평
● 명부전:20평, 산신각:5평
● 가액:6억5천만원
● 특징:납골(300기 안치시설)당과 매장허가를 가지고 있는 도심인근의 산중사찰임

● 위치: 경남
● 부지: 약 1000평(종교용지)
● 법당: 30평(목조,단청)
● 요사: 40평
● 산신각:5평(목조,단청)
● 가액: 2억 5천만원
● 특징: 도심인근의 정통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0-6658-0875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하동
● 부지 790평, 법당 25평
● 요사채2동,창고,주차시설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 별장용 명당 각종채소밭 있음, 관상용 양어장
● 가액:2억
010-3138-4897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 총평수 : 343평
● 가액 : 5천만원
● 땅 230평
● 가액 : 5천만원
● 비구니스님 적합, 계곡있음
010-9267-3323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
● 대지 : 198평
● 임법당
● 집기일체
● 가액 : 5천5백만원
011-653-7801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제천시 금성면 (제천시내에서 10분거리)
● 평수 : 882평(주차장 완비)
● 법당, 요사채, 가정집 별도로 있음 (단독 지하수 완비)
● 가액 : 2억3천8백만원 (은행융자 7천만원 포함)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2)2274-5566
011-763-5283

토 굴 안 내
● 위치 : 전남 화순읍 10분거리
● 대지 : 90평 ● 법당 : 8평(신축)
● 가옥 : 21평(신축, 남향, 적벽돌 구조)
● 불상 · 탱화 · 인등 · 불구 드림
● 구봉산 정기가 모인 혈처, 교통편리
● 일상생활하면서 기도, 참선수행하기 좋은 마을 끝 집
● 가액 : 6100만원
061)373-4987/010-4670-698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마산, 대구, 창원 인접)
● 평수 : 1400평
● 법당, 칠성각, 용왕당(연못), 요사채 총 100평 이상
● 가액 : 3억5천만원
※꼭 필요한분만 연락바랍니다
010-2592-1523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위치:강원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사찰역사 300여년, 개인소유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종로구 종로5가
● 평수 33평, 법당15평, 요사, 방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2)747-9122

공 고

본종 종헌 제18장 포상 및 징계 제94조에 의거
2007년 5월 16일부로 사면한다.

◆ 사면 대상자

성 명	법명	승적번호	사유
하영기	상운	1594-10069	사면
안정철	도현	1505-10883	사면

불기 2551(2007)년 5월 16일

대한불교 원효종 호계원
원 장 도 천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3월부터 한시적으로 회비를 대폭 할인(보시)해 드립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 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2677-5442
소 연구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포 교 원 안 내
신축 불사관계로 급 안내함
● 위치: 경기도 안성시 2층 건물
● 법당 10평, 방 2개, 주방 및 화장실
● 옥상 20평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650만원
● 특징: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앞 철학하시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 최고 위치
017-297-4097 / 043)211-057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 (대중교통편리)
● 건물1, 2층(각60평) 법당완비
1층 : 법당(약40평), 산신각, 용왕당
2층 : 종무실, 요사채
● 월(1,2층 포함) 110만원
총 양도액 : 2300만원
010-3534-38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백용사
● 법당, 칠성각, 산신각, 용왕당, 요사채
● 부지 : 약3600평
● 가액 : 7억5천만원
055)353-0611
016-422-06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내
● 3층 45평
● 보증금 300만원, 월42만원 시설비 700만원
● 시설완벽
055)333-4364
011-9323-44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 부지 : 86평, 건평 : 114평
● 3층 건물 : 1층 공양간, 2층– 스님 서재실, 3층 –법당)
● 가액 : 3억5천만원
017-506-8730
055)331-873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 37평. 3층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9-656-2766

사 찰 안 내
● 위치:충남 아산뒤 KTX 고속전철 15분거리
● 대지:3,700평
● 법당, 요사채:150평
● 큰석축, 조경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천하의 절경, 명당자리, 큰바위가 많음
● 가액:23억
※ 인연이 되시는 분 전화 주시면 상의하에 양도해드리겠습니다.
011-850-0176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성수철학원 을 입력하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일시불은 135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카드결제 가능함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70> 표주박 하나 누더기 한 벌로

삶이란 드넓은 하늘에 구름 한 조각 이는 것이요 죽음은 구름 한 조각 흩어지는 것이니 우리네 인생은 저 하늘에 떠도는 구름과 같다. 인연 따라 이 세상에 잠시 들렀지만 홀연 그 인연이 흩어지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니 아끼고 아끼던 이 몸을 여윈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의 욕망을 떨쳐 버리고 아무 것도 가진 바 없이 산중에 들어와 낡은 누더기를 몸에 걸치고 고요히 홀로 선정을 닦는 수행자를 우리는 운수납자(雲水衲子) 또는 청풍납자(淸風衲子)라고 부른다. 바람 따라 흰 구름이 떠다니듯, 푸른 산 굽이굽이 맑은 물결 흘러가듯 욕망을 벗어난 수행자의 모습은 자유롭고 걸림이 없다. <선가귀감> 70장에서 말한다.

道人 宜應端心 以質直爲本 一瓢一衲 旅泊無累.

도를 닦는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에서 질박하고 곧은 마음을 근본으로 삼는다면, 표주박 하나와 누더기 한 벌로 어디를 가나 거리낌이 없다.

표주박 하나와 누더기 한 벌로 꾸밈없이 수수하게 살아가는 수행자는 세상의 욕망을 벗어낫기에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거리낌 없다. 그 마음가짐은 질박하고 곧을 것이요 그 말과 행동은 거침없이 당당할 것이다. 수행자가 진실하고 단정한 마음에서 질박하고 곧은 마음을 쓰고 산다면 욕심을 부릴 일이 없다. 욕심낼 일이 없으므로 이 몸을 잘 먹이고 치장하려고 집착하는 마음이 조금도 있을 수 없다. 수행자는 소박한 음식과 몸을 가릴 수 있는 옷 한 벌이면 살아가는데 충분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불유교경(佛遺敎經)>에서 수행자에게 소욕의 삶을 닦아 익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대 비구들이여, 아첨하는 마음은 도(道)와 서로 어긋나는 것이니, 이 때문에 질박하고 곧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아첨하는 마음은 오로지 상대방을 속이는 짓이니, 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단정한 마음에서 질박하고 곧은 마음 쓰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만 된다. 그대 비구들이여,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고뇌가 많을 것이요,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하려는 마음이 없기에 근심 걱정이 없을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 다만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대들은 '욕심 없는 삶'을 닦아 익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욕심 없는 삶'이 모든 공덕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첨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또한 어떤 좋은 경계라도 욕심이 없어 잘 속아 넘어가지를 않는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여 근심하거나 두려워 할 일이 없다. 하는 일마다 여유가 있고 자신의 삶에 늘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니, 이를 일러 '소욕(少欲)'이라 한다."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수행자는 먹고 입는 것에 욕심을 내고 집착하지 않는다. 표주박 하나와 누더기 한 벌로 자유로울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세속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는 진정한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佛云 心如直絃 又云 直心是道場 若不耽着身則 旅泊無累.

부처님께서 "마음은 곧은 줄처럼 써야 한다"라고 하고 또 "곧은 마음이 곧 수행터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몸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나 거리낌이 없다.

'곧은 줄처럼 쓰는 마음이 곧은 마음이요 곧은 마음이 곧 수행터'라고 하였으니, '질박하고 곧은 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맑고 깨끗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깨달음을 완성하는 수행터가 어디인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쓰는 마음 그곳일세.[圓覺道場 何處 現今生死卽是]"라는 유명한 게송이 있는데, 이 게송의 뜻은 생사윤회를 하게 되는 시비 분별하는 중생의 마음자리에서 바로 질박하고 곧은 부처님의 마음을 쓰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깨달음을 완성하는 수행터가 된다는 것이다. 표주박 하나와 누더기 한 벌로 사는 수행자의 삶을 게송으로 대지(大智) 선사는 말한다.

수행자가 진실하고 곧은 마음을 쓰며 산다면
몸을 잘 먹이고 치장하려는 집착 있을 수 없어

행작복전의하신(幸作福田衣下身) 건곤영득일한인(乾坤嬴得一閑人)
유연즉주무연거(有緣卽住無緣去) 일임청풍송백운(一任淸風送白雲)
일발수연도세화(一鉢隨緣度歲華) 어한역유일가사(禦寒亦有一袈裟)
무심상반백운좌(無心常伴白雲坐) 도처청산편아가(到處靑山便我家)

다행히도 법복 밑에 이내몸을 의지하여
하늘땅을 안고 사는 할 일 없는 사람이라
인연 따라 머무르다 흩어지면 가버리니
맑은 바람 부는 대로 흰 구름을 보내듯이
발우 하나 지니고서 인연 따라 살아가니
겨울 추위 막자 해도 다 떨어진 가사 한 벌
한가로운 마음으로 흰 구름을 벗 삼아서
가는 곳곳 푸른 산들 나의 집이 아니런가?

표주박 하나와 누더기 한 벌로 산 넘고 강 건너 선지식을 찾아 다녔던 옛 스님들의 자취가 그리운 시절이다. 우리는 생활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갖게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그 소유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다.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생겨 대부분 그 소유물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출가 수행자가 되어서도 세상의 명예를 탐내 윗자리를 얻고자 승단에서 권력을 좇으며 부처님을 팔아 신도들에게 돈이나 시주를 바라는 마음이 끝이 없다. 원효 스님은 이를 경계하여 처음 발심하여 출가한 수행자에게 주는 글인 <발심수행장>에서 말한다.

"배고프면 나무 열매로 굶주린 창자를 위로하고 목마르면 흐르는 물로 갈증을 멈추리라. 맛있는 음식으로 아끼고 보살펴도 이 몸뚱이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부드러운 옷으로 이 몸을 감싸 치장하더라도 이 목숨은 언젠가 끝날 날이 있으리라.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차가워도 따뜻한 불을 찾는 마음이 없을 것이요, 굶주린 창자가 뒤틀려 끊기는 듯 하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찾지 않으리라

소욕하는 삶이야말로 수행자의 근본이요 도 닦는 마음을 지켜가는 바탕이 될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상식

연등축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이어졌다. 해마다 불자들이 스스로 만든 등을 들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연등축제.

연등축제의 기원은 인도에서 시작된 연등회이다. 중국 동진의 법현 스님이 339~414년 인도 구법여행을 다녀온 뒤 써낸 <법현집>에 따르면 중인도 지역에서는 출재가자들이 사원에 모여 서로 재주를 겨루고 꽃과 향을 공양했다. 불상을 모시고 화려하게 치장한 수레를 끌고 사찰에서 마을까지 순례했다.

이 같은 연등회는 중국에서는 국가적인 의례가 됐다. 당나라 때는 3일간 통행금지를 해제하고 가무와 백희를 공연하는 등 전국적인 축제로 연등회가 치러졌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때 연등행사가 도입돼 부처님오신날에 갖가지 등을 만들어 강에 띄우고 사찰 민가관청 등이 모두 등을 밝혔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관청중심의 행사는 중지됐지만 세시풍속으로 전승됐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부처님 오신날 낮에는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저녁에는 집집마다 세운 등대에 자녀수대로 등을 밝혔다. 거리 곳곳에 형형색색의 등을 달았으며 밤에는 온 장안의 남녀들이 등을 들고 나와 관등놀이를 즐겼다.

초저녁이면 잠두봉에 몰려들어 불야성을 이룬 서울을 구경했다고 한다. 조선 성종 때는 한성을 대표하는 열 가지 경치인 중에 종로의 연등 구경이 포함되는 등 명물이 됐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12>



상담 효과

현대에는 수백 개의 상담 이론과 기법이 있다. 많은 기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론이나 기법에 관계없이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공통 요인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 첫 번째가 상담 관계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상담을 성공시킨다는 것이다. 좋은 관계가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좋지 않은 관계가 형성되면 상담이 별 진전을 보지 못하거나 중도에 종결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자기이해와 통찰이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제시하는 설명과 이론적 근거가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가져온다.

세 번째로는 카타르시스다.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정서를 표현하면서 가슴을 짓눌렀던 무언가가 시원하게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정서의 표현과 발산이 상담효과를 가져오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네 번째로는 강화이다. 상담자는 자신의 가치관을 내담자에게 주입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담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바람직한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강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강화하지 않고 소거한다.

다섯 번째로는 둔감화이다. 내담자는 상담실에서 자신의 문제를 꺼내 상담자와 공유한다. 상담자와 반복해서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 내담자는 좀 더 거리를 두고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왜곡과 과장이 축소되고, 문제에 대한 예민성이 줄어들게 된다.

여섯 번째로는 문제에 직면하기다. 내담자 가운데는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억압함으로써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다.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통찰하고, 상담자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처를 하게 된다.

경전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는 위와 같은 현대 심리상담의 공통된 효과 요인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셨음을 볼 수 있다.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따뜻하게 대함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고, 수기설법(隨機說法)으로서 통찰을 이끌었다. 또한 엄격한 스승의 면모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상한 부모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이의 고충을 들어주어 정서적 정화를 하게 해주었다. 또한 잘하는 일은 '착하고 착하다(善哉善哉)'며 강화해 주고, 어려운 일은 갖가지 방편으로 둔감화를 시켜주었으며, 지지와 격려를 통해 당당하게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었다.

모든 경전 끝부분 '환희봉행'으로 마무리
오늘날 상담 효과 부처님이 자유자재 구사

거의 모든 경전의 끝부분은 '환희봉행(歡喜奉行)'으로 마무리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는 것이다. 상담에 대입해서 보면 상담 결과에 내담자가 대만족했다는 의미다. 부처님께서 상담에 효과를 가져오는 여러 요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셨으니 당연한 결과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이 름 대 사 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신 수 비 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 본 원에서는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여 집중(3개월 속성) 개인지도 합니다.
◈ 불교의식을 모르는 초심자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합니다. (스님포교사. 재가불자 법사교육)
◈ 교육과정
- 일상 상용반 : 도량석 조석종성
- 예 경 편 : 상단예불, 각단예불 (미타.명부.관음전 등)
- 불 공 편 :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공(관음.지장,신중청 등)
- 재 의 식 : 천도재 49재 예수재 점안의식 시다림
<바라춤>: 요잡바라, 관욕바라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법고무
<나비춤>: 사방요신, 다게 도량게 운심게
- 시식과정 :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 법사과정 : 경전을 문법과 전문적인 한문공부로 경전을 배웁니다.

◈ 개강일자 : 2007년 6월 5일
(범패반 : 화요일 오후 3시. 상용반 : 화요일 오후 5시)
◈ 강 의 일 : 매주 화(목)요일 오후 3~5시, 5~7시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신청서 접수

대한불교대학 범패 연구원 수림사
서울시 종로구(종로5가 3번 출구) 연건동 190-30
☎ 02)764-6060. 011-9769-8868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는 옛말이 있습니다. 급할 때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급하다는 상황에 얽매여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느 길인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순간순간 깨어 있는 사람은 급할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아도 적어도 늘 그 시간에 깨에 있으므로 실수할 것도 없습니다. 한 순간 마음이 잠들어 버리면 길을 잃는 겁니다. 지금 깨어나세요.

사단법인 한국불교 미륵종

宗 正 運虛 淵華 大宗師

總務院長	尹松亭	총무부장	金永默	서울경기교구원장	朴永坦
教育院長 미륵불교대학장	尹淨業	사회부장	姜永雲	부산교구원장	李慧鏡
		재무부장	金慧草	충청교구원장	金慧草
		문화부장	蔣永敏	경북교구원장	李慧光
布教院長	權摩訶	규정부장	李海日	대구교구원장	金慧云
總務院副院長	金永覺	중앙산악회장	李普城	경남중서부교구원장	金慧仁
		중앙비구니회장	鄭東星	경남동부교구원장	池道信

사회복지법인 미륵원 미륵불교대학

◆ **미륵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211-11
☎ 02-351-3679 / FAX 02-359-3605 홈페이지 www.mireuk.org

◆ **종단법인사무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 관음정사
☎ 055-345-4741 / FAX 055-345-4743

(사) 한국불교미륵종
미 륵 산 악 회

고 문 송 정
회 장 보 성
총 무 혜 연 外

미륵산악회원 일동

경남 진해시 충무동 25-3번지 / 전화 055)547-3469

(사) 한국불교미륵종
종정예하
대 인 사

조 실 운허당 연화
신도회장 수 덕
총 무 이다향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659번지
전화 055)375-2076

(사) 한국불교미륵종
비 구 니 회

회 장 동 성
총 무 혜 연

비구니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300-60번지
전화 051)531-0478

(사) 한국불교미륵종
경남 중서부교구 원장
극 락 정 사

주 지 혜 인
연화회 회장 서봉순
총무 조정옥
이정숙

경남 밀양시 내이동 923-1번지
전화 055)354-2108 / 055-352-3108

(사) 한국불교미륵종
경북교구 원장
광 룡 사

주 지 혜 광

신도회 일동

경북 영천시 신녕면 매양1리 281-4
전화 054)336-7333

(사) 한국불교미륵종
경남동부교구 원장
성 불 암

주 지 도 신

울산시 북구 매곡동 393-1
전화 052)295-2986

(사) 한국불교미륵종
충청교구 원장
목 련 사

주 지 혜 초

신도회 일동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138번지
전화 043)832-5164

(사) 한국불교미륵종
서울경기교구 원장
보 명 암

주 지 도 일

신도회 일동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아주 오래된 이름을 떠올리듯

문득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의 이름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우연히 떠오른 그 이름에서 많은 추억들도 함께 따라 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에 그 많은 추억이 함께한다는 사실, 지금 자신의 한 행동에 수많은 인연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기억이라고 언제나 과거형이 아니듯이 다가올 미래도 영원한 미래가 아닙니다. 모두가 현재이고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랍니다.

(사)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관 음 정 사

조 실 윤 송 정

신도회장 김만고
신도회 일동
미륵회 일동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번지
전화 055)345-4741

(사) 한국불교미륵종
교육원장 겸 미륵불교대학장
백 련 사

주 지 정 업
신도회장 남 임호빈(법성)
여 법왕화
총 무 법련화
재 무 보연화

울산시 중구 북정동 112-3
전화 052)211-6317 / 011-875-6317

(사) 한국불교미륵종
포교원장
보 문 사

주 지 마 하

신도회 일동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565-5
전화 017-578-2815

(사) 한국불교미륵종 미륵산악회장
약 사 암

주 지 보 성

신도회 일동

경남 진해시 충무동 25-3번지
전화 055)547-3469

현대불교신문 서부경남지사 **금 오 암**

주 지 영 민
신도회장 묵 월 총 무 일심행
경남 밀양시 부북면 월산리 151번지 / 전화 055)355-7472

(사) 한국불교미륵종
비구니 회장
옥 선 사

주 지 동 성
신도회장 정숙자(반야행)
관음회장 송순분(공덕화)

신도회 일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300-60번지
전화 051)531-0478

(사) 한국불교미륵종
구 민 정 사

주지 혜 문

참사랑 장애노인 복지회
본부장 김용규(혜국)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123번지
전화 051)941-0295

(사)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의원
불 동 암

주 지 행 인

신도회 일동

경남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1458번지
전화 055)746-9286

(사) 한국불교미륵종
법 성 사

주 지 혜 동

신도회 일동

울산시 동구 서부동 613번지
전화 010-6355-0092

(사) 한국불교미륵종
연 화 사

주 지 영 지

신도일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86-28

(사) 한국불교미륵종
법 웅 사

주 지 영 인

신도일동

경북 경산시 자인면 옥천리 266-2
전화 053)854-5608

(사) 한국불교미륵종
혜 광 사

주 지 혜 성

신도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녹동 255-2
전화 055)375-4375

(사) 한국불교미륵종
도 명 암

주 지 묘 각

신도회 일동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211-11번지
전화 02)351-3679

(사) 한국불교미륵종
성주산 성 봉 사

주 지 혜 연

신 도 회 장	박무림	재 무	김의태
방 생 회 장	엄봉석	원로여신도회장	조용순
운영위원장	조주현	교 리 부 장	김상두
자비봉사회장	박정민	총 무	김갑주
여신도 회장	이영숙	신도 부회장	최용주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동리 1064-2
전화 054)775-2976

(사) 한국불교미륵종
용 화 정 사

주 지 시 경

신도회 일동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216번지
전화 031)768-0076

(사) 한국불교미륵종
천금수 광명사

주 지 광 명

기도도량

신도회 일동

경남 창원시 대산면 우암리 192-4
전화 055)292-9470

(사) 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의원
현 통 암

주 지 혜 도

신도회 일동

경남 밀양시 무안면 죽월리 440번지
전화 055)356-7879

(사) 한국불교미륵종
불 연 사

주 지 법 천

신도회 일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05-2번지
전화 043)232-5447

(사)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의원
불 곡 사

주 지 혜 연

미륵회 일동

경남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822번지
전화 055)636-2414

(사)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 사회부장
보 은 암

주 지 영 운

신도회 일동

경남 마산시 합포구 신월동 34-6번지
전화 055)243-4136

(사) 한국불교미륵종
미 륵 사

주 지 혜 법

기도도량

신도일동

광주시 동구 운림동468-3 인도박물관1층
010-6251-2108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나보다 더 나를 아끼는 사람

이 세상에 나 보다 나를 더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아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나를 아끼고 있으니까요. 이 거룩한 존재,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장소는 무량한 시간과 무한한 행위들로 인해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임을 안다면 한 순간도 게으를 수 없겠지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니까요.

사)대한불교 일광종
(북부 제1교구 종무원장 주석사찰)
상 봉 사
주지 혜 원
조상천도 · 방생도량
■ 서울 중랑구 망우2동 469-21호
TEL 02)492-1112

사)대한불교 일광종
성 왕 사
주지 석 담
관음기도 도량
■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 440-56
TEL 02)2248-4848

사)대한불교 일광종
불 유 정 사
주지 묘 원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삼선1가 11-99
TEL 02)743-5693

관음기도 도량
사)대한불교 일광종
복 윤 사
주지 대 산
■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8-42 동아 하이빌 B-01
TEL 02)988-0106

일광사 서종 포교원
주지 청 광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638-9

사천 일광 포교원
주지 법 능
■ 경남 사천시 송포동 890-3

대한불교조계종
보 광 사
주지 경산 정인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419
TEL 031)594-1316

대한불교조계종
봉 녕 사
주지 묘 엄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번지
TEL 031)256-4127

염불선 수행 정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성 원 사**
주지 석주경
사부대중일동
www.sungwonsa.org
■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810-1
TEL 033)661-5736
포교당 · 유치원
강원 강릉시 회산동 4-5
성정사<포교당> 033)642-0142
성원유치원 033)642-0143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논산 관촉사
사부대중일동
■ 충남 논산시 관촉동 254번지 반야산 관촉사
TEL 041)736-5700

대한불교 조계종
선 덕 사
주지 행 법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 2동 572-1
TEL 062)263-4660

국중제일 정토도량
조계종
적상산 안국사
주지 도 안
대중일동
부설 : 무주불교대학 학장 원행
063)322-3108
성보박물관(세계 각국 불상 전시)
■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산 184-1
TEL 063)322-6162
FAX 063)322-6163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대 불 광
직원일동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4-8 대불광빌딩 5층
TEL 02)738-1117

대한불교 조계종
대 승 사
신도회일동
■ 경기 양주시 석현리 산 8-5
TEL 031)855-5035

대한불교 조계종
함월산 백양사
회주 목산 지은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819
TEL 052)243-8712
FAX 052)243-1142

대한불교 조계종
대운산 내원암
주지 종 선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312
TEL 052)238-5088
■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회관
TEL 052)265-5221
■ 도솔천 노인전문요양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산8-1
TEL 052)263-3080

한국불교 태고종 울산교구종무원장
영축산 망해사
주지 혜 학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222
TEL 052)249-9369

연암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원장 전현석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35
TEL 052)288-6600 / 011-850-7713

종합정비 정일공업사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대표 육성호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55-1
TEL 052)289-4001 / 011-852-4001

한국불교 태고종
관 음 암
주지 대 활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80-3
TEL 052)282-0097

삼천불 봉안 불사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정 토 사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정토불교대학
무료급식소 : 밝은세상
주지 산하 덕진
사부대중일동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03-5

S-oil 에쓰오일
옥동주유소(법원 앞)
대표 오세길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53-3
TEL 052)276-4443 / 011-871-5397
FAX 052)260-7801

동울산사암연합회
원 로 원각사 월타
고 문 법륜사 눌암
회 장 대원사 동파
사무총장 대각사 초우
관음사 현 수
관음사 혜 원
자광사 향 공
정각사 해 승
동축사 문 성
등용사 본 명
반야사 노 암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동 대원사내
TEL 052)233-7176, 281-0134

대한불교조계종
울산광역시 사원연합회
고 문 목산 눌암 지용
회 장 정각
감 사 문성 본명
상임부회장 덕진
부 회 장 도각
총무부장 종선
교무부장 현담
사회부장 남곡
재무부장 혜안
합창단장 종현
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성수빌딩 6층 616-6
TEL 052)266-3318~9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
회 장 황경환
부회장 조종래 박권식
오세길 오순돌
이재필 김영득
노동식 윤건우
박복선 서복선
고석열 손경숙
사무총장 김영득
사무국장 추인교
이사 회원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성수빌딩 6층 616-6
TEL 052)271-1310 / FAX 052)258-1370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중앙종회의장
법무부 교정 교화위원
화 엄 정 사
주지 김광옥(화엄)
사부대중일동
■ 총무원: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40-27
TEL 02)998-8161
■ 화엄정사: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개곡리 295-11
TEL 052)268-5565 / 휴대폰 011-875-5562

한국운불련 울산법륜회
회장 서병수
부회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윤석
총무부장 김성문 차 장 서용술
교무부장 한창국 차 장 한영욱
포교부장 김주철 차 장 이재락
체육부장 정윤용 차 장 박광식
■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320-27
TEL 052)211-1080



불자 세상보기

문 태 준
시인

어머니와 시골절, 초파일 풍경

어머니는 부처님오신날에 동네에서 가까운 용화사엘 간다. 쌀 두어 되와 초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간다. 용화사는 작은 시골절이다. 걸어서 반 시간 남짓 걸린다.

나의 어머니 뒤에는 봉산댁이 뒤따라 간다. 두 분 사이 간격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봉산댁 뒤에는 백발이 성성한, 동네서 가장 연만한 점방집 할머니가 뒤따라간다. 간격은 점점 벌어진다. 어머니와 봉산댁은 자꾸 뒤돌아본다. 점방집 할머니는 잔뜩 구부린 허리를 연신 편다. 행복하고 싱그런 행렬이다. 너그럽고 평화로운 한 줄이다. 그들의 얼굴에 초여름 햇살이 내린다. 절에 가는 그들이 부처 같다. 코는 내려앉고 귀는 어둡고 눈은 흐리되 역시 부처 같다.

나도 어릴 때 시골절엘 갔다. 용화사에 가서 미륵부처님을 뵙고 절을 올렸다. 어머니는 뭐라 뭐라 들릴 듯 말 듯한 말을 중얼거렸다. 나는 그 조근하고 얼금얼금한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말씀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 제일로 간곡한 기도라고 생각한다. 법당에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인근 동네서 온 보살들이 미륵부처님 앞에서 모두 다 중얼거렸다. 그 중얼거림은 빛나는 비밀 같은 것이어서 다른 기도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긴 은하 같은 마음 속 말씀이었다. 손가락을 퉁기는 짧은 시간이라도 부처님을 독신(篤信)하여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 복이 끝없어서 헤아릴 수 없다 했으니, 둥글둥글하게 몽돌처럼 웃는 보살들은 기도를 하는 것 자체로써 이미 소원을 원만하게 성취했다.

어머니는 시골절에 가기 며칠 전부터 채식을 했다. 소찬으로 절욕의 식단을 차렸다. 식구들의 밥 짓는 양을 줄여 묵은 밥을 두지 않았다. 절에 가기 전에는 솥에 물을 끓여 목욕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야 갔다. 그 며칠 동안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입에 담지 않았다. 큰소리로 말하는 법도 없었다. 경전의 말씀처럼, 어머니는 말을 할 때 종(鐘)이나 경쇠를 고요히 두들기듯 했다. 거친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그런 덕에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한 그 며칠간은 낮고 허름한 우리 집이 맑은 시내 같았다. 어머니는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했다. 거울의 얼룩을 빠짐없이 닦아내듯이.

또 어머니는 정해진 집 없이 떠돌며 구걸하는 사람이 우리 집엘 찾아오면 따뜻한 음식을 내어 놓았다. 어느 해인가는 바가지를 들고 음식을 구걸하는 사람이 마당에 들어섰는데 그때에도 어머니는 식구가 함께 먹던 밥상 둘레 한쪽을 그에게 내 주었다.

시골절에서 보살들과 어머니가 절하는 모습은 잊지 못하겠다. 몸과 마음과 호흡을 조심하면서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는 그 모습. 아주 공손하고 지극하게 몸을 무너뜨리며 절을 올리던 그 모습. 절하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절 할 때의 몸은 가장 멋진 물러섬을 보여준다. 엎드림은 자기를 항복시키고, 몸과 마음의 인색함을 넘어선다. 그 모습은 서글서글하고, 외관과 내심이 스스로 구족한 것이어서 그 뜻 또한 무량하다.

나의 어머니는 시골의 평범한 노모(老母)이다. 계율에 계합하는 조행(操行)의 덕목을 잘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는 당신 성심껏 신앙한다. 올해도 한결같이 어머니는 시골절에 가고 있을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네 가지 꿀을 주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는 야생의 쌀밥보다 못한 것이라고 했다. 나는 어머니의 그 종교로써, 어머니가 주는 야생의 쌀밥으로써 나의 망념을 걷어낸다.

부처님오신날 무렵 어머니의 마음은 위대한 경전이다. 마음의 독실함으로 엮은 큰 책이다. 나는 어머니의 등 뒤에서 조용히 어머니를 뒤따라 가고 싶다. 뒤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큰 감화를 받을 것이다.

불자의 눈

날마다 부처님오신날

올해 또다시 부처님 오신날을 맞는다.

해마다 맞이하는 부처님 오신날이지만, 자칫 그 본래의 의미보다는 형식적인 축제에 그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 날의 의미는 반감된다.부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화의 길을 가르쳐 주러 이 땅에 오셨다. 반야부의 공사상이나 화엄의 사사무애를 비롯해 팔만사천 대장경의 광대한 경전말씀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를 본질적으로 설득코자 하신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서있는 지금 여기의 현실을 직시해 보아야 한다.

오늘날 지구촌의 초고속 변화가 과연 지구인들의 오늘과 내일을 밝고 슬기로운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

생활의 편의와 자본의 위세를 절감하는 가운데 환경오염, 전쟁, 기아 등 부정적 요소들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지구촌 사람들은 그런 질문조차 할 겨를이 없으며 그런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 불교를 포함해 수많은 종교인들이 앞다퉈 외치는 자비와 평화 역시 이 세계에 얼마나 굳건히 자리잡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낙담의 수준을 결코 넘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먼저 부처님의 뜻을 이 사바세계에 펼치는 여래사로서의 본분과 사명감을 다시금 깊이 곰씹어 보아야 한다.

나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열심히 실천궁행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 부처님의 이름을 빙자해 자기를 위로하고 호사를 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 보아야 한다.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뜻을 자기내면에 제대로 심지 못한다면 불교는 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종교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 불교교단과 각 종단에서도 마찬가지다.

부처님 오신 날이면 으레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든지 중생은 누구나 본래 부처라든지 하는 차원 높은 법문을 사회를 향해 떠벌리면서도 정작 교단내외에 부처님의 지혜, 자비 평화의 이념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과연 누가 공감하고 부처님 법을 따를 것인가.

불교적 이념이 종단적으로 용해되어 있지 아니한 종단은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없는 법이다.

끝으로 불교적 이념을 우리 사회에 심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제문제를 남의 불 보듯 해서도 안되며, 자기이익을 위해 어설프게 사회운동이나 봉사를 흉내내서도 안된다. 불교적 이념을 구체적인 시민운동으로 활발히 전개해 나갈 때 지상정토와 불교포교는 저절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들려주려 하지 말고 하나라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같은 우리 내적인 변화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불교는 우리 사회에 더욱 발붙이기 힘들어질 것이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도 나날이 퇴색되어 갈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12. 강의석군 사건의 의미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공공이익 위한 신념 · 끈기…국민 기본권 온몸으로 일깨워

강제 예배에 반발해 고교생 자신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강 군이 처음이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온존해 있는 종교 관련 청소년 인권사각지대를 고발한 셈이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새삼스럽게 생각할 계기도 되었고, 과연 헌법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건 초기 국민들은 종교사학의 비교육적 ·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놀라면서도 종교계의 관행이 쉽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그 배경까지 의심하며 오해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어린 고등학생이 어른들도 견디기 어려운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고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 군의 3개월여에 걸친 일관성 있는 호소와 투쟁, 그리고 그 파급효과를 지켜보면서 언론들은 그를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에 비유하며 극찬하기도 했다.

2004년의 대광고 사건을 다시 더듬어 보자. 6월 16일 강제 예배 반대 '교내방송', 서울시교육청 앞 '1인 시위', 7월 8일 '제적통보', 국가인권위원회에 '기본권 침해 진정', 법원에 '퇴학무효 소송', 8월 10일 단식, 9월 1일 '퇴학무효가처분 결정', 9월 25일 학교측 '예배 선택권' 약속으로 단식 중단, 10월 16일 학교의 약속 불이행으로 1주간 단식 재돌입, 12월 16일 서울대 법대 수시 입학, 그리고 2005년 1월 2주간 청소년 인권과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부산-서울 간 '국토대장정', 그해 10월 대광고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종교강요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까지, 일련의 사건을 되돌아 봐도 고등학생이 해낸 일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대사건이었다. 무엇이 강 군으로 하여금 그렇게 포기하지 않도록 했을까, 또 무엇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했던 것일까.



학내 종교자유실현을 촉구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기자회견 모습.

우선 개인만의 이해보다 사회전체의 공동관심사를 자신의 화두로 삼은 점이다. 그래서 혼자 문제만 제기하고 학교를 떠난다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 대학입학이 그 무엇보다 우선인 고3 수험생이었기에 강 군의 문제제기가 역설적으로 더욱 순수하고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다. 일단 목표가 설정되고 나서는 자신과 사회가 함께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점들에 대해 끊임없이 스스로 자문자답해가며 문제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새기고 문제의식을 놓지 않았다. 그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지니는가?"라고 자문한 뒤,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은 '예'라고 답하고 있다"고 자답하고, 개인의 종교자유가 종교학교라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면서 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육현장의 무모함과 야만성에 대해 고민을 거듭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기 위해 찬송 때 일어서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죽은 정신'과 '비겁한 인간'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상처인지 직접 체감한다.

40여 일째 단식하던 강 군은 "너무 배고프고, 먹고 싶다. 그렇지만 종교 선택권은 나의 식욕을 희생시킬 가치가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상은 바란다고 해서 꼭 이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바라지 않으면 절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한다. 무슨 말을 더 보탤 수 있을까. 참으로 어린 학생답지 않은 면모다. 그렇게 다져진 문제의식과 옳다는 확신이 성급해하지 않는 유연성과 포기를 모르는 끈기를 뒷받침했던 것일 게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강의석 군이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데는 심적으로 든든한 후원자였던 부모님과 교목 선생님이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강 군 부모님도 처음에는 문제를 제기하면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고 힘들어질 테니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퇴학, 단식, 재단식, 소송 등 아들의 투쟁이 얼마나 안쓰러웠겠는가. 고등학생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45일간의 단식으로 평소 76kg이던 체중이 50kg으로 줄어 탈진 상태로 몰골이 앙상하던 사진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며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을 안으로 새겨야만 했던 부모의 마음이 짐작 가고도 남는다. 그러나 정작 일이 크게 벌어지고 나서는 오히려 강 군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주셨다고 한다. 강 군의 부친은 "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원치 않는 학생에게 예배 참석을 강제하지 말아달라는 의석이의 요구는 정당하다. 기독교인에게 염불을 외우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자식에게 그만두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니, 그 아비에 그 아들인 셈이다.

3년 전 강의석 군 사건은 인권감수성, 사회개혁 마인드, 회피하지 않는 당당함, 부모의 강력한 지지와 격려 등 모든 요인이 어우러져, 우리 사회에 근래 드물게 학생인권과 국민 기본권을 온 몸으로 일깨워준 시민운동의 표본이 아닌가 싶다.

거룩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 세계를 장식하는 또 하나의 명서 출간

우주의 진면목이 바로 신불교의 것이다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석가모니 부처님과 불과를 증득한 수 많은 붓다님들은 유무를 초월하여 무아 속 절대 세계에 빛의 존재로 여여히 계시며, 사후세계와 지옥 · 극락 그리고 육도윤회는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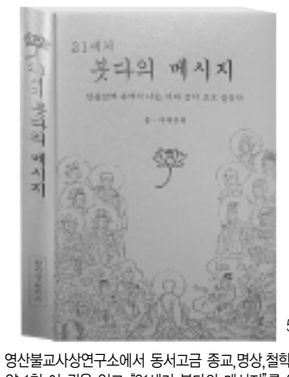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314쪽 / 15,000원

- 자재만현 큰스님께서 30여 년간의 치열한 염불수행을 통해서 얻은 붓다의 경지를 21세기 최고의 초신성으로 써내려간 미증유의 성작(聖作)
- 21세기 전세계 동서고금을 초월하여 우주역사에 길이 남을 불교 수행 및 사상의 기념비적 금자탑이며 전대미문의 성서(聖書) 영문판 출판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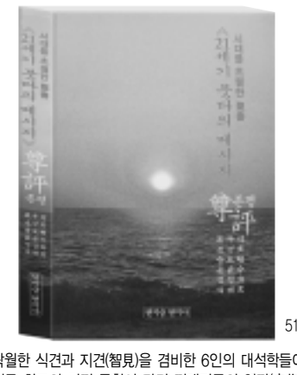
거룩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 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536쪽 / 15,000원

- 영산불교사상연구소에서 동서고금 종교,명상,철학 서적 약 1천 여 권을 읽고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열독하면서 법열(法悅)속에서 초지성으로 써내려간 불후의 명작(名作)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존평"



512쪽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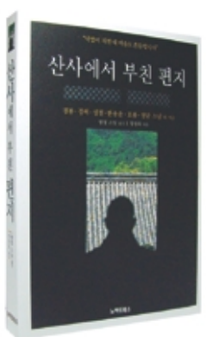
- 탁월한 식견과 지견(智見)을 겸비한 6인의 대석학들이 수놓은 인류 최고의 지적 통찰이 담긴 전대미문의 역작(力作)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출간한 세 권의 서적에 대한 총평

- 독자제현들이 이 세 권의 서적을 수 차례 정독한다면 눈부시게 빛나는 거룩한 부처님의 세계를 마음 깊이 감득하게 될 것입니다.
- 찬란하고 장엄한 부처님의 세계를 극명하게 묘사하고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시종일관 법열 속에 머물도록 할 것입니다.
- 이 세 권의 서적은 21세기 최고의 종교인 불교의 그랜드 비전을 응시할 수 있는 광대한 명안(明眼)을 구족하게 해줍니다.
- 인류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우주 최고의 종교로서 불교가 갖춘 진면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 전세계 모든 영성세계와 종교명상서적이 지향해야할 총체적 가르침의 시금석(Touchstone)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구입문의 : 춘천 현지사 본사 Tel 033)243-1787,1795 / Fax 033)243-4371 부산 현지사 분원 Tel 051)554-5150, Fax 051)556-5150 / 메일 hyunjigung@hanmail.net

산사에서 부친 편지



역대 큰스님들이 수행 중에 주고받은 130여 편의 주옥같은 삶의 화두들!

이 책은 통도사 극락선원의 선원장 명정 스님이 본인의 스승이었던 경봉 스님이 남긴 유품 중 50여 명의 고승들이 한자로 쓴 130여 통의 편지를 현대어로 옮긴 것이다. 17살에 출가한 이후 43년 동안이나 경봉 스님을 스승으로 모셨던 명정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주옥같은 화두가 담긴 편지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 실린 편지들 속에는 경봉, 경허, 성철, 한용운, 효봉, 청담 스님 등 우리나라 큰스님들이 주고받은 선문답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 독자들은 불가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생생한 선문답의 현장을 엿볼 수 있다.

명정스님 옮김, 정성욱 엮음/신국판/331쪽/13,500원
노마드북스

부처님이 들려주는 108가지 이야기



거부하는 용기를 가져라,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라, 누구에게나 친절하라,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도 있다, 망상을 떨쳐 버려라, 참다운 자신을 발견하라, 자신에게 더 엄하라, 자기가 주인임을 잊지 말라, 남을 생각하고 인정하라 등 108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았다.

석가모니

이 책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꾸민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의 일생과 가르침을 통해, 현재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잠되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성 그림 이범기/4×6배변형판/320쪽/9,600원
글 양태석 그림 이범기/4×6변형판/255쪽/6,000원
도서출판 능인

밀리언셀러 《화》의 저자 틱낫한 스님의 2006년 신작

prayer 기도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힘

기도는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도는 우주가 인간에게 선사하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이다.



틱낫한 지음/김은희 옮김/9,000원
출판의 名家 명진출판

금강경과마음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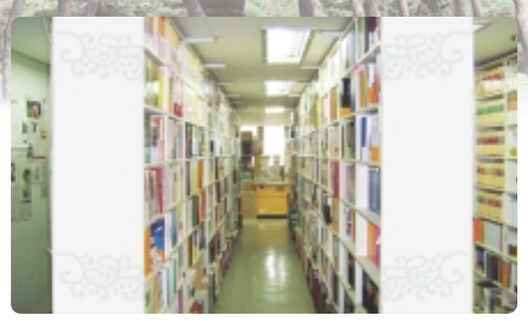


생활속에서 인류 정신사의 최고 정점인 금강경을 만나는 시간!
삶과 인생에 대한 의문을 가슴이 뻥 뚫리도록 명쾌하게 풀어주는 깊디 깊은 지혜!

성지 순례 길에 담아 온 아름다운 올컬러 사진까지 한권에담았습니다.

법상 글 사진/신국판(양장)/600쪽/25,000원 **무한**

부처님 오신날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본 연합광고의 서적은 불교서적 총판 운주사,전국 불교서점,
온라인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siamun.c●m (02-737-0695) 및
일반대형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전화 02)3672-7181~5
팩스 02)3672-7186 / 02)3672-7188

마음비움에대한사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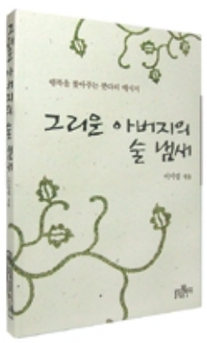
마음을 비우지 않고 채움이란 없다.

한국불교에 보내는 쓴소리, 『마음비움에 대한 사색』. 저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생각을 90여 편의 칼럼으로 정리한 삶의 흔적이자 미래를 위한 기록이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신문이나 잡지 등에 발표한 칼럼을 수록한 것으로, 한국불교의 모든 출가자에게 보내는 쓴소리를 담고 있다. 또한 재가자와 일반인에게는 수행에 필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준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다.

마성지음/신국판/365쪽/12,000원
민족사

행복을 찾아주는 붓다의 메시지



이책의 저자는 경전 읽는 일을 꾸준하게 해온 학자 보살로서, 미처 그것을 읽지 못하는 대중들에게 보석 같은 부처님의 말씀 한 마디 한마디를 들려주고, 거기에 절실한 해석의 덕담까지 곁들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장 한장 읽어가면서, 이 책의 지은이가, 달도 별도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밤의 울퉁불퉁한 골목길을 앞장서서 가면서, 초롱불을 비쳐주며 행복이라는 집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으신다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말로 이 책의 내용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한승원(소설가)

이미령 지음/4*6판/232쪽/7,000원
불광출판부



영혼의 키를 키우려 '눈의 왕국'으로 떠난 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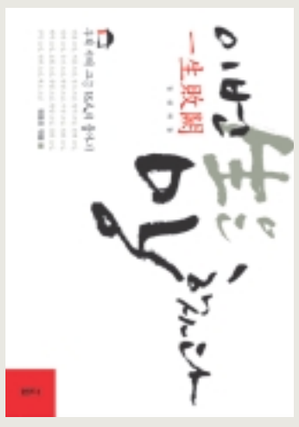
삶의 진리는 '자비와 연민의 실천'에 있다는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아름다운 이야기

신에게는 가깝지만 속세와는 멀리 떨어진 '눈의 왕국.' 그곳에 도착한 부탄의 평범한 소년 데첸은 스승의 가르침과 명상을 통해 삶의 궁극적 비밀을 깨닫게 된다.

마티외 리카르 지음, 권명희 옮김 | 152쪽 | 9,000원

www.isamtoh.com 샘터

마음속 부처를 찾아 떠나는 단 한 번의 용기 있는 여행



속세의 인연을 버리고 산문에 든 우리 시대 대표 스님들의 인생 사연과 고된 구도의 여정 끝에 얻는 삶의 지혜를 풀어낸다.

우리 시대 고승 18人의 출가기

만봉 스님, 지종 스님, 성수 스님, 월서 스님, 현해 스님, 일면 스님, 운산 스님, 원경 스님, 지선 스님, 청화 스님, 혜자 스님, 효림 스님, 종림 스님, 원담 스님, 동희 스님, 본각 스님, 탁연 스님, 혜조 스님

유응오 엮음 | 240쪽 |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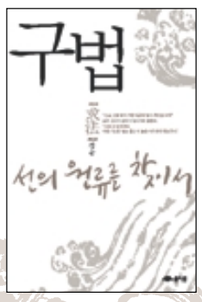
www.isamtoh.com 샘터

구법

선의 원류를 찾아서

求法 정운

"스님, 인생에서 가장 다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조주 선사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다.
"오줌 좀 눠야겠다.
이런 사소한 일도 몸소 이 늙은이가 해야 하는구나."



솔바람 152×224cm 올컬러 | 값 18,500원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마음이 · 행복해지는 · 선이야기

청소년권장도서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을 다룬 책!
불교의 기본 가르침인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을 웃음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와 아름다운 삽화에 담았습니다.

솔바람 잉리 브뤼넬 지음 · 크리스티앙 루 그림 | 임희근 옮김
190×190cm 올컬러 | 값 12,000원

내 친구 까까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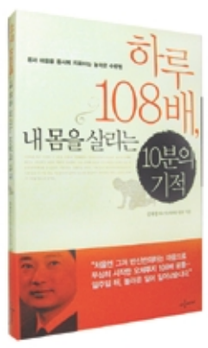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는 가까운 절집을 찾아가 우리 사찰의 아름다움을 느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책을 통하여 우리 절집의 아름다운 모습, 부처님 오신 날의 연등 행사, 그리고 절집 곳곳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에 대하여 새로운 눈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책은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딱딱하게 일깨워 주는 책이 아닙니다.
동자승 광덕이와 유치원생 민이의 만남과 우정을 이야기하는 따뜻한 책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절집(불교)의 아름다운 정신까지 자연스럽게 보고, 깨닫고, 느끼게 되는 감동적인 그림책입니다.

임정진 글, 윤정주 그림/260×275/양장 / 40쪽 / 8,500원
시공사

하루 108배, 내 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SBS 스페셜 0.2평의 기적, 절하는 사람들 에서 다루어진 기적의 수행법

"죽는 날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고통스러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생활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108배를 시작해 보십시오!"

김재성지음/신국판(양장)/ 260쪽/값10,000원
아름미디어

자귀나무에 분홍 꽃 피면



한 생각 뒤집어진 뒤에 누린 삶…… "그곳은 대체 어디입니까?

경학과 율력의 조화를 이루어가며 불법의 즐거움을 누리고 펴가는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 기록이 되지 않으면 전설이 되고 말 일, 그러나 기록이 되면 역사가 되는 일.

조연현 지음

세상에서 가장 먼 만행 은둔

은둔하며 깨달음을 얻은 33인의 선사들 이야기

가르침이 넘치는 세상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반과 손가락은 어디에 있는가?

날을 밝히고서 자신의 자취를 감추어버린 빛이기에, 대지의 만물을 기르는 데 스며들고서 자신은 사라져버린 비이기에. 자신에겐 추상같되 남에겐 훈풍이 되었던, 이 시대의 마음의 스승들을 찾아서……

글 김영욱 · 사진 허경민
212쪽 / A5 / 8,500원
오래된미래

바랑 속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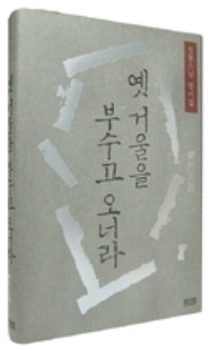


동학사 강원 비구니 스님들이 은근슬쩍 풀어놓는 마음자리와 출가 이야기

구법의 길을 향한 출가와 강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불허의 에피소드들, 수행의 동반자가 된 도반 이야기와 출가 뒤에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 은사스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등이 비구니 스님들 특유의 감성으로 담백하고 풋풋하게 그려져 있다.

동학사 편집실/ 국판 /240쪽 / 9,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禪門正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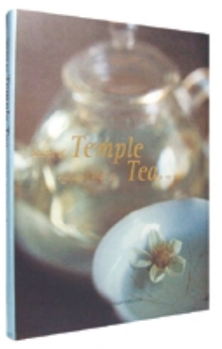
출간된 지 25년 만에 새롭게 만나는 성철 스님의 법어집, 〈선문정로〉!

한국불교계의 돈점 논쟁을 불러일으킨 성철 스님의 대표작,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국불교계는 돈점(頓漸) 논쟁에 휩싸였다. 돈점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저자가 1981년 출간한 <선문정로>로, '돈오점수(頓悟漸修)'에 대한 비판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개정판』에서는 현대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 해석 등을 첨가했으며, 한자는 괄호 속에 넣었습니다. 또한 저자 성철 스님이 1983년부터 <선문정로>를 교재로 해인사에서 강설한 내용을 추가하 여 이해를 도와줍니다. 원문 출처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성철스님 지음/신국판/424쪽/10,000원
장경각

산사에서 만든 차



우리나라 산사의 차 문화를 소개한 실용서.

이 책은 저자가 3년에 걸쳐 우리나라 사계 속의 산사와 각기 다른 계절별로 스님들의 차 만들기 비법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다. 녹차와 꽃차, 잎차, 열매차 등 다양한 차들을 칼라 사진과 함께 실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차 맛을 느껴가는 것,
알아간다는 것은 수행이다.
차와 명상은,
같은 맛(선다일미)이란 뜻이다.**

이정애 지음/4×6배판 양장/248쪽/33,000원
정리출판사



풀 한 포기 다치지 않기를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 시대를 뼈아프게 그려낸 한 영혼의 영적 오딧세이

눈 푸른 스님의 처절한 삶, 어쩌면 당신은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무의식속에 감춰진 상처와 고통들 속으로 불법을 등불 삼아 들어가 불굴의 수행과 성찰로 아픔을 치유해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라디오 불교방송 정목스님의 <마음으로 듣는 음악>, 매일저녁 7시 "책 읽어 드리는 시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마스 지음 ,황학구 옮김 / 신국판 /192쪽/8,500원
정신세계사



불교수행입문③ 염불 수행 입문

염불 수행자라면 꼭 한번 읽어야 할 책!

《염불 수행 입문》은 《간화선 입문》과 《절 수행 입문》에 이은 '불교 수행 입문'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이다. 염불은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의례이자 한국 불자들의 대표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염불 수행의 의식과 주의사항, 염불 방법과 역사 전거 등 염불 수행법을 종단 차원에서 정리하였다.《염불 수행 입문》은 염불의 기본부터 실수행까지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어 염불 수행자라면 꼭 한번 읽어야 할 책이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엮음/ 신국판 반양장/232쪽/8,000원
조계종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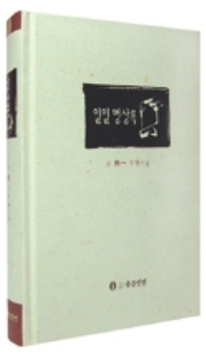


얘들아, 절에 가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최고의 사찰 가이드북

사찰에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아이들의 질문에 부모님들 얼굴엔 번뇌가 가득해진다. 사찰마다 안내판이 있지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는 역부족이다.《얘들아, 절에 가자》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 혹은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의 결과물이다.
사찰에서의 기본예절과 사찰 건축물의 의미와 일화 등 불교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있다. 익살스러운 삽화가 곁들여져 쉽게 구성되어 사찰 문화를 제대로 알고 싶은 일반인들이 읽어도 좋다.

홍주연 지음 / 4×6배판 변형 / 160쪽 / 9,000원
조계종출판사



일일명상록

우학스님의 일일명상록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우학스님의 메시지! 하루 한 구절의 글귀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를 탓하지 말라. 거울은 비출 뿐이다.
거울을 잘못 택한 본인 잘못이 더 크다(8월 20일)."

우학스님 글/가로11.5×세로15Cm/ 양장/411쪽/10,0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 종로구 안국동
02)737-0695

지면에 나온 출판연합서적 구입시 사은품을 드립니다.
- 2만원이상 구매고객 : 설선대법회 법문 TAPE (총 100개)
- 3만원이상 구매고객 : 설선대법회 법문 CD (총 100개)
- 10만원이상 구매고객 :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테입세트 (총 50세트)

불기2551년 부처님오신날
책방여시아문 기념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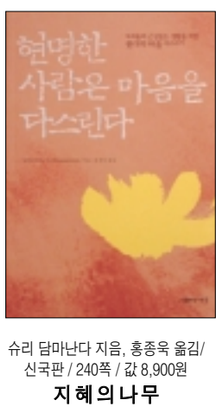
인도전통 요가의 맥 (초급, 중급, 고급)

전통요가의 흐름을 이어갈 한국의 요가 수행자들을 위한 책!!

'요가 비전'에 이어 두번째로 인도 전통 요가를 소개한 실용 입문서. 이 책은 인도 전통 요가의 수련방법들을 담아 정리한 요가의 핵심으로 요가의 역사와 의미, 수행자를 위한 조언과 명상법,
그리고 함께 요가 동작을 따라 하면서 익힐 수 있도록 컬러 자세 사진으로 구성한 것으로 초급, 중급, 상급편을 세트로 묶었다.

진리의 감로를 맛본 사람은 이론이나 교리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배해수 편역/변형 4×6배판/ 각권 164-183쪽내외/값 47,000원
지혜의나무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현대인이 마음에 평화와 위안을 주는 담마난다 스님의 따뜻한 메시지

이 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근심의 여러 가지 형태를 나열하고 그 근본원인을 불교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그 해결방법과 궁극적 행복과 평화를 얻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탈속한 수행자의 세속인의 생활에 대한 예리하면서도 따스한 눈길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스리랑카 출신으로 회교국가인 말레이지아에서 불교를 일으켜 세운 스님이다.

슈리 담마난다 지음, 홍종욱 옮김/ 신국판 / 240쪽 / 값 8,900원
지혜의나무

무문관 그 수행 현장과 숭고한 구도 이야기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한 선승(禪僧)의 무문관(無門關) 수행일기 최초 공개

밥구멍 하나 빼고는 사방에 막힌 방에 오직 화두 하나만 들고 참선하는 무문관 수행,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무문관 생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일기가 공개 - 조선일보

무문관 수행자가 참선 중에 겪은 내면의 체험을 가감없이 기록한 일기체의 글은 유례가 없었다. - 문화일보



김성우 엮음
신국판 304쪽 / 값 12,000원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T. 02) 2198-5151 / 051) 244-1251

산야초로 만드는 효소 발효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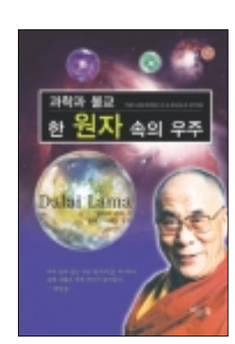
천혜의 자연에서 자라난 산야초 효소 발효액은 산야초를 채취하여 장기간 발효 숙성시킨 농축 원액으로서 다량의 비타민, 미네랄, 효소 및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산야초의 신비한 효능을 그대로 간직한 최고의 자연건강음료이다.
효소발효액은 혈액정화작용, 소화흡수작용, 노폐물배출작용, 항염항균작용, 해독살균작용, 세포재생작용 등이 있어 피로회복, 숙취해소, 갈증해소, 체력증진, 건강개선에 도움을 주고 자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최고급 건강음료라고 할 수 있다.

사륙배판변형 | 올컬러 | 248쪽 | 값 15,000원



약이 되는 산야초 108가지 1 2 3

하남출판사 사륙배판변형 | 올컬러 | 각권 값 15,000원



달라이 라마의 과학과 불교
한 원자 속의 우주

윤리와 인간적 가치에 대해 과학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과학은 지혜와 자비심의 결합으로 이루어 져야

내 바램은 우리의 근본적인 인간가치의 풍요롭고 순수한 정신성(영혼성)을 인간사회의 과학 코스와 기술쪽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요점은, 과학과 정신성이 접근법은 다르지만 인간성의 더 나은 측면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다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과학은, 우리를 가장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동기다 된 과학이다. 불교 용어로 말하자면, 이런 종류의 과학은 자비심에 바탕을 두고 자비심으로 조정된 지혜라고 설명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신성은 우리 내부의 자원을 향한 인간 여정으로서, 가장 깊은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또 가능한 가장 높은 이상에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역시 지혜와 자비심의 결합이다.

달라이 라마 지음, 삼묵 • 이해심 공역/ 신국판/204쪽 /12,000원
하늘북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개정판)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근본불교개론서

붓다의 가르침 중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기록으로 받아들여지는 빠알리 심장에서 발견되는 붓다가 사용한 성실하고 정확한 언어들을 가능한 한 요약해서 직접적으로 간명하게 진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책.

원폴라 라훌라 원저, 퇴현 전재성 역저 / 신국판/233쪽/값 10,000원

위빳사나 수행 28일

위빳사나 수행법을 대중화, 세계화한 마하시 세야도의 수행제자로서,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진 찬메 세야도의 법문, 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직접 배울 수 있다.

찬메 세야도 아신 자나까비왐사 법문, 케마 옮김/신국판/486쪽/값18,000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진흙이 꽃을 피우네

우리의 삶은 진흙에서 연꽃으로 간다!

석지명 스님의 산문집. 우리의 인생을 '진흙과 연꽃'의 비유로 끄집어내고 있다. 세상이 진흙이기도 하고, 연꽃이기도 하듯, 더럽게 보이는 진흙은 출발점이며, 깨끗하게 보이는 연꽃은 도달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진흙에서 연꽃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 책은 법주사의 주지를 지낸 저자의 세상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묻고 답하는 화법을 통해 우리의 어려운 인생을 쉽게 풀어나간다. 세상의 삶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자 하는 철학자로서 '진흙과 연꽃'의 비유를 통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청정함을 지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석지명 지음/신국판/303쪽/10,000원
해 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모곡 사야도의 12연기 강론

이 책은 모곡 위빠사나 보급회 회장인 우 탄 다잉이 모곡 사야도의 12연기 법문과 도표를 바탕으로 하여 사성제와 연기법을 활성화시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펴낸 것이다. 모곡 사야도는 이 책에 소개된 12연기 도표를 직접 고안하고 소개하여 우리의 오온 안에서 연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또한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우 탄 다잉 지음, 조영미 옮김, 묘원 주해 / 신국 양장/304쪽/값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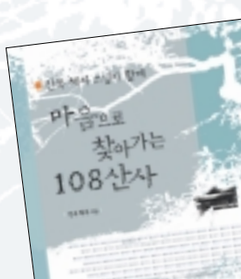
12연기와 위빠사나

우 소바나 사야도의 수행법문

2003년 10월 미얀마의 우 소바나 사야도가 한국에서 10일간 한 법문을 묘원이 상당 부분 보완한 책. 미얀마에서 12연기 법문과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우 소바나 사야도의 12 연기는 아비담다의 대가 레디 사야도와 모곡 사야도로부터 계승된 전통적인 이론과 방법을 기준으로 삼은 가르침이다 .

우 소바나 사야도 법문, 묘원 편주해 / 신국 양장/432쪽/값20,000원

행복한 숲



참 아닌 참의 세계 진영과 찬문

진영과 찬문에 담긴 고승들의 철학세계와 수행 이야기!

주인공의 정신세계에 초점을 맞춰, 사람을 똑같이 그리되 그것은 참이 아니며, 주인공 자체도 허상에 불과하다는 불교인 특유의 초월적 인식과 회화관을 보여주는 진영과, 주인공의 생애와 업적 등을 표현하기 위해 고도의 은유와 비유, 그리고 촌철살인의 경구가 사용된 찬문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집중 분석한 책.
한국불교를 세계적으로 소개할 의도로 본문의 핵심 부분을 영역하여 따로 실었다.

신대현 지음/신국판/316쪽/값 25,000원
도서출판 혜안



고승 84인 설법집
名 설법 名 법문(Ⅰ)

불교신문사 편

이책은 불교신문에 3년간 연재됐던 「설법」원고를 중심으로 엮은 법문집이다.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나 우리들 일상적 삶의 갈등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불교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책의 큰 자랑이다.

84명의 한국불교 대덕스님들이 말씀한 이 책은 설법자료집으로 활용하다.

신국판 100g 미색모조 최고급 /양장본 / 395쪽 /25,000원
弘法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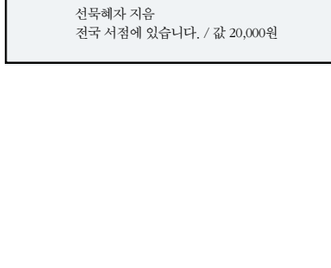
고승 84인 설법집
名 설법 名 법문(Ⅱ)

불교신문사 편

이책은 불교신문에 3년간 연재됐던 「설법」원고를 중심으로 엮은 법문집이다.

한평생 청정한 수행과 중생교화에 헌신한 82명의 큰스님 법어는 불교를 알고져 하는 이는 물론 현대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불자들의 삶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하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신국판 100g 미색모조 최고급 /양장본 / 382쪽 /25,000원
弘法院



선묵혜자(禪默 慧慈) 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KBS TV〈책을 말하다〉 선정도서!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가슴에 담고
108산사 순례법회 기도회와 함께 떠나십시오.

삼각산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스님이 전국의 108개 사찰을 순회하며 산사의 장엄하면서도 예술혼이 깃든 전각, 석조물, 불화, 자연환경과 역사적 숨결이 살아 있는 산사에 얽힌 전설과 설화, 스님들의 일화를 압축된 언어로 펴낸 서사시집!
산사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전해주는 언어, 영혼을 밝혀주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언어로 현대인의 지친 영혼에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불교와 산사를 새롭게 접할 수 있는 필독서!

선묵혜자 지음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 값 20,000원

도서출판 화남 전화 02)3142-4787 / 팩스 02)3142-4784

일주문



부경대 초청 법회 참석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5월 12일 부경대 교수불자회와 불교학생회가 주최한 초청법회에서 '21세기 중생을 위한 붓다의 마음'을 주제로 법문했다.



정신지체장애인 축구대회 개최

영주장애인복지관장 도륜 스님이 5월 30, 31일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에서 제5회 경북지역 정신지체장애인 축구대회를 개최한다.(054)633-6415



'붓다' 주제 강연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이 6월 7일 예수도원이 주최하는 혁명적 영성과 영성적 혁명 강좌에 참석해 '아름다운 이, 붓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불교장례산업 정책포럼 개최

불교인재개발원 허경만 이사장은 5월 28일 오후 6시 30분 교육관에서 유재철 교수 초청 불교장례산업을 주제로 제7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02)735-2428



제3차 이사회 · 임원전진대회

대한불교청년회 박법수 회장은 5월 26일 오후 7시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제3차 이사회 및 임원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이슬람 소년의 특별한 '불교사랑'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주고르, 부산 금정中 다니며 예불 재미에 흠뻑

"계율을 목숨처럼 지키고 보살계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특별한 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5월 8일, 부산 금정중학교를 찾았다.

2003년 생물학과 교수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온 주고르(16, Zulfugarli Gorgud · 사진)는 김치와 축구선수 이영표를 좋아하고 '일연(一蓮)'이란 법명을 가진 금정중학교 학생이다. "중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국어도 전혀 몰랐고, 한국음식도 낯설기만 했다"는 주고르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금발머리를 긁적인다.

중학교 1때 만난 담임 정은경 선생님의 도움으로 한국생활에 빠르게 적응한 주고르는 차츰 새로 사귄 친구들과 축구하느라 밤늦게 집에 돌아가고 장난도 많이 치는 활발한 학생이 됐다. 하지만 이슬람 문화권에서 자란 주고르가 불교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다.

"처음엔 이슬람교와 많이 달라



서 불교문화가 어색하고 반야심경도 마술주문 같았어요. 입정(入靜)할 때 가부좌를 해야 하는데 다리가 길어 조금만 있어도 다리가 아팠어요."

금정중학교는 학생들의 신행활동을 위해 정기적인 예불시간도 갖고 인터넷을 통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하계 수련회와 수계식을 매년 개최해 학생들이 불교와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 주고르 역시 이러한 학교 분위기에 적응해 지난해에는 수계를 받았다. 법명 '일연(一蓮)'은 '아제르바이잔과 하나로 연결됐다'는 의미로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이 지어준 것이다.

주고르는 "수계식 때 받은 계첩을 보면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며 수계의 의미를 다시 새겼다.

중학교 3학년이 된 주고르는 며칠 전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다. "제가 처음 한국음식이 이상했던 것처럼 친구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먹으며 신기해했다"며 웃는 주고르는 "아제르바이잔으로 돌아가면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과 불교문화 그리고 연비의 따끔함을 설명해주고 싶다"고 말한다. 또한 "고등학교도 불교종립학교에 진학해 더 많은 불교문화를 접하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다.

하성미 기자

부처님오신날 기원법회 봉행



충북불교총연합회(회장 도공, 법주사 주지)는 5월 14일 청주 명암타워에서 불기2551년 부처님오신날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설곡 스님(수도원 원장)과 원해 스님(태고종 종무원장), 이재충 충청북도지사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공 스님은 "충북도민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군법당 금련사 지장대불 봉안 법회



부산 군법당 금련사(주지 법사 이동경)는 5월 14일 지장대불 봉안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 지운 법사, 금련사 현조 주지법사, 불심회 이한명 회장 등 500여명의 불자들이 참여했다. 일면 스님은 "지장보살을 모시는 공덕으로 금련사가 더욱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법문했다.

97연대 호국 향천사 군법당 점안식



(재)한국불교법륜종 천수암(주지 일정)은 지난 5월 15일 97연대 호국 향천사 군법당 점안식을 봉행했다. 법회는 법륜종 총무원장 고산 스님과 대천사암연합회장 법령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일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32사단 군장병들과 천수암 신도들의 불심으로 호국 향천사를 점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효성사 열반 1321주년 추모대재



원효종은 5월 16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종정 벽송 스님, 종회의장 인담 기획실장 운오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효성사 열반 1321주년 추모대재를 개최했다.

향운 스님은 봉행사에서 "구원의 스승이신 원효성사와 일심으로 동행하여 모든 분들의 염원이 성취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옥천경찰서 불자회 삼사순례법회



옥천경찰서불자회(회장 곽세영)는 5월 13일 경승실장 혜철 스님을 비롯한 회원 40여 명과 함께 5월 13일 삼사순례법회를 봉행했다.

백양사와 송광사, 선암사를 참배한 이번 삼사순례법회에서 곽세영 회장은 "앞으로 회원들의 신심 고취와 단합을 위해 다양한 신행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상 곳곳에 희망의 소리 울려 퍼지길"

소리나는 '마니목탁' 개발한 안경모 교수

"어지럽고 어려운 사회에 목탁소리가 울려 퍼져 탁한 마음들을 맑게 해주고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소리 나는 '마니목탁'을 개발한 안경모 교수(경희대 관광대학원). 5월 20일 출시한 소리 나는 마니목탁에는 양평 사나사 주지인 화암 스님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옴마니반메훔 독경소리가 담겨있다.

"2003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2005년에 플라스틱 목탁을 만들었고, 이번에는 나무로 된 원래의 목탁에 IT기술을 삽입해 완성했습니다."

2억1000만원의 개발비가 투입돼 만들어진 마니목탁은 채로 두드리면 소리가 나오며, 특허출원까지 마친 상태다.

안 교수는 "우리의 혼과 멋과 소리를 외국인에게 들려주고픈 마음에서 개발을 시작했다"며 "불자님들에게도 희망의 메신저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32)344-8815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前 불교방송 상무 홍사성씨 시인 등단



홍사성 前 불교방송 상무(사진)가 최근 계간 <시와 사학> 여름호에 추천돼 시인으로 등단했다.

추천을 한 이가람 인하대 교수(시인)는 "홍씨의 시는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요즘의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정통적 리리시즘의 길을 걸어가는 안정된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어 믿음직스럽다"고 평했다.

홍사성씨도 당선소감을 통해 "부처님 최후의 제자인 '수바드라'처럼 늦깎이 출가를 한 것 같은 심정이다. 염치없다고 박대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고 꼭지를 따준 여러 시인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 오신날…사찰에서 축제 즐겨요"

전주 '참좋은우리절' 회일 스님



"사회통합을 이루어 양극화라는 우리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공생공영을 위해 불교가 앞장서야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의 참된 의미는 나눔과 화합'임을 강조해온 전주시 삼천동 참좋은우리절 주지 회일 스님(사진)은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 사찰 행사를 지역축제로 준비했다.

참좋은우리절은 이날 우리의 생명이자 문화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줄 떡메치기, 과자, 장류, 쌀, 밀가루 등 친환경식품 시식 및 전시, 판매 등과 한지의 실용적 측면을 알리고자 한지공예 가족경연대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열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박성규 제니스불교문화원장 '팝페라' 찬불가 음반 출시



"음성포교를 하는 동안 대중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장르의 찬불가를 꼭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음반은 그런 화두를 요즘 유행하는 팝페라 장르를 도입해 젊은 층들에게 친숙히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찬불가 음반을 출시한 박성규 제니스불교문화원장(41 · 사진)은 이번 노래들이야 말로 20여년간 찬불가 포교에 매진해 온 경험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박원장은 6월 2 · 3일 양일간 서울 인사동 부남미술관 전시실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공연을 연다. 김주일 기자







절과 함께 살아 가진 것 없어도 부자


온수리.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⑬ 정족산 전등사


전등사 경내

약 300세대 작지 않은 마을에 절 교회 성당 터 잡고 살아 강화 전통공예 사라질까 걱정 규제 많지만 생태 위해 '인내'

길 위에서 보낸 시간들 한가운데에는 어김없이 나무가 있다. 전등사에는 500년도 더 산 커다란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다. 노승나무와 동승나무로 불리는데, 전등사 은행나무는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거기에 얽힌 설화를 들어보자.

철종 임금 때 전등사는 조정으로부터 은행 20가마를 바치라는 전갈을 받았다. 한 해 은행 수확이 10가마인데, 두 배의 은행을 바치라는 것은 관청의 무리한 요구였다. 노스님은 관리들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다가 도력이 높은 백련사의 추송 스님을 부르기로 했다. 스님은 3일 기도에 들어갔고 기도가 끝나는 날 사람들 무리에 섞여 있던 관리들 눈이 갑자기 얼어맞은 것처럼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기도를 끝낸 스님이 "더 이상 두 그루의 은행나무에서는 은행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먹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보살이 전등사를 구하기 위해 스님으로 변해 왔다고 믿게 되었다. 이후로 전등사 은행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 절집마다 설화들이 전해지지만, 살아서 사람살이를 지켜보는 것은 나무라는 생각을 해본다. 어쩌면 사람들이 남기고 간 글귀보다 더 담백하고 깊은 이야기들이 나무의 물관 속에 깊숙이 배어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강화도 전등사는 호국불교 근본도량으로 역사와 권위를 간직한 사찰이다. 1332년 고려 왕실은 몽골의 침략을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로 임시 도읍을 정하였다. 삼랑성 안에 자리 잡은 전등사는 경내에 가궐을 지어 임금의 안전을 도모하기도 했다. 조선 말기에 접어들면서 지형적인 특성으로 국난을 지키는 요충지 구실을 톡톡히 해냈다. 지금도 전등사 대웅전 내부 기둥과 벽화에서 이름이 적혀 있는 낙서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병인양요 당시 부처님의 가피로 국난을 극복하려는 병사들의 염원이 담긴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강화도는 해안요새 역할을 감당하느라 시련이 많았던 탓인지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여러 가지 종교가 혼재해 있어 종교문화의 성지처럼 느껴졌다. 온수리라는 작은 마을에 전등사와 온수교회, 온수 성공회성당이 터를 잡고 있다. 절집 아랫마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불자가 아니라 기독교인 이었다. 동문 입구에 앉아 두릅을 파는 아주머니들을 만났다. 교회 권사이지만 전등사를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제철 나물들을 팔아 용돈으로 쓴다고 했다.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절집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등불 밝히는 일을 잊지 않는단다. 절집은 누구나 드나들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었다.

보리수를 한 모금 얻어먹으려고 공양간에 들렀다가 온수리에 사는 공양주 보살 장화자씨를 만났다. 비구니 스님들은 절집 부엌에서부터 수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보살은 그저 절집에 사는 것이 마음 편하단다. 자녀들은 다 출가시키고 소일거리를 찾던 중 우연히 공양주 보살이 되었다. 부처님오신날 3군데 사찰을 돌며 등불 밝히는 것이 연례행사였는데 요즈음은 바빠서 시주에 게으르다며 새벽 종소리처럼 맑은 웃음소리를 낸다. 어려서부터 절집으로 향하는 마음이 늘 즐거움이었다는 그녀는 건강이 따라줄 때까지 공양간을 지키고 싶단다.

사람 마음의 도량은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 것일까. 온수리라는 지명이 사람들 마음을 선하게 다스리는 것인지, 온 동네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탓인지 모두 마음 도량이 깊다. 박덕례 이장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내 전화를 받고 친절하게 절집까지 찾아 와 주었다.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자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을 부자로 살아서 그런가 봅니다"라며 너털웃음을 웃는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서 바로 근심이 되어버린다는 말이 법문이었다.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지요. 어렸을 때 정족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부모님께 쌀을 사다드리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때 가장 부러운 것은 상급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배우고 나서 버리는 책을 갖다가 혼자서 독학으로 영어를 배웠지요. 한국전쟁 직후에는 전등사에 미군들이 관광하러 많이 들렀어요. 소를 먹이다 말고 미군들이 들어오면 말을 붙이며 노트에 적어서 영어를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가난을 온몸으로 물리치려고 했던 이장님의 몸부림이 한편의 드라마 같다. 온수2리는 약 300세대가 어울려서 살고 있는 작지 않은 마을이다. 그는 30대에 동네 이장을 보다가 성실성을 인정받아 면사무소의 기술직공무원이 되었다. 지금은 퇴직하고 산불방지요원으로 전등사 뒷산을 지키고 있다.


종각 앞 고사목에 누가 달마상을 새겨 놓았다.

3년 전부터 온수리는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단다. 아파트가 한 채 지어지고 약 80세대가 외지에서 이사를 들어왔다. 그는 환경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말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강화도의 화문석이라고 했다.

시골아낙네들의 부업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었던 소중한 전통공예가 사라져 가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옛날에는 강화 화문석 축제도 있었는데 지금은 행사가 중단 되었다.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도 손으로 짤 수밖에 없는 것이 화문석이란다.

온수리 사람들은 강화도의 풍경답게 소박하게 산다.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해 호박고구마라는 품종을 개발해 생산하고, 초지진에서 숭어, 새우, 밴댕이를 잡기도 한다. 공장이 없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다른 것으로 소득 얻기가 어렵지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고향집에 들른 기분이 드는 강화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많지만 바다 생태와 자연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산

화문석 이주머니 **유길수**

"짜기만 하면 팔려 나가…배우려 하는 사람 없어 걱정"



양도면 길정리에서 지금도 틈틈이 화문석을 짜는 유길순 아주머니를 만났다.

"시집을 와서 보니까 화문석을 짜는 고장에서 시집온 사람들이 자리를 짜고 있었어요. 재미있어 보여서 이웃 동네에 가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 동네에 퍼져 화문석 짜는 사람들이 많아 졌지요. 엊그제 배운 것 같은데 벌써 30년이나 자리틀에 앉았네요. 화문석 짜는 것은 원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손이 많이 갑니다."

손재주가 없는 사람은 화문석을 짜지 못하기 때문에 농한기 때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단다. 규격은 10자 9자 8자로 구분하는데, 지금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 수가 적어서 수입이 예전보다 낮다고 했다.

"옛날에는 내다 팔았는데 지금은 짜기만 하면 상회에서 전화가 옵니다. 똑 같은 물건도 솜씨가 좋으면 3~4만원 더 얹어 줍니다."

화문석을 짜는 실은 고드렛 돌에 일일이 손으로 감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하기에 좋은 작업이란다. 농사지어서는 못 가르치는데 자녀 셋을 다 대학까지 보냈다며 화문석이 장학금이 되어 주었다고 말했다.

"농한기에 일주일이면 들이서 화문석 하나를 짜지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아이들 책가방이 없어지면 그만 두려 했는데 소일거리가 없어 심심풀이로 조금씩 짭니다. 젊어서는 아이들에게 학비를 줄 요량으로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했지요. 장날 나가서 팔면 돈이 되기 때문에 재미도 있었고요. 안타까운 일은 화문석을 짜는 젊은 사람이 없어서 전통문화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여 걱정이 됩니다."

전통문화를 묵묵히 다듬어가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성불화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만트라 ㉮ 출시!

어려운 일도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일 마다 꼬이고 안되는 사람이 있다.

산행, 캐주얼, 운동화, 조깅화, 여행용으로도 최고…

주위를 둘러보면 잘못 들여 놓은 발로 끙끙거리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비롯하여 도박, 교통사고, 실족사고 등 마음은 안하고 안가야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간다.

어두운 밤 길도 알고 가면 쉽고 모르고 가면 화를 당하듯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천폭륜상(千幅輪相)과 만트라 ㉮가 새겨져 있어 마음의 안정을 주어 바른 판단과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왕에 신는 신발 성불화 만트라로 삼재소멸하고 좋은 길로 가서 하는 일 술술 잘 풀린다면 그 보다 더 큰 보시가 있을까 가격 98,000원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만트라 ㉮는 옴마니 반메훔의 뜻으로 진언비밀이라고도 하며, 원어를 음사(音寫)하여 이를 많이 외우면 재액이 물러가고 공덕이 쌓인다고 한다.



■만트라 ㉮ 옴마니 반메훔 성불화는!

-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만트라!
- 신고벗기 편리한 원터치 신발끈
- 용천과 아치를 받쳐주는 편안함
- 부처님 족상, 옴마니반메훔 삽입
-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 타이어트랙 밑창

성불화 보급처 080-775-7575
서울 742-9816 부산 853-4616

일진 100만셋트 판매기념
글루코사민100
<노미진 특별기획가 판매

일진제약 글루코사민은 관절, 연골의 구성성분으로 관절 ·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여 튼튼한 관절을 원하시는 분께 좋은 제품이다. 관절의 건강을 원하시는 분, 관절 연골에 영양공급이 필요하신 분, 관절 및 연골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약자, 여성분에게 좋은 제품이다.

할인율 45%



▶내용량 : 1통(570mg×270캅셀)

총 14개월분 (글루코사민 6개월분 + 칼슘 8개월분)

글루코사민100 특별할인
~~198,000원~~ → 69,800원

제조원
일진제약(주)
주문상담 080-223-7000

옻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임상완료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신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년여에 걸쳐 안전성 임상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서울대 임상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상상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누가 원망스럽습니까? 그를 원망하기 전에 그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셨나요? 그의 입장을 나의 입장으로 되돌려 생각해보거나, 그가 전에 나에게 잘 해 준 일이 있었던 것을 되 짚어 보신다면 원망의 마음도 사라질 겁니다. 원망은 언제나 한쪽만 바라볼 때 생깁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을 고집할 때 상대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의 화살표는 언제나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효찰대본산

용 주 사

주 지 정 호
특 보 성 로
부주지 성 직

기획국장 성 호 교무국장 성 무 재무국장 응 진
사회국장 성 광 포교국장 남 전 호법국장 도 정
박물관장 보 승

■ 부설 : 효행박물관 경기불교대학 효행교육원 용주사 템플스데이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www.yongjoosa.or.kr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新 興 寺



회주 설악 무산
부주지 법 검 우 송
기획 동 선 교무 정 묵
재무 일 음 포교 지 상
사회 일 도 호법 일 해

- 신흥사 향성선원
- 신흥사 신도회
- 신흥사 불교대학
- 재단법인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
- 재단법인 신흥사 성준장학 재단

- 사회복지법인 신흥사 복지원
  - 반야노인요양원
  - 반야어린이집
  - 장사 룸비니어린이집
  - 춘천실비노인요양원(연화마을)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전화 (033)636-7044,7393 / 팩스 636-7556
www.sinhungsa.or.kr

신흥사 대중일동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산 동 화 사

조실 진제 법원
주지 남명 허운


통일대불

총무 홍관 금당선원 선원장 지환
기획 각만 강 원 강 주 지운
재무 허주
포교 선용 신 도 회 회 장 허석구
호법 도견
회계 법진
도감 중현 사부대중일동
원주 선일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전화 053)982-0101~2 / 팩스 053)985-4405
http://www.donghwasa.net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銀 海 寺

회주·주지 법 타

환경 친화적인 장례문화

팔공산 은해사 수림장

www.eunhaesa.org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 (054)335-3318 종립승가대학원 (054)336-2381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주 지 성 타

관 장 종 상
학 장 덕 민
선 원 장 종 우
부 주 지 장 주
총 무 종 천
기 획 정 문
교 무 정 수
재 무 종 천
사 회 각 천
포 교 성 요
호 법 종 민
신도회장 변영우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전화 054)746-9912~4 팩스 054)746-1476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 어 사

조 실 지 유
주 지 대 성
부주지 계 전

선 원 장 인 각 강주·율원장 지 오 박물관장 경 선

총무국장 범 산 기획국장 혜 민 교무국장 지 선
재무국장 원 범 사회국장 대 방 포교국장 무 관
호법국장 강 하 연수국장 종 인 총무부국장 도 림
상임감찰 지 웅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546 ☎ 051)508-3122~6
www.beomeosa.co.kr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부처님의 새벽별은 지금도 빛나는데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순간, 부처님은 새벽별을 보고 계셨습니다. 새벽별과 눈 만추는 그 순간 부처님은 우주의 진리를 깨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에 넘쳐 한동안 열락을 즐기셨습니다. 부처님이 깨닫는 순간의 그 새벽별, 지금도 그 새벽별은 새벽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새벽별에 눈 맞추고 깨침의 열락을 즐기는 사람을 기다리며 새벽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눈 뜨세요. 그리고 저 별을 보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 도 사**

방 장 원명 지종
전계사 중산 혜남
주 지 산옹 지은

유 나 보탑 천진
강 주 혜엄 우진
총무국장 현기
율 원 장 우설 덕문
교무국장 도문
기획국장 양현
사회국장 남곡
재무국장 만초
호법국장 영경
포교국장 지봉
원 주 일과

총림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055)382-7182 / 팩스 055)382-7196 홈페이지 www.tongdo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 주 사

주 지 도 공
부주지 무 상

총무국장 원 장 기획국장 현 법
교무국장 장 원 사회국장 도 안
포교국장 구 공 호법국장 현 성

사부대중일동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사무실 : ☎ 043)543-3615, 8655
원주실 : ☎ 043)543-4755
팩스 043)543-3620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孤 雲 寺

조 실 현봉 근일
회 주 송암 혜승
주 지 남전 호성

총무 노현 기획 지현
교무 성공 재무 도륜
사회 등운 호법 정우
포교 용담

고운사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성민
영주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륜
의성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탄하

사부대중일동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6번지
전화 054)833-2324
팩스 054)834-6935
홈페이지 www.gounsa.net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미륵성지

모악산 금 산 사

회 주 태공 월주
주 지 벽산 원행

부주지 원광 재무국장 보순
총무국장 원혜 포교국장 덕림
기획국장 덕산 사회국장 석문
교무국장 대명 호법국장 원성
신도회장 김백호 외 신도일동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전화 063)548-4440-2 / 팩스 063)548-1390
홈페이지 : www.geumsansa.org / E-메일 : geumsansa@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대 화 엄 사

祖 室 道川 道川
門 長 慈光 宗山
禪院長 禪燈 玄山
住 持 抱月 宗三

總務 然庵 宗瑞 企劃 草岩 德門
財務 敬千 愚石 布敎 普磨 大了
社會 曉潭 一門 護法 南德 靈觀 院主 愚林

사부대중 일동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전화 061)782-7600 www.hwaeomsa.org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 운 사

주 지 법만
총무국장 선법
기획국장 대선
교무국장 지선
재무국장 종범
호법국장 도완

◆선운사 승가대학
학 장 법장
학 감 학해



주소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번지 / 전화 : 063)561-1422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 선 사

조 실 월운 해룡
회 주 밀운 부림
주 지 설산 철안

연수원장 수월 재 무 혜복
총무국장 가산 사회국장 명성 능엄학림 대중일동
기획국장 초격 포교국장 화해 사 무 장 이희준(법운)
교 무 도암 호법국장 혜만

나만의 법당 www.bongsunsa.net (한글도메인:봉선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전화 031)527-1951~3 팩스 031)527-8568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바람의 여신,
이 세상의 시원함을 평정하다

통바람문의 서라운드 입체 바람으로 더 시원합니다
SPI(Super Plasma Ion)의 수퍼 청정 바람으로 더 깨끗합니다
인체공학을 적용한 열대야 쾌면 바람으로 더 쾌적합니다

꿈의 에어컨
하우젠
바람의 여신



여자라면 꿈꾸세요
HAUZEN
www.hauzen.com

또 하나의 가족 삼성전자 SAMSUNG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1위기념
바람의 여신 고객 사은 대축제
(행사기간 : 5월 9일 ~ 6월 29일)

▶축제 1 홈멀티 에어컨 구매시 최대 64만원 절약
▶축제 2 스페셜 에디션 '앙드레 블랙 펄' 특별 한정 판매 (선착순 3,000명)
▶축제 3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 1위 기념, 특별 할인 판매
▶축제 4 삼성카드 결제 시 50만원 선포인트
● 보너스 1 이벤트를 통해 1,000명에게 크리스찬 디올 콤팩트를 드립니다 (6/10까지) ● 보너스 2 전기료 최대 20만원을 돌려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우젠 홈페이지(www.hauzen.com)를 참조하세요

현대불교 buddhanews.com 2007년 5월 23일/불기 2551년 수요일 제 629 호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환희 · 찬탄…연화장 세계

올해도 부처님오신날 잔치는 풍성했다.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5월 19일에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연등축제 전야제가, 20일에는 불교문화마당이 펼쳐졌다. 전야제에서는 연등행렬을 수놓을 장엄등과 연희단 공연이 선보였고, 불교문화마당에는 전통사찰음식과 네팔 · 태국 · 몽골 등 국제불교마당, 외국인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불교문화마당에는 가족과 외국인근로자, 관광객 등이 함께 어우러져 연화장 세계를 펼쳤다.

〈편집자주〉



전문인력 도입·봉축행사 전략기획팀 구성해야

좌담 : 봉축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자

일시 : 2007년 5월 11일
장소: 현대불교신문사
참석자 : 수암 스님(서울 화계사 총무), 박상희 조계종 총무원 행사기획단 팀장, 권두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사무국장
사회자: 남동우 취재부 기자

수암 스님 사찰·종단 점등식 참여도 높여야

박상희씨 개인등 중심으로 연등축제 진행을

권두현씨 한국불교 대중성 획득 노력 필요


서울 화계사 총무 수암 스님.


박상희 조계종 총무원 행사기획 팀장.


권두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사무국장.

봉축행사가 종교행사를 넘어 하나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찰에서는 연등달기 수준을 넘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봉축행사의 꽃인 연등축제는 타종교인과 외국인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봉축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마련했다.

봉축행사, 불교문화에 문제의식 제기

사회자 : 먼저 봉축행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박상희: 봉축행사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는 전법을 신행활동과 연계시켜서 신행단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방식으로 신행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전법과 신행단체 활성화, 문화적인 활동 이 세 가지의 맥이 통해야 봉축행사의 의미가 있다.

수암 : 진리의 법왕인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찬탄하는 행위 중 하나가 등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 연등축제로 진리를 설파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문화축제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거나 부처님오신날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단위사찰에서 봉축행사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신도조직을 구성하고 끌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한다.

권두현 : 불교라는 종교가 어떤 문화적인 흐름을 가져왔는가를 이해한다면 지금 봉축행사의 가치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현재 한국불교는 종교는 있지만 문화는 상당히 잃어버렸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많이 훼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축행사는 한국불교문화에 커다란 문제의식을 던져준 것이 분명하다.

박상희 : 봉축행사를 진행하면서 단체들이 공감하며 달라진 부분이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등을 밝히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다. 즉 경쟁이 치열한 것은 불교적이지 않다.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불교를 공부하면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것들이 행사 속에서 표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암 : 당위성들은 많이 발전했다. 그런데 봉축행사가 무슨 행사이고 왜 하는지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불교는 '하지마라' 문화가 강하다. 이것으로는 축제를 못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즉 깨달음을 증득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역할론이 교육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두현 : 연등 상징물 만들고 동자승 캐릭터 만들어 대중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봉축행사의 뜻이 있다. 즉 봉축행사는 한국불교의 대중성을 획득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오늘 좌담회도 그런 뜻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자 : 이제 봉축행사의 현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현실을 직시해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성적표를 매겨 달라.

박상희 : 일단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했다. 하나를 확실히 해야 다른 것이 풀리는데 그 하나를 찾았다. 봉축행사는 민중적인 축제라는 것이다. 참가자들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 사람들의 자발성을 키워내는 것이 축제의 핵심이다. 참가자들과 소통하고 주인으로 성장시키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금 성과를 내고 있고 축제의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권두현 : 우선 연등을 불교 대표 이미지로 만들었고 연등 문화를 창조했다는데 가장 의의가 있다. 이전에는 등은 있었지만 문화는 없었다. 연등이 봉축행사 통해 굉장히 많은 대중성을 획득했다. 이것은 한국축제사나 불교사적으로 상당한 의의가 있다. 불교의 전통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보편적인 상징성으로 불교가 대중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거점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수암 : 아직 봉축행사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몇 만 명이 참석하는 법요식을 할 때 전체 대중이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법요의식이 돼야 한다. 현재는 너무 도식화된 의식과 단어들로 채워져 있다. 봉축행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집중도를 높여 가야 한다. 이것은 봉축행사뿐 아니라 불교행사 전반에 대한 지적이다.

권두현 : 등은 하나의 사례다. 흥겨운 노래나 율동을 영상매체에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들을 해왔다. 또 이것들을 체계화된 작업을 통해 전달하자 신도들이 새로운 봉축문화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또 대중적 에너지를 표출했다. 봉축행사만큼 신도들에게 자극제를 준 것이 있는가. 누구도 봉축행사가 이렇게 성공할 것인지 몰랐다. 봉축행사는 불자들의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선택'과 '집중'으로 자발성 키워내

사회자: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봉축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서울시청 앞 점등식을 비롯해 연등축제, 봉축법요식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달라.

박상희 : 10년 이상 서울시청 앞 점등식을 진행해 오면서 장엄등에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 처음에는 선전탑에 등을 달았다가 탑 모형에 네온으로 불 켜기도 했다. 1996년 이후 다양한 조형물을 만들어 냈다. 현재는 대형으로 만들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20미터로도 만족하지 못해 이 정도의 크기를 유지하며 만들 수 있는 매우 큰 공간이 요구된다. 또 해체해서 관리하는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 복합 기술이 확보돼야하는 문제다. 전통등에 관해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점등식은 대형화라는 기술적인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 즉 집중해서 개발해야 하는 문제다. 조형미, 안전성, 비용 등 여러 문제가 조화돼야 작품이 만들어 진다. 기술투자 내지는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나 돈 등이 투입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권두현 : 진주 유등축제는 시민들에게 등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국 기술과 재원, 규모의 미학이다. 시리즈 탱화 형식도 검토해볼만한 하다. 대만의 축제를 예로 들면, 대형 조각물로 12지신상을 만든다. 높이 7~8미터, 직경 1미터 정도의 상징물에 레이저를 이용해 빛과 레이저쇼를 펼친다. 문제는 개당 9~11억원 드는 제작경비다.

수암 :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는 사람들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 수렴해야 한다. 지금 조형물보다 화려해도 괜찮다. 보는 사람 역시 화려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국불교계 전체가 움직여야 함에도 점등식이나 연등축제 참여도가 매우 낮다. 장엄물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사찰이나 종단에서 제작에 참여해야 한다.

KOBUSBILL
후원금, 기부금, 회비, 월정료 등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단체, 기관 등에서 후원금, 회비, 사용료 등을 회원의 전화요금(KT전화, 휴대폰) 고지서에 합산고지하여 청구 및 수납하는 서비스로, 가장 안전하며 편리한 동시에 회수율이 높은 결제 서비스입니다.
로버스빌과 함께하실 독립적인 영업 사업자를 모십니다.(회수대행 서비스 영업활동)
(주)로버스빌은 off라인상으로는 KT유선전화 결제(회수대행) 서비스와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on라인상으로는 휴대폰 결제 서비스와 PG사를 통한 전자지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on/off라인 상품 서비스나 지불대금을 여러 가지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회원의 1회 동의로 각종 회비의 정기적인 청구가 가능.
■ 회비 수납업무 전산화를 통해서 계량적인 관리 가능.
■ 99%까지 수납율이 가능.
주식회사 로버스빌 Tel. 031)737-8046 (담당자 : 원철연 과장) http://www.robusbill.co.kr

24시간, 365일
보안관리 전문가가 있다!
최고의 보안전문회사, 전문가를 찾으십니까?
24시간 365일 보안관리를 대행해주는 통합보안관제 서비스, 이글루시큐리티 허스키서비스를 만나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통합보안솔루션 SPiDER TM을 기반으로 완벽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igloo SECURITY www.igloosec.co.kr
통합보안관제 서비스–
HUSKY Service
이글루시큐리티(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42 원방빌딩 6층 T 02-3452-8814 F 02-3452-8815


대중 호응 이끌어내는 축제문화 개발 시급

상징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범종단적인 참여만 이뤄지면 해결할 수 있다. 또 봉축행사를 준비하는 전략기획팀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봉축행사를 위해 1년 동안 준비하지만 한 달이나 일주일 내에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봉축행사팀 내에 전략기획팀을 반드시 만들고 인재를 지속적으로 키워 내야 한다.

박상희 : 지금까지 사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봉축위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현장의 요구를 못 따라 가는 실정이다. 기술개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 이끌어내야

수암 : 각 사찰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지 10년이 지났다. 그러자 산사음악회로 먹고 사는 사람이 생겼다. 그들은 각 사찰의 입맛에 맞게 산사음악회를 기획하고 만들어준다. 봉축행사도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결합해야 한다.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외부에 전략기획팀을 만들어도 좋을 것이다.

박상희 : 봉축행사의 기본은 참가자에 뒀지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이 받쳐주고 프로그램이 같이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가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장엄등, 전통등, 기술, 음향, 의상 등은 외부 인력과 공동 작업을 해왔다. 좀 더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다.

권두현 : 산업화된 문화가 활성화되기는 매우 어렵다. 기업가는 나쁘게 말하면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들로 인해 전문가의 입장을 견인하게 된다. 하나의 네트워크가 이뤄지면 전문가 만들어지고 내부에서 경쟁하는 체제가 만들어 진다. 따라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종단이나 사찰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캐릭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기본 소스는 봉축위가 제공하지만 활용 방안은 각 종단이나 사찰에서 찾게 된다면 연등축제가 더욱 다양해 질 것이다.

박상희 : 우리는 차별이나 분별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봉축행사를 통해 종단이나 사찰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특성화해서 드러내 보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즉 각 종단이나 사찰들이 추구하고 내세우는 것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권두현 : 지역적인 것들과 종단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각 사찰을 장엄할 수 있는 방식, 예를 들면 일주문이나 경내를 장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연등으로 사찰을 장엄하는 목표점을 제공해 준다면 연등축제가 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박상희 : 중요한 것은 연등축제는 개인등의 축제라는 것이다. 즉 개인 정성을 다해 다양한 등을 만들어 나오는 것이 중심이다. 이런 문화가 정착돼야 하는데 아직은 중간 단계다. 현재 각 사찰에서 등을 대량



수암 스님 요식적 행위 제외하고 더 흥겹게

박상희씨 매년 새로운 이벤트성 행사는 곤란

권두현씨 사찰 단위부터 한 단계씩 변화를

생산하고 있다. 어떤 등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연등축제의 핵심이다. 앞으로 개별등이 다양해져서 볼거리를 풍성하게 해야 한다.

수암 : 밤길에 등을 들고 갈 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등을 공장에서 인쇄했나, 직접 만들었나가 중요할까? 아니면 내용이 중요할까? 현재 등 크기가 작다. 잘 보이지 않는다. 등을 크게 하면 밝지가 않다. 밝게 하려면 현실적인 문제 부딪친다. 잘 보이고 밝고 화려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사찰 주지스님들의 희생이 따라야 한다. 이것은 순수 투자다.

박상희 : 장엄등 때문에 개별 등이 위축되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껏 그렇게 해왔다. 서울의 경우 장엄등 시상은 안한다. 오히려 개인등 시상은 하고 있다. 연등축제는 개인등 축제인데, 장엄등은 한 개 정도 만들고 개인등을 발전시키자.

권두현 : 1년에 한번 절에 오는 사람들은 뭘 즐겨야 할지 모른다. 사찰 문화를 대중화, 보편화시키는 노력이 부족하다.

수암 : 문화마당이 사찰로 가야 한다. 문화마당이 부처님오신날 하루 종일 사찰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다만 이것을 하려면 교육된 인력이 필요한데 부처님오신날 당일 공양 수발에 인력이 모두 소진된다. 또 한쪽에서는 등을 접수하고 다른 쪽에서는 등을 단다.

박상희 : 부처님오신날 다른 일을 벌이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 공양 수발이 큰일이다. 그러나 연등축제를 준비하면서 지역에서 다른 일들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점등식을 하고, 개 사찰별로 손수 만든 등을 가지고 주차장이나 마당을 빌려 연등축제 출정식 형식처럼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면 된다. 일종의 미니 연등축제다. 이렇게 하면 내부적인 결속력도 다질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서비스도 할 수 있다. 또 부처님오신날 당일에 등을 밝히는 방법도 있다. 연등축제 전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수암 :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마련돼야 한다. 붓다콘서트에서 록 공연을 한 번 본적 있다. 그런데 그것은 불자들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불자 자녀들을 위한 공연이었다. 문화코드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코드를 만들어 내야 한다.

박상희 : 축제음악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율동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맞는 우리 음악이 없다. 한두 곡의 찬불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중음악이다. 우리 음악의 필요성을 느껴 국악을 접목한 축제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아이들은 시큰둥한 반면에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은 좋아하는 것 같다.

수암 : 문화라는 것은 모든 계층을 아우르기 힘들다. 계층별 문화가 혼재돼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씩을 드리겠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마무리 발언을 해 달라. 먼저 권두현 사무국장님에게 질문하겠다. 연등축제가 매년 변화하고 있지만 크게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권두현: 축제는 만드는 과정이 더 즐거운 것이고 축제를 하는 순간은 짧다. 또 경험이 쌓여야 잘할 수 있다. 경험을 많이 제공하면 더 나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연등도 기존의 것을 없애고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시켜 가는 과정에서 경험이 축적된다. 한꺼번에 변화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조그만 변화에 집중하자. 지금은 개별 사찰 단위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봉축위가 지원해야 한다. 연등축제를 하는 기분으로 사찰문화를 만들면 지금의 연등축제처럼 사찰문화도 만들어질 것이다. 변화는 조금씩 쌓아 나가는 과정이다.

이벤트적 사고로 보지 말아야

사회자 : 수암 스님에게 질문을 드리겠다. 부처님오신날 서울 조계사에서 진행되는 봉축법요식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너무 정적이고 딱딱하다는 주장도 있다.

수암 : 의식은 의식일 수밖에 없다. 딱딱한 것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제안한다면 봉축법요식 때 기도문과 발원문이 중복되는데, 종단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되는 것은 제외하고 총무원장 스님 기원문과 종정 스님 법어만 하고 나머지는 다양한 것을 진행하면 좋겠다. 불자들은 봉축법요식을 아무도 안 본다. 보는 사람은 비종교인이나 타종교인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식적인 행위는 제외하고 하나의 흐름 속에서 흥겹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또 봉축가는 지금보다 조금 흥겨운 것을 해도 좋을 것이다.

사회자 : 내년부터 연등법회를 할 장소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동대문야구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담당자로서 계획은?

박상희 : 고민스럽다. 일단 단체들의 참여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환해도 크게 영향받지는 않을 것이다. 같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쉬운 것은 그 즐거운 축제 마당을 할 수 있느냐가 고민이다. 참가자들이 운동장 안에서 어떤 열정을 쏟아내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신심을 갖게 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고민하고 해결할 것이다. 검토는 많이 하고 있는데 당장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다. 다만 이벤트적인 사고로 봉축행사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봉축행사를 이벤트로 보면 매년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환희심을 가지며 변화하고 있다.

정리=남동우 · 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봉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축

◆ 원로원장 : 법종 ◆ 원로위원 : 성민, 혜일, 혜정, 법종, 백공, 천광, 일봉, 해남, 봉산
◆ 부 종 정 : 혜일 ◆ 종회의장 : 정봉
◆ 중앙율원장 : 성민 ◆ 중앙선원장 : 도일

◆ 감찰원장 : 상산 ◆ 교육원장 : 일봉 ◆ 포교원장 : 정오 ◆ 호 계 원
감찰부장 : 지오 교육부장 : 봉선 포교부장 : 정산 호법부장 : 규정부장 : 월성
감찰국장 : 지호 교육국장 : 성덕 포교국장 : 묵헌 호법국장 : 다정 규정국장 : 성각

◆ 총무원장 : 혜인 부 원 장 : 지운 기획실장 : 정금옥(불이성)
총무부장 : 동산 총무국장 : 도성 총무과장 : 조일
재무부장 : 법정 재무국장 : 대도
교무부장 : 월곡 교무국장 : 진묵
사회부장 : 자명 사회국장 : 도홍
문화부장 : 지우 문화국장 : 효천
비구니부장 : 중비 비구니국장 : 법련, 덕산

⊙ 총림
– 삼화총림 백화사
– 부산총림 흥국사
– 경남총림 백천사
– 강원총림 조주선관

⊙ 종단 법인
– 학교법인 : 삼화학원
– 사단법인 : ① 본국검도 협회 ② 천지무예도 협회 ③ 행복한 사회
– 의료법인 : 효성
– 재단법인 : 가평 그린 공원
– 사회복지법인 : 정향

⊙ 삼화불교신문사
사 장 : 백공, 지호
발행인 : 혜인
이 사 : 정오, 동산, 혜원, 정산, 법련, 혜은, 각원, 덕산, 중비, 정금옥, 조일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남부교구 종무원장 : 상산 강원교구 종무원장 : 광덕
서울서부교구 종무원장 : 법선 충남교구 종무원장 : 무광
서울동부교구 종무원장 : 대도 충북교구 종무원장 : 백공
서울북부교구 종무원장 : 정담 경남교구 종무원장 : 지운
인 천 교 구 종무원장 : 혜정 경북교구 종무원장 : 혜관
부산중부교구 종무원장 : 정오 전남교구 종무원장 : 월산
부산동부교구 종무원장 : 봉선 전북교구 종무원장 : 정산
경기남부교구 종무원장 : 법정 제주교구 종무원장 : 덕산
경기동부교구 종무원장 : 혜안 일본동경 종무원장 : 정대
대 구 교 구 종무원장 : 도오 미국뉴욕 종무원장 : 성산
울 산 교 구 종무원장 : 수덕 중국남경 종무원장 : 해산
대 전 교 구 종무원장 : 효경

★ 전국신도회
회 장 : 허 정석
고 문 : 김 윤주
부산신도회장 : 박 해식 강원신도회장 : 김 현재

★ 학교법인 삼화학원
⊙ 삼화불교대학
학 장 : 법종 부학장 : 해원
교 수 : 법종, 백공, 해원,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정금옥
운영이사 : 무불, 성산, 원명, 본각, 혜관, 도우, 일현, 정현, 법경 탄공, 해남, 덕운, 청호, 현덕, 도오, 일행, 도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도명, 성봉, 법해, 진법, 용산, 여연 법신, 효경, 혜능, 도원, 대각, 지각

⊙ 삼화불교대학원
원 장 : 혜인
교 수 : 법종, 일봉, 정수, 송암 성민
조 교 : 조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묵현, 지원, 혜법 혜묵,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선공, 도각, 동덕 무량, 혜월,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도성, 진평, 보덕 진제, 연각, 성묵, 덕송, 지해, 백운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 멘화, 혜인
부 총 장 : 윤경석
학생처장 : 손영진 겸임교수 : 신병용, 김병호
학생주임 : 이화목
조 교 : 손정, 주소리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511-2026, 2027, 3445-7375~6
FAX : 02-511-2028

인터넷 주소
삼화불교종단: www.shbuddhism.or.kr
삼화불교대학: www.samhwade.com
남경중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주소: samhwade@hanmail.net




대적광전


요사채


부도밭

회갑날 찬치상 앞에서 '출가하겠다" 선언에 가족들 박수
전강 스님께 계 받고 정진… '꿈에 본 도량' 서 중창불사

#소백산의 전설, 초암사의 전설

큰 산에는 전설이 많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도 많지만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전설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도 많다. 소백산 국망봉 아래 죽계계곡에 위치한 초암사에도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다. 초암사를 중창한 보원 스님이 그 주인공.

'회갑 날, 잔칫상 앞에서 출가(出家)를 선언한 비구니 스님.'

이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은 지 여러 해가 지났다. 수 십리를 걸어 다니며 탁발하여 법당을 짓고 종각을 세운 억척스러운 불사의 주인공. 하루 일반번의 염불로 중생들의 해탈성불을 염원하는 노스님.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절마다 형형색색의 연등 만들기에 분주하고 한 바탕의 잔치를 준비하는 이 즈음, 보원 스님을 한 번 친견하고 싶었다.

#반질반질한 염주알 같은 서원

"스님 아주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렇지도 않아요. 귀도 어둡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요. 아침 잠 깨면 살아 있는 줄 알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루 잘 산 것에 감사하고 그렇죠 뭐…"

"하루 종일 염불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중이 노는 입에 염불하는 거야 당연하죠."

"염불 하시면서 무슨 원(願)을 세우시나요?"

"염불에 빠지면 이런저런 생각 끄트머리가 필요없어야 하는데, 그래도 바라는 게 없지는 않지요."

"그게 뭔데요?"

"식전에는 모든 불자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먼저 내고 염불해요. 낮에는 우리 스님네들이 공부 잘하여 성불하고 중생 제도 하길 바라는 마음을 내고 저녁에는 미물과 더불어 모든 중생계가 불토(佛土) 되길 바라지요."

"그렇게 마음을 내시고 염불을 하루 만 번 이상 하시는 거예요?"

"난 숫자 세지 않아요. 그저 염주를 돌리는 게 그쯤 된다고 하는데 저걸 열 바퀴 이상은 돌리죠."

스님 곁에는 1080알 염주가 바구니에 담겨 있었다. 반질반질 한 염주 알들이 스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았다.

#"출가하여 내 갈길 가겠습니다"

1911년 경북 군위에서 출생한 보원 스님은 17세에 안동으로 시집을 갔다. 그러나 혼례를 치르고 10일 만에 남편이 홀로 일본으로 가버렸다. 3년 만에 귀국한 남편은 어쩐 일인지 따로 방을 썼고 이내 후실을 들였다.

후실에게서 연이어 4남매가 출생하니 그 양육 또한 스님의 손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억척같이 일하고 친인척에 인정을 베풀고 무엇보다 작은 부인이 낳은 아이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했다.

회갑 날, 잔칫상이 푸짐했다. 정성스레 길러준 아이들이 '큰어머니'의 은공에 보답하고자 차린 상이었다. 친척들이 모여 축하를 하는 가운데 그날의 주인공이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못난 사람이 권씨 집안에 와서 60평생을 살아왔으니 이제 출가하여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간 나를 위해 정성을 다 해 준 김씨 아우에게 호적을 물려주고 나는 떠나기로 작정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면 박수 한번 쳐 보이소."

스님이 겪어 온 세월이 담겨진 그 마음을 어찌 모를까? 친척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크게 박수를 쳤다.

#중창의 원력, 30년 시간의 결실

영주 석륜선원에서 영선 스님을 은사로 출가 한 보원 스님은 다음해 인천 용화사에서 전강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보원(寶元)이란 이름을 얻었다. 수원 청련암에서 영선 스님을 시봉하다가 소백산에 도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길을 나섰다. 떠나기 전날, 동자승이 도량을 청소하는 꿈을 꾸었다. 도인을 찾아 소백산을 헤매다가 발길이 닿은 곳,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옛 도량 초암사였다. 꿈에 본 도량, 동자승이 청소를 하며 "진작 오신다더니 왜 이제 오십니까?"하던 그곳 이었다.

비가 새는 법당, 쓰러져가는 요사채 앞에 삼층석탑과 두 기의 부도만 서 있는 그곳에서 보원 스님의 중창 원력이 뿌리를 내렸다.

탑과 부도, 집안 기둥에까지 뱀 허물이 걸려 있는 피폐한 도량에서 미물들을 천도를 하며 시작한 중창 불사는 끊임없는 기도로 일관했다. 버스비를 아끼려고 풍기나 순흥에서 수 십리 길을 걸어 다녔고 인근 마을은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탁발을 했다. 참깨 농사도 짓고 솔잎을 따서 먹기도 했다.

철야정진을 하던 어느 날은 몸이 천근만근으로 무거웠다. 기어이 병이 난 것. 그러나 스님은 '병은 어디에서 왔을까?'를 화두로 몸을 관하며 정진을 계속했다. 정진하다가 기절한 듯 잠에 빠졌는데 천상의 사람이 나타나 몸을 개미보다 작게 하더니 몸 혈관을 타고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해주었다. 그 뒤로 몸이 가벼워 졌는데 오늘날까지 큰 병치레 한번 하지 않았다.

스님의 원력과 정진에 감동한 지역 유지들과 기관장들이 조금씩 돕기 시작하여 6년 만에 대웅전을 지었다. 이후 대적광전 종각 요사채 등의 불사가 이뤄져 지금의 가람을 이루었다.

지금 진행중인 대웅전 보수공사가 끝나면 30여년에 걸친 중창불사는 마무리 되는 셈이다. 보원 스님은 "껍데기 불사는 내가 시작했지만 이제 주지 용운스님이 법을 세우는 속불사를 잘 하실겁니다"라며 초암사가 명실공히 천년고찰의 역할을 다 하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다.

영주/글 · 사진=임연태 기자

부 처 님 오 신 날
— 영담한지미술관 개관 —
The Youngdam Museum of Hand-made Paper

★ 개관일 : 불기 2551년 5월 24일(부처님 오신 날)
★ 장 소 : 경북 청도군 운문면 방음리 747번지
보갑사 內 영담 한지 미술관
★ 연락처 : 보 갑 사 054) 372-5702
영담한지미술관 054) 373-3638
영담한지연구소 FAX 054) 373-3138

옛 인연에게…
상념 사라지면 오직 하나 남는 존재
그렇게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영담한지미술관을 열며

빛의 종이 바람의 종이 달빛 머금은 숨 쉬는 종이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사람에게 이 보다 이로운 물건 또 있을까.
쓰는 이의 손길 따라 오묘하게 변응하기는 너그러운 허공과 같고
내버려 두어도 한결 같이 기다려주기는 어머니의 마음 같은 종이

풍상에 안기어 묵묵히 순응하는 미덕과
꿋꿋이 천 년 세월을 넘나드는 내구력은
차라리 보살의 서원 같은 종이
영 · 담 · 한 · 지

종이가 좋아 종이와 함께 한 20여년. 그 동안 종이에게 못 다한
정회를 풀면서 거기에 녹아감의 여유를 보태어
영담한지미술관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연 물색 먹은 종이는 산이 되고 강이 되고
벌이 되고 사슴이 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온 몸을 던져 만든 닥섬유의 어우러짐은
심연 깊은 곳의 아련한 그리움을 끌어 내었습니다.

닥종이는 제게 있어 알 수 없는 아득한 그리움이며
함께 할 수록 깊어만 가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언제라도 오셔서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담 함장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부처님이 계신 곳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절 마당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스님이 달려와 "부처님 계신 도량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고 꾸짖었습니다. 소변을 보던 스님은 "부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으면 알려 달라. 그곳에 시원하게 오줌 한 번 누게"라고 했답니다.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 깊은 지옥에도 부처님은 계시니까요. 그래서 매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 곳곳이 극락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초 암 사
주지 용운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524
전화054)633-2322

대한불교조계종
덕왕사 (연꽃피는절)
주지 용각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십리 455-5번지
전화054)854-3855 H.P 010-4814-9095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연꽃을 저렴하게 분양합니다.
홍련.백련.수련.자완련.열대연꽃등 여러종류의 연꽃이 준비되어 있음. 수십종의 연꽃사진 전시실도 관람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운 암 사
주지 범초
사부대중 일동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연꽃유치원. 보리수어린이집
■ 경북 문경시 불정동 65
전화054)553-0408. 4795

근본불교 수행도량
태 종 사
조실 석도성
주지 진 용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2동 산29-4
전화 051)405-2626 팩스 405-9400

대한불교조계종
장복산 삼밀사
주지 동하
신도일동
■ 경남 진해시 대백동 산75번지
전화 : 주지실055)544-5962
종무소055)542-6531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동종
법 령 사
주지 도명
신도일동
■ 경남 창령군 창령읍 외부리 564
전화 055)533-1350
휴대폰 011-9597-0075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동종
도 원 암
주지 도은
신도일동
■ 경남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동종
관 음 사
주지 도현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전화 051)253-7957

대한불교
백 련 암
주지 진성
신도일동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 굴화리 백천 505-9
전화 052)221-0092
휴대폰 011-9318-3230

좋은 여행을 만드는 좋은 여행사
(주)보배여행사
국내 해외성지순례 전문여행사
대표 변영호 합장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10-6번지
태영노블리안빌딩 204호
전화 051)463-9100(대) 팩스 463-9200
휴대폰 011-889-8702

송 림 가 든
대표 윤태자
■ 경남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전화 055)355-4893
휴대폰 016-833-9416

대 양 청 과
각종청과 위탁도산매
대표 정해석
■ 경남 밀양시 내일동 378-4
전화 055)352-3001 / 355-2303
휴대폰 011-877-5201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해운대포교원
반 야 원
(부설)
반야불교교양대학
주지 목종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61-7
(영진파스타 8층)
전화 051)701-5655
팩스 051)701-5654

한국불교태고종
봉 원 사 (새절)
주 지 조환우 종회의장 최성담
부주지 석선암 의 원 박고산
총 무 이운봉 의 원 마일운
교 무 조효광 의 원 이기봉
사 회 이석천 의 원 조현성
재 무 김태허
서 무 김향천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대중일동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일동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옥천범음대학 학장 마일운 외 학생일동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관음회 회장 송진여심 외 회원일동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합창단 단장 김성은 외 단원일동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전화 02)392-3007/전송 02)393-9450

부처님 오신날
옥천범음대학
상주권공반
각배반 / 영산반
의식실기반 / 의식이론반
음악이론반 / 작법실기반
동문 재학생 일동
교수진
구해 일운 만춘 기봉
효성 법현 해사
영산재 보존회장 조환우
기획실장 홍보부장 김법현
옥천범음대학 학장 마일운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산 1번지
전화 02)392-3234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휴휴암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일기도 정진도량
대 중 일 동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전화 033)671-0093~5

월암 스님(지리산 벽송사)의
간화정로
看話正路
여기 한 권의 책 속에 간화선의 진면목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월암(月庵)스님 / 양장본·512P 18,000원
미래문명의 대안으로 떠오른 선禪, 그 선의 정수이며 최고 수행법인 간화선의 역사와 사상,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서로 간화선에 대한 올바른 이론과 실참을 지향하는 수행자의 삶이 선수행의 올바른 길임을 제시해 준다.

무문관 그 수행 현장과 숭고한 구도 이야기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한 선승(禪僧)의 무문관(無門關) 수행일기 최초 공개

밥구멍 하나 빼고는 사방에 막힌 방에 오직 화두 하나만 들고 참선하는 무문관 수행,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무문관 생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일기가 공개 - 조선일보
무문관 수행자가 참선 중에 겪은 내면의 체험을 가감없이 기록한 일기체의 글은 유례가 없었다. - 문화일보
김성우 엮음
신국판 · 304쪽P 12,000원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지안스님의 끊임없는 간경과 정진이 함께 녹아있어 큰 감동과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금강경이야기.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간절한 구도심으로 지금 만나보십시오.
지안(志安)스님
신국판 양장본·235P 12,000원

혁대복수 (051) 244-1251 (02) 2198-5151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02) 2198-5151 051) 244-1251

용두산 미타선원
재가선방 하안거결제 방부안내

편안히 오셔서 수행의 즐거움과 법열(法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도심속의 참선전문 수행도량 미타선원의 춘계 산철결제가 50여명 수행자들의 뜨거운 수행열기와 원력으로 원만히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행의 열기를 하안거결제로 오롯이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뜻이 있는 분들은 방부접수 하시어 수행의 법열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방 부 : 선열당(禪悅堂), 안심당(安心堂) 각 20여명
입방일 : 불기 2551년 5월 31일 목요일
문의 및 접수 : 051)253-8687

대한불교 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2가 1-11번지(용두산 에스컬레이터 첫번째 하차점)
T:051)253-8687 F:051)253-8684 홈페이지 www.mitazen.net

부자 되려면 '재분배의 지혜' 갖춰라

5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이수그룹 본사 8층 응접실 창문 밖으로 펼쳐진 한강을 내려다봤다. 김준성(88)이수그룹 명예회장과의 인터뷰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아무일 없다는 듯이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보니 순간 얄밉다는 생각을 했다. 속세는 분열로 얼룩진 정치권의 행태와 부쩍오른 물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들이 가득한데 말이다.

이런 걱정은 김준성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곧바로 드러났다. 경제계 원로인 김 회장은 한국경제의 현실부터 걱정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근면한 역량과 경제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는다며 올바른 정치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명실공히 한국근대화의 산 증인이었다. △대구은행장(1967년) △제일은행장(1975년) △한국산업은행총재(1978년) △한국은행 총재(1980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1982년) △삼성전자 회장(1987년) △(주)대우 회장(1988년) △이수그룹 회장(1996년) 등의 화려한 이력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무엇보다 그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또 등단한 소설가로도 재계에서 유명하다. 김 회장에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제, 건강, 종교, 문학, 등에 대해 들어봤다.



경제위기 인식하고 해외투자 늘려야

▲대선을 앞두고 저마다 후보들은 모두 경제 살리기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경제의 위기 인식부터 정립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1만5000달러에 3000억 달러 수출 달성, 주가 1600포인트 시대 등 외향적으로 보면 경제가 발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우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해외투자를 늘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외환 보유액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수출을 장려하기 보다는 부실해진 내수 경제를 살리는데 역점을 둬야 합니다. 이어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독실한 불교신자라고 들었습니다. 과거 혹은 현재 회장님의 경영 철학 중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있으신지요?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경영에 접목시키거나 반영시켜야 겠다고 특별히 의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너무 거창한데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업원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물가가 인상되면 항상 종업원들의 임금 인상에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종업원들의 배가 불러야 질좋은 상품이 나오고 그래야 물건이 잘 팔려 회사의 이윤이 많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나눔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와 첫 인연은 어떻게 맺으셨습니까?

-선대(先代)부터 독실한 불자 집안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아주 신심이 깊으셨죠. 초하루와 관음재일, 지장재일 등에는 꼭 절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인지 나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불자가 됐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법(正法)을 따르려고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요즈음은 매일 집에서 새벽과 저녁에 예불을 올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반야심경> 사경을 합니다. 또한 아침에 출근하면 독서를 하는데 <간화선>, <불교입문>과 같은 불서를 주로 읽습니다. 특히 <간화선>은 세 번째 읽었는데 앞으로도 문리가 트일 때까지 계속 읽을 작정입니다.

▲불교를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시며, 불자들이 어떤 신행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고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들려주세요.

-우리 불교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 얻은 연기법(緣起法)에 의해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며 내세(來世)를 결정짓는 것도 자력(自力)에 의한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선불교(禪佛敎)에서는 자성(自性)을 깨달으면 우리 중생 모두가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같은 종교관은 우리 불교만이 지니고 있는 특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도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 정진하는 것만이 성불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자 개개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생각을 열어놓아 자신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자주 마음의 죽비를 내리쳐 스스로를 견책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장님의 집안에는 두 가지 종교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회장님은 불교, 미국에 계신 둘째 아드님은 개신교라는데 혹시 집안 내 종교 갈등은 없으셨는지, 어떻게 슬기롭게 종교문제를 헤쳐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불교지만 둘째 아들과 며느리 몇은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식들이 미국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유학 온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양종교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집안 내에서 종교적인 갈등은 없었습니다. 다만 몇년전 미국서 살고 있는 둘째아들이 잠시 귀국해 집에 들렀을 때 한 번은 하느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길래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막상 그러고 보니 아버지로서 마음이 안좋아 나중에 위로 해줬지요.

그 이후 자식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자유지만 분명히 우리 집안의 종교인 불교에 대해서는 조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불교입문> 책 10여권을 사서 자식들에게 편지와 함께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불서읽기 심취, 禪 주제 소설 구상중

▲8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노익장을 과시하시며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신 줄 압니다. 김 회장님의 건강 비결은 무엇입니까?

매일 7000보씩 걷습니다. 또한 새벽 5시에 기상하면 10여분 정도 경락마찰을 합니다. 눈, 코, 입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36차례씩 손바닥으로 문지르는 경락 마찰을 한 뒤 미지근한 물로 '냉수마찰'을 하고 복식호흡을 합니다. 이 같은 아침운동에 총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는 술과 담배를 끊고 철저히 채식을 합니다.

▲1957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이래 27편의 소설을 발표한 문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종교문제를 주제로 한 소설을 펴낼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들려주시지요.

-그동안 <욕망의 방> <비둘기의 역설> <복제인간> 등 몇 권의 소설집을 펴냈습니다. 내 소설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존재론'과 '풍자' '경제' 등인데 요즘은 선(禪)에 관한 소설을 구상중입니다. 제목은 '불립문자(不立文字)'로 정해봤는데 늦어도 내년쯤에는 펴낼 생각입니다.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보편적 명제의 형태로 정언(定言)을 세우지 않는다는 입장, 즉 경전 문구에 대해서 형식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태도가 크게 와 닿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증권, 부동산 등 부를 축적하고 노후 대책을 위해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부자 되는 법'을 주제로 한 책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나라도 부자의 개념이 달라지면 이런 현상이 줄어 들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록펠로나 소로스, 빌게이츠 같은 큰 부자들은 반드시 사회에 자신의 부를 기부합니다. 부자는 분명히 어느 사회나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의 재분배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이 가져야할 '화두'라고 봅니다. 재분배의 지혜가 먼저 갖춰져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의 개념이 달라진다면 부자가 되려고 지금처럼 혈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 들으면 뜬 구름 잡는 소릴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현역'이란 칭송을 듣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올 6월 1일이 미수(米壽)가 되는 날입니다. 이때 여섯 권의 문학전집 출판기념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또한 앞으로 올해 안에 경제권련 책을 한 권 더 펴낼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쓸 것입니다. 불자로서 도심에 포교당을 하나 세울 원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인생을 회향하기 전에 불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기도 정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약사 제일 영험도량 실상선원
봉사와 무료복지관이 있는 천축사
기도성취도량 용암사

선원장 성환
주 지 담운 혜일 보승
총 무 곽동훈

대중일동

■ 실상선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93번지 02)745-8503
■ 천 축 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041)734-2680
■ 용 암 사 경북 청송군 현동면 월마리 산 49-3 054)873-3607

표현·종교의 자유 등 '인권' 최대 이슈

5월 11~14일 벨기에 브뤼셀서 개최
56개국 145단체 320명 참석…중국인 12명도
달라이라마 불참 "나는 반쯤 은퇴했다고 생각"


TSG 본회의에 참가한 각국의 회원들.


각국 대표단의 의제토론장면.

전 세계 티베트 후원의 힘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5회 세계 티베트 후원 단체 국제회의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ibet Support Groups, www.tsg2007.org 이하 TSG)가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됐다. 티베트 중앙 행정부, 독일 정치운동 NGO 프레드리히 나우만 스티프퉁(Friedrich Naumann Stiftung), 벨기에 국회 티베트 지지모임이 공동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영국, 독일, 폴란드, 미국, 일본, 멕시코 등 전세계 56개국 145개 단체 32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역대 회의 중 가장 많은 숫자가 참여했으며 이중에는 티베트의 비폭력 저항을 지지하는 중국인 12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는 티베트 최초로 직접선거로 선출된 망명정부 총리 삼둥 린포체, 벨기에 국회 티베트 지지모임 왈터 물스 의장, 앤 마리 리진 후이 시장, 비자이 싱 만코티아 전 인도 히마찰프라데시주(州)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달라이 라마의 참석 또한 예정되어 있었으나 중국의 압력을 의식한 벨기에 정부의 입국불허 입장에 따라 회의 직전 취소됐다. 달라이 라마는 서신을 통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내가) 불참을 결정한 것"이라며 "정치, 행정적인 부분은 사실상 총리 삼둥 린포체의 역할이며, 나는 이미 스스로 반쯤은 은퇴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중국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세계적으로 티베트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대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이것이야 말로 티베트인들에게는 격려와 힘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TIP

TSG 1990년 다람살라서 시작

- **제1회** 1990년 중앙 티베트(망명정부) 행정부 정보국제부에서 처음 발의되어 인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의 참석과 함께 25개국 단체가 모였다.
- **제2회** 독일 NGO 프레드리히 나우만 스티푸퉁(FNSt) 주최로 1996년 독일 본에서 개최됐다. 전 세계 150개 단체 250여명 회원 참가.
- **제3회** 2000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 달라이 라마, 당시 EU 티베트 지지 의원모임 의장 토마스 만 등이 초청된 가운데 52개국 282여명 참석.
- **제4회** 2003년 10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림. 달라이 라마, 당시 체코 국회 의장 페트르 피트아트, 부의장 잔 루블 등 47개국 260여명 참석.

제 5회 TSG는 △협상을 위한 정치적 후원 △인권 △환경과 개발 △2008 올림픽 등 4개의 워크숍과 8개의 본회의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이렇게 모인 의견은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되어 총회를 거친 뒤 TSG의 활동 로드맵으로 공식화 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는 정치협의, 인권, 환경 및 개발 등 세계 곳곳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티베트 관련 후원 단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로드맵이다.

△협상을 위한 정치적 후원 부문에 대한 논의는 티베트와 중국 정부 측 사이의 회담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참가자들은 티베트가 처한 정치적 상황을 파악하고, 중국과의 회담에 있어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 세계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자는데 동의했다. 또한 달라이 라마의 이번 벨기에 방문 불허를 계기로, 한국을 포함해 그동안 달라이 라마의 입국에 난색을 표한 국가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공통적인 독려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중국 안팎의 일반 중국인들에게도 티베트가 처한 현실을 알려 중국과의 대화를 다양한 채널에서 지속하기로 결의했다.

△인권은 티베트가 처한 문제 중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티베트인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기는 커녕 나날이 폭력이 거세지고 있다는 참가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언어, 문화,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TSG 성명을 통해 참가자들은 "중국은 내년 올림픽을 의식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공포한바 있으나, 이것이 외신 뿐 아니라 중국 내 언론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티베트인들이 처한 현실을 왜곡 없이 사실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과 개발

중국의 무분별한 개발과 지속적인 이주정책으로 인해 극심한 환경파괴 문제에 당면한 티베트의 현실을 돌아본 세션이다. 그중에서도 아시아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티베트 고원의 강 오염과 지속적인 자연자원 갈취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리를 가졌다.

△2008 올림픽

이번 회의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된 주제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준비다. 이미 국제 티베트 후원 네트워크(ITSN, International Tibet Support Network) 차원에서 올림픽을 대비한 활동을 기획할 팀을 따로 조직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 또한 올림픽을 1년 앞두고 티베트 관련 캠페인을 어떻게 펼쳐야 될지에 대해 시기, 방식, 규모 등 계획을 세웠다. 올림픽 캠페인에 대한 채널은 웹사이트(www.SupportTeamTibet.org)를 통해 단일화 되어 캠페인 가이드 라인, 공식 로고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벨기에 브뤼셀/글 · 사진=한상희
세계티베트후원단체 한국대표 참가자

이 저 모 모

△ 브뤼셀 거리 시위

"달라이 라마는 어디 있는가?" "벨기에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라!"

제 5회 TSG의 개막식이 예정되어 있던 5월 11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 시내 한복판에서는 100여명의 참가자가 모여 달라이 라마의 벨기에 입국불허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였다(사진).

참가자들은 갑작스런 달라이 라마의 불참소식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서 티베트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가를 잊지 말아야 된다"며 회의 참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했다.



한편 올프강 게르하르트 FNSt 대표는 거리 시위 직전 열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벨기에 정부는 유럽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브뤼셀을 방문하려는 달라이 라마를 방문을 막았다"며 "이번 일로 인해 다른 유럽국가들이나, EU를 중심으로 펼쳐온 티베트 지지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비공식 청년그룹 회의

이번 TSG의 300여명의 참가자들 중에는 20~30대의 젊은층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스위스 티베트 청년 단체의 자발적 제의로, 회의 공식일정과는 별개로 미국, 영국, 폴란드 등 15개국 세계 티베트 후원 단체의 청년 20여명이 13일 밤 모임을 가졌다. 이번 TSG 회의를 통해 도출된 활동계획과 관련해 청년 그룹으로서 할 수 있는 구체적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 끝에, 앞으로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뉴미디어, 온라인 중심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 후 가 기

티베트 이름으로 결속된 '열정' 돋보여

처음 브뤼셀에 발을 디뎌 행사장을 들어설 때의 놀라움을 잊기 힘들 것 같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참가자들이 회의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 많은 수가 NGO 활동가로써 본업을 삼은 이들이기도 했지만 상당수 변호사, 의사, 미디어 종사자 등 각자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시간과 열정을 내여 지속적인 티베트 후원 활동을 벌여왔다. 단순히 1, 2년 정도 활동해 온 정도가 아니라 90년대부터 꾸준히 5~10년 이상 이 일에 몸담아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명예나 부를 떠나 실제 다람살라, 티베트 등을 오랜 시간 머물며 티베트인들과 함께 생활한 경험을 통해 그들이, 아니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왔고, 이를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국적, 인종을 불문하고 불교국가인 티베트의 문화를 접하면서 자연스레 불자로 입문했거나 불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참가자들은 각각의 이슈들에 대해 진지하고 열정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달라이 라마는 이들을 가리켜 티베트의 네 번째 은신처라 했다. 티베트인들에게 첫 번째 은신처는 부처님이요, 두 번째는 승가, 세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네 번째 은신처는 진정 티베트를 위할 수 있는, 티베트를 넘어 세계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내에는 아직 이처럼 적극적인 여론형성 기구가 성숙하지 않았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라는 케치프레이즈는 티베트 문제에 다한 관심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非營利宗教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원로원장 태화 부원장 청량범왕
원로위원 대월 지성 수인
연수원장 지성 부원장 대월
감찰원장 정혜 부원장 성덕
포교원장 혜조 부원장 무각
호법원장 도암 부원장 대광
중앙종회의장 태화 부의장 혜도 청량범왕
불교예술원원장 도연 수석부원장 도영 부원장 도이
비구니회장 대광 비구니부회장 연아 성화
사무처장 현도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 학장 신풍 부학장 정법 대광

총무원장 신풍 총무부장 태화 규정부장 법기
교육부장 정법 포교부장 법교 사회부장 연재
홍보부장 법교 기획실장 대각 재무부장 대광

중앙종회의원 정법 대광 연아 태화 혜정 법기 정보 백주 혜연 법정 혜도 일연 백경 연제 각오 다연 혜인
종정사서실장 법수
종정큰스님 시봉 연아

서울교구 종무원장
경북교구 종무원장 혜정
대구교구 종무원장 대각
경남서부교구 종무원장 법정
경남동부교구 종무원장 태화
경남거제시 종무원장 정혜
부산교구 종무원장 정법
포항교구 종무원장 혜도
울산교구 종무원장 혜성
전남광주교구 종무원장 다연
경기교구 종무원장 일연
창녕지회장 정보
창원지회장 법기
김해교구 종무원장 대광
통영교구 종무원장 도언
부산경남 법사단장 백경
마산창원 법사단장 법교
부산동래 법사단장 연희
강원교구 종무원장 각오
대원종전국신도회회장 권도양(귀양)법사 부회장 신우연법사

-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환영합니다. - 행자승 모집 합니다 (무료숙식 제공)
- 납골당, 양로원 역학(철학), 대원신풍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함
-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분 초빙 환영합니다. -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 20 대한불교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 총본사 :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1037-1 총본사 대원사 055)342-6341 / 연수원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466-1 도양사(고시원 연수원 기도원 054)956-9666 / 한국역술철학 협회 회장 시인 철학박사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총무원 전화 055)346-2910 무료전화 080-3030-5959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55)346-2908 휴대폰 011-869-8608 평생전화 1577-0408 / 한글 홈페이지 대원불교조계종 또는 http://cbc108.tv:9004/ e-mail: asp8990@hanmail.net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날마다 생일이다

한 스님의 생신날입니다. 신도들이 "스님 생신 축하드립니다"하고 인사를 합니다. 스님은 "오늘이 내생일이야? 난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생일? 몸뚱이 태어난 날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축하를 하는가? 이 사대육신이 아니고 불성을 깨치는 그날이 나 태어나는 날이니 오늘 호들갑 떨 것 없어요"라며 축하인사를 사절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하십니다. "생일? 좋지. 알고 보면 누구나 날마다 생일이지."

대한불교조계종
감 천 사
■ 대구광역시 동구 진안동 151-1
전화 053)982-0562/팩스 053)983-6668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재단
후원계좌 : 대구은행 179-04-153377-001
(예금주: 감천복지재단)
전화 053)986-6522~3/팩스 053)986-5524
www.gamchun.com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말사
천년고찰 선석사
주 지 혜 만
신도일동
■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2리 217
전화 054)933-9800/팩스 054)933-9916

대한불교조계종
원 각 사
주 지 석대혜
간병봉사회, 교정법회 후원회,
원림회, 유적답사반,다래봉사회
신도일동
(양력 초하루 법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59
전화 054)481-2363

대한불교조계종
장 암 사
주 지 도 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83
전화 053)762-3800

대한불교조계종
금 강 사
주 지 이정우
신도회장 이근순外
신도일동
■ 경북 구미시 원남동 100-25
전화 054)452-0845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남지장사
주 지 성 공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륵2리 865
전화 053)768-9920

대한불교조계종
법광사부설 달마선원
선원장 효 신
(태극권 동우회 모집)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2동 660번지(어린이 회관 옆)
전화 053)761-6943/팩스 053)766-6943

대한불교조계종
독도수호 약사여래대불
포항 옥천사 부설
울릉도 성불사
주 지 혜 주
■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 98(옥천사)
전화 054)272-4633

대한불교조계종
성 화 사
주 지 진 공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1동 521
전화 053)625-9030

대한불교조계종
고 방 사
주 지 성 현
■ 경북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485
TEL 054)431-6822, 6823

대한불교조계종
지 장 사
주 지 지 형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136-10
TEL 053)755-9817

대한불교조계종
시 래 사
주 지 묵 조
■ 경북 경주시 시래동784
전화 054)746-1456

대한불교조계종
법 륜 사
주 지 법 성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1리 171
전화 054)734-1258

대한불교조계종
대 승 사
주 지 석 지형
신도일동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458-1
TEL 052)298-5865 · 6623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주 지 설 정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626
(월드컵 경기장 안쪽)
TEL 053)793-1551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 지 지 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6
TEL 054) 931-7777,933-0808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천사
주 지 덕 현
신도회,반야회,구도회
신도일동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송광사 대구분원
관 음 사
주 지 元 明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2가 26
TEL 053)421-3700
FAX 053)427-1889

대한불교조계종
금 용 사
(금용복지회관)
주 지 혜 선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 1동 172
TEL 053)628-5404

대한불교조계종
매봉산 고성사
주 지 고 성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755
TEL 054)977-0962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 지 운 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원 만 사
원만사 부설 유치원
주 지 법 홍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TEL 053)257-1914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 지 경 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 지 선 지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 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마음청컹 · 국토청컹
대한불교조계종
보 현 암
주 지 선 진
사부대중일동
(보현다도회 하루헌카페 회원모집)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7
TEL 053)767-0274
FAX 053)762-8950

월 인 사
주 지 혜 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605
전화 053)767-3971

(사)한국미륵불교
천 용 사
주 지 덕 련
■ 경북 구미시 원평2동 176-42
전화 054)451-7769

대한민국 군포교 사찰
정 토 원
군장병을 사랑하는 모임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561
TEL 053)984-0409

대한불교선각종
영천보현산 등명사
조 실 석정암
주 지 석혜명
신도일동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603-2
전화 054)337-4572(등명사)
054)281-7712, 7719(포항자명선원)

대구화엄불교대학
회 주 진 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861
전화 053)754-4962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뗏목'

부처님의 가르침은 뗏목입니다. 고통의 세상에서 깨달음의 대자유로 건너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뗏목인 것입니다. 강을 건넌 뒤에 뗏목은 필요 없습니다. 강을 건너서도 고마운 뗏목이라고 짊어지고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뗏목의 비유는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강 건너 마을, 그곳에 가기까지 뗏목을 잘 활용합시다.

참회 기도의 생활화로 불법을 수호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여여선원**
주지 혜운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82-4
전화 053)622-0336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임대
■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전화 054)247-2729(팩스 겸용)

운 주 사
주지 약천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74-9
TEL 053)951-0002~3(주지실)

대한불교조계종
성주 취운향당
주지 능혜
■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845
전화 053)933-6371~2/팩스 053)933-6373

대한불교조계종
대당산 보림사
주지 선주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 山67
전화 053)614-4526,7169

청도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덕현
부회장 법춘
회원일동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794
전화 054)372-3876
팩스 054)373-8505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포교원
청룡산 마하사
주지 재원
신도회장 김수월화
■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564
전화 053)637-2331

부처골 卍지장선원 卍지장암
(영가천도/구병시식)
휴양, 장기간 기도하실 분 환영합니다
주지 혜봉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리 489
전화 054)383-8553

대한불교조계종
대 덕 암
주지 혜송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250
전화 053)763-7164

대한불교조계종
천 수 암
주지 금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양리 177-1
전화 053)614-9555

구미 선산 비봉산
서 황 사
주지 명호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479-2
전화 054)481-2736

대한불교조계종
용 천 사
주지 정관
대중일동
■ 경북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1062
전화 054)372-7204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수 진 사
주지 정용
신도일동
■ 경북 울진군 평해면 오곡리 936
전화 054)787-5614

대한불교조계종
망 월 사
주지 동진
사부대중일동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1동 421
전화 054)972-2700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
용 궁 사
주지 원각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5동 1158-1
전화 053)358-1029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직할 포교당
보 현 사
주지 지열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2-35
전화 053)431-5400

대한불교원융종
황 불 사
주지 해안
신도회장 원청덕
신도대중일동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3리 223
전화 054)292-0828~9/팩스 054)292-0820

대한불교조계종
최 정 사
주지 금봉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주동리 302
전화 053)767-4860

대한불교조계종
호 암 사
주지 현종
(백년차 생산판매중입니다)
■ 경북 상주시 이안면 지산리 293
전화 054)541-7863

대한불교조계종
서 봉 사
주지 경희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2
전화 053)471-4812/팩스 053)471-4813

대한불교조계종
승 불 사
주지 청호
■ 경북 청도군 각북면 지슬리 314
전화 054)371-5379

대한불교태고종
불 종 사
주지 현진
신도회장 강순여
부회장 김정자
총무 이명옥
■ 경북 경산시 신천동 355
전화 053)802-4043

대한불교일붕선교종
팔공산 선원사
주지 성봉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185-5
전화 054)975-6976

대한불교조계종
길상도량 천상산 도솔암
주지 지해
신도일동
■ 경북 성주군 금수면 영천리 상고반마을
전화 054)931-0175

한국불교조계종
도 원 정 사
주지 혜명
■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2동 825
전화 053)983-3889

불교자원봉사센터 불교호스피스
단장 정법
(자원봉사단 모집중)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885-4
전화 053)767-8866

우리불교 우리절
용암산 미륵사
주지 석청송
지장회 회장 이수월
총무 남청정심
화주 이자미오
(미륵사대원지장회원)
■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702
전화 053)981-1199/상담실 053)982-0683

꿈을 이루는 사람들
(구미 보현의 집)
- 구미 이주 노동자 상담센터
- 구미 이주 노동자 24시간 쉼터
- 구미 이주 여서 24시간 쉼터

대표 진오 스님
상담실장 김금희
pmect@hanmail.net
■ 경북 구미시 지산동 588-4
전화 054)458-0755/팩스 054)458-0756

(양초 · 고급향)
연 꽃 양 초
대표 김동호 합장
■ 공장 : 053) 811-5331
휴대폰 : 011-517-5978

(株)玖峰 · 鍍金 · 精工
ISO 9000:2000인증업체 / QS 2000-1998인증업체
代表理事 金明錫
구봉정공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620-1
TEL : 053) 351-0009, 4856 /FAX : 053) 352-1717
(주)구봉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905-9
TEL : 053) 582-0156 / FAX : 053) 582-0157
구봉도금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00-65
TEL : 053) 581-0009, 8907 / FAX : 053) 582-4173
Hompage : www.goobong.com
E-mail : gnbong@kornet.net

내 자식만 잘되길 바라는 욕심 버리니…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⑮ 누구나 귀한 '부모의 자녀'

딸을 위한 기도

"엄마, 저 떨어졌어요."

딸이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했다는 말을 들은 L씨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딸은 재수하겠다고 했다. L씨는 그 날부터 사시 불공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날마다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물론 딸이 이번에는 꼭 합격했으면 하는 것이었다. 공부에 시달리는 딸을 보는 것은 너무나 마음 아프고 애처로웠다. 떨어지지만 않았다면 지금쯤 신나게 학교 다닐 텐데…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왔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의 법문이 가슴을 울렸다.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지어놓은 인연이니 정성껏 기도하시고 참선하셔서 마음으로부터 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은 아무 일 없다고 자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위의 다른 사람들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라 모두가 다 내 자녀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려워 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잘되기 바라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좋은 마음 내어 주시고 잘 되기 바라신다면, 그것이 다 내 가족에게도 옵니다."

L씨는 법문을 들으면서 갑자기 자신의 지난 일이 떠올랐다. 과거를 돌아보니 딸이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자식이 공부 못하고 속 썩이는 사람들 이야기를 그냥 무심히 들었었다. 한 번도 그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진심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다. 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저 우리 가족이 괜찮으니 남들 이야기가 상관없었던 것이다.

> 자녀 대학 낙방의 시련 겪으며
> 주위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
> 모든 입시생 위한 기도 올리며
> 마음의 평안과 안정 되찾아…

그런데 지금은 내 딸이 대학에 못 가게 되자 자녀들을 대학에 쉽게 보낸 사람들이 남 속을 몰라준다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 서로가 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서로의 아픈 마음을 알아준다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부터 L씨는 기도를 바꾸기로 했다. 그 전까지는 당연히 "우리 딸만은 이번에 꼭 돼야 합니다" 였다. 그러나 "모든 입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잘 되기 바랍니다"로 바꾸었다.

모든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

처음에는 그렇게 바꾸기가 불안했다. 다른 애들이 더 잘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마저 들었다. 그러나 분명히 모든 아이들 안에 내 딸도 포함되어 있다. 부처님은 모든 아이들의 부모라는 말씀을 명심했다. 무조건 부처님 마음을 따라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입시 공부하는 아이들이 다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모두 잘되기 바랍니다"라고 간절히 기도드리게 되었다.

L씨는 그렇게 기도한 후부터 어쩐지 딸에 대한 걱정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한다. 다른 아이들까지 함께 위하는 마음을 내면서 점점 마음이 안정되어졌다.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따듯한 말을 해주는 등 왠지 정다워졌다. 얼마 전부터는 딸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해지는 것 같다고 한다. "엄마가 내 기도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가 봐요?"

일체가 내 자녀

L씨는 오늘도 법당으로 갔다. 건강하게 공부해주는 딸을 생각하고 수없이 감사의 절을 올렸다. 다른 모든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절을 올렸다. 가슴 속에 뜨거운 응어리가 녹는 것 같고 눈물이 흘러 나왔다.

"수없는 생을 거쳐 오는 동안 일체가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다"고 하셨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L씨처럼 '내 딸만, 내 자녀만' 잘되기 바라는 욕심에서 "모든 아이들"을 위하는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이 참된 행복과 화합의 길이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자녀, 불자(佛子)이기 때문이다.

산행게시판

●**능인선원 대승보살계 수계 대법회**=서울 능인선원이 6월 2일 제43회 대승보살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한다. 능인선원은 "불자들은 반드시 보살계를 수지하여 불자로서의 자세를 확고히 하고 대승보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보살계를 받았다면 연비만 받으면 된다. 보살계 수계법회는 오전 10시, 오후 3시 두 차례 봉행된다. (02)577-5800

●**천축사 해피만다라 대축제**=홍천 천축사가 5월 19일부터 개최하고 있는 '제3회 홍천 해피만다라 대축제'에서 각양각색의 만다라를 만나자. 인도 네팔 부탄 등의 스님들이 그린 '금강의 눈' 등 만다라 1000점이 전시된다. 6월 2일까지 계속되는 해피만다라 축제에서는 만다라 전시회를 비롯해, '눈동자'를 주제로 한 사진 페스티벌도 열린다. 사진 페스티벌은 행사 기간 동안 생명이 있는 것 중 '눈동자'를 사진으로 찍어 A4 크기로 인화한 뒤 6월 1일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만다라 포토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033)432-0821

●**한마음선원 간병사 교육생 모집**=안양 한마음선원이 6월 25일~7월 6일 제2기 간병사 교육을 실시한다. 모집대상은 35~60세 여성으로 6월 21~22일 선원에서 1차 선행 교육을 받은 후 본격 교육이 시작된다. 5월 30일까지 재단사무실로 신청하면 된다. (031)470-3173

●**보문사 템플라이프**=서울 보문사가 매월 1·3주 일요일은 내국인, 2·4주 일요일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템플라이프를 운영한다. 6월 3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템플라이프는 오후 2~5시 자기 알아가기 명상, 타인 존중하기 절, 서로 소통하기 다도 등을 체험할 수 있다. 10일 열리는 외국인 템플라이프에서는 연등 만들기 절하기 다도 체험을 제공한다. (02)928-3797

●**탄허 대종사 선서 함양 전국휘호대회**=평창 월정사가 6월 8일 오전 11시 제3회 탄허 대종사 선서 함양 전국휘호대회를 개최한다. 5월 25일~6월 1일 직접 쓴 휘호를 접수하면 된다. 한암 선사 1 두 편과 탄허 선사 시 두 편 중 하나를 선택해, 한글, 한문, 문인화로 표현하면 된다. 문인화는 시를 5지 이상 협서로 쓰는 것이 조건이다. 참가비는 2만원. 참가원서는 월정사 홈페이지(www.woljeongsa.org)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대상 1명에게는 상장 및 상금 2백만원, 최우수상 2명에게는 상장 및 상금 각 1백만원, 우수상 3명에게는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이 시상된다. (033)333-6667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탱해준 인연 (중)

주보문심 서울 마포구 망원동

통도사에서 <범망경> 법문을 듣고 보살계를 수지한 그 얼마 후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절에 가야하나 고민하던 저는 여러 도반들의 이야기를 참고삼아 도선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도선사를 찾은 저는 무척 감격했습니다. 그곳은 청담 스님께서 주석하신 곳이었던 겁니다. 그 즈음 저는 <마음>이라는 청담 스님의 구도집을 읽으며 스님의 수행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마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연의 끈이 저를 이끌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선사를 원찰로 저의 신앙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곳에서 신행하는 것은 처음에는 무척 외로웠습니다. 절에 갈 때마다 일주문에서부터 부산의 도반들과 말없이 우리에게 정진을 가르치시던 큰스님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날 때 마다 저는 석불전에서 기도드리며 발원했습니다.



그림: 문병성

> 법화경 공부 중 오해에 휘말려 공부 중단
> 한마음선원 대행스님 친견 후 시련 극복

경전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부산에서 <금강경> 3개월 배운 것이 제 경전공부의 전부였습니다. 상경한지 1년이 지난 후 저는 <법화경>을 배울 수 있는 인연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조그만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법회가 있는 날이면 오전 장사만 하고 절로 향했습니다. 오후에 시작하는 법회에 참석하여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법문을 듣는 날이 많았지만, 이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 후 간부로 뽑혀서 <법화경>의 여러 품을 더욱 세밀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가 깊어지면서, 제가 천주교를 믿으면서 항상 의문을 가졌던 문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인과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고난 후 저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죄라는 것이 이렇게 고해성사를 통해서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자꾸 죄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하는 회의를 느꼈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법화행자로서의 행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나봅니다. 이웃의 아는 분들이 가끔씩 자기네들의 고민을 나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 분들의 고민을 함께 걱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었습니다. 나와 이야기를 하다보면 참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매일 집에서 <법화경> 독송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법화경> 공부를 6년쯤 했을 때 제게는 또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어떤 불사를 돕다가 서로 오해가 생겨, 저는 더 이상 사찰에서 <법화경> 공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저는 모든 생활의 의욕을 잃고 두문불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을 친견하게 됐습니다. 선실에서 큰스님을 뵙는 순간 저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멀리 뒷자리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큰스님 저의 큰 고통을 좀 덜어주십시오'하고 간절히 관했습니다. 내 차례가 되어 "큰스님을 뵙고 마음공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랐더냐" 하시면서 큰스님 구도집과 법문 테이프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행 큰스님을 친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통 가슴을 짓누르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제 마음은 말 할 수 없는 편안함이 가득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방금 뵙고 나온 큰스님의 모습이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집에 와서도 밤에 잠들 때까지 큰스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계속 눈앞을 아른거리며 제 머리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큰스님의 구도집과 법문테이프를 들으면서 새롭게 마음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해왔던 <법화경> 공부가 바탕이 되어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고 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떨치고 수행을 한 지 몇 달 후 선원을 가려는데 남편이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의 신행생활을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던 남편의 변화가 고마웠습니다. 선원을 가기 위해 전철 타는 시간만 1시간 30분. 남편은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먼 곳을 사흘이 멀다 하고 다녔느냐고….

그렇게 남편도 큰스님 법문을 듣고 발심하여 법형제 회원이 되었습니다. 법형제 회원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 남편의 마음공부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말하며 행복함을 내보였습니다. 각박한 사회에서 나누는 인간관계에서 보다 새로 느끼는 종교생활에서 도반들의 훈훈한 인간미에 남편도 저와 같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부처님의 탄생과 범부의 탄생

부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세상에 태어나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미 도솔천에서 보살도를 닦으신 부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을 다녀가셨을까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굴레를 지으며 업식의 세상에 살고 있기에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나 성불할 수 있음을 보여 주신 겁니다. 부처님의 일생 그 자체가 가르침입니다.

전국비구니회

회 장 **명 성**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 TEL 02)3411-8103-7 / FAX 02)3411-8108
www.kbiguni.org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는 봄바람을 몰고 온 남녘에서부터 같이 함께해야할 북녘 땅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대자비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 회장단
회 장 김의정
고 문 선진규 명예회장 백창기
수석부회장 명호근. 김성림
부회장 한리우. 손안식. 이연숙. 김화남. 이춘호. 김대욱. 여익구. 김한식. 윤천수. 이송자. 조문환. 김규범
감 사 김종욱. 유강근

▣ 불교인재개발원 임원단
이 사 장 허경만
고 문 민병천 상임고문 박윤흔
지도위원 김동건. 김동현. 신명. 이준. 허달
원 장 김응철
이 사 김광하. 김영득. 박경희. 서영문. 송도근 신동인. 이상근. 이영원. 이영혜. 이인자 최재동. 홍경희. 황경환. 황수경
감 사 최해조. 이강석. 홍기정

▣ 불교의료 봉사지원단 '반갑다 연우야' 임원단
지원단장 구자선 의료단장 김응중 봉사단장 황채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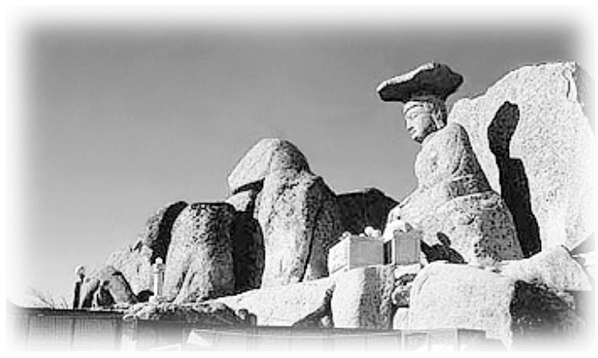
▣ 단체장
서울광역신도회장 임승학 대구광역신도회장 장영관
부산광역신도회장 공병수 울산광역신도회장 황경환
전주광역신도회장 김백호 강원광역신도회장 조동룡
충북광역신도회장 김정길 2교구신도회장 정형철
3교구신도회장 조동룡 4교구신도회장 정호돈
6교구신도회장 김수진 7교구신도회장 권오창
8교구신도회장 함병문 9교구신도회장 장영관
10교구신도회장 안종학 11교구신도회장 변영우
13교구신도회장 이광섭 16교구신도회장 김동호
21교구신도회장 곽종형 22교구신도회장 김동섭
23교구신도회장 김승석 25교구신도회장대행 김원식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신연섭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김용표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장 임장수 대불련총문회장 전보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조용석 대한불교청년회장 박법수
대한불교산악인연합회장 양춘동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장 이선희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장 이규상

이밖에 중앙신도회와 같이 수행하는 이사 및 대의원, 사찰신도회 및 기초지역단체장 및 임원, 불자 여러분들과 다같이 깨달음의 길에 아름다운 동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110-31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74번지 / 전화 : 02)733-7277. 팩스 733-7278

한가지 소원성취
약사여래부처님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선 본 사(갓바위)



대 중 일 동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87 www.seonbonsa.org
전화053)851-1868(선본사) / 053)851-1869(갓바위)

부처님의 자비 광명 온 누리에

미 륵 암

신도일동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번지

하나투어 HANATOUR 불교성지순례전문여행사
전문판매대리점

(주)VIP여행사

대 표 **이학인**

신도일동

경남 진주시 신안동 8-10번지
전화 : 신안동 055)743-5001
E마트 055)741-9999

대한불교조계종
대해사 국제선원

선원장 **혜 여**

사부대중일동

http://www.daehaesa.org

경북 경산시 대동 160-6
전화 053)818-4055/팩스 053)294-0408

대한불교 진각종 포항교구청
보정 심 인 당

교구청장 **무 외**

경북 포항시 북구 대흥동 664
전화 054)247-2649, 246-2231

대한불교조계종
충 효 사

지장기도 영험도량

회주 **원감 해공**

신도일동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660
전화 054)338-8196, 1152
팩스 054)338-6006

대한불교법화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종무원장 **혜 각**

총무국장 **도 광**
재무국장 **지 성**
교무국장 **일 우**
감찰과장 **운 봉**
종회의장 **도 정**
부 의 장 **진 덕**
부 의 장 **법 운**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51-102
전화 053)766-7231/팩스 053)766-7232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大관음사

예비스님(남)모집

- 1인1실 및 개성 존중의 민주적 수행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추석, 계사천도, 기일에 천도축원 해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301-20
전화 053)474-8228
팩스 053)472-6268
http://www.tvbuddha.co.kr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몸을 버려서라도 배워야 할 것

부처님은 한 때 설산에서 수행하는 동자였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게송을 듣고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게송의 앞부분만 들었을 뿐 뒷부분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게송을 들려주는 괴물에게 자신의 육신을 바치기로 하고 나머지 게송을 들었습니다. 환희로운 마음으로 게송을 음미하고 괴물에게 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무엇을 던져야 할까요?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해동선원
선원장 태응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천군 금서면 평촌리 540-5
전화 055)973-9554
banyob@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용 연 사
회 주 지성
주 지 상원
신도일동
대구지하철 대곡역에서 달성 5번버스가 사찰(용연사) 경유 노선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많은 관람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전화 053)616-8846

대한불교조계종 제 9교구
운 문 사
운문 승가대학
운문 승가대학원
회 주 명 성
주 지 진 성
대중일동
www.unmunsa.or.kr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TEL 054)372-8800, 370-7100
FAX 054)371-0359

대한불교조계종
각원사 울산포교원
연 화 사
호계불교대학
주 지 덕륜
호계불교대학
재학생 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8-6
전화 052)293-5550
팩스 052)293-5540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 장 증악
대중일동
(문화강좌안내)
선체조/다도/
어린이천자문교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대원불교대학
조계종 신도전문 교육기관
주 지 용 담
신도회장 평등성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선재어린이집
경북 안동시 목성동 57-1번지
TEL 054)858-2630(대원사)
054)855-6033(어린이집)
054)859-7230(불교대학)

대한불교 천태종
대 성 사
주 지 김도산
총 무 서덕재
신도회장 김우영
● 부 설
동해유치원 053)652-5760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전화 053)624-0542
팩스 053)623-0265

대한불교천태종
울릉 해도사
주 지 정비룡
신도회장 박봉식
남양 성인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신도일동
태하 삼도사
신도회장 김도근 外
신도일동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

지산치과의원
원 장 송준기
「가족같은 병원, 환자 중심의 병원」
• 지산치과의원 원장
• 치의학 박사
(임플란트, 보철학 전공)
• 단국치대 임상교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 2동 1188-2
TEL 053)782-0022
FAX 053)782-2875

高靈 기와
(주) 高靈청기와
(고령기와는 명품기와만을 만듭니다.)
KS 表示許可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工場
代表理事 金段東
공장 :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350
TEL 054) 954-8000(代)
FAX 054) 954-5335
www.rooftile.co.kr
e-mail : gr@rooftile.co.kr

의료법인 황학의료재단
대성그린병원
● 진료과목 : 정신과, 가정의학과, 내과
● 전문클리닉 운영
-알코올클리닉
-정신분열병클리닉
-노인전문클리닉
-우울증클리닉
-불안증 불면증클리닉
● 무료상담전화
1588-2377
(정신질환, 알코올, 치매 무료상담)
● 홈페이지 www.dsh21.com
24시간 정신과 응급환자 후송대기
24시간 무료간병서비스
● 보건복지연계서비스
경북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266-1
전화 054)821-7282
팩스 054)823-7282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학교
이 사 장 장 윤
교 장 김용태
교 감 이종서
교 법 사 일 릉
법인사무국장 김영현
행정실장 이은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800
전화 053)764-0802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고등학교
이 사 장 장 윤
교 장 김태욱
교 감 양근식
교 법 사 이아용
법인사무국장 김영현
행 정 실 장 김홍석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800
전화 053)764-0805

DCI(디씨아이)열처리
대 표 김상진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포항 철강4단지 3B/7L
전화 054)276-1072(열처리),
054)276-1167
팩스 054)276-1168
휴대폰 011-503-9196

동성한약방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3가 47
TEL 053)252-6411
053)255-0008

권기형 미용실
유럽 참피온 타이틀 획득
대한 미용사 중앙회 기술강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시장 입구
TEL 053) 762-6282

델타석유
보일러 실내등유 할인 판매
(신속공급)
대 표 보경(박성일)

다기류일절
홍 백 원
"진솔한 향기가 있는 곳"
대 표 이화숙(법률행)
■ 전시장/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 76-1
TEL 053)256-5847/ FAX 053)253-0903

(주)화동섬유
대 표 김태오(이희)
발명특허품
(발명특허 제 0306046호)
LIHIS 건강지압양말, 보호대
EVERLIS 건강지압팬티, 내의
(주)화동 홈페이지 www.hwadong.co.kr
이메일 hwadong@hwadong.co.kr
출고담당자 이메일 kbsjp@nate.com

1cm 큰 스님

불호령을 내리는 큰 스님과 웃기만 하는 동자승이 있었습니다.

큰스님은 모든 게 못마땅했습니다. 상좌들이 공부하는 모습도 미덥잖아 보였고 부처님께 절을 하는 모습도 시원찮아 보였습니다. 그는 쯧쯧, 하고 혀를 차다가는 마침내 불호령을 내리고는 했습니다. 한번도 웃는 일이 없었습니다.

큰스님은 공양 상을 받고 젓가락으로 취나물 무침을 집어 씹다가는 그만 화를 버럭 내고 말았습니다.

"야, 이놈아. 나물 반찬이 어찌 이리 짜냐! 밥은 완전히 죽밥이구나. 반찬하나 밥하나 제대로 짓는 일도 공부다."

마당을 쓸고 있는 동자승을 불러서는 꿀밤을 몇 대 먹였습니다.

"저런, 저런. 빗자루 질 하는 꼴을 좀 봐라. 마당을 쓰는 건지 먼지를 일으키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너만할 때는 마당을 쓸어도 먼지하나 안 나도록 했다. 그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저기 산 벚꽃 나무 밑에 떨어진 꽃잎은 왜 하나도 쓸지 않는 거냐. 화려한 꽃이 지면 보는 이의 가슴이 처량한 줄 모르느냐. 빗자루를 이리 다오. 내가 쓰는 법을 가르쳐 주마."

꿀밤을 맞은 동자승은 큰스님에게 빗자루를 얼른 넘겨주고는 부리나케 달아나며 말했습니다.

"하이고, 큰스님. 저는 큰 스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무 것도 몰라요. 먼지 하나 안 나도록 큰 스님이 마당을 쓸면 되지요."

동자승은 큰스님을 살짝살짝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넓은 마당을 쓸지 않아서 좋은지 까르르 웃었습니다. 동자승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바람이 불어도 웃었고, 비가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꽃이 피어도 웃었고 꽃이 져도 웃었지요. 절 마당에 눈이 내리면 폴짝폴짝 뛰며 웃었습니다.

"조놈 좀 봐라. 냉큼 달아나다니? 절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된데 어려서부터 제대로 배워야지. 날더러 빗자루 질을 하라고?"

큰스님은 할 수 없이 빗자루를 들고 산 벚꽃나무 아래 지는 꽃잎을 나무 밑둥치로 쓸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 질을 한지 너무 오래되어서인지 먼지가 안 나도록 꽃잎을 쓸어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나무에 세워두고 저녁에 동자승을 불러 단단히 혼을 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사이 동자승은 어디로 달아났는지 흥얼거리는 염불소리만 절 마당으로 내려서고 있었습니다.

큰스님은 대웅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상좌들이 예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하는 모양을 보니 무릎 사이도 벌어지고 허리도 구부정하고 이마를 땅에 대고 손바닥을 받들어 올리는 모습이 간절하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큰스님은 저렇게 해서야 어찌 한번이라도 부처님이 손바닥에 내려설 수 있겠는지, 상좌들의 마음가짐이 도무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큰스님은 화를 꾹 참고 선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선방에서 결가부좌를 틀고 참선중인 상좌들이 얼마나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지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상좌도 있고 딴 생각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상좌도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습니다.

"야 이놈들아! 도대체 참선하는 꼴이 뭐냐. 이렇게 밥만 축내다가는 다음 생에 축생의 몸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오로지 일념 하나로 정진해야지. 저자거리 처녀 생각하고 두고 온 부모 생각하고 온갖 헛생각으로 가득하구나! 에이 못난 놈들!"

큰스님의 불호령 소리에 참선하는 스님들이 놀라 그만 벌떡 일어서고 말았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스님들은 놀라서 간이 벌렁벌렁하는 것 같았지요.

동자승은 큰 스님의 방에 불려가 큰 스님이 저녁 공양을 마칠 때까지 꿇어 앉아 손을 들고 벌을 서야 했습니다. 그래도 동자승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방글방글 웃기만 했습니다.

"큰 스님. 저는 언제 저녁 공양을 하나요?"

"이번에는 나물이 너무 싱겁고, 밥은 물기가 너무 적구나."

불호령을 내릴때 마다 키가 줄어드는 큰 스님
상좌들은 1cm 키에 맞게 옷과 이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동자승은 생각했습니다. 큰 스님을 자꾸 웃기기로
그러면 전처럼 다시 키가 커질지도 모른니까요
스님은 웃을때 마다 키가 조금씩 커져 원래키가 돌아왔습니다
그 후 큰 스님은 늘 웃고 다녔고 불호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큰 스님은 동자승의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고 공양상을 들고 온 상좌를 꾸지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이 부실해서 어찌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리겠느냐! 사과를 깎은 모양도 하나 같이 다르구나. 당장 짐을 싸들고 산을 내려가든지 해야겠다."

동자승은 벌을 서고 있으려니 팔이 아파서 큰스님 눈치를 보고 슬그머니 위로 올린 팔을 내리다가 그만 큰 스님의 호통에 팔을 위로 더 쭉 뻗어야 했습니다.

"벌을 제대로 못 서겠느냐?"

"큰 스님, 배가 고파서 팔을 못 올리겠어요. 공양이 맛이 없으면 제가 대신 먹을까요?"

동자승은 큰스님의 공양 상에 먹을 것이 푸짐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니 더 배가 고팠습니다. 상 위에는 동자승이 좋아하는 부침개도 있고 두부전도 있고 백설기 떡도 있고 수박과 사과 조각도 탐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 만한 때는 먹을 것이 없어 사흘을 내리 굶고 보리죽으로 연명할 때도 많았다. 쪼그만 녀석이 먹을 것만 탐하는구나. 그래 밥맛이 없으니 너나 다 먹어라."

동자승은 냉큼 손을 내리고 공양 상에 놓인 음식과 과일 조각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큰 스님, 다음에도 벌을 서고 싶어요. 또 불러주세요."

동자승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방글방글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스님이 불호령을 내리고 화를 낼수록 키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스님도 자신의 키가 줄어드는지 몰랐지만 두뼘이 적어질 쯤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큰 스님에게는 그게 그리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서 버리고 가야할 것이었으니까요. 큰 스님은 키가 점점 더 줄어들었지만 불호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큰 스님의 키가 1cm까지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상좌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1cm 큰스님의 키에 맞는 옷과 이불을 만들어야 했고 밥상도 새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동자승이 늘 큰 스님을 손바닥 위에 모시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작은 밥상과 아주 작은 밥그릇과 더 작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만들고 밥과 반찬은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큰 스님은 동자승 손바닥에 얹혀 절 마당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상좌들의 귀 속으로 뛰어 올라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염불을 하는 소리가 낭랑하지 못하구나! 어디 저 자거리 약장수도 너희들 보다는 낫겠다!"

큰 스님이 동자승의 손바닥에서 허리를 굽힌 상좌들의 귀 속으로 뛰어 오르다가 그만 상좌의 귓구멍 속에 빠진 일도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실을 늘어뜨려 상좌의 귓구멍 속에 넣었습니다. 큰 스님은 실을 잡고 귓구멍 속을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동자승은 큰스님의 공양상이 너무 작아서 전처럼 맛있는 것을 얻어먹을 수 없는 일이 아쉬웠습니다. 참새 눈물만큼의 사과조각과 수박 조각, 꽃잎보다 더 작은 밥이 놓여 있는 상 앞에 앉아 있는 1cm 큰 스님이 딱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스님을 자꾸 웃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처럼 다시 키가 커질지도 모르니까요.

동자승은 깃털로 큰스님의 겨드랑이를 간질이기도 하고 발바닥을 살살 긁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큰스님은 간지러워서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동자승은 1cm 큰스님을 손바닥에 얹어놓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큰스님. 귀머거리참새가 열 마리 앉아 있는데 포수가 한 마리를 잡고 헤아려 보니 여전히 열 마리가 앉아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아니?"

"에이, 그것도 모르세요. 큰 스님은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서도 그것도 몰라요?"

"나는 참새 공부는 안 했다. 너는 아니?"

"그럼요. 왜 다시 열 마리 인가하면요. 머리 나쁜 포수가 잘못 헤아렸거든요."

갑자기 큰 스님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큰 스님이 웃을 때마다 키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cm 큰 스님이 다시 원래키로 돌아왔습니다. 큰 스님은 늘 웃고 다녔습니다. 두 번 다시 불호령을 내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절 안에는 큰스님과 동자승의 웃음소리와 상좌들의 즐거운 염불소리가 흰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산 벚꽃 꽃잎들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 피어나듯 말이지요.



문형렬
소설가 시인 현대불교논설위원
영남대학교대학원 졸업.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소설 당선. 대구 매일신문 소설 당선. 불교방송 기자, 영남일보 논설위원. 대구과학대 겸임교수. <동자승 말씀이 기가 막혀> <연적>등.





'불교는 어렵다' 인식부터 바꿔야



장윤 스님
(능인학원 이사장)

1 부처님이 오랫동안의 고행과 수도를 통해 깨달은 것은 바로 연기(緣起)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교사가 있기에 학생이 있고, 학생이 있기에 교사가 있습니다. 이를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고 자비심을 가진다면 학생이 이미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2 종립학교는 교리를 주입하기 보다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가르침을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불교가 어렵다는 인식을 떨쳐내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립학교는 교육활동과 종교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교의 수행 활동 가운데 명상, 선(禪) 수행 등의 방법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여 학업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성 교육이 강조되는 오늘날, 자아존중,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학생들의 올바른 심성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불교가 지닌 다양한 장점을 살려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것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에게 동적인 활동인 불교적 체험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청소년 포교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법회를 지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포교전문지도자 육성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알맞은 교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학생회의 조직화 및 체계화 작업입니다. 학생회의 독립적 공간을 마련하여 지도자와 함께 자발적인 법회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훌륭한 포교사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찰체험활동, 불교복지재단의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키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가진 정적인 면을 극복하는 것이 포교의 핵심입니다. 아울러 학교와 관련된 스님이나 포교소임을 맡은 스님만이 포교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스님들께서 청소년 포교활동에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포교의 최일선에 종립학교가 있고, 청소년 포교가 불교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요보다는 문화콘텐츠로 접근

대성 스님(금정학원 이사장)



1 청소년기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진로도 결정되겠지만 자신의 인성이 바로 잡히는 시기이므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성찰과 자기반성이 따라야 하며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부단한 불교적 수행이 필요합니다. 바로 청소년은 이 나라의 동량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심을 지니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수행과 노력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2 종립학교의 맹목적인 신앙심을 강요하기보다 문화적 컨텐츠로 접근하며 학교의 분위기를 신앙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다도, 명상, 선체조 같은 일반화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많이 제공하고, 종립학교 교법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포교에 전력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과감한 시설 투자를 통하여 타 이웃 종립학교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종립학교 간 교류를 원활히 하며 교학발표회를 통하여 새로운 불교포교 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지도의 성패는 법사, 교사가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력 있는 교법사의 확보와 불교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뜨거운 사명감으로 포교하려는 원력 있는 법사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지도 경력에 따라서 지도자의 품계를 두는 게 좋겠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단 차원의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3 체계적인 불교 지도서 보급 및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콘텐츠화 하고, 사찰 차원의 청소년 법회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찰 템플스테이를 통하여 학생 청소년에게 불교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게 하며 사찰 학생회를 적극 유치하여 어릴 때부터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거사림으로 연계가 되도록 법회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종단차원에서도 문화와 예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불자 청소년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불자 청소년을 대거 문화 예술계에 진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개인 중심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물질의 풍요가 가져온 병폐로 사회가 혼란스러우며 자신의 문제를 대 사회와의 문제로 확대하여 모든 사고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혼란을 잠재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교가 선도에 서야 합니다. 특히 철저한 자기 성찰을 근본으로 하는 불교사상이 이러한 병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체험·봉사활동 다양화로 '입맛' 돋궈



원일 스님
(벽상학원 이사장)

1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보다 실천이 우선입니다. 실천을 소리높여 주장한 게 불교의 핵심이라 한다면 유아부터 초중고생들에게 불교의 핵심사상을 일러주어야 합니다. 또 교리중심의 신앙적 차원의 포교활동을 떠나 우리의 가정에서와 같은 친숙감을 갖을 수 있도록 얘기하고 보여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 관련 교과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교적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사회탐구, 중고등학교의 국사시간에 이루어지는 불교와 관련된 유물, 유적, 역사적 사실등을 교육할 때 단순히 시험을 위한 암기식 교육보다는 당시의 사회저변에 깔려 있는 의식 즉 불교가 당시 민중을 대변하였던 것을 부각시켜 교육하는 것도 청소년의 포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에게 우리 불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면 청소년들에게 강요가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자연스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절' '스님' '불상' 등을 접할 때 거리감 없이 쉽게 동화될 수 있도록 현재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와 적극 연계해서 불교가 깊은 산중에서 스님들의 수도하는 도량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각종 체험활동 봉상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됩니다. 각급 학교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활동 봉사활동을 틀에 박힌 형태와 방법을 벗어나 청소년의 구미에 맞게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청소년 포교의 한 방법입니다.

4 우리 불교계 또한 청소년의 올바른 선도를 위해서 여러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기복중심의 신앙활동, 개인위주의 소승적 신앙활동이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피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의 문제를 그의 부모나 할머니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 청소년 포교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포교활동을 위해서 종단차원에서 체계적인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청소년 불자수가 좀체 늘어나지 않고 있다. 어린이 포교를 등한시한 결과이기도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 역시 부진하기 때문이다. 불교계 종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원은 모두 30개. 그러나 종립학교 내에서의 포교도 그리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 여건과 보다 효율적인 포교전략의 부재가 학교의 설립취지를 살려내는 데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종립학교 이사장들에게 청소년 포교의 비전을 들어 봤다. 종립학교 법인 이사장은 총 12명. 본지의 질문에 응답한 이사장은 6명이었다. 〈편집자 주〉

종립학교 이사장에게 듣는 '청소년 포교' 비전

1. 평소 학생들에게 강조하시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2. 불교종립학교에서의 포교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3. 청소년포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4. 청소년 포교에 대한 비전은?

좋은 인연맺고 가꾸는 지혜 가르쳐



일면 스님
(광동학원 이사장)

1 아름다운 인연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 명예욕, 권력욕등이 행복한 삶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인생의 본질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삶이 행복임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뇌와 갈등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은 결코 물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학진학과 부모님들이 바라는 직업을 얻기 위해 오로지 학교 공부에 매달리고 있으니, 어찌 넉넉한 인성교육과 참된 종교적 가치관을 만날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불교종립학교는 종교시간을 통한 종교적 가치관 습득과 종교간의 이해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인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교종립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3 우선 사찰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학생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학생회 법회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고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자들은 자부심과 책임을 인식하고 불교적 교육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종단은 유·무형의 지원을 통해 개인 불자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불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불교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요즘들어 사찰에서 실시하는 템플스테이와 놀토 놀토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불교적 체험의 장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4 갈수록 다양해지는 유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불교 포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학창시절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모든 불자들의 책임이라 생각해 봅니다. 밝은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 봅시다.

사찰순례·수련회 등 접촉 기회 확대

혜자 스님(청담학원 이사장)



1 무엇보다도 불교의 자비정신(慈悲精神)을 많이 얘기합니다. 자비심이 사방으로 퍼져가야 세상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에게 누구나 사람은 불성(佛性)을 지닌 존재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한 종립학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모름지기 교육현장에서 부처님오신날 뿐 아니라 365일 매일, 매일이 불사(佛事)의 연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학교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역할의 중심에 학교가 서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선의 교법사 뿐 아니라 관리자의 불교적 교육관이 확립되고 전 교사가 선지식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불교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위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신행을 안내하는 여래의 사자로서 이시대의 선지식으로서 항상 수행과 학문연마에 정진해 주어야 합니다.

3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접할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교란 수학여행 때 잠시 들리는 경주나 불국사 등 교과서적인 지식으로의 역사문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찰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는 곳은 있지만 청소년법회를 운영하는 곳은 10년간 숫자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불교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주5일 수업으로 '놀토'라는 새로운 풍경이 생겼으니 큰 사찰에서 청수년을 대상으로 놀토에 산사순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새로운 포교의 방법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4 저는 1700년 역사속의 불교를 마음으로 느끼는 것 이것이 불교포교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산사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좋아합니다. 청소년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는 이미 훌륭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일선 사찰에서도 조금만 노력한다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교육 교직원 모범이 우선



혜인 정사
(회당학원 이사장)

1 사람은 모름지기 바람직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과 환경을 자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인격을 연마해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실천을 해야한다고 얘기합니다.

2 구체적 포교의 실천은 각 종단이나 설립자의 정신을 동력원으로 하여 시대적 사상적 경향에 맞추어 구체적인 구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종립학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주입식 보다는 저절로 이뤄지는 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불교적 정신이 투철한 모범적인 교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심을 바탕으로 해야 구성원들간에 화합을 바탕으로 신뢰와 믿음을 통해 청소년 포교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법인도 모범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효과도 클 것입니다.

3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교육을 통한 포교가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기본을 갖춘 인성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상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라도 인성교육이 안되었다면 자신이 습득한 지식으로 인해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 품성이 배양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불교는 인간과 자연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고, 인간과 우주의 실상에 대하여 진지한 연구와 이해를 돕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주체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합니다. 좁게는 지역과 민족의 일원으로서 넓게는 세계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구체적인 생활을 중시하도록 청소년들에게 강조한다면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영원한 자유를 찾아서
명상 그 푸른눈의 지혜

불교 비빠사나와 주요가 명상법을 혼자서 쉽게 수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식사상연구회 고목 지음
도서출판 밀양

〈머리글 중에서〉
'형상'과 '이름'에 집착함이여
그 거짓됨을 알지 못한채
오로지 밖으로만 구하여
탐진치는 더욱 강렬해지고
신구의(身口意) 3업은 더욱 거친 모습으로
감각과 말초(末梢)의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을 좇아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더욱 흉악해진다
참되지 못한 망령됨과
순수하지 못한 혼탁함으로
중생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되어
아! 의타기성(依他起性)은 실종되고
원성실성(圓成實性)은 매몰되도다.
인류는 2분법적 지식과 局所科學에 의지하여 일로 번영을 추구해 왔으나 끝내 '안'과 '밖', '정신'과 '물질' 양면에 걸쳐 共滅的 재앙을 목전에 초래하고 말았다.
〈과연 末法現代는 그 무엇으로 살길을 찾을 것인가?〉

– 慧眼을 열어주는 책들 –
■ 新 유식학 (보정판)
'마음'에 관한 모든 것, 그 신비하고 복잡한 마음의 세계를 완벽하게 파헤친다.
₩ 12,000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아가는 철학적 사유와 禪……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되는가?
₩ 14,000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 金剛經 最上乘解 근간
언어문자를 쓰되 그것을 넘어서는 최상승의 해설
末法時代 현대문명이 당면하고 있는 온갖 모순과 해악에 대한 명쾌한 해답.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구입문의
– 유명서점 · 불교서점
– 총판 : (02) 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 (055) 353-6142, 010-2356-6142



불화를 그리는 이란씨의 모습.

“다음 생에는 수행자로 만날 것”

[<영어순해>로 영어교육 신화 만든 **김영로 · 이란** 부부]

“다음 생에는 부부가 같이 아홉살 이전에 출가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1980년 발간이래 직독직해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독해교재의 전설 <영어순해>의 저자 김영로 선생(67세)의 첫마디 였다.

20여 년간 영어책 수백만 권을 펴낸 김 선생은 부인 이란(57세)씨와 경기도 광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불서번역과 불화그리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 제가 가장 많이 바랬던 것은 경제적 여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책이 많이 나가고 유명 강사였지만 제가 걸어온 길에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여유 없었음을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김 선생. 물질적 여유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 가난해질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지금 저의 관심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 뿐 입니다. 그간 해온 영어공부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쉽게 가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하루 13시간 정도를 번역한다는 김영로 선생은 “하루일과를 오직 불서번역에만 매달리고 있지만 힘든 줄 모르겠다. 불서를 통해 고통 받는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알게 될 거라 생각하니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5년간 불서를 번역한 뒤 그 이후에는 명상센터를 마련해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김 선생은 올해 2월 발행한 <샨티데바의 행복수첩(불광출판부)>에 이어 현재는 수행자들이 수행할 때 원하는 불교의 핵심교리를 모은 수행서를 번역중에 있다. 내년쯤에는 번뇌를 소멸하고,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수록된 책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인 이란씨도 내년에 첫 불화전시회를 준비중이다. 30점을 전시하기 위해 불화그리기에 한창인 것.

애초 서양화가인 이란 씨는 5년 전부터 불화만 그려왔다.

“몇 년 전에 우연히 한 보살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탱화를 그리게 됐는데, ‘언젠가 불화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이씨는 “서양화를 할 때는 유명해져야 겠다는 욕망이 자꾸 생겼는데 탱화를 하다보니 욕심이 자꾸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며 “요즘은 탱화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불보살의 사상을 알려주고픈 마음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부는 5년 전 둘째 아들이 직장에 취직하자 서울 세검정에서 경기도 광주로 내려왔다. 그런 다음 오직 ‘수행과 불교포교’만 생각하며 한 순간도 다른 마음을 먹지 않았다.

“5년 전만해도 불자라고 말하기 뭐할 정도였죠. 집사람이 절에 나가며 가끔 집에서도 108배를 하기는 했지만, 저는 마음이 답답할 때 절에 가도 부처님 전에 삼배나 드리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 옆의 샤카무니사에 나가고 불교서적을 보면서 사막의 목마른 낙타가 오아시스를 만난 듯 그대로 심취하게 됐어요.”

“늦게 인연이 되서인지 속성과정을 이수하는 것처럼 열정이 생기고 힘이 솟는다”는 김 선생은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마음은 나날이 넓어지고 고요해지고 있다”고.

김 선생 부부의 하루 일과는 아침 3~5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어나 1시간동안 부부가 같이 수행을 한다. 그런 다음 아침 공양을 하고 각자의 방으로 가서 작업을 하고, 점심과 저녁에도 함께 공양 후 수행하고 밤 11시에 거실에서 1시간 수행을 한 뒤 12시경 잠자리에 든다.

부부는 작업시간 만큼은 철저하게 독립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한다. 그러나 하루일과가 끝나면 작업내용을 보여주며 서로 따끔하고 꼼꼼하게 경책해주는 도반이기도 하다.

김 선생은 하루 번역한 내용을 부인 이씨에게 보여주고 읽어보고 평가하게 한다. 글쓰기에 대해 잘 모르는 이씨지만 따끔하게 지적하면 김 선생은 얘기를 잘 들어준다.

또 이씨는 그림을 한편 완성할 때 마다 김 선생에게 평가를 구한다. 이씨는 김 선생이 그림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신도의 입장에서 불화에 대해 꼼꼼하게 훈수해준다고 한다.

“진리의 길을 같이 가닌까 어려움이 반감되는 것 같아요. 수행을 하다가도 의혹이 생기면 서로 의논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지요. 서로 도움이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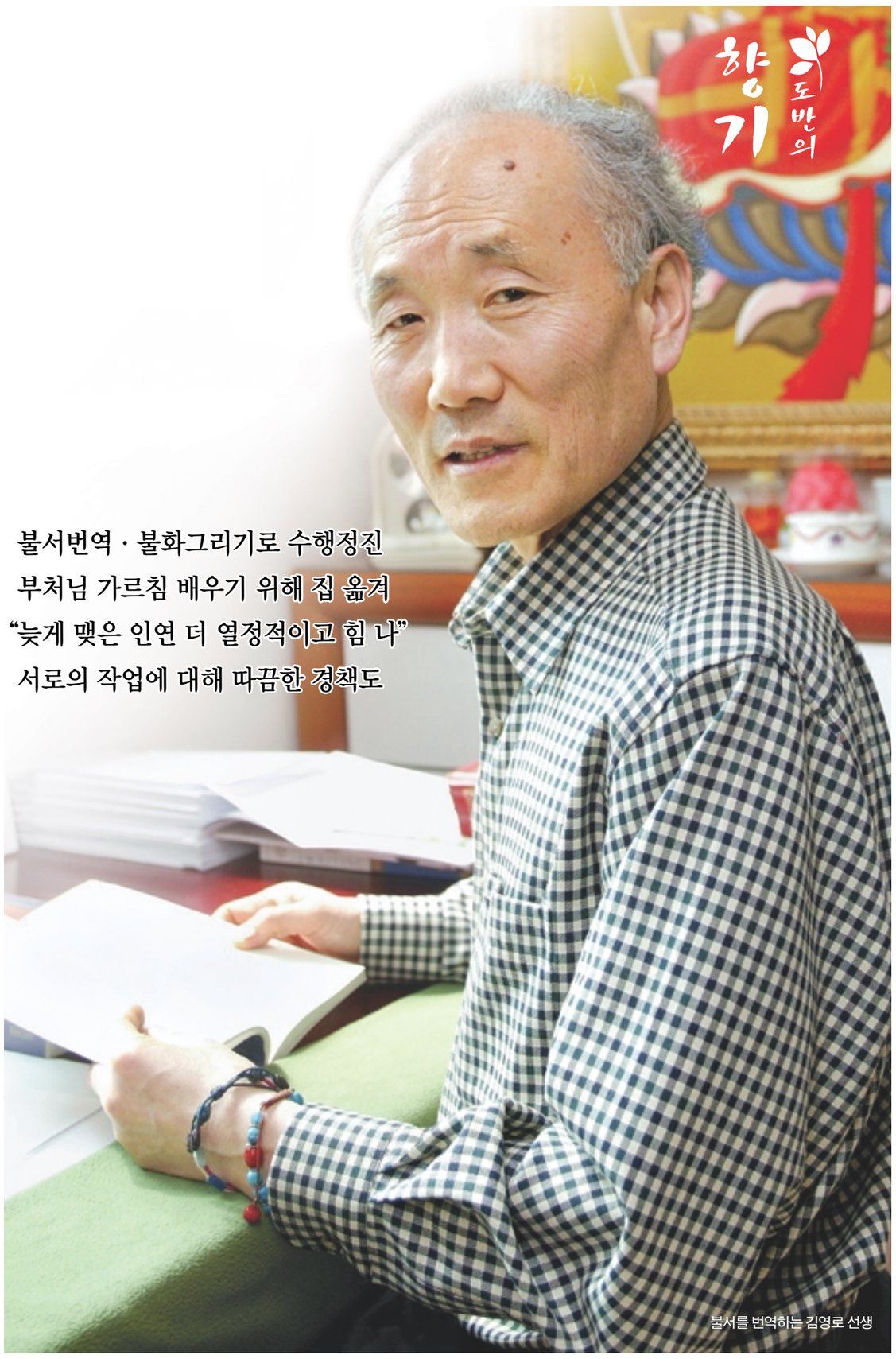
김 선생은 부인 이씨에게 “수행을 더 깊이해서 작품의 완성도가 더 높아졌으면 하고, 함께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런 김 선생의 말에 “좋은 책 많이 쓰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다음 생에서 같은 수행자로 만나자”고 화답했다.

한편 김영로 선생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중에 전국대학생영문백일장에서 연속 2회 장원을 했으며,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편찬하는 등 영어에서 이미 그 두각을 나타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브리태니커 회사에서 한국 관계 기사를 영어로 옮기는 일을 했으며, 숭문고, 현대 외국어학원에서 TIME, TOEFL, 영어 작문을 강의했다. 저서로는 <김영로 Vocabulary><만점토플 독해전략><영어속독기초><정통생활영어> 등 다수가 있다.

이란씨는 미국 일리노이 Triton College에서 Fine Arts과정을 수료했다. 1977년 한국수채화협회 공모전에 입선했고, 1999년 현대미술대전에서 특선했다. 단성갤러리, 예술의 전당, 서울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글=김원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서번역 · 불화그리기로 수행정진
부처님 가르침 배우기 위해 집 옮겨
“늦게 맺은 인연 더 열정적이고 힘 나”
서로의 작업에 대해 따끔한 경책도

불서를 번역하는 김영로 선생



初雕大藏經

"1000년의 지혜를 1000년의 미래로"



'초조대장경' 日 남선사·대마도
국내 등에 2800여 권 남아
복원은 대장경 하나 더 생기는 것
다른 판본과의 관계 연구도 중요

고려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감히 만질 엄두도 못 내고 삼배(三拜)부터 하고 조심스레 펴 보았던 기억이 난다. 그간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대장경을 전산화하면서 겪었던 여러 어려운 상황이 스쳐 지나가며 '이것이 말로만 듣던 초조대장경이구나' 하는 감정이 겹쳤으리라 생각된다.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2년(1011)에 조성이 발원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송(宋)의 칙판대장경(勅板大藏經)에 이은 두 번째 대장경 조성 시도다. 칙판대장경은 현재 세계에 20여 축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역사의 기록으로 누구나 알고 있지만, 몽고의 침입으로 판목이 소실된 후에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히고 있었다.

초조대장경의 판본이나마 실체를 드러낸 것은 1960년대의 일이다. 일본 남선사 일체경(南禪寺一切經) 중의 일부가 고려본 초조대장경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 후 국내의 전본(傳本)들이 하나 둘 발견되었다. 현재 조사된 바로는 고려본 초조대장경은 일본의 남선사에 1800여 권, 대마도에 600여 권이 남아있다. 국내에는 성암고서박물관과 호림박물관에 각각 100여 권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리움미술관, 삼성출판박물관 등 여러 곳에 100여 권 이상이 소장되어 있다. 현존하는 2800여 권은 초조대장경 전체를 6000여 권으로 봤을 때 반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장경의 문화사적 의미나 역사적인 의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대장경의 조성은 국가적인 호국(護國)의 의미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복을 비는 의미도 있지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문화민족의 자존심 같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중국에서는 왕조마다 대장경의 편찬을 시도한다. 송(宋) 원(元) 명(明) 청(淸)은 물론 거란(契丹)이니 서하(西夏), 중화인민공화국의 중화대장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우리나라나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처님의 말씀은 말에서 말로 전해지다가 문자로 기록되었고 필사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목판인쇄술은 활자가 보편화되기 전까지 1000여 년 동안 정보를 복제할 수 있는 독특한 기술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이 아닌가 한다.

고려에서는 대장경이 세 번 만들어졌다. 첫 번째가 초조대장경이고, 두 번째가 의천 스님의 교장(敎藏), 세 번째가 해인사의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이다.

대장경을 경(經) 율(律) 논(論)의 삼장(三藏)이라고 한다. 그리고 편제상 정장(正藏)과 속장(續藏)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논소들 중 인도 찬술을 한역(漢譯)한 것은 정장에 편입하고 인도 이외의 나라에서 저술된 것을 속장으로 분류했다.

초조대장경이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의 분류 목록에 따른 정장이라면 고려 교장은 속장의 개념이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20여 년 동안 중국, 일본, 우리나라의 제가의 장소 1000여 부 5000여 권을 수집하여 분류 정리하고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을 편찬한다. 이와 같이 대규모의 장소를 수집하여 분류·정리한 일도 처음이지만 이 일은 더 나아가 대장경의 외연(外延)을 넓힌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재조대장경의 보유편이나 그 후 대장경들의 속장으로, 정장과 속장으로 편제화된다.

초조대장경의 저본(底本)이 되는 촉판대장경은 송의 개보 4년(971)에 시작하여 태평흥국 8년(983)에 완성된다. 고려 성종 8년(989)에 승(僧) 여가(如可)를 송나라에 보내 대장경을 가져오게 하고 다시 성종 10년에 한언공(韓彦恭)에 의해 대장경이 수입된다.

초조대장경을 국전본(國前本)과 국후본(國後本)으로 나눈다면, 국전본은 현종조에 수입된 촉판대장경을 저본으로 하고 국후본은 문종 17년(1063)에 들어온 거란대장경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부처님 가르침 정보로 활용되길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지난 2004년부터 초조대장경의 디지털화를 통한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 초조대장경의 복원은 우리나라에 대장경이 하나 더 생기는 일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초조대장경 복원에 나선 것은 고려대장경이 '문화재'나 '보물'로서 보존되기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정보'로서 활용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대장경을 전산화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대장경들 간의 족보 관계다. 송판 대장경을 위시하여 거란판, 금판과의 관계, 초조에서 재조에 이르는 다른 대장경들과의 연결 관계였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수기 스님의 교정별록(校正別錄)은 확실한 기록이고 좋은 지침서라 생각된다.

남선사 일체경의 성격은 독특하다. 초조대장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보판, 송판, 원판과 재조대장경 그리고 다양한 필사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촉판대장경은 송 태조의 칙명(勅命)으로 971~983년의 13년 동안 촉(蜀)의 성도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대장경이다. 동선사본은 1080~1112년에 복주의 동선등각원에서 만들어졌고, 개원사본은 1112~1151년 복주의 개원사 판본이다. 사계판은 1132년 왕영종(王永從)의 일족이 발원하여 사계의 원각선원에서 만들었고, 적사판은 1231~1349년에 이르기까지 송 원

종림 스님은 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은 대장경 전산화를 위해 1994년 고려대장경연구소를 발족했다. 7년 간의 작업 끝에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디지털화 해 CD로 제작했으며 이 공로로 2000년 행원문화상 특별상을, 2004년 대원상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04년부터 '한일공동 초조대장경 디지털DB 구축 및 영인본 출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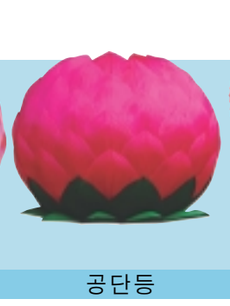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 단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 단 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청사초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初雕大藏經

"1000년의 지혜를 1000년의 미래로"

양조에 걸쳐 적사의 연성원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보령사판은 원대의 지원 연간에 개판된 것이다. 다양한 판본들을 수집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필사본으로 보충하였다.

필사본은 대부분이 응영(應永) 7년(1400)부터 정장 2년(1429) 사이에 관서(關西) 지방의 사찰에 의해 필사되었지만 고려나 중국에서 필사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 무로마치(室町) 시대에 사경된 것 외에 천평 14년(742) 하내국(河內國)에서 서사된 것이나 정우(貞祐) 연간(1210년대)에 중국에서 필사된 것도 있다. 나라(奈良) 시대 사경에는 그 당시의 훈점(訓點)이 기입되어 있고 일본의 고대 국어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한다. 고려 초조본에도 11세기 초의 한문의 훈독이 각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남선사 일체경은 선창사의 소장인이 있고 일부에는 천룡사(天龍寺), 영락사(永樂寺), 명주천녕장경(明洲天寧藏經), 심왕부(瀋王府) 등의 많은 소장인이 있다. 선창사인은 수집한 후 일괄 날인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선창사에서 수집하기 전에 보관되었던 소장인들이다. 특히 심왕부인이나 천룡사인은 고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심왕부(瀋王府)인은 고려 충선왕이 원나라에서 심왕으로 봉해지고 연경에 세운 서재인 만권당(萬卷堂)의 소장도서 일부로 보인다. 천룡사는 경주에 있는 절로서 삼국시대에 창건되었으나 신라 말 폐사되었다가 고려 때 중건되어 석가만일도량(釋迦萬日道場)을 설치한 사찰이다. 천룡사라는 이름의 절이 중국이나 일본에도 있고 경주의 천룡사라는 것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려 사경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한국의 천룡사로 추정된다.

남선사의 일체경은 고베의 선창사에 있던 것으로, 경장(慶長) 19년(1614)에 덕천가강(德川家康)의 명에 의해 옮긴 것이라고 한다. 선창사에 있는 강호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월암스님의 제자 무견화상이 스승을 대신하여 중국에 건너가 장경을 수집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지에서 죽었다고 한다. 그 다음 구주의 박다(博多)에 있는 경안(慶安)이라는 스님이 불법(佛法)을 넓혀 사은(師恩)에 보답하고 선창사를 위하여 경을 모았다는 응영 원년(1394)의 기록이 있다고 한다.

대마도에 있는 것은 반야부 600권인데 안국사(安國寺) 본의 일부에 고려국 김해부호장 허진수(許珍壽)가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중희(重熙) 15년(1046)에 인경(印經)한 것이라는 묵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떻게 대마도에 전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내의 전본들에 대해서는 유통본과 일부 복장본으로 추정되지만 하나하나에 대해 좀 더 정밀한 서지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초조대장경의 디지털화 사업을 한 · 일공동연구 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국내의 소장처와 남선사의 협조를 얻어 교토 하나조노(花園)대학 국제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 중이다. 일본 내에서도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귀한 자료를 선뜻 공개해준 하나조노대학측의 배려는 한 · 일문화교류의 좋은 모델이라고 여겨진다.

대장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정보는 너무 적다. 해인사의 대장경은 목판이 남아있지만 강화의 대장도감(大藏都監)이나 남해의 분사도감(分司都監)의 기능이나 판각 장소는 물론 서문 밖의 판당이나 해인사로 이운한 경로도 막연히 추측할 뿐이다. 교장의 전모가 알려진 것도 일본에 남아있던 교장총록의 필사에 의해서다. 현재 남아있는 판본은 얼마 없고 중수본이나 복각본까지 합해도 수십 종에 불과하다.

몽고의 난에 의해 소실된 초조대장경이나 교장의 판목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부인사의 위치도 불확실하다. 아마도 우리는 역(逆)으로 추적해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 때문에 개성에는 한번쯤 가보고 싶었다. 교장도감이 있던 대흥왕사나 왕실의 원찰이었던 현화사의 흔적이라도 보고 싶을 뿐이다.

2011년은 초조대장경의 조성을 발원한 지 1000년이 되는 해다. 의천 스님은 '천년의 가르침을 모아 천년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신의 할 일이라고 했다. 우리가 2011년을 맞는 것은 또 다시 새로운 천년의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천년의 지혜를 천년의 미래로'라는 이름으로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행사가 초조대장경의 복원이나 새로운 통합대장경의 편찬, 대장경의 문화 · 학술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정보화 사회의 종교나 이념을 넘어, 국가와 민족을 넘어 미래의 새로운 장(場)을 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종림(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 한 · 일 공동 디지털화 사업은 문화교류의 좋은 모델
> 2011년, 조성 발원 1000년 새 천년 꿈 여는 계기 될 것

국가 · 민족 초월 인류의 '지혜' 될 것





고려대장경연구소는 2004년부터 일본 하나조노대학 국제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남선사 소장 고려본 초조대장경 판본을 디지털화 하고 있다. 왼쪽 페이지 사진은 초조대장경 판본 일부. 그래픽=최정근.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들이 초조대장경 판본을 살펴보는 모습(왼쪽).지난 4월 2일 열린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 선언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디지털 작업을 마친 초조대장경을 관람하고 있다.(위) .

황금 돼지 · 황금 달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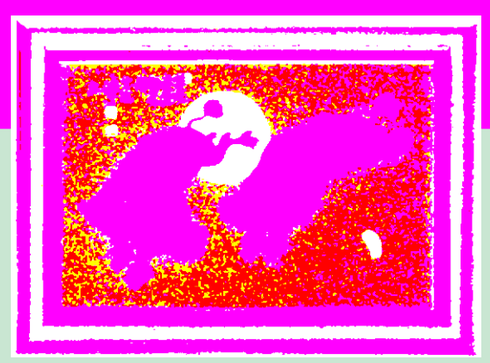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날 특별 보급 안내

일봉스님이 자신있게 내놓은 황금돼지 작품과 황금달마도 작품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백일기도 회향과 함께 순금 24K와 경명주사 금분을 섞어 정성들여 그린 작품으로 소장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옛부터 해와 돼지는 삼신태몽이라 하였으니, 집이나 사무실에 소장해 놓으시면 재물이 들어오고 재수대통, 만사형통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 작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불자님께 지갑소지용 **황금돼지 카드를 1장씩** 드립니다.

◆ 작품구입처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개2리 939번지
관음사 일봉스님
전화 054)763-3110 / 휴대폰 011-508-3100
입금계좌
우체국 700443-02-056838 (예금주 하종렬)


황금 돼지 1호


황금 돼지 2호


황금 달마도 1호


황금 달마도 2호

황금 돼지
1호 크기 830mm × 600mm / 특별보시가 20만원 / 고급액자 표구
2호 크기 630mm × 580mm / 특별보시가 15만원 / 고급액자 표구

황금 달마도
1호 크기 910mm × 530mm / 특별보시가 20만원 / 원목 최고급 액자
2호 크기 670mm × 520mm / 특별보시가 15만원 / 원목 최고급 액자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아침마다 "오늘도 부처님처럼"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좋은 습관 하나를 가져보세요. 그것은 작은 소리로 자신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처럼"이라고. 오늘 하루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부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듯 그렇게 살아보자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시작하는 하루. 신나지 않을까요?

한국불교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 부원장
금 불 사
주지 광 해
사부대중 일동
■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228
TEL 043)297-8728

한국불교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 총무국장
보 현 사
주지 상 명
사부대중 일동
■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산52-28
TEL 043)532-6178

한국불교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 사회국장
약 수 암
주지 무 공
사부대중 일동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57-10
TEL 043)532-9494

한국불교 태고종 원로위원
부모산 연화사
주지 보 안
사부대중 일동
■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95-29
TEL 043)231-3807

대한불교
수 광 사
주지 보 련
사부대중 일동
■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룡2리 81 수광사
TEL 043)872-0026

대한불교조계종
하얀마음선원
주지 덕 봉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
TEL 031)701-0108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
대 림 선 원
주지 지 원
사부대중 일동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648
TEL 043)732-1655

대한불교 조계종
보 륜 사
주지 상 인
신도회장 여래심
사부대중 일동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297 보륜사
TEL 043)732-6545

대한불교 보문종
나 한 사
주지 혜 경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 작약산 나한사
TEL 054)541-9956

원 동 승 복 사
스님옷 일절 맞춤
정옥화 보살
■ 대전시 동구 원동 60-1
TEL 043)253-0525

한국불교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정 심 사
주지 원 해
사부대중 일동
■ 충북 충주시 단월동 2-14
TEL 043)848-2072

청주.청원 불교연합회
회 장 각 의
대한불교 조계종 **용 화 사**
회주 미룡당 월탄
주지 각 의
사부대중 일동
충북불교대학 부학장 원적
교학처 직원일동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216-1
TEL 043)274-2159
FAX 043)273-4059

불법승 참된삶 실천운동
석 문 사(자비원)
주지 혜 전
사부대중 일동
대웅전 불사 접수중
■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좌리 103-2
TEL 043)264-3008, 011-9607-2199

믿음과 신뢰의 40년전통
보문불교서점
대표 보 명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27-7
(홍명상가제일은행뒤)
TEL 042)253-6446, 011-403-0161

대한불교조계종
청 룡 사
주지 김법운
사부대중 일동
■ 경기 광명시 광명3동 32-11
TEL 02)2612-0609

대한불교천태종
명 장 사



주지 **화 산**
사부대중일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205-1 전화 043) 223-0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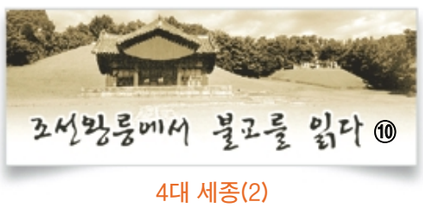


청주 청원 불교연합회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 **봉축행사**
- 일시 : **불기 2551(2007) 5월 20일(일)** - 장소 : 청주 무심천 로울러 스케이트장
- 봉축노래자랑 오후4시 - 봉축법요식 오후6시30분 - 제등행렬 오후 8시

■ **봉축행사**
- 봉축탑점등식 : **5.4(금) 오후7시** 청주교대옆 분수대 공원
- 교도소위문공연 : **5.22(화) 오후1시30분** 청주교도소
- 백일장 휘호 그리기대회 : **5.20(일) 오전10시** 무심천 행사장
- 컵등/풍선, 목판인쇄, 불서배포 : **5.20(일)** 행사장
- 불교미술, 아시아불교사진전 : **5. 21(월) – 25(금)** 청주예술의전당 대전시실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 한글 쓰는 행복 가이 없어라



4대 세종(2)



혜각존자 신미대사.

신미대사 한글창제 사실상 주도…불교 보급 목적 내포
세종 한글 활용 위해 승가 도움 얻어 왕성한 불경 언해
생애 후반 불교에 귀의, 대궐 안에 ‘내불당’ 세워 예불

한때 국보 1호를 재지정하자는 논란이 있었다. 그 때 남대문 대신 교체 대상 1호가 훈민정음(한글)이었다. 지금은 흐지부지 되었으나 한글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격할 노릇이다. 한글만큼 표현 영역이 심화, 광역화, 고등화, 고급화, 다양화된 문자는 없다. 국력과 언어 세력이 약하여 세계에서 힘을 쓰지 못할 뿐이다. 60억 인구 중 남북한 합쳐 7천만 정도만 사용하니 1% 약간 웃도는 세력이다. 언중(言衆)이 5억 명만 된다면 당당한 세계어다.

세종의 위업을 꼽자면 손가락, 발가락이 부족하다. 그 중 엄지손가락의 몫은 한글 창제다.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는 서로 사맛디 아니할 쌔…’ 지금도 달달 외고 있다. ‘國之語音 異乎中國…’ 이것 역시 자다가 깨워도 왼다. 전자가 108자고 후자가 54자다. ‘월인석보’ 장수는 108쪽, 국보 70호 훈민정음(책자)은 33장으로 구성되었다. 야릇한 냄새가 감지된다.

한글 창제 후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집현전 학사 신석조, 김 문, 정창손이 올린 상소는 이렇다. ‘굳이 언문을 만들어야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재상에서 신하들까지 널리 상의한 후에 행하여야 할 것인데 갑자기 널리 펴려 하시니 그 옳음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성삼문은 한글이 창제될 무렵 집현전에 들어왔고 신숙주는 창제 2년 전에 들어왔으나 그 다음해 일본으로 갔다. ‘한글 창제의 기획 및 총괄=세종, 실무 담당=집현전 학사들’이란 통념에 의문이 간다.

민족사 위업에 기여한 공으로 훈장은 고사하고 실록에 기록조차 되지 않은 혜각존자 신미 대사를 떠올린다. 범어, 티베트어, 각필 부호는 신미 대사의 능력 안에 있었다. 훈민정음 창제 후에는 불서의 번역 간행에 깊숙이 관여했다. 세조가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책임을 맡겼다. <석보상절> 편집 책임, <원각경> <선종영가집> <수심결> 등을 직접 번역했다. 훈민정음에 달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나중에 한글을 배워서 번역했다면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국어학자들도 동의한다. ‘한글 창제에 참여한 스님이 주도면밀한 노력을 은밀하게 기울인 까닭은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큰 목적 중 하나가 불교의 보급에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적 염원이 어지 부분의 글자 수를 불교에서 신성한 수로 여기는 108자와 그 절반인 54자, 또다시 그 절반인 27자 등으로 조절하는 등 은밀한 방법을 통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김광해 서울대 교수)’

이러한 숫자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교하다. 그러나 한글 창제와 보급에 대한 신미 대사의 공적에 대해서는 조선조의 사정은 매우 인색하다. 대 그림자 마당을 쓸어도 마당에는 흔적 하나 남지 않는다. 원로 국어학자 이숭녕 선생은 이렇게 애석해했다. ‘신미는 불경 번역에 큰 공헌을 했다. 그의 행적이 뚜렷하지 않음은 그의 처세의 일단이 아닌가 한다. 고승이 후세에 남긴 법어, 시, 글 한편 없다는 것은 너무도 적막한 생애를 스스로 걸어간 것 같고 속세의 허무가 신미로 하여금 자취를 남기지 않게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라고.

몇 가지 상상적 추론을 해본다.

첫째, 한글 창제는 공개적 국책사업이 아니다. 연일 어전 회의를 거쳐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 그러면 벌떼 같은 대신들의 반대를 감당할 수 없다. 실록에도 한글 창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기록은 한마디도 없다. 세종의 은밀한 독자 작업의 산물이다. 금융실명제 실시, 하나회 척결과 같은 것이다.

둘째, 창제 과정에 집현전 학사들의 도움은 없었다. 창제 후 그들 또한 반대 상소를 올린 것이 증거다.

셋째, 어학에 능한 신미 대사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림자로 도왔다. 공적에 대한 기록은 없고 어용승이란 비난의 기록만 있다. 그 역시 세종과의 은밀한 밀약으로 자신의 기여에 대해 일체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다. 세종의 요청으로 왕의 침전에서 법문을 하기도 했다. 어찌 법문만 했을까. 탁월한 언어학 교습이 은밀히 이루어졌다. 세종은 한글 창제 후 활용, 배포에 대해서도 승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왕성한 불경 언해가 그것이다.

혁명은 화려하나 혁명가는 외롭다. 무혈 문자혁명을 달성한 세종은 생애 후반부에 불교에 귀의한다. 숭유억불의 국시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불사를 자주 행하고 경전 읽기를 즐겼다. 대궐 안에 내불당을 세워 예불을 올렸다(세종 30년). 조정 대신, 집현전 학사, 성균관 유생들의 간언과 상소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뜻이 견고했고 업적은 화려했다. 지지율 역시 상한가다. 성공한 혁명가는 은은하게 삼보에 귀의했다.

모든 정치가는 혁명가를 꿈꾼다. 일세를 풍미할 회오리를 만들길 원한다. 그러나 자기희생을 동반한 혁명이 아니라면 바람만 일으켜 민심을 혼미케 한다. 무지개와 꽃보라를 만들어 혹세무민한다. 수하들은 명분 만들기에 바쁘다. 그런 미혹을 민초들도 즐긴다. 혁명의 허전함을 느낄 때면 어느새 한 생애가 끝난다. 역사가 이어지는 한 지속적으로 고맙게 사용할 물건을 만들어준 제왕, 혁명가의 이름이 세종이다.

대학 은사이신 국어학자 이동림 선생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세종대왕이 만드신 스물여덟 자로 나는 평생 먹고 산다. 어디 나 하나뿐인가. 고마운 일이지. 허허!’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 =최진연(사진작가)



세종 어진.

영릉은…

세종(1397~1450)과 비 소헌왕후(1395~1446) 심씨의 합장릉이다. 22세에 등극하여 54세로 승하할 때까지 32년간 재위한 세종은 추종을 불허하는 성군이다. 근처에 효종의 영릉(寧陵)이 있어 합하여 영녕릉으로 불린다. 사적 제195호.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83-1 면적 65만4322평이다. 원래 헌릉(서초구 내곡동) 서쪽에 있었으나 1469년(예종 1년) 이곳으로 옮겼다. 조선 최고의 명당이라고 풍수가들은 입을 모은다. 산세가 모란꽃봉오리가 둘러싼 모란반개형(牧丹半開形), 용이 돌아와서 정남향으로 영릉을 쳐다보기에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 주위 산세가 봉황이 날개를 펼치고 알을 품듯 능을 감싼다 해서 비봉포란형(飛鳳抱卵形)이라고도 한다.

정치적 풍파 때문에 멀리 묻힌 2대 정종(후릉, 개성), 6대 단종(장릉, 영월)을 제외하면 도성에서 가장 멀다. ‘왕릉은 도성 100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지만 ‘물길로 가면 하루거리’라는 논리로 합리화했다. 능은 병풍석을 두르지 않고 난간석만 둘렀다. 능 앞에 혼유석이 두 개 놓여 있어 합장릉임을 알 수 있다. 봉분 속을 석실이 아니라 회격(灰隔: 관을 봉분 속 광중에 내려놓고 그 사이를 회로 메워서 다짐)으로 한 이유는 예종의 부왕인 세조가 석실과 병풍석을 쓰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다. 석실과 병풍석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역에 동원된 부역군이 6천명에서 절반인 3천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대웅전완공 초파일대법회
대원 문재현 선사님 법문



삼원 국제선원의 목조 대웅전(150평)이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의 대원력과 사부대중의 노력으로 10여년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이 대웅전에서 초파일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삼원 국제선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77대 조사이시며, 조계종 선사님들 중에서도 그 법이 가장 뛰어나 '지혜제일'이라 불리우신 정전강 대선사님의 인가를 받으신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께서 조실로 주석하고 계십니다.
금년 초파일 대법회에 오시면 명안종사이신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의 법문을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생한 육성의 심지법문을 들어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정법의 인연을 맺으십시오.
포천의 국제적인 선도량, 삼원국제선원의 초파일법회에 나오셔서 정법을 부촉하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 : 2007년 5월 24일 목요일(음 4월 초파일)
• 시간 : 오전 11:00 - 12:00

☎ 031-531-8805 www.zenparadise.com

동서양식 레이키(靈氣)가 왜 화제인가?

동서양식 「레이키(靈氣、Reiki)」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생활의 각 방면에 氣에너지를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널리 보급돼 있지만 우리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에서 전수해 드리는 동서양식 레이키는 여러가지의 레이키 기법을 융합한 것이어서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1.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 · 토,일요일) 교육비 55만원

2.카루나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시간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3.지도자 소개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번역가 ·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온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 입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현대생활레이키)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 화 02)720-5719,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신비의 인도산 자수정
새봄 행운의 보석 단주와 목걸이 수입



혈액순환.기억력증진.어깨통증에 효과
살아숨쉬는1등급자수정.목에걸면 눈피로없어

살아있어 행운과 건강을 주는 보석이라는 인도산 자수정이 국내 처음 반입됐다. 자수정은 본초강목(本草綱目)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병을 치료하는 보석으로 대체의학에 이용된다. 생명 친화적 파장은 수백만(32786KHZ)의 규칙적인 에너지를 자동으로 방출한다. 따라서 자수정이 내뿜는 생기는 체내의 유해독소는 제거시키고 몸의 반란스를 잡아주어 잠재파워를 향상시킨다. 천연 자수정은 저온에서도 다량의 노폐물을 땀으로 배출하여 체내의 신진대사를 활성화 시킨다고 기록되어있다.

금번 반입된 자수정은 1등급으로 색상과 크기를 일정하게 가공한 단주와 목걸이 세트로 목에 걸고 다니면 세련되고 품위 있는 보석으로 혈액순환, 기억력 증진,어깨통증,신경통에도 효과가 있다. 가격은 58,000원으로 불자님들의 소중한 선물로도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특급등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 / 전화 (02)734-7300 농협 360-12-046446 (최능우)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침묵보다 큰 외침은 없다

위대한 침묵. 불교는 침묵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자신을 위해 뭔가를 구하는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평온한 사람은 구할 것도 떠들어댈 일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말없이 꽃을 들어 보이셨고 유마거사도 말없이 '불이법문'을 펼쳤습니다. 달마 대사도 말없이 면벽하여 선의 꽃을 피웠습니다. 말이 너무 많은 세상, 서로가 서로에게 구하는 게 너무 많은 세상, 침묵을 배웁시다.

韓國佛教 太古宗

■ 宗　　正　崔慧草
宗正禮敬室長　金錦明

■ 僧正院 院長 柳南坡
副院長　金法藏

■ 元老會議 議長 金一宇
副議長　李寶峰
副議長　林元法

■ 總務院長 李雲山
副院長　文普經
副院長　曺幻宇

宗務調整室長　金越海
宗務管理室長　片白雲
交流協力室長　閔法顯
文化宗務特補　石禪岩

■ 中央宗會 議長 朴印空
副議長 成圓峰
副議長 鄭大隱

■ 中央司正院長 金月雲
副院長　姜靑峰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12번지
☎02)739-3450 / FAX 02)739-3470

대한불교 천태종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주정산
총무부장 이문덕　교무부장 김유정　재무부장 남궁도재
교육부장 김세윤　사회부장 김무원　기획실장 김용암
규정부장 조진덕　종정사서실장 정장호

원로원
원로원장 윤덕산

감사원
감사원장 변춘광
감사위원 이월장

종의회
종의회의장 장도정
종의회의장 용월산
종의회부의장 박노승

참의원 원장 권무원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 권기종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번지 총본산 구인사
전화 : 043)423-7100~8 / 전송 : 043)420-7399 www.cheontae.org

2551 BUDDHA'S BIRTHDAY

진각 60th 1946-2007 진각 60년, 그 역사의 가르침

즉신성불 현세정화

즐거운, 함께하는, 하나되는 신행

한국불교의 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總印　道欣

統理院長　悔淨　宗議會議長　惠印
敎育院長　敬淨　査監院長　惠明

대한불교 진각종
http://www.jingak.or.k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봉 총기36년(불기2551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축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앞에 나타난 밀교! - 불교총지종!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합니다.
만다라의 금강법계궁 총지도량의 진언세계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종　령 효강
통리원장 원송
법장원장 법공　사감원장 지성　교육원장 화령
총무부장 경원　재무부장 시정　사회부장 인선　교정부장 선도원
서울경인 교구장 정법계　부산경남 교구장 대원
충청전라 교구장 밀공정　대구경북 교구장 지공

불교 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TEL 02)552-1080~3 / FAX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종정 영산 일공
부종정 유념 법신　천호 천호　고문 신수

• 원로원
원로원장 송산　원로위원 선명
• 승정원
승정원장 체운
• 중앙종의회
종의회의장 체의　종의회의원 보각, 보운, 체각, 체선, 체명, 송운, 풍원
• 중앙임원
총무원장 성관　규정원장 진허　교육원장 해안
문화원장 혜광　중앙비구니회 회장 선덕
총무부장 진호　규정부장 대천　포교부장 보정
• 종무원장
경기종무원장 진운　부산종무원장 혜민　전라종무원장 각우
충청종무원장 체두　경남종무원장 은혜　경북종무원장 해안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704-39
전화 02)853-0531~2 / 전송 02)853-0533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부처님의 탄신을 사부대중과 함께 봉축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관음종

종정 남천 죽산
사서실장 이효천
총무원장 이홍파
사　서 문호명
부원장 황법명
총무부장 김대홍　총무국장 신성법
교무부장 권종일　교무국장 신도중
재무부장 박지열　재무국장 박지성
사회부장 조법호　사회국장 이도각
감찰부장 이의선　감찰국장 임현묵
서부경남종무원장 박송월　경기종무원장 이혜담
종무위원 장법능　종무위원 박명진
종회의장 정법륜
부의장 강백제　부의장 김경담
호법원장 김경철
교육원장 김동령
수교부장 이효천　역경부장 이대광　역경국장 한진각
포교원
포교부장 황혜광　조직부장 임법경
포교국장 김법경　조직국장 정도명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3 전화 02)763-0054 / 팩스 02)763-5851 / www.kwanum.or.kr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성불의 씨앗은 어디 있나?

부처님은 한 때 원숭이의 왕이었습니다. 사냥꾼이 원숭이들을 향해 화살을 마구 쏠 때 원숭이 왕은 자신의 팔을 뻗어 수많은 원숭이들을 강 건너 나무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쳐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그 공덕으로 부처님은 성불의 씨앗을 삼았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나를 위하는 마음보다 클 때 보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불의 씨앗은 이웃에게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일광종

총본산 일광사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중랑구 망우 2동 468-18호
총무원 02)2207-7198 / 종무소 02)438-3088 팩스 02)433-1666

대한불교 불입종

종 정 면 철 원로원장 정 관

총무원장 경 암 호법원장 현 각 포교원장 혜 련
교육원장 지 학 종회의장 월 정 종회부의장 상 운

서울경기종무원장 지 철 부산경남종무원장 법 륜

총무부장 법 진 수교부장 대 원 재무부장 묘 훈
호법부장 인 수 사회부장 봉 산 포교부장 관 음
역경부장 혜 광

임원 : 만호. 인전. 성해. 묘성. 효운. 선율. 해월. 대덕화. 자비심. 연화. 석운. 성원. 진성. 화산. 원덕. 혜련. 무상신. 송광. 수진. 오륜. 성혜옥. 견성. 송묵. 법천. 봉산. 묘진. 대해. 묘련. 성관. 영담. 봉양. 송인. 지원. 송암. 성암. 혜원. 지유. 선유. 송재. 지우. 성휴. 벽봉. 용아. 경두. 정철. 송담. 혜안. 원상. 신석. 송혜. 우담. 주암. 혜성. 도심. 법철. 성도. 지산. 법화. 보성. 묘진. 혜명. 광명. 만경. 보경.

•총본산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271-3번지 송화사 / 전화 043)653-4800, 4848 / 팩스 653-5858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청전동 86-4번지 / 전화 043)653-4848, 0999 / 팩스 642-6660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현붕해 총무원장 엄지공

재단이사장 경원

명예이사장	붕해	장로의장	금봉	종회부의장	경원	호계원장	용암	총무부장대행	유정	서울교구	응천
상임이사	혜광	장로부의장	명종	사무처장	도안	교육원장	원각	교육부장	법해	부산교구	대우
이사	혜운	장로위원	수암	종회의원	덕봉	감사원장	법성	재무부장	유정	대전교구	용주
이사	지공		원경		법재 자명	포교원장	정수	교무부장	지언	인천교구	유정
이사	도기		청송		법안 도허	사서실장	혜천	규정부장	법령	울산교구	도현
이사	화엄		송은		지운 혜관			재무부장	일명	대구교구	석담
이사	일명		원각		선행 삼주	선거관리위원장	해동	사회국장	영우	강원동북	보해
이사	법광		혜운		법정 도정					강원서북	동청
이사	담화		무찰		고봉 진송					경기남부	석은
감사	혜천				남혜 보광	호계초심위원	용주			경기북부	도혜
감사	혜원	고시위원장	청송		덕산 운각		도혜			경남교구	정수
					경담 대호		동청			경북교구	해동
					법경 호암		영우			전남교구	혜성
					청표					전북교구	석성
										충남교구	영명
										제주교구	경운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수유5동 440-27 / 엄지빌딩 4층
www.llbung.org 전화 02)998-8161, 2 전송 02)998-8384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세계불교임제종

총무원장 (종정대행) 법 광

세계불교임제종 임원진 일동

세계불교임제종과 함께하실 종도여러분을 모십니다

구비서류 : 사진3매, 등본1통,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종단에서는 사찰등록증. 임명장. 승려증. 신분증을 교부합니다)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외동 699-5번지
전화 055)338-4008 / 011-868-2850 팩스 334-5890

대한불교 본원종

종정 강무구 사서실장 심지연

부종정 최대종 김동광

원로의장 유법용
원로의원 이송파 김용담 박보명
이관곤 이대봉

총무원장	이대화	사서실장	강정오	
종회의장	김대운	종회부의장	방일봉	김용한
감찰원장	김대원	복지원장	박대성	
교육원장	김대천	연수원장	김현담	
의전원장	이두산	문화원장	김송담	
포교원장	정대련	부산경남종무원장	박지우	
염불원장	최대황	경북종무원장	윤자광	
총무부장	김만혁	교무부장	손혜원	
교화부장	정대능	포교부장	한법성	
규정부장	강만공	재무부장	정법성	
사회부장	허지광	전국신도회장	신대광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 전화 02)391-4376 팩스 02)379-2746

"정해년 석가탄신 봉축"

대한불교 종단진흥 총연합회

■대표회장 회 암 (한국대선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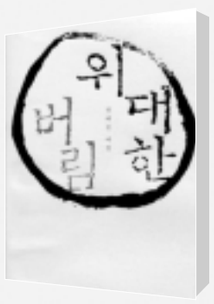
고문	송산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이사	일초	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고문	무송	대한불교현수종	총무원장							이사	도법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총재	운산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이사	덕산	정토진종	총무원장						
부총재	혜정	대한불교일승종	총무원장							이사	혜성	대한불교구화종	총무원장						
부총재	혜안	대한불교무량종	총무원장							이사	덕진	한국불교원각종	종회의장						
부회장	정림	대한불교조동정종	총무원장							이사	대명	대한불교천지종	총무원장						
부회장	마정	한국불교임제선학원종	무총리							이사	혜명	불교법화종	총무원장						
이사	법장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장							이사	법성	국제불교선덕종	총무원장						
이사	법인	한국불교원각종	총무원장							이사	지고	세계불교법사종	종회의장						
이사	향운	세계불교법사종	총무원장							이사	대광	대한불교현수종	종회의장						
이사	법천	정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감사	혜공	대승불교연화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법 봉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총무원장

본회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10 학산빌딩 전화 02)3436-0797 / 팩스 02)2201-1163

중생의 몸 훌훌 벗고 우주의 큰 품으시니…

부처님 주요 생애 그린 '팔상도' 의미 법문으로 엮어



위대한 버림
이준엽 엮음 | 빨간우체통 펴냄 | 1만 1000원

부처님은 왜 이 번뇌 덩어리인 사바세계로 오셨을까? 그것도 당시 인도사회에서 가장 귀한 신분이었던 바라문이 아닌 왕족으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생활을 했다. 결혼하여 아들도 낳지 않았는가?

부처님의 생애를 접하면서 누구나 갖게 되는 의문이다. 부처님의 탄생과 생활이 '인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솔천에서 사바세계를 구제하기 위한 원력으로 오셨다면 뭔가 좀 달랐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는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 범부 중생의 출생은 업에 따라 끌려왔다가 끌려가기에 업계고신(業繫苦身)이라 한다. 부처님의 출생은 뜻하는 대로 태어난다고 하여 수의수생신(隨意受生身)이라 한다. 아무생각 없이 태어난 것과 뭔가 뜻을 가지고 태어난 차이, 상상할 수 없이 큰 차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중생은 업생(業生)이라 하고 부처님은 원생(願生)이라 한다.

부처님의 삶. 바로 원력의 삶이다. 마야 왕비의 꿈에 흰 코끼리로 예시를 하고(도솔래의상)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옮기며 "천상천하유아독존"을 외친 것(비람강생상)이 바로 원생을 강하게 강조하는 대목이다.

동서남북 네 문을 나가 인간 고통의 적나라한 현장을 목격하는 것(사문유관상)이나 마침내 성을 넘어 출가하는 대목(유성출가상), 설산에서 많은 스승들을 찾아 수행하다가 결국 홀로 보리수나무아래 앉아 선정에 드는 장면(설산수도상), 선정에 들어 유혹하고 공격하는 온갖 마구니들을 물리치고 '연기'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의 큰 진리를 깨치는 순간(수하항마상)까지 부처님의 일생은 범부중생과는 분명 다른 노정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이 범부 중생의 몸으로 왔다가 그 몸을 버리고 위대한 진리를 남겨 놓고 가신 것은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분명하게 내재된 부처의 씨앗, 불성을 자각하라는 가르침이다. 온 몸으로 일생을 함께하며 가르치신 위대한 교육인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뒤 다섯 비구를 찾아가 첫 설법(녹원전법상)을 하면서부터 49년 동안 가르침을 베푸시다가 마침내 육신을 버리고 열반에 드시는 모습(쌍림열반상)에서도 우리는 위대한 스승의 간절한 가르침을 듣고 읽고 느끼게 된다.

부처님의 생애 중 중요한 대목들을 여덟 가지의 그림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을 팔상도(八相圖)라 한다. 이 팔상도는 상징성과 사실성을 함께 갖지만 부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데 더 없이 좋은 자료다.

2006년 가을 광주 빛고을 아카데미가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를 주제로 종범 월운 지선 지광 수진 통광 성열 원담 스님 등 여덟 분의 스님들이 팔상도의 상징성과 의미를 풀어 대단한 호응을 얻었다.



빛고을 아카데미 운영위원인 이준엽씨(前 현대불교 취재부장)가 그 때의 법문들을 생생하게 풀어낸 뒤 다시 정리하여 <위대한 버림>이라는 이름으로 묶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당신처럼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

붓다, 그도 인간이었다



사람의 아들 붓다
디팩 초프라 지음| 진우기 옮김
푸르메 펴냄 | 1만원

"붓다는 당신이나 나처럼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간이었지만 깨달음을 얻은 후 무사(無死)의 대열에 올라갔다. 기적은 그가 그곳에 이르는 동안 당신 것이나 내 것처럼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인간의 마음을 따라갔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더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뽑히기도 한 베스트셀러 작가 디팩 초프라는 새 장편 소설 <사람의 아들 붓다>를 집필한 뒤 붓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2천 5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난 고타마 싯다르타. 그는 젊은 시절 깨달음을 얻기 위해 왕자라는 신분과 가족마저 버린 채 구도의 길에 올랐다. 그리고 서른다섯의 나이에 깨달음을 얻는다. 이 소설은 그의 성장 과정에서 그가 깨달음을 얻기까지 전 생애를 추적하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싯다르타의 내면세계를 섬세하게 조명한다.

소설이 그려내는 싯다르타의 삶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붓다의 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저자는 악마 마라와 싯다르타가 사랑한 가공의 여인을 만들어 인간 싯다르타의 고뇌를 더욱 실감나게 형상화한다. 소설만이 갖는 묘미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세상 모든것이 '아름다운 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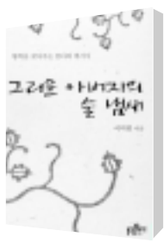


<살구나무經>
원담스님 지음|
개미 펴냄 | 7000원

시를 쓰는 비구니 스님의 눈에 세상의 사물들과 현상들이 경전으로 들어 왔다.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었다. 그리하여 한 권의 시집이 됐으니 그 시집 역시 아름다운 경전이다. 경남 의령 유학사에서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고 있는 원담 스님의 시작(詩作)은 세상이라는 경전을 읽는 숭고한 자세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 시집으로 상재한 <살구나무經>이 그 증거물이다.

1부에서 4부까지로 나누어진 작품들의 테마는 살구나무경, 중생경, 마음경, 산중경이다. 중생으로서의 고통과 수행자로서의 고뇌 등이 깊은 사색과 통찰의 '힘'으로 풀어져 나와 하나의 경전을 이룬 것이다. **임연태 기자**

'아버지 품'처럼 따뜻한 부처님의 말씀



그리운 아버지의 술냄새 | 이미령 지음 | 불광 펴냄 | 7000원

불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경전인 <팔만대장경>의 방대함에 먼저 기가 질리거나 불교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책이 나왔다.

팔만대장경을 우리글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이미령(사진) 동국역경위원의 <그리운 아버지의 술냄새>다. 제목만 언뜻 보면 불교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지 모르지만 책 곳곳에는 분명 부처님 말씀이 녹아 흐른다. 그래서일까.

이 책에는 '행복을 찾아주는 붓다의 메시지'라는 부제가 친절히 붙여져 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부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들과 자연스럽게 연결해 풀어냈다는 것이다.

가령 '그리운 아버지의 술 냄새'라는 글에서 저자는 "술에 취한 아버지는 언제나 어두운 골목길을 비틀비틀 걸어 올라오며 가족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흥얼거린 가장 이었다"며 평소 자주 술을 즐기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정감 있게 그려낸다.

이어 저자는 "성불하신 뒤에 고향을 찾은 부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애타 하는 야소다라를 따로 만나 그녀의 마음을 달래준 '지아비'였고, 자식인 라훌라를 출가시킨 뒤 사람들의 정신적 스승으로 우뚝 서도록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덤덤하게 때로는 자비롭게 가르침을 베푸신 '아버지'였다.

삶이 버거워 술에 취해 주정을 부려도 '우리 아버지'라며 따뜻하게 안아주고 받아주는 내 편이 있어야 술마실 기분이 나지 않겠느냐"며 부처님의 인간적인 면모와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을 연결시켜 소개한다.

무엇보다 글이 간결해 책장이 술술 넘어간다는 것도 이 책이 빨리 다가오는 또 하나의 이유다.



원래 이 책의 글들은 <현대불교신문>에서 2년여간 연재하며 독자들의 호응을 받았던 것들이다. 이것을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성공을 돕는 붓다의 처세술' '진리의 바다에서 삶을 충전하다' 등 네 주제로 나눠 편집했다.

"이 책은 불교경전을 접하지 못하는 대중들에게 주옥같은 부처님 말씀 한마디씩을 들려주며 거기에 절실한 해석의 덕담까지를 곁들여 주고 있어 큰 감동과 여운이 남는다"는 소설가 한승원씨의 추천사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책을 읽다보면 편편마다의 글들이 마음속에 깊이 큰 울림으로 박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바람 속 이야기	동학사편집실	운주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염불수행입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4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5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6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7	오대산 노스님의 그 다음 이야기	과경	불광
8	얘들아 절에 가자	홍주연	조계종출판사
9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10	꽃과 벌	청안	김영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봉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축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淞澹 지음

신국판 |319쪽 | 값10,000원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조실이시며
동국대학교 불교 역경원장이시고 (生佛)이신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 모두가(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와 같다고(찬탄 하시였다)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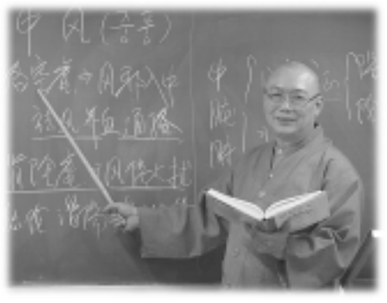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사암오행침구술 대특강

덕운큰스님의 비방공개 (3개월완성)

덕운스님은 사암오행침구술및 승가에 전해오는 침구술을 30여년 연구하신 큰스님으로서 불자들의 건강을 위한 활인공덕의 일환으로 최초로 비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강 사 : 사암도인의 침구술을 계승하신 덕운스님
▣ 일 시 : 2007. 6. 1 - 8. 30 (3개월)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 오후5시)
▣ 보시금 : 일반인 - 월100만원
신도증소지자 - 월 50만원
승려증소지자 - 월 30만원
▣ 3개월 수료후 수료증 발급
▣ 문 의 : ☎ 02)3487-2311~3
FAX 02)588-1056
H.P 011-335-9351(담당자)



※ 참고: 동양의학방송국 사이트 무료강좌(토요특강)참조
(www.dytv.c●.kr)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67-3
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종 활 인 정 사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순리대로 살아간다는 것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평범하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갖는 뜻은 우리 삶의 모든 불합리성을 격파합니다. 순리대로 살아간다는 것, 생각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듯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도 힘든데 어찌 복잡한 세상살이를 마음대로 해 나가겠습니까? 욕심을 버리면 탐하는 것이 없으면 얽매일 것도 없는 것을.

대한불교 무량종

"온 인류의 대 스승이신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여 국가와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은 화합으로
평화로운 나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로의장 **지 은** 종회의장 **보 경** 선무도도총사 **보 인**

종정대행 총무원장 **정 혜 안**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 055)883-7771, 7790 / 팩스 883-7796

(재)한국불교 법륜종

종 정 영산 정각

중앙종회의장 **법 천** 총무원장 **고 산**
사 정 원 장 **혜 안** 부원장 **현 오**
선 관 위 원 장 **보 명** 부원장 **일 정**
교 육 원 장 **회 광**
법 규 위 원 장 **원 봉**
연 수 원 장 **지 월**
포 교 원 장 **명 진**

총 무 부 장 우 호 교무부장 청 혜 사회부장 법 일
문화사업부장 선 문 재무부장 지 현 규정부장 지 일

총무원 :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67번지
전화 041)734-5371-2 / 팩스 734-5373

정법 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운파 석해동**

예경부장 석보성

총무원장 동천 석고림

기획실장 동하 석해공 종회 의장 법정 석덕암

종찰원장(종회부의장) 동곡 석도천 선학원장 동암 석해광
문화원장 석원욱 교육원장 송산 석법장

문화부장 석혜관 총무부장 만득 석무학
교무부장 만성 석대의 호법부장 성관 석봉조

종회의원 및 종무직 임원일동 · 대승불교 전국 법사회 임원일동
국제(해외)포교사단 임원일동

총본산(총무원) 상원사
본 종단의 입종을 하시고자 하는 사/암(승려, 법사) 연락 바랍니다.

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1리 산112-2 총무원 전화 054)534-3268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종정 각 암 부종정 **혜 산**

원 로 의 장 여 산 원로 부의장 **혜 일**

원 로 월우 범아 청산 **중앙종회의장 정 관**

총 무 원 장 **능인** 포 교 원 장 향운 총무부장 정타 감찰부장 무심
중앙종회의장 무원 중앙연수원장 일조 재무부장 도안 호법부장 동법
중앙선원장 명등 교 육 원 장 정도 교육부장 혜명 규정부장 덕산
호 계 원 장 성전 비구니원장 보현 사회부장 도천 문화부장 아산
사 정 원 장 운암

경북종무원장 혜봉 부산종무원장 도경 강원종무원장 진광 충남종무원장 원당
경남종무원장 보명 경기종무원장 해천 충북종무원장 성전 대구종무원장 혜득
울산종무원장 도공 광주종무원장 해성 제주종무원장 심호 무술연수원장 무성
사 서 실 장 자은

※ 사암 및 종도 모집합니다.

총무원 : 경북구미시 사곡동 670-1 / 전화 054)464-4725 팩스 464-4735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동종
사단법인 해 동 자 비 원

원로원원장 **석봉 대종사** 부원장 **백담**
원로원위원 **승전. 법성. 법준. 정화. 원심**
종 정 혜봉 대종사 종정사서실장 **도은**

총 무 원 장 송산
부 원 장 도현
총 무 부 장 덕광
재 무 부 장 도은
교 무 부 장 무연
사 회 부 장 수월

중 앙 사 정 원 장 대원
부 원 장 옥용
사 정 부 장 혜암

중 앙 포 교 원 장 정화
부 원 장 보담
포 교 부 장 진아

중 앙 포 교 사 수월

중 앙 교 육 원 장 경신
부 원 장 현법
교 육 부 장 성암

중 앙 종 회 의 장 보장
부 의 장 수운
중 앙 종 회 의 원 연각. 지선. 백파. 이파. 수진. 법운. 송연

국제교화연구원장 공덕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
중앙복지봉사부원장 무봉
복 지 봉 사 부 장 지연

경기교구종무원장 벽송 울산교구종무원장 봉암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 경남(동)교구종무원장 지성
대구교구종무원장 대원 경남(서)교구종무원장 혜광
경북교구종무원장 혜봉 충남교구종무원장 무기
전남교구종무원장 청림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392-5 전화 031)262-1577, 263-1353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대한불교 원효종

종정 운해 벽송

원 로 원 장 무 진

총무원장 향 운

종회의장 인담 부의장 원봉. 지상

호 계 원 장 도천 법규위원장 법선
상벌위원장 운학 기 획 실 장 운오

직할종무원장 혜담 강원종무원장 법선 안동종무원장 명석
서울종무원장 진산 충북종무원장 석암 경남종무원장 보각
부산종무원장 효산 전남종무원장 마명 서부경남종무원장 범산
충남대전종무원장 일륜 전북종무원장 운학 전국비구니회장 명관
울산종무원장 금봉 경북종무원장 도봉
경기종무원장 인담 경북남종무원장 영운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빌딩 411호
전화 02)735-0501 / 팩스 02)736-3509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좋은 길과 나쁜 길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수행하고 길에서 전법을 했습니다. 길, 인간에게 있어 길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길이 없으면 소통도 없습니다. 소통은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살아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길을 가되 아름답고 편한 길만 갈 수도 없고 험한 길만 가라는 운명도 없습니다. 좋은 길과 나쁜 길을 따지기보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앞서야 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혜공 (이재선)
부종정 혜승 (김정익)
승정원 해광 (사일복) 대안(정금호)

총무원장 진봉(김정완) 포교원장 인봉(이종갑)
종회의장 지경(조영순) 수선원장 지심(박상준)
사정원장 지운(윤태영) 문화원장 성봉(이용석)

종도일동

총무원 : 서울 노원구 상계5동 169-539번지 인광빌딩 5층
전화 02)937-0343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부종정) 석정관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도일동

총무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66-7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2)391-8583

종교법인 대한불교三寶조계종

승 왕 멸공聖周 초대종정 **승 정** 태화迦山 2대종정
종정대행 법현承勳 3대종정 부종정 직무대행 총무원장
원로원장 금산 원로위원 효성. 흥국. 법련. 정민. 혜공. 정공. 성훈. 도문. 용담. 용운. 법천. 법영. 도산. 정안. 법타. 수산
원로수석 법공 **호법원장** 인봉(예정) **고시원장** 현각 **총무원장** 법장

종회의장 청 범 **부의장** 지 우
종회의원 법경. 취운. 고산. 서암. 지산. 선운. 법호. 지원. 지우. 마조. 청봉. 원현. 정암. 법공. 봉화. 도연. 태륜. 보산. 용현. 해석. 계월
교육원장 화동 포교원장 원산 문화원장 정수 감찰위원 덕암. 법건. 법담. 해월. 성안. 진암. 청파. 대경. 법해. 청암. 청산. 도여
감찰원장 법도 국제원장 남산 복지원장 원각
중선원장 석장 염불원장 원명

사무총장 법 경 **사서실장** 성 운
기획실장 선묵 총무부장 보현 교육원장 홍인 총무국장 보장
종무간부 마우. 경보. 일선. 일각. 법고. 성담. 보승. 청보. 청조. 무애. 석연. 보각. 영운. 지공. 불과. 마석. 성보. 성수. 성웅. 성무. 해신. 법진. 보인. 현무. 묘법. 청붕. 백산. 성도

제1서울교구원장 원현 제2부산교구원장 법호 제3대구교구원장 각원 제4인천교구원장
제5경남교구원장 서암 제6경북교구원장 취운 제7충남교구원장 태륜 제8충북교구원장 지원
제 9경기교구원장 마조 제10강원교구원장 보산 제11전남교구원장 호산 제12전북교구원장 일도
제13제주교구원장 제14울산교구원장 청봉 국제일본교구원장 명인 국제중국교구원장 정륵

- 종립 삼보불교대학 : 행자학과. 불교학과. 어산학과. 주역학과. 인터넷통신과. 승가대학원
- 국립 중국요녕성 중의대학교 : 의대유학생 및 연수교육(총무원.국제원 문의)
- 재단법인 사회복지원 : 제1지구
- 천마영농 식품연구소 : 한주원(주) 생활불교 일일불작 일일불식 (한국인상 수상)
- 사단법인 불교참여운동 : 남북한 어린이 돕기운동 동참 모심.
- 법무부 청송교도소 : 교정교화 후원회 재소자 자매결연자 돕기모심.

고통 나누며 사는 종단 **생산불교** 실천하는 **보살행자** 수행종단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삼정동 17-10번지 전화 055)338-0089, 0050 팩스 328-2762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 하소서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봉 암

원로의원 법달 법묘 원정 청곡 현공
총무원장 서리 법 철

사정원장 도 현 기획실장 송 암 재무부장 동 월 포교부장 덕 암
사서실장 현 각 총무부장 무 원 사회부장 법 현 교무국장 정 법
부 원 장 혜 관 교무부장 청 암 규정부장 초 혜 사회국장 왕 연

- 종도 및 종무원 일동 -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93번지
전화 02)394-9468, 9 / 팩스 02)395-9468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세계불교 일붕법왕종

사부대중 일동

의료재단 동자원(요양원) 건립불사 中

총본산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원흥리 494-4 원흥사
전화 031)585-2090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

大本山 **藥師寺**
(약사 추모관 운영中)

회 주 화 담
주 지 화 응
부주지 대 휴

신도일동

財團法人 **華嚴僧伽漿學財團**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漿學會**

이사장 한상호(화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 21
☎ 032)422-2066

서울사무소 소장 양위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8 금강빌딩 301호
전화 (02)730-0798~9 / 팩스 722-3205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세계불교 원효종 유지재단

보 광 사

종정 벽운 해광
주지 동화 영락

중앙신도회장 송용찬
중앙여신도회장 조묘연
보광사 화엄회장 전기옥
총 무 최병년
재 무 김미애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293-1
전화 042)283-5896 팩스 042)283-5894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신분과 도 닦는 일은 무관한 것

퐁 치우는 일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그 청년에게 탁발을 하기위해 다가갑니다. 당황한 청년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통을 엎질러 온통 오물을 뒤집어썼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리고 가 목욕시키고 출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위축감을 떨치고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도를 닦는 데는 신분의 차이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中國臨濟宗 七塔法派 韓國佛教 臨濟禪學院

宗 丈 慧泰 竹山

宗務總理 釋 摩 定　　理 事 長 釋解愚
副 總 理 釋 大 虛　　副理事長 釋解釋

事務總長 釋 慧 照

中華民國 臺北 臨濟宗 光德寺 方 丈 釋 淨 心
中國佛教 臨濟宗 本山 七塔寺 方 丈 釋 可 祥

臨濟宗 七塔法派 國際 法子聯誼會　會長 釋 心 茂
臨濟宗 七塔法派 韓國 法子聯誼會　會長 釋 解 愚
臨濟宗 七塔法派 싱가폴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寂
臨濟宗 七塔法派 인도네시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行
臨濟宗 七塔法派 홍콩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因
臨濟宗 七塔法派 말레이시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湧
臨濟宗 七塔法派 인디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生
臨濟宗 七塔法派 자카르타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願

※ 사찰 등록 받습니다.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3동 120-7 전화 02)496-3951~3 . 팩스 496-3950

社團法人 大韓佛教 三界宗

종정 서 허 석 법 수

총무원장 박 일 초　대본산 연화사주지 석 문 수

■ 산하단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http:www.samgyeoijong.org　한글인터넷: 삼계종
http:www.bumpae.org　한글인터넷: 범패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612-4호
총무원 : 자원사 TEL 032) 529-5191 FAX 032) 523-8066 | 문화원 TEL 032) 529-6708 FAX 032) 529-6709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TEL 032) 529-5190

대본산 연화사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1리 산 9-2호
TEL 031) 988-3531 / FAX 031) 988-1876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 정 일 송

장 로 원 장 용주　종 회 의 장 현공
장로부원장 지선　종회부의장 혜원
장로사서실장 혜명

교육원장 법인　포교원장 청광　문화원장 관도　역경원장 수혜
수선원장 서연　법계원장 법정　복지원장 용화　의전원장 동선
국제원장 월산　비구니원장 해광　호법원장 원광　호법부장 광월

총무원장 대현　총무부원장 해법　기획실장 수암　총무부장 수암
교무부장 수산　재무부장 현우　포교부장 해주　문화부장 일월
의전부장 법광　국제부장 법안　사회부장 수암　사업부장 혜명
총무국장 불현　전산국장 혜진

■ 종무원
서울교구종무원장 서련　대구교구종무원장 법성　경기남교구종무원장 일도
경기북교구종무원장 진법　경남교구종무원장 석일　경북교구종무원장 지운
강원교구종무원장 월주　충청교구종무원장 무진　호남교구종무원장 학용

총무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58-13 화남정사
전화 031)217-2170. 2633 팩스 031)217-2634

해동불교 임제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석지암

종정사서실장 혜 관

원로원장 혜봉
원로위원 법성　종회의장 혜안　선 원 장 지언

총무부장 무오　호법부장 혜인　사정부장 지엄
법사부장 지광　사회부장 혜주

조직부장 묘화심 대법사　포교국장 묘덕심 법사　운영국장 묘우심 법사
재무국장 묘순심 법사　법규국장 묘효심 법사　총무국장 지관 법사
포교국장 법관 법사　재무국장 혜관 법사　운영국장 후관 법사
외교국장 정관 법사

서울종무원장 혜공　부산종무원장 법연　대구종무원장 혜인
경기종무원장 보우　충남종무원장 혜용　충북종무원장 지명
경남종무원장 보덕　경북종무원장 법공　전남종무원장 보경
전북종무원장 법성

해동불교 임제종 총무원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33-4 청암사
전화 061)644-7273 휴대폰 011-807-8428

봉 축

法 대한불교 법성종

종 정 장허 덕암
총 무 원 장 능허 혜운

원 로 원 장 춘광 법주
중앙종회의장 일허 혜승

교 육 원 장 설허 만원
포 교 원 장 상허 재령

문 화 원 장 락허 혜운
규 정 원 장 조허 혜윤

총무원부원장 도원
중앙종회부의장 설봉 성인

교육원부원장 법정
포교원부원장 보안 현철

포 교 부 장 보현 조보현
재 무 부 장 옥천 류옥순
총 무 부 장 백봉 성관


종 정 장허 덕암


총무원장 능허 혜운



대한불교 법성종 총무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1-14 TEL 02)747-2202, 02)762-2459

1만 여 채 토굴…극락정토 온 듯

복잡한 도심 속에서 포교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면,
문득 스스로 부처님의 말씀을
올곧이 실행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교리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는
티베트 불교 중 동티베트 지역의
사찰을 찾아 떠났다.
우리는 일단 청두(城都)로 날아간 후,
기차로 란조우(蘭州)에 도착해서
샤허(夏河), 랑무스(朗木寺),
써다(色達)를 중심으로 순례를 하면서
청두로 내려오는 일정을 짰다.

3월 23일 청두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지상 최고(最高) 최대의 오명불학원

써다는 해발 3900미터의 고산에 위치한 자그마한 도시로 지도상으로 봐도 써다에서 길이 끊기고 마는 오지 중의 오지다. 이러한 오지에 많은 닉마파 스님들이 모여서 수행을 한다고 한다. 닉마파는 티베트 불교 4대 종파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종파로서 파드마삼바바가 티베트에 불교를 정착시키면서 생긴 종파인데, 티베트 불교 종파 중 가장 밀교적인 성격을 보존해왔다고 한다. 이곳이 우리가 순례할 첫 번째 지역이다.

써다에 가기 위해서는 마얼캉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5시간을 더 올라가야 한다. 버스가 중간에 휴식겸 식사를 위해 한번 정차를 하여 간단한 식사를 하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장족 두 명이 오체투지를 하며 삼보일배를 하며 오는 것이 보인다. 중간에 그들이 휴식하는 동안에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니 써다에 갔다가 다시 한 달에 걸쳐 70km거리를 오는 중이란다. 이곳에서 30km 떨어진 곳에 그들의 집이 있는데, 출발할 때부터 오체투지를 해왔다 하니, 장장 170km를 오체투지로 3보1배를 해온 것이다! 실로 이들의 불심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와 같다 할 수 있으니 새삼 존경심이 우러나옴을 억제할 수 가 없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여 두어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써다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려 발을 내딛는 순간 숨이 벅차오른다. 빠르게 움직이려 하여도 마치 시간이 느려진 듯이 움직임이 더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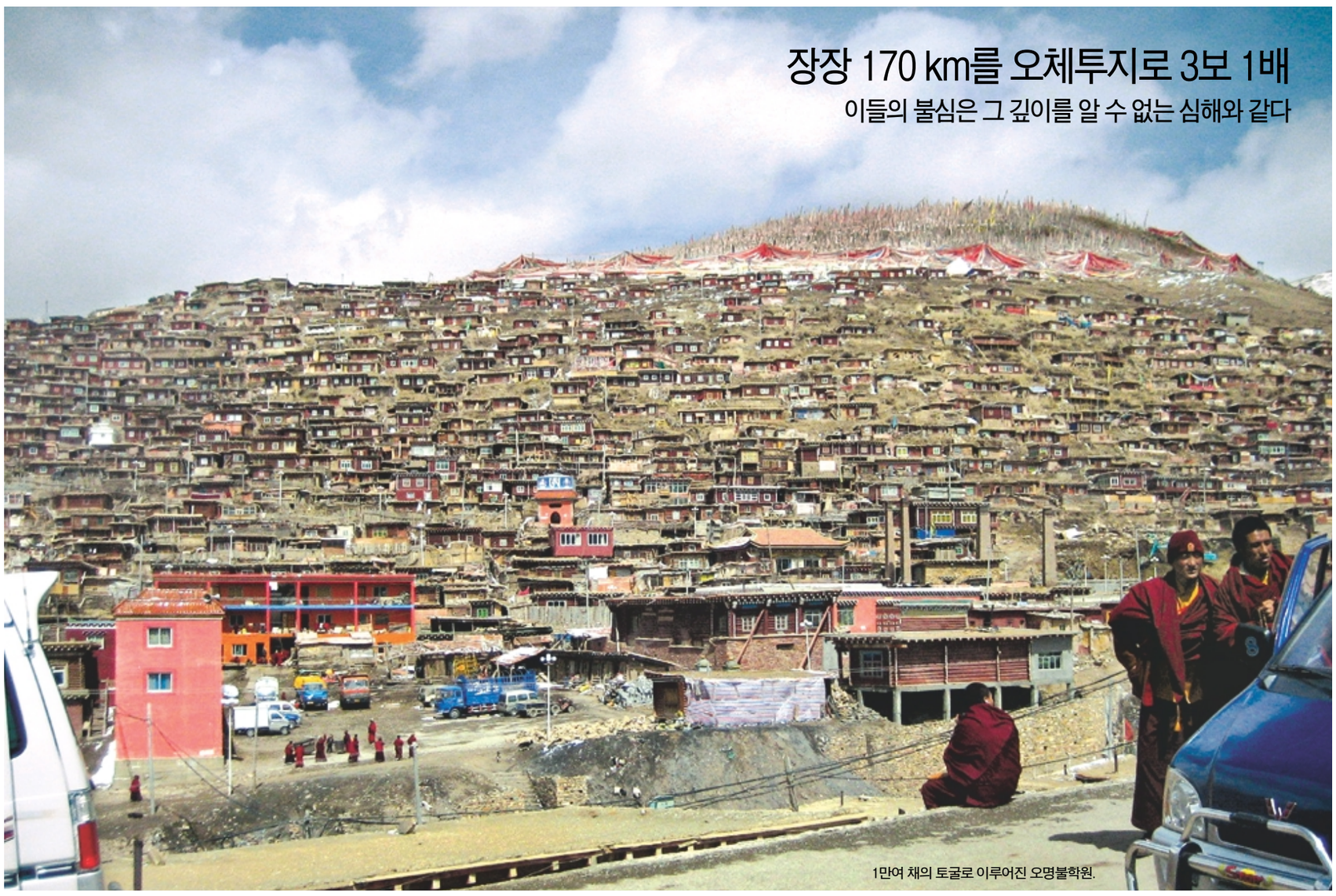
연룡사에서 만날 조선족 스님은 몽골에서 교사활동을 하다 티베트 불교에 감화되어 1998년 57세의 나이에 뒤늦게 출가한 분으로 법명도 '추양줘마'로 티베트식으로 지은 분이다. 빵차(우리나라의 다마스와 비슷한 차량)를 타고 또 다시 산으로 굽이굽이 오르는데, 이 길은 포장이 되어있지 않아 내내 덜컹덜컹 몸이 위로 솟구치고 난리다. 이쯤 되고 나니 서서히 고산증세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호흡은 물론이고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한다. 하늘밑 산꼭대기에 위치한 연룡사에 도달해 차에서 내리니 일행인 오중철씨는 두통에 몸살기운으로 몸져눕고 말았다.

2평 남짓한 추양줘마 스님의 토굴에는 자그마한 부엌과 파드마삼바바(연화생보살-연꽃위에서 태어난 자)를 중심으로 자그마하게 차린 불전이 전부이며 침대도 바로 불전 앞에 좁은 공간에 놓여 있었다. 닉마파 스님들은 이렇게 자그마한 토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과 생활을 하는데, 수행은 경전 암송과 명상을 통해서 하고 정기적으로 큰스님에게 점검을 받는다 한다. 닉마파 스님들은 주불로 모시는 파드마삼바바는 8세기경 아직 티베트지역에 불교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인도 쪽에서 건너와 불교를 정착시킨 분으로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분이다. 이때 들어온 불교의 성격은 탄트라적 요가, 명상, 수행법을 강조했고, 현재 닉마파 스님들은 그때의 수행방식을 가장 잘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곳에선 특이하게도 연룡사 주지스님이 출가 후에 결혼을 했는데, 이는 깨달은 자들 사이의 결속이라 하여 내외 스님이 함께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은 닉마파의 탄트라적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닉마파 스님이라고 해서 모든 이들이 다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다. 탄트라 수행에서 높은 경지에 이른 스님 중에 계시를 받아 불법의 결혼을 한다. 이는 수행을 더 높은 과정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밤이 찾아오자 추위가 시작됐다. 추양줘마 스님은 염불 삼매경에 빠져 추위를 잊고 염불에 여념이 없다. 문득 나의 수행이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바쁜 포교활동에 젖어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핑계로 정작 끊임없이 정진해야할 부처님의 길을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날 밤은 추위와 번민에 쌓여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들 수 있었다.

아침이 되어 예불에 동참하기 위해 밖을 나와 보니 온통 새하얗게 눈이 쌓였다. 일행인 오 선생은 간밤에 추위에 시달려 몸이 회복이 안 되었지만 몸을 추슬러 예불을 보고 다시 써다에 있는 오명(五明)불학원을 방문할 차비를 하였다.

오명불학원 입구에서는 신분증 검문을 하고 있었다. 동티베트 지역은 아직도 티베트 독립의 열망이 강한 곳이다. 스님들이 하나하나 모여들어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의 입소문으로 외국인들의 출입이 점차 빈번해지고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99년경부터 중국정부가 출입 통제를 강화



1만여 채의 토굴로 이루어진 오명불학원.


오명불학원 법당 신발장에 1천개가 넘는 신발이 가득하다.

"우리는 서로 간에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곳을 향해 정진하고 있으니까요.
길이 다르다 해서 목적지가 틀린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제는 지금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한다는 것이겠죠."

일붕선교종 재건을 위한 구종 선언문

삼보에 귀의하옵시고
우리 일붕선교종 종도들은 작금의 종단사태를 보고 더 이상 수수방관만 할 수 없어 일붕선교종 재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종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첫째, 일붕선교종 종도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중앙종회를 해산하여 종헌 종법의 일부기능을 정지시킨 채 약5년간 비상종단 체제로 종단을 파행적으로 운영하여 온 것은 종도들을 우롱한 아주 잘못된 처사입니다.

둘째, 일붕존자 원적(圓寂) 당시에 물의를 일으켜 문제가 아주 많았던 이 법우스님을 일붕선원 주지는 물론 일붕선교종 총무원장으로 발탁하여 종무행정 최고책임을 맡기신 것은 열반하신 일붕존자에게 우리 일붕종도와 일붕문도 전체가 다 함께 죄를 짓는 것이었기에 봉암 종정께서는 이법우 스님을 즉각 해임조치하시고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맡을 임시 총무원장서리를 바로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루속히 중앙종회 위원 총선거를 실시하여 신임 총무원장 등을 새로 선출하고 전체 종무기구를 정상화하기 바랍니다.

넷째, 일붕선교종의 입종과 탈종은 전적으로 각 사암의 자유이며 고유권한이고, 종헌종법에 명시된 각 사암의 창건주 권한도 절대로 제약을 받을 수 없고, 또 각개 사찰의 재산권도 종단에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종헌종법을 위배하여 일붕선교종을 기히 탈종한 모은사를 탈취코져 기도한 것은 전적으로 종단 현 집행부의 잘못이므로 종단에서 파견한 모은사 주지와 부주지를 즉각 소환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개 사과를 봉암 종정스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봉암 종정스님도 타 종단 소속 승려가 우리종단 운영을 좌지우지하여 종단이 파행적으로 잘못 운영되어 온데 대하여 그 책임을 통감하시고 새로 선출된 중앙종회에서 재신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1(2007년) 5월 15일

현원로의원 청곡
현원로의원 동명
현종정사서실장 현각
현총무원부원장 혜관
현총무원기획실장 송암
현포교부장 덕암
현경남종무원장 일선

전총무원장 법철
전사정원장 일암
전교육원장 법운
전총무원부원장 무정
전포교원장 법원
전규정국장 종호
전교무부장 지연
전중앙종회의원 상묵
전총무원기획실장 진소
전사정부장 청운
전종정상임고문 대장

외 종도일동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아요"



독립의 등불 밝히는
그들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열정에 경의를…

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2003년도에는 탱크를 몰고 2000~3000여 개의 토굴을 밀어버렸다는 것이다. 나중에 샤허에서 만난 한 핀란드인도 2년 전에 이곳을 방문하려 하였으나 출입을 막아 결국 발길을 되돌리고 말았다 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산자락을 등에 지고 서 있는 커다란 일주문 만 보이니 불학원이나 사찰이 어디 있기는 한 것인가 의아심이 든다. 입구를 지나 황량한 민둥산을 타고 돌아서 앞을 보니 갑자기 입이 벌어지는 광경이 펼쳐진다. 여러 개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산등성이 마다 고만고만한 집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것이 마치 예전 서울의 달동네를 보는 것만 같다. 이것들이 모두 스님들이 수행하는 토굴이라는데 그 규모가 1만 여 채에 이른다고 한다.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가장 큰 불학원인 오명불학원이다.

티베트에서는 부처님 모시는 사찰을 가장 높은 곳에 짓는다 하여 보통 산정상이나 산자락에 사찰이 자리 잡는데, 아무튼 나무하나 제대로 구경하기 힘든 이 척박한 고지에 어떻게 이런 대규모의 불학원이 건설되었는지 놀라울 뿐이다. 일부러 찾아와 오직 수행정진에 여념이 없는 이 많은 스님들 앞에 고개가 숙여졌다. 대법당에 이르니 입구에 설치된 신발장엔 신발들이 넘쳐나는데 신발수를 헤아려 보아도 1천명은 족히 넘게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안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이 많은 스님들은 학원내의 스님들 중 일부일 뿐이고 대부분의 스님들은 토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 중이라 한다. 특히 명상수행 할 때에는 외부 인사를 전혀 만나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머리도 중간에 깎지 않고 출입을 금하며 식사공양 외에는 오직 각자의 밀교수행에 전념한다 한다. 이곳에서 한 스님의 토굴을 방문하였는데, 워낙 토굴이 빼곡히 들어찬지라 겨우 한사람이 지날만한 골목을 통해 역시 2평 내외의 최소한의 공간만을 확보한 채 스님들은 구도의 길을 가고 있다.

넓디넓은 불학원 내에는 상점, 서점 등 수행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더욱 저렴하고 질도 좋아 연룡사 스님들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2시간 걸려 이곳에 와서 사간다고 한다. 닉마파 상점들을 지도부가 지원을 해주기에 가능한 일이란다.

산 정상에는 '탄천'이라 하는 거대한 탑이 있는데 스님들과 불자들이 탑을 돌며 기원과 기도를 드린다. 이 탑 정상에는 탄트라상, 즉 남녀합일상이 모셔져 있는데 신심이 없는 이에게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 한다. 밀교적 성격이 강한 불교종파 중에는 남녀합일을 중요시 하는 곳이 있는데, 이를 오해하고 외설적이거나 사이비적으로 보기 쉽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남녀합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깨달음의 차원인 것이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쾌락적 차원이 아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여 그것을 부정하거나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랑무스에서 만난 스님은 종파 간에 갈등이 없는 지에 대해 물었을 때 대답한다.

"우리는 서로 간에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곳을 향해 정진하고 있으니까요. 길이 다르다 해서 목적지가 틀린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제는 지금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 종파가 틀리고 양식이 틀리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자비 넘치는 사회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던가.

저 너머 산 정상에 가득 뒤덮인 타르초(부처님말씀을 새긴 오색천)들이 바람이 휘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산을 내려 왔다.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리면
민족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에 사비를 털어서
헌신적으로 이 학교 운영에 힘쓰는 것이다.
마을에도 그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 모두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지켜나가
언젠가는 독립의 날이 오기를 염원하기에
이렇게 작은 씨앗이나마 뿌려두는 것이리라.

홍위엔(紅原)에서 싹트는 작은 희망

써다에서 마얼캉으로 돌아와 1박을 한 후 홍위엔을 향해 출발했다. 청두에서 마얼캉으로 버스로 이동하는 중에 만난 게빠는 탕카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화가이다. 동시에 그는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한다는데 우리에게 복사지에 인쇄한 팸플릿을 건네주는데 거기엔 사비로 운영하는 무료학원이 자금난으로 지원을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헤어지면서 꼭 한번 홍위엔에 들르라는 말에 어차피 랑무스로 가는 길에 위치한 곳이라 겸사겸사 들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구름 한점 없는 하늘아래 끝 간 데 없이 펼쳐지는 이 초원은 루얼가이를 지나 랑무스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수많은 야크와 양 때들이 풀을 뜯기에 여념이 없다.

마얼캉의 장족들은 하나 같이 이목구비가 매우 시원시원하고 피부는 햇빛에 그을려 거무스름하고 눈매는 번뜩인다. 때문에 아무런 말없이 시꺼먼 얼굴에 번뜩이는 눈매로 쳐다보고 있으면 마치 금방이라도 위해할 것 같이 무서워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에게 간단히 인사라도 하고 눈웃음이라도 지어 보이면 그들은 금새 환히 웃으며 순박함을 보인다. 장족들은 외부인일지라도 서로 마음을 트고 만나면 이내 집으로 초대를 하고 융성한 대접을 해준다. 마치 오래전 우리네 고향의 인심을 만나듯 이런 그네들의 모습이 너무도 좋았다.

게빠가 사는 곳은 홍원에서 차로 30분정도 떨어진 와치샹이란 곳이다. 4살, 5살의 어린 아이부터 성년이 다된 청년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반을 나눠 30여 명이 공부하고 있었고 100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 한다. 이곳에 교장은 빅마스촨이란 젊은 스님인데, 역시 써다에서 수행한 후 이곳에서 게빠와 함께 티베트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다 한다. 이곳은 중국어, 티베트어, 그리고 탕카를 가르친다 한다. 학교 재정은 스님과 게빠가 직접 돈을 벌거나 후원을 받아서 충당한다. 게빠는 이번에 청두에서 한 달여간 탕카 작업을 한 후 돌아온 것인데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바로 학교 운영에 사용된다. 게빠가 돌아온 후 이번엔 빅마스촨 스님이 후원을 받으러 북경에 갈 예정이라 한다. 와치샹 중심부에는 분명 제법 큼직한 학교가 있는 것을 목격한 나로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이 학교를 운영하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물으니 그곳은 중국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공식적으로 티베트어나 티베트문화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리면 민족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에 사비를 털어서 헌신적으로 이 학교 운영에 힘쓰는 것이다. 마을에도 그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 모두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지켜나가 언젠가는 독립의 날이 오기를 염원하기에 이렇게 작은 씨앗이나마 뿌려두는 것이리라. 그들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미약한 도움을 약속했다. 개인적으로 이들이 어서 빨리 자신들의 권익을 되찾고 최소한 완전한 자치권이라도 되찾아 진정한 자유 속에서 불국토를 이루기를 바랄 뿐이다.


달라사 앞에 당간과 같이 서 있는 타르초

루얼가이-절을 찾은 당원들

랑무스를 가기 위해선 루얼가이를 경유해야 한다. 청두를 출발해서 지나온 도시가 모두 그렇듯이 루얼가이 역시 도로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작은 도시이다. 그 끝자락에 달라사란 절이 있다. 이곳에 새로이 지어진 박물관이 있는데 1층엔 경전을 비롯한 각종 서적들이 비치되어 있고, 2층에는 티베트인들의 문화유산이, 3층에는 티베트불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처음에 이곳을 들어가려 하니 문이 잠겨 있고 한 스님이 30분 정도 지나서 다시 오라한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에 왜 문이 잠겨 있는가 싶고 나중에 다시 오라는 건 또 뭔가 싶어서 절을 둘러보고는 다시 가 보니, 아까 그 스님이 이젠 들어와도 된다고 한다. 박물관을 관리하는 스님인 듯한데, 장소를 친절히 가르쳐 주고, 중요한 서적도 짚어줬다. 이때 갑자기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공산당 간부들이 단체로 견학을 왔다. 당의 지원을 받아서 박물관을 지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 지어진 박물관을 말 그대로 견학을 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간부들이 티베트 사찰에 견학을 온다는 것 자체가 이색적이다. 중국이 종교적, 문화적 유산을 관광사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 드는 경향이 많지



만, 현재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도 그동안 감춰졌던 불교를 비롯한 종교적 열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란조우의 오천사는 사찰 내에 놀이 기구도 있고, 성도의 소각사의 경우 출구를 통과하면 바로 동물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문수원 같은 경우는 경내에 식당과 정원이 꾸며져 있고 주변 거리에는 관광상품점, 식당, 경극극장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런 면모가 다소 불경스러운 면도 있고, 소란한 점도 있지만 중국과 같이 오랜 기간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종교를 배척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면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리라 생각한다. 사실 중국이 그 오랜 역사에 걸쳐 쌓아온 풍성한 불교적 뿌리와 자산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 내에서의 불교의 부흥의 순간도 그리 멀지 않았다고 본다.

■ 동두천 중화사 주지

담 화 문

귀의삼보하옵시고
제방의 고승대덕 큰스님과 사해불자 여러분, 그리고 일붕문도와 일붕종도 여러분!

불초(不肖)한 노납(老衲)이 부덕(不德)하고 암둔(暗鈍)하여 작금(昨今)의 저의 일붕선교종 사태을 빚게 되어 정말 유감(有感)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 노납은 저의 종단을 걱정하는 많은 종도와 문도들이 참여한 "일붕선교종 재건을 위한 구종 선언문"을 접하고는 저의 종단이 그 동안 정말 잘못 운행되어 왔다는 것을 통감(痛感)하고 이렇게 담화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일붕선교종 재건을 위한 구종선언문에서 가히 지적한 바와도 같이 첫째, "일붕선교종 종도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중앙종회를 해산하여 종헌 종법의 일부기능을 정지시킨 채 약5년간 비상종단 체제로 종단을 파행적으로 운영하여 온 것은 종도들을 우롱한 아주 잘못된 처사"라는 것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07년 5월 18일자로 비상종단 체제를 해제하고, 앞으로 조속히 선거를 실시하여 종도들의 대의기구(代議機構)인 중앙종회를 구성하여 종헌종법도 복원하고 모든 종헌종법 기구를 다 정상화하겠습니다.

둘째, 비상종단체제하에서의 위임되고 전결(專決)된 종정의 권한은 비상종단체제 해제와 동시에 종정에게로 환수하고 비상종단체제하에서 시행되었던 여러 사안(事案)들 중 잘못된 부분은 새로 구성하는 중앙종회에서 이를 조사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임(現任) 이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을 위배하여 보임(補任)되었다는 지적을 인정하고 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었기에 전체 종도와 문도들의 화합차원에서 07.5.17일자로 총무원장 직에서 해임하고, 현 사태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전 총무원장 법철(속명 노영남)스님을 신임 총무원장서리로 임명합니다.

넷째, 07년 5월 18일 비상종단 체제 해제와 동시에 비상종단 체제하에서 사용하였던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인감과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정 직인 그리고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직인은 무효로 하고 새로운 인장을 대체 사용하겠습니다.

다섯째, 저의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재단의 입종 등록은 사찰재산의 헌납을 기본으로 하기에 한번 입종하면 탈종을 할 수 없지만 저의 종단의 입종은 사찰재산의 헌납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명의등록이기에 입종과 탈종은 전적으로 각 사암의 자유이며 고유권한이고, 종헌 종법에 명시된 각 사암의 창건주 권한도 절대로 제약을 받을 수 없고, 또 각개 사찰의 재산권도 종단에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번에 야기된 모은사의 사태는 전적으로 이 총무원장의 판단 착오에서 빚어진 잘못된 사태이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태 내지 이와 같은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야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보고 어느 종도가 종단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 이러한 사태가 다시 유발된다면 그것은 바로 종단이 자멸하는 길이기에 다시 한번 일붕종도 일붕문도 여러분에게 깊이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여섯째, 저의 종단에서 03년에 실시한 사찰 재 입종 및 승니분한 신고시에 인위적으로 탈루(脫漏)가 된 사암이나 사부대중 불자님들이 계신다하니 이는 정말 잘못된 종책(宗策)이라 아니 할 수 없기에 이번 기회에 화합적인 차원에서 문호(門戶)를 개방하여 다 구제토록 하여 일붕존자 재세시와 같이 종단을 부흥시키겠습니다.

일곱째, 타 종단 소속 승려가 우리종단 운영에 관여하여 종단이 이렇게 잘못된데 대하여 노납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타 종단 소속 승려가 다시는 일붕선교종 종단에 기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은 물론 새로 선출된 중앙종회에서 이 노납도 재신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불기 2551(2007년) 5월 18일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봉암장연종 (직)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밝은 달을 향한 손가락

생로병사. 이 단어에 인간의 삶이 다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도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고통을 초월하기 위해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고통을 떨치고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는 길을 찾았습니다. 부처님이 일생동안 설하신 모든 가르침이 바로 우리에게 밝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을 보는 시간보다 손가락만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은 아닐까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雉岳山龜龍寺
原州佛敎大學
住持 慈光(遠行)
■ 우)220-831
강원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
TEL 033)732-4800
FAX 033)732-1211
E-mail guryongsa@hanmail.net

대한불교본원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삼각산 연화정사
주지 대화
사부대중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6
TEL 02)379-1965

대한불교조계종
봉 국 사
주지 효림
사부대중일동
■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216-2
TEL 031)755-0329

조계종범패어장
동주 원명스님계신
홍 원 사
■ 서울 강서구 가양1동 226
TEL 02)2658-3100
FAX 02)2063-3344

보 타 사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보타사
TEL 02)928-2074

대한불교조계종
내 원 정 사
주지 현문
사부대중일동
■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88번지
TEL 02)814-5502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
■ 인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2-5
전화 032)933-8234
연요리 전문점
■ 전화 032)934-1944
한증막
■ 032)933-8985
※연냉면, 연 김 외 제품 20여가지 판매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주 세민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8-12
TEL 02)587-4677 / FAX 02)522-5666

정법도량 청소년수련원
대한불교조계종 **신 흥 사**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 42
TEL 031)357-2695, 357-3916

대한불교조계종
계룡산 갑 사
주지 태진
사부대중일동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TEL 041)857-8981, 8982
FAX 041)857-9753

대한불교조계종
안성 석남사
주지 정무
매월 첫째주 일요일 중심회 법회
매월 초하루 정기법회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번지
TEL 031)676-1444

대한불교조계종
정 각 사
주지 광우
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TEL 02)742-1231 /FAX 02)742-1235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주 진관
주지 계호
사부대중일동
부설코끼리유치원
■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TEL 02)359-8410

대한불교조계종
현 덕 사
주지 현종
사부대중일동
■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569
TEL 033)661-5878

대한불교조계종
봉 국 사
주 지 김월서
신도회장 구광명화
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 637번지
전화 02)919-0211~2/팩스 02)919-0216

대한불교조계종
전 등 사
주지 장윤
사부대중일동
www.jeondeungsa.org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TEL 032)937-0125 / FAX 032)937-5450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박종하
신도일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TEL 02)582-8609 / FAX 02)597-3510

남북통일기원 청동대불봉안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각 원 사**
주지 신법인
총무 서대원
신도일동
www.gakwonsa.or.kr
■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98-83
TEL 041)561-3545
FAX 041)556-1425

대한불교조계종
내 소 사
선원장 철산
주지 진원
사부대중일동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TEL 063)583-3030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주 대궁종상
주지 성행
신도회장 김무량화
사부대중일동
부설 :정신지체장애인 복지시설 녹향원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번지
TEL 031)426-2348, 2221
FAX 031)426-3666

대한불교조계종
염 불 암
주지 성직
신도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산17
TEL 031)471-2300

대한불교조계종
등명낙가사
주 지 이청우
가섭회장 최종명
금강회장 이상숙
신도일동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1리
TEL 033)644-5337

약사여래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불 토 사**
사부대중 일동
황토약초방 운영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TEL 033)343-0103

한국불교태고종
향 림 사
주지 법공
사부대중 일동
www.hlsa.net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177-215
TEL 032)662-9596

대한불교원융종
대 덕 사
주 지 설봉성인
신도회장 무량화 윤정식
총 무 법성화 이상님
부천남부경찰서
경성협의회회장 문희부
법우회 일동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325-35
TEL 032)664-5545

대한불교조계종
백 화 사
주지 일법
사부대중일동
■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의상봉길 84-4
TEL 02)381-9103~4 / FAX02)381-9105

재단법인선학원
인 과 선 원
주지 정덕
신도일동
■ 서울시 노원구 월계 4동 657-2
TEL 02)907-3706

대한불교 미륵정토종
미 륵 정 토 사
사부대중일동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389번지
TEL 041)855-3566~7

운봉산 광운사 서울포교원
광 운 정 사
주지 청운
부설 광운불교대학
광운사 033)433-9108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87-10
TEL 02)381-8966

북한산 형제봉
옥관음굴 심 곡 암
봄 → 산꽃축제
가을 → 단풍축제
주지 원경
신도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산1-1(국민대 버스종점 앞)
TEL 02)914-8860



대행스님

한마음의 불씨는 우주를 쓸어안고도 남음이 있어!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법회를 시작하겠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주지 스님이나 여러 스님들한테 여쭤보시고 또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셔서 잘 지도 받기를 바랍니다. 주지 스님한테 여쭤보시면 초발심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게을리 하지 마시고 늙었으나 젊었으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마음의 차원을 기르지 못한다면 그 모습은 또 좌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직껏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다는 것을 하다보면 스스로 아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도 그 한 티끌 같은 불씨가, 마음의 불씨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사방천(四方天)을 밝히고 오온이 스스로 밝아서 돌아가고 그러지 못하셨을 겁니다. 오온이 밝아서 스스로 돌아가니 칠보가 가득 차서 어디에고 손이 안 닿는 데가 없고 어디에고 발이 안 닿는 데가 없고 눈이 안 닿는 데가 없고, 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보물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는 거죠. 모든 일체 유생 무생(有生無生)을 조화로써 한 점의 상투 끝 동곳에 바로 그 빛을 가지시고 우리들한테 항시 비춰주시는데도 여러분이 몰라서 항상 그렇게 헤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우리 마음의 불씨를 밝혀서 그 줄을 잡으면, 그 줄을 잡는다는 것은 반야줄이라고도 하고 일심줄이라고도 합니다. 또 예전에 말씀하시기는 여의주라고도 했습니다. 그 여의주를 잡지 못하면, 모든 걸 여의고 줄을 잡지 못한다면 금강주를 얻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금강주에 의해서 화광주나 서광주나 흑광주, 야광주, 이 다섯 가지의 광주가 한데 합쳐서 스스로 돌아가는데, 금강주를 얻지 못한다면 이 우주의 삼라만상 또는 보이지 않는 생명들, 보여지지 않는 모습들, 그 천차만별로 돼 있는 중생들을 한생각에 건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고 감이 없이 늠름하신 부처님의 뜻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금강경 한 번을 제대로, 천 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첫머리, 중간, 끄트머리 이 세 마디만 보면 벌써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고 천 독을 하고 삼천 독을 한다 한들 그건 헛 읽은 것입니다. 그런 걸 비유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여기에 지금 컵도 있고 안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경이다 컵이다 이러는 것은 이름이고 모습일 뿐이지 속의 진의는 무엇이냐는 얘깁니다. 모습과 이름이 헛거가 아니지만 여러분 앞에는 헛거예요. 왜 헛거냐? 사람이 한번 생각을 잘 돌려서 그것을 깨달으면 그게 법륜(法輪)이 스스로 굴러서 바로 법의 양식이 되고 그대로 실상의 법의 도리가 되지만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깨치지 못해서 항상 그거를…. 그러니 중생이라고 부르고 사량이라고 하고 또는 아무리 굴리려 해도 아니 되니까 자유인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떠한 것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란 얘깁니다. 스스로 자기가 사람 되기 위함이요, 사람 노릇 하기 위함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기 위함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게 나투기 위함이야. 그래서 공생(共生)·공용(共用)·공체(共體)로서 같이 돌아간다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지 '우리가 무엇이 된다 안된다, 나는 이만큼 알았으니까 성문이다, 연각이다, 무슨 보살이다.' 이런 문제가 거기 붙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단, 그 한 티끌과 같은 한 불씨에 바로 금강주는 있는 겁니다. 오관을 통해서, 이 오관을 통하면 그것이 가고 옴이 없이 보는 천체망원경이니, 이런 문제가 거기에 붙어 돌아가죠. 항상 얘기하지요. 오신통(五神通)이라는 것은 지금 시쳇말로 이름들이 다양하게 붙었고, 전자에는 전자대로 오신통을 천안통(天眼通)이니 천이통(天耳通)이니 타심통(他心通)이니 숙명통(宿命通)이니 또는 신족통(神足通)이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발달이 돼서 과학적으로 나온 말 좀 보세요. 컴퓨터니 천체망원경이니 또 천체영사기니 책정기니 탐지기니 무선통신기니…, 이것이 다 오관을 통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쳇말로 해도 전자에 있던 말과 똑같은 얘기죠. 그 말도 아니고 그 말도 아니고 바로 나한테 있다는 얘깁니다, 모두 각자. 나라고 손짓한다고 해서 나인 줄 아시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다 소소영영하게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론하지 않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오십 가지 물감과 종이 한 장을 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한 장을 놓고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십 가지 물감이 다 한 붓에 쓰여집니다. 물 그릇 하나를 놓고 찍고 씻고 또 씻고, 여러 물감을 쓰려면 씻어선 또 찍어서 쓰고 이럽니다. 어떻겠습니까? 참 묘하지요.

그러면 진짜 물감은 어떤 걸까요. 또 진짜 물감이 없기 때문에 소소영영하게 찍어다 쓰면서도 하나 쓰면 하나 씻고, 하나 쓰면 하나 씻고 맹물에다가 연방 씻어가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소영영하면서도 한 장에다 조화 있게 그려놓은 거를 누가 그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여러 가지를 그려놓고 자기가 그렸단 말을 어찌 하겠습니까. 또한 자기마저도 공(空)했어. 물감 오십 가지가 다 공하고 보니까 자기마저도, 그린 사람마저도 공했으니 어찌 '나'라고 할 수 있으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이루어진 것을 어찌 나만이 했다고 할 수 있으랴 해서 "얘들아, 보거라. 너희들은 그대로 공했느니라. 즉 공(空)이며, 즉 색(色)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는, 그 단 두 마디 그걸 깨치지 못해서 우리는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찰나찰나 말을 하면서 행하면서 또, 봐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관을 통해서 책정을 하는 거는 내 마음입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거는 자기 한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겨났나? 여러분, 수없는 억겁을 거쳐오면서 여러 생명들과 친우같이 뭉쳤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가지고 이 몸뚱이라는, 한 인간이라는 선장이 선출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도 많고 물질도 많습니다. 가지각색으로 생긴 것, 촌충이니 세균이니 뭐 생김생김이 얼마나 다양하게 생겼으면서도 소임을 제각기 아주 정교하게 맡아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정맥이니 동맥이니 하는 것도 다들 그렇게 다양하게 맡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대표자인 선장은 누구냐? 여러분, 사람이라는 그 한 마디의 마음입니다. 한 점의 마음입니다. 그 생명이 한데 합쳐진 대표인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잘 이끌어가지고 나침반을 잘 놔서 책정을 잘해야만 오신통을 제대로 굴리는 겁니다. 오신통을 제대로 부린다 이거야. 내가 오신통에 말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신통을 제대로 부린다는 얘깁니다. 그 오신통을 제대로 부려야 바로 거기에서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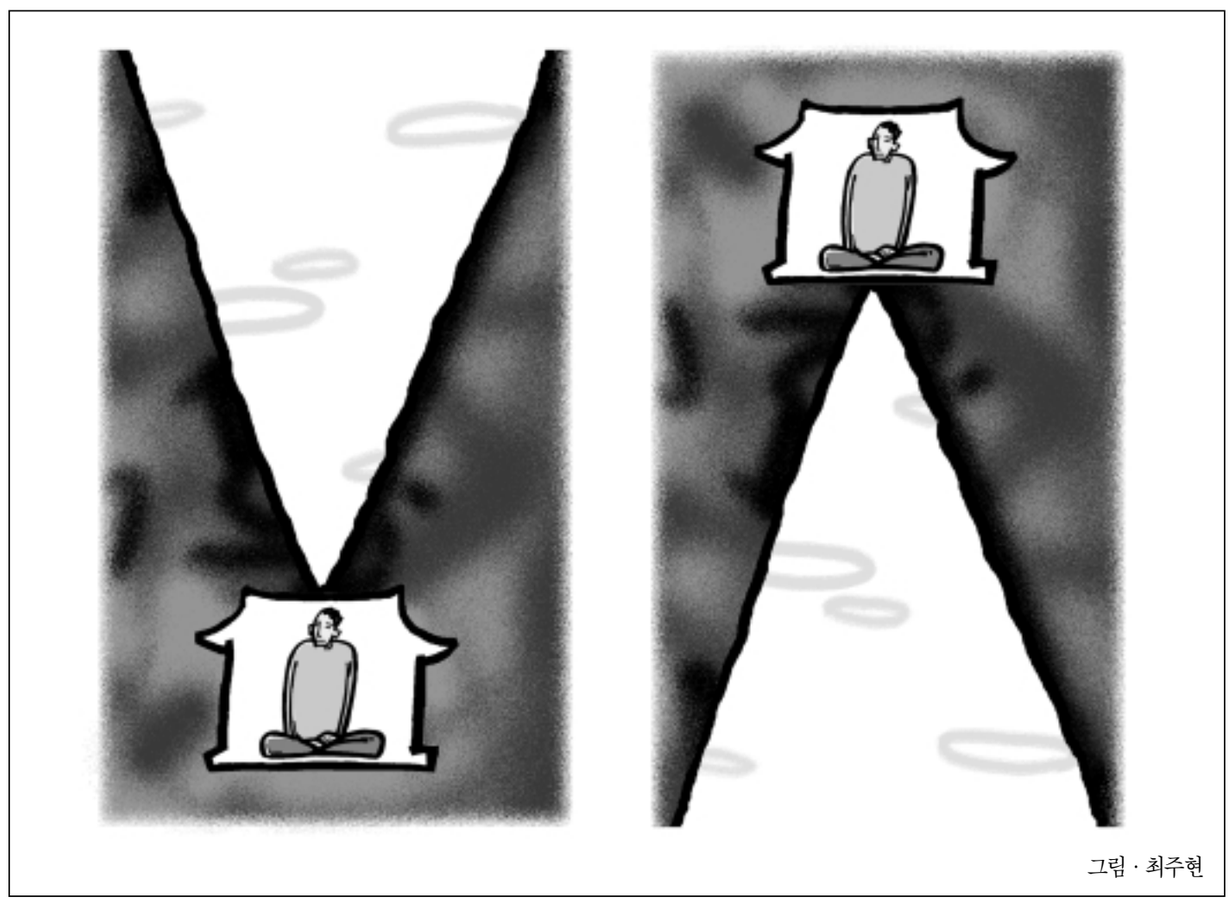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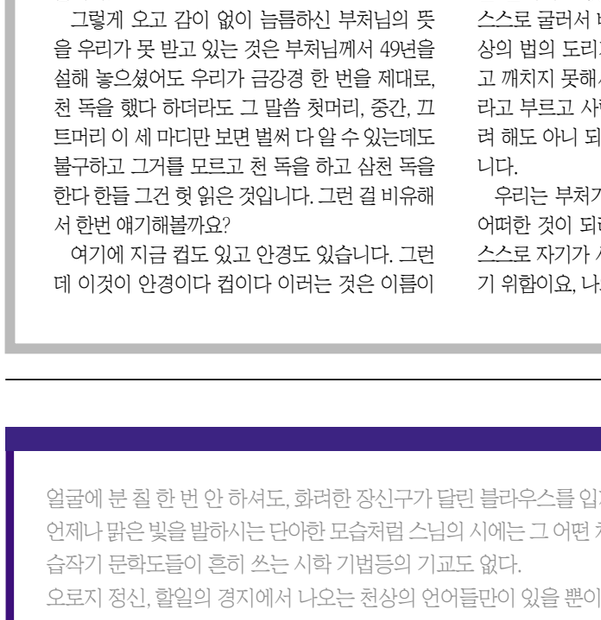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얼굴에 분 칠 한 번 안 하셔도, 화려한 장신구가 달린 블라우스를 입지 않으셔도,
언제나 맑은 빛을 발하시는 단아한 모습처럼 스님의 시에는 그 어떤 치장도 보이지 않는다.
습작기 문학도들이 흔히 쓰는 시학 기법등의 기교도 없다.
오로지 정신, 할일의 경지에서 나오는 천상의 언어들만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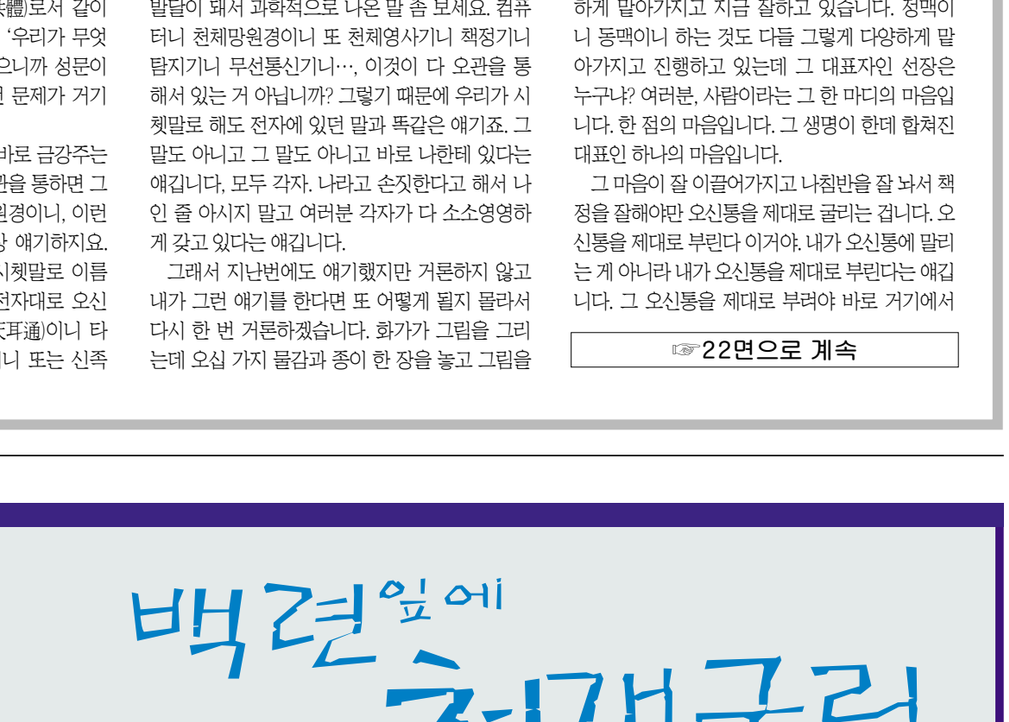
다 쓰고 난 후 갈고 다듬는 작업을 하시기보다는 무녀가
예행연습 없이 굿을 하여 중생의 한을 풀어주듯,
가슴속에 가득 담긴 불심의 언어들을 일필휘지로 풀어내시는데 있다,
막힘없이, 물 흐르듯 읽히는시!!



백련잎에 청개구리

정심 보덕스님 詩集

천정무구의 부처님의 귀한 법문(백련)을
경청할때는 부처가 되었다가 돌아서면 중생되는
불자의 마음 자리(청개구리)를 시로 표현한
보덕스님의 명상시집.



물질만능주의에 찌들고, 지쳐가는 모든 중생의 마음의 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집을 꾸미게 되었다는 보덕스님, 지리산 함양에 위치한 견불사에 오늘도 한결같이 오가는 불자들에게 변함없는 메세지를 전한다.

정심보덕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119쪽 / 값 10,000원

판매처 055)962-3931 / Fax 055)962-3920 지리산 견불사(실상선원)

우리는 영원한 인등을 항상 켜고 있는 겁니다!

☞21면에서 계속

금강주는 빛이 밝고 또 거기에 하나만 모자라도 아니 되기 때문에 야광주도 필요하고, 흑광주도 필요하고 서광주도 필요하고 화광주도 필요하고. 다섯 가지의 광주를 금강주가 몰아서 같이 굴러가면서 하기 때문에 금강주가 제일이다 할 수도 없고 야광주가 제일이다 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눈이 제일이다 할 수도 없고 귀가 제일이다 할 수도 없고 몸이 제일이다 할 수도 없고, 어떤 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부 한데 합쳐서 금강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강주에는 모든 일체의 부처와 조사와 중생들이, 보이지 않는 중생 보이는 중생들이 다 그 안에 들었거늘 어찌 자꾸 이것저것 찾으면서 바깥으로 헤매고 돌아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말하자면 문화적으로 볼 때도 예전에 선조들이 해놓으신 것이 유래가 되고 또 보물이 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침이 되고 주춧돌이 되고 방편으로도 되는데 그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거 하나하나가 그 한 점에 다 있으니 각각 보지 마라 이 소립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 "모르는 중생은 과거의 나였고 아는 부처는 현재의 나요"

왜 각각들 봅니까. 미륵보살이니 관세음보살이니 각각 보고 전부 각각 행하니, 동서(東西)가 둘이라고 자꾸 볼 수밖엔 없겠지요. 그러나 동서는 둘이 아닙니다. 바로 한 점에 동서가 다 들어 있으니 동서를 따로 찾지 말고 물질을 따로 찾지 말고 따로 보지 말라는 얘깁니다. 소소영영하게 물감을 꼭꼭 찍어다가 쓰면서도 다시 씻고 또 찍고 다시 씻고 이렇게 하는 그 소소영영함. 우리 지금 살아서 돌아가는 이 생활 자체가 바로 소소영영하면서도 그것이 한마음의 뜻으로서 금강주에서 나가는 일이라 이 소립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아신다면 삼천 년 전에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중생들에게 설법하신 그 자리나 우리 오늘 여기 이 자리나 앞으로 올 자리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깥에서 지금 물질과 모습과 이름만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 속의 진의를 모르고 50%의 미완성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편안함을, 편안하면서도 자유스러운 거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진짜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거는 이 몸뚱이가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몸뚱이가 오고 가려면, 우주정거장 하나 세운다 한다면 수십 년 동안 만들고 폐하고 또 만들고 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없이 고난을 겪고 실험을 하고 재정을 무수히 들여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놓여 있는 판국입니다. 그리고 여직껏 했다는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경쟁에 의해서, 억겁을 거쳐서 경쟁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그 습이, 아직까지도 꼭지가 덜 떨어져서 사람을 죽이려고만 하는 물건을 확대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그 한 점에, 살리는 칼도 있고 죽이는 칼도 있는데 여직껏 살리는 칼이라고 하면서도 죽이는 칼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는 그런 태평성대의 중도에서 그 빛이 온 누리를 비춰서 평등하게 혼동이 오지 않도록 하면서 잘 이끌어나갈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는 진리를 숭상하면서 우리가 한마음의 불씨로써 만법을 응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적으로도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물질과 모습, 이름을 겸해서 응용하지만 무슨 삼강오륜이다, 손자병법이다, 호국불교다 하는 게 다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광주를 가지고 굴리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 그러니 우리가 앉아서 지금 세계를 보듯이, 앉아서 전부 응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해서 예전에 선조들이 구룡이라고 써놨듯이, 그것은 삼광주를 얻었기에 스스로 용(用)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용으로 그려놓으면 용인 줄 알고 거북이로 그려놓으면 거북이로 알지 마십시오. 종이와 먹으로 사람이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다 그림이자 모습일 뿐이지만 그 속에는 숨은 우주의 법칙이, 그대로 열쇠가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디고 열쇠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방천이 밝았는데 어찌 칠보가 가득 차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어찌 아니 닿는 데가 있으랴. 너 아님이 없으니 어찌 중생 부처가 따로 있으랴. 모르는 중생은 과거의 나였고, 아는 부처는 현재의 나요, 미래의 부처들은 바로 미래의 나이니라. 그러니 부처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나 아님이 없으니 작은 데는 작은 그릇대로 들어가주고 큰 그릇에는 크게 해서 들어가주고. 그러니 안 맞는 데는 하나도 없어.

그렇게 둥글게 모든 게 다양하게 맞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인등을 항상 켜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오늘, 오늘조차도 내세울 수 없는 내 마음의 등불, 이 등불로 앞장을 설 수 있고 밝혀줄 수 있지만 이 등불이 없다면 컴컴한 암흑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돌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로 억겁을 거쳐온 그 습을 하나도 떼지 못할 겁니다.

종 문서는 내려놓고 다니나요? 짊어지고 다니지. 작년 콩씨를 심었을 때 그 콩나무로 다시 화(化)한 것뿐이지. 그리고 콩나무는 콩씨를 또 짊어지고, 보이지 않는 콩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 문서를 짊어지고 다니는 거지 과거의 업이 있어서 짊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과거의 나를, 나 나기 이전을 찾지 말고 나 있는 데서 찾으라는 거야. 모든 화두도, 자기가 나왔기에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지 자기가 그대로 그릇이 빈 그 자체가 바로 화두며 자기가 거기에서 한 점의 불씨를 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딴 데서 오는 것같이, 딴 데서 주는 것같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자기 불씨가 밝아져야 그 불씨를 보고서 부처님께서도 같이 한마음이 돼주시겠지만 암흑세계에서 그대로 돌고 부처님의 불빛을 보려고 안 하는데 어찌 부처님이 자꾸 도망가는 놈을 붙잡아다가 '이 불빛을 봐라, 불빛을 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자식을 기르고 계시지만 자식을 기르는 데도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말로 하고 모습으로 야단을 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이름 해서 그 한 점의 마음에다 전화통 돌리듯이 거기다 맡겨 놓고 '아, 내 한마음이 바로 애의 한마음이니 내 한마음이 이러한데 애의 한마음도 자기 육신을 끌고 길잡이가 돼서 잘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진짜로 믿으면 그대로 나와 같이, 내 맘과 같이 생각한다면 잘 갈 것을, 괜히 말로 욕하고 때리고 온통 야단을 벌이니까 집안만 혼란해지고 일은 일대로 제대로 안되고 가정은 파괴가 되고 언제나 상을 찌푸려야 하고 그러니 복은 들어오지 않고 공덕도 될 수 없고 이러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또, 그거 한 가지뿐만 아닙니다. 업보니 인과니 유전이니 또는 우환이니 이러한 문제 등등, 또 병고니 팔자 운명이니 이런 거 모두 여러분이 지어서, 모든 게 지어서 오는 것이지 누가 갖다 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정신을 차려서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 여러분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것도 이름이라고 깔보려거든 아예 당신 이름을 불러! 성을 부르든지!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다 당신이 이날까지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하고 안되는 일도 네가 알아서 하고 잘되는 일도 네가 알아서 해! 안되는 거 되는 거 다 거기다 놓는다면, 맡겨놓고 참 믿는다면, 물러서지 않는다면 바로 거기에서는 홀연히 자기의 생명수의 근원이 스스로서 나올 거라고.

> "미래의 부처들은 바로 미래의 나이니 부처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자기가 자기 길잡이가 돼야지 남이 길잡이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초발심에서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길잡이, 그리고 내내 길잡이입니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있다, 둘이 있다, 또 육신이 꼭 와줘야 된다, 가줘야 된다 이런 모든 걸 떼십시오. 육신은 고달픈 거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마음의 그 불씨는 우주를 쓸어안고도 남음이 있는가 하면 다양하고 편리하게 달나라에 가려 해도 감이 없이, 오고 감도 없이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즉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조화를 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고 그러한 열쇠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고 오는 데도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보는 것만이 도가 아니니라. 듣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남의 속을 아주 잘 안다고 해서 도가 아니니라. 그것만 가지고 늘어지지 말아라. 착을 두지 말아라. 또 남이 지나내려온, 억겁을 거쳐온 숙명을 안다고 해서 도가 아니니라. 가고 옴이 없이 네가 맘대로 다닌다고 해서 도가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다, 네 마음을 깨쳤다면, 탄생했다면 그 다섯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안으로 보임(保任)을 다시 하면서, 다시 체험을 하면서 안으로 굴려서 다섯 가지도 다 익혀서 네가 부려야만이 그것이 바로 마음의 금강주로부터 누진을 통해서 다 부리는 것이고 그때는 진짜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하면 법신(法身)이요,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化身)이야. 그러니 보현 문수는 스스로 따르고 결국 자기, 자기라! 그래서 삼십이상(三十二相)이 그대로 밝아서 보살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보지 않으면 몰라! 물속에를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몰라. 딴 사람들처럼 물속에 뭘 입고 들어가 봐도 깊이나 알지 다른 데 깊이는 몰라. 쳐 생각하면 다 알도록 돼 있는, 알아도 아는 척 안 할 때에 하는 것도 모르게 할 수 있는, 누가 모르라고 그래서 모르는 건 아니거든. 모두 모르니깐 모르는 거지. 그런데 모르는 거를 또 알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깐 세계를 조절할 수 있고 우주를 조절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삼광주를 얻는다면, 삼각원형을 이뤄서 밝게 돌아갈 수 있다면, 즉 스스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천세계(大千世界)와 중천세계(中千世界) 소천세계(小千世界)를 한 손에 넣고 한 점으로써 모든 것을 다, 닿으면 닿는 대로 태울 수 있고 닿으면 닿는 대로 소소영영하게 코치할 수 있고 같이 돌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편리한 법인가를 여러분이 잘 증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86년 5월 18일

※위 법문은 1988년 12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 다운 공양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부처님 마음 이다' 그렇습니다. 생활속에서 화 안내며 안으로 녹이고, 항상 부드러운 말로 지낸다면 부처님의 나툼이 아닐까요. 서로를 배려하는 생활이 최고의 미덕으로 살던 우리들이 언제부터인가 '나'에만 너무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입니다. 우리 살림살이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로가 있어 행복하다고.

바른수행 바른깨침

법 기 선 원

선원장 **법 기**

사부대중 일동

서울 : 서울시 관악구 신림8동 1659-1 하마빌딩 3층
전화 02)854-1848
부산 : 부산 금정구 남산동 55-29 청룡빌딩 4층
전화 051)516-9104
www.bubkisa.or.kr

재단법인 선학원

삼각산 보광사

남산문도회

사부대중 일동

서울 강북구 우이동 76-19
전화 02)993-3808
팩스 02)993-6981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부설 영화유치원

회주 송월주 스님 外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9번지
전화 02)444-4321, 7215

삼 천 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
평산 성운 합장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산127-1
전화 02)359-7766, 353-3004

재단법인 선학원

양주경찰서 경 승 단

고문 **대 운**
실장 **용 하**
총무 **석 정**
재무 **귀 영**
위원 **법화 도일 청호 덕현 청일 원돈 왕산**
감사 **정오스님**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산 84-7
전화 031)857-7755

대한불교조계종

보 문 사

주 지 **정 오**
총신도회장 **유 재 덕**
신 도 회 장 **이덕인선**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1동 산 15-1
전화 031)865-3374

대한불교조계종

중 화 사

주 지 **청연 용하**
신도회장 **원명심**
부 회 장 **보현화**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산 30
전화 031)865-5520

서울중화사포교당

신도회장 **명 녀**
부 회 장 **덕신행**
재 무 **수월심**

전화 02)2299-8018

대한불교조계종

양주 오봉산 석 굴 암

주지 **오봉 도일**

수구성취다라니경 출판 및 CD출시
기념회를 원만히 회향하였습니다
동참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번지
031)826-3573
www.sukgulam.com

재단법인 선학원

반야보탑 지 장 사

주 지 **대 운**
신 도 회 장 **이광명화**
거사림 회장 **정각 정재섭**

경기 양주시 덕계동 산71-1
전화 031)863-1888, 864-1888

대한불교조계종

천 자 암

조실 **활 안**

사부대중 일동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읍상리
전화 061)754-3708 / 011-657-3785

대한불교조계종

내설악산 백 담 사

주지 **일 문**

산내암자 **봉정암**
오세암

사부대중일동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690 내설악산
전화 033)462-6969
팩스 033)462-3224

대한불교조계종

승 가 사

주지 **정 호**

대중일동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산 1번지
전화 02)379-2996

한국불교태고종

무 량 사

주지 **무 공**

태고종 중앙포교원장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
(태고)연구원 이사장

서울시 강북구 수유4동 584-14 12호
전화 02)904-0016, 0081

불교 지성인의 전당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학 장 **무진장**
이사장 **김재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반 야 회

회 장 **김재일**
사무국장 **구본설**
기획실장 **문종순**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전화 02)732-1206~8
팩스 02)732-1207

(사)대한불교무량종 인천지원

비 룡 정 사

주지 **박보산**

신도일동

인천시 중구 선린동 57-7
전화 032)763-1237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마음의 고향 농촌에 희망을...

I ♥ Farm 농촌사랑

지역주민과 서울 서부농협이 함께합니다.







서부농협 의 주요사업 안내

예금, 대출, 보험, 카드 등 – 신용사업

예금특판_ 정기예탁금 1년 확정금리 **5.3%**

판매, 구매, 하나로마트 등 – 경제사업

부녀회지원, 주말농장운영, 조합원가족 쉼터운영, 장학사업 – 교육지원사업

정원관리, 소독, 조경시설 및 조경수 판매 – 조경사업

하나로 마트 서강점 개점 을 축하합니다.
(2005.5.7)

農都相生

농업인의 꿈을 소중히 키우는
서울 서부농협

본점 :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전화 02)302-4321-3 망원지점 338-6711 홍은지점 394-0133 신사지점 388-8921 상암지점 375-2762 연서지점 383-3045 갈현지점 383-4471
수색지점 376-0315 홍제지점 732-2892 홍대역지점 337-6896 광흥창역지점 324-2031 연희지점 326-3961 / 하나로마트 서강점 3144-5253 서부마트 302-1125 신사마트 388-8925